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900-01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충남연구원장 강 현 수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1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3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	5
1) 과업의 범위 및 방법	5
2) 과업의 추진체계	8
3) 과업의 추진경위	9
제2장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과 정책	11
1.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	13
1) 지역문화의 개념	13
2) 영상문화의 개념	13
2.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17
1) 문화기본법	17
2) 지역문화진흥법	18
3) 영상진흥기본법	19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
3. 지역 영상문화 관련 추진정책	23
1) 지역 영상문화 관련 계획	23
2) 지자체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25
제3장 국내의 지역 영상문화 현황	29
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및 활동 현황	31
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31
2) 지역 영상문화의 다양성 활동	43
3) 지역 영상문화 관련 영화제	48
2. 국내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분포 현황	52

1)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2
2) 수도권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3
3) 지방 대도시의 영상문화 주요 시설 분포 현황	56
4) 지방 중소도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1
3.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69
1)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분석 방법	69
2) 인천광역시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다양성 활동의 협업	70
3) 대구광역시 :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 활동	77
4) 강원도 : 영상문화 소외지역의 자생적 시민 활동과 공공 활동	84
5) 전라북도 : 영상문화 유관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92
6)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충남 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 발족	99
7) 제주도 : 지역 영상문화 주체와 새로운 시도	106
제4장 해외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사례	115
1. 영국 :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117
2. 프랑스 : 문화 민주화에 입각한 영상영화 정책	133
3. 캐나다 : 자국 영상문화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159
4. 일본 : 영상문화의 유산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	179
5. 사례 종합 검토	195
제5장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방안	203
1.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	205
1) 지역 영상문화의 목표와 추진 전략	205
2)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	206
2.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전략별 세부 과제	207
1) 주체별 역할	207
2) 지원 강화 방안	208
3) 자생력 강화 방안	218
4) 협력 강화 방안	227
참고문헌	235

표 목 차

[표 1-1] 과업의 방법 및 내용	7
[표 2-1]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	13
[표 2-2]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기획	16
[표 2-3]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	17
[표 2-4]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18
[표 2-5]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19
[표 2-6]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20
[표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8) 내용	22
[표 2-8] 영화(영상) 정책의 주요 이슈	23
[표 2-9]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2018.2 기준)	25
[표 2-10]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2018.2 기준)	26
[표 2-1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2018.2 기준)	26
[표 2-12]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2018.2 기준)	27
[표 3-1] 영상위원회의 설립 현황(2018.2 기준)	32
[표 3-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현황(2018.2 기준)	34
[표 3-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현황(2018.2 기준)	36
[표 3-4]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40
[표 3-5]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42
[표 3-6]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44
[표 3-7] 독립영화협회 설립 현황(2018.2 기준)	46
[표 3-8] 국제영화제 개최 현황(2018.2 기준)	48
[표 3-9] 작은영화제 개최 현황(2018.2 기준)	50
[표 3-10] 인천지역의 공공상영관 현황(2017.12 기준)	74
[표 3-11] 생활밀착형 비상설 독립예술영화 상영관(공공상영관)(2017.12 기준)	74
[표 3-12]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역영상문화 관련 사업 개요	87
[표 3-13]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103
[표 3-14]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역영상문화 관련 사업 개요	108
[표 4-1] BFI의 자원 구성	118
[표 4-2] BFI의 2012~2017년 기부금 변동 추이	119
[표 4-3] BFI 2022 예산구성안	126
[표 4-4] 2018년 현재 필름 허브 및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이하 FHLO) 현황(2018년 기준)	129
[표 4-5] 2018년 프랑스 문화부 예산	135
[표 4-6] CNC 예산 추이(2016~2018년)	136

[표 4-7] 국가CNC·레지옹 3년간 협약 참여	140
[표 4-8] 2014~2015년 학기 참여 현황	145
[표 4-9] 2017년 국가CNC·레지옹·사데파르트망 협력협약 분담 예산	155
[표 4-10]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의 지출 개요	162
[표 4-11]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수익 구조(2015년)	175
[표 4-12]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공공 보조금 조달 내역	176
[표 4-13]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멤버십 운영	177
[표 4-14] 2018년 일본 문화청의 영화 및 미디어 관련 예산	181
[표 5-1] BFI 2022 예산구성안	208
[표 5-2] CNC 예산 추이(2016~2018년)	210
[표 5-3] 2018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211
[표 5-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216

그 림 목 차

[그림 1-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및 활동	4
[그림 1-2] 지역 영상문화의 공간적 범위	6
[그림 1-3] 과업의 추진체계	8
[그림 2-1]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14
[그림 2-2] 문화콘텐츠산업(영상산업)의 가치사슬	15
[그림 2-3]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년)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24
[그림_3-1] 영화 걷기왕 포스터	33
[그림_3-2] 영화 아이들 장면	33
[그림 3-3]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영상나눔버스	38
[그림 3-4]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	38
[그림 3-5] 서울아트시네마 수요단편극장	45
[그림 3-6]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	45
[그림 3-7] 부산독립영화협회의 활동	47
[그림 3-8] 전북독립영화협회의 활동	47
[그림 3-9] 부산국제영화제의 ACF 2018	49
[그림 3-10] 2018 전주국제영화제	49
[그림 3-11]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2017.2 기준)	52
[그림 3-12] 서울특별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3
[그림 3-13] 경기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4
[그림 3-14] 인천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5
[그림 3-15] 부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6
[그림 3-16] 대구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7
[그림 3-17] 대전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8
[그림 3-18] 광주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9
[그림 3-19] 울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0
[그림 3-20] 강원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1
[그림 3-21] 충청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2
[그림 3-22]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3
[그림 3-23]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4
[그림 3-24] 전라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5
[그림 3-25] 경상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6
[그림 3-26] 경상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7
[그림 3-27] 제주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68
[그림 3-28]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도출을 위한 접근 틀	69

[그림 3-29] 인천광역시의 남녀비율	70
[그림 3-30] 인천광역시의 유소년 인구 현황	70
[그림 3-31]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70
[그림 3-32] 인천광역시의 노년 인구 현황	70
[그림 3-33] 씨네인천 2016년 지원작 상영회(2017.03 영화공간 주안)	73
[그림 3-34] 별씨네와 영화 소란 상영회	74
[그림 3-35] 대구광역시의 남녀비율	77
[그림 3-36] 대구광역시의 유소년 인구 현황	77
[그림 3-37] 대구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77
[그림 3-38] 대구광역시의 노년 인구 현황	77
[그림 3-39] 오오극장의 운영 주체	79
[그림 3-40] 오오극장 내부와 삼삼다방	81
[그림 3-41] 2017 대구단편영화제의 전경	82
[그림 3-42] 강원도의 남녀비율	84
[그림 3-43] 강원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84
[그림 3-44] 강원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84
[그림 3-45] 강원도의 노년 인구 현황	84
[그림 3-46]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전경	90
[그림 3-47] 정동진영화제의 프로그램	90
[그림 3-48] 전라북도의 남녀비율	92
[그림 3-49] 전라북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92
[그림 3-50] 전라북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92
[그림 3-51] 전라북도의 노년 인구 현황	92
[그림 3-52] 전북지역의 영상문화 거버넌스 체계	94
[그림 3-53] 전북지역의 영상문화 주요기관의 역할 구분	95
[그림 3-54] 주민시네마 스쿨 및 시민영화프로그램 양성 과정	96
[그림 3-55]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남녀비율	99
[그림 3-56]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99
[그림 3-57]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99
[그림 3-58]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노년 인구 현황	99
[그림 3-59] 대전아트시네마 전경	100
[그림 3-60]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전경	102
[그림 3-61] 충청남도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104
[그림 3-62] 제주도의 남녀비율	106
[그림 3-63] 제주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106
[그림 3-64] 제주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106

[그림 3-65] 제주도의 노년 인구 현황	106
[그림 3-66]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의 프로그램	111
[그림 3-67] 「 감춰진 손톱자국 」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112
[그림 3-68] 「 바보들의 행진 」 상영 및 문학산 교수의 해설 관련 포스터	112
[그림 4-1] 2017년까지 구축된 9개 FAN 필름 허브	120
[그림 4-2] 2012~2017년 권역별 관객 수 증감 현황	121
[그림 4-3] 필름 클럽 수 및 참여 학생 증가율	122
[그림 4-4] BFI Player	123
[그림 4-5] BFI2022 재원 출처별 예산안 구성	127
[그림 4-6] 2014년 8월 BFI FAN 상영회(장소: 맨체스터 대학 내 조드렐뱅크 천문대) ·	128
[그림 4-7] 2017~2020년 프랑스 문화부 예산(산하기관 예산 제외)	135
[그림 4-8] 영역별 공공기관 투여 기부 변화(2012~2016년)	138
[그림 4-9] CNC 위원장(좌)과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의회 위원 등	143
[그림 4-10] 나의 첫 번째 영화제 2017년 심사위원	152
[그림 4-11] 부대행사 영화와 음악	152
[그림 4-12] ‘New Images Festival’폐막식	152
[그림 4-13] ‘Tout-Petits Cinema 2018’포스터	152
[그림 4-14] 지역 도서관에서의 원주민 영화 순회상영전 안내 포스터	164
[그림 4-15] 원주민 영화 제작의 선구자로 불리는 Alanis Obomsawin가 인디언 등	164
[그림 4-16] 콜린 로의 ‘포고섬의 아이들’(1967)	168
[그림 4-17] 포고섬 최초의 극장이 자리한 포고 아일랜드 인(Fogo Island Inn) 전경	168
[그림 4-18] 14~17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IFF 유스 필름 인텐시브’ 캠프 ..	170
[그림 4-19]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Film Fun 101’	170
[그림 4-20] ‘TIFF 어린이 국제 영화제’의 포스터	171
[그림 4-21] 청소년 영화제인 ‘TIFF New Wave 영화제’의 포스터	171
[그림 4-22] ‘TIFF Next Wave 24-Hour Film Challenge’에 참가한 도전자들	173
[그림 4-23] 2015~2016년에 활동한 TIFF Next Wave 위원회 멤버들	173
[그림 4-24]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재원 조달 구조	175
[그림 4-25] 유바리 스토브 파티	183
[그림 4-26]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에서 이루어지는 금요상영회	184
[그림 4-27] ‘그리운 야마가타’발굴 프로젝트 お祖父様の朝 (할아버지의 아침) 등	186
[그림 4-28] われらかくとう 激斗63日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 격투 63일) 스틸 이미지	186
[그림 4-29] 시네마테크 상영회 모습	188
[그림 4-30] 상영 전단지	188
[그림 4-31] 2015년 개최된 호시조라 상영회	188
[그림 4-32] 어린이 영상 워크숍 모습	189

[그림 4-33] 나라국제영화제와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190
[그림 4-34] 영화관 분포 비교(2002년과 2013년 기준)	191
[그림 4-35] 도요오카 극장 재생 과정	192
[그림 4-36] 니이가타현 시네원드 입구	193
[그림 4-37] 이용자들이 평가한 시네마테크의 사회문화적 효과	199
[그림 4-38] 참가자들이 평가한 토론토 국제 어린이 영화제의 사회문화적 효과	199
[그림 5-1]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목표별 추진전략	205
[그림 5-2]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 모형(안)	206
[그림 5-3] 주체별 역할	207
[그림 5-4]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관련 내용	213
[그림 5-5]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전경	214
[그림 5-6] 오오극장과 시네원도 전경	219
[그림 5-7] 메세나 분야별 지원현황	220
[그림 5-8] 지역사회에 의한 극장 재생 도요오카 극장	221
[그림 5-9] 새 문화정책준비단, 지역문화분권 현장토론회	222
[그림 5-10] BFI FAN 상영회와 필름클럽 수 및 학생 증가율(2012~2017년)	224
[그림 5-11] 충남문화시설의 입지분포, 서비스 공급량 추정결과, 공급적정성지수 평균값 분포	225
[그림 5-12]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	228
[그림 5-13]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마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등	231
[그림 5-14] NFB의 원주민 영화제작 사례 및 포고섬 e시네마 전경	233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과업의 목적

제3절 과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지역문화의 성장 분야로 영상문화에 관심 고조

- 세계의 각 도시들은 창조산업, 문화콘텐츠, 엔터테인먼트산업 등 성장을 위한 차세대 동력으로 문화산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짐(정지은·정인선, 2017)
-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문화 향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영상문화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기반의 강화로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영상 분야에서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대한 정책과 지원 근거가 강화되었으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세부 과제 및 사업안 등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미흡한 상황임

■ 영상문화 인프라 및 향유 기반의 지역불균형 심화

- 지역 영상문화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상산업 기반 강화, 지역의 소재를 활용한 영상콘텐츠 다양성과 창의성 확대, 지역민들의 영상 제작 및 향유 활동 지원을 통한 관객 개발과 영상문화 저변 확대 등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영상관련 산업과 인프라 및 향유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존재하기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2. 과업의 목적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방안 제시

- 본 연구에서는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및 추진 정책과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 및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영상진흥기본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과 추진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함
- 둘째, 국내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및 활동(기반시설, 다양성 활동, 영화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의 특성을 도출함. 또한 국내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해외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여,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셋째, 도출된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을 위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 및 권역별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함



[그림 1-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및 활동

3. 과업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과업의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16개 시·도의 지역 영상문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함¹⁾
- 또한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특징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6곳의 권역(인천, 대구, 강원, 전북, 대전·충남, 제주)을 거점화하여 환경차이 도출
 - 국내 지역 영상문화의 권역 도출은 각 지역별 영상문화 기반시설 및 활동(기반시설, 다양성 활동, 영화제)의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2차례 실시하여, 권역별 지역 영상문화의 특성을 최종 도출함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 국내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분포 현황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선행 자료 분석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보고서 등을 활용함

■ 내용적 범위

-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①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및 목적 제시 ②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및 추진 정책 ③ 지역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 및 활동(기반시설, 다양성 활동, 영화제) ④ 지역 영상문화 대표 권역 사례 및 지역별 환경차이 도출 ⑤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제안 등으로 구성됨

1) 세종특별자치시는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이 비교적 최근에 구축 중이기에 본 연구에서 공간적 범위로 제외함

■ 과업의 방법

-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자문회의, GIS 분석, 연심회 및 보고회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과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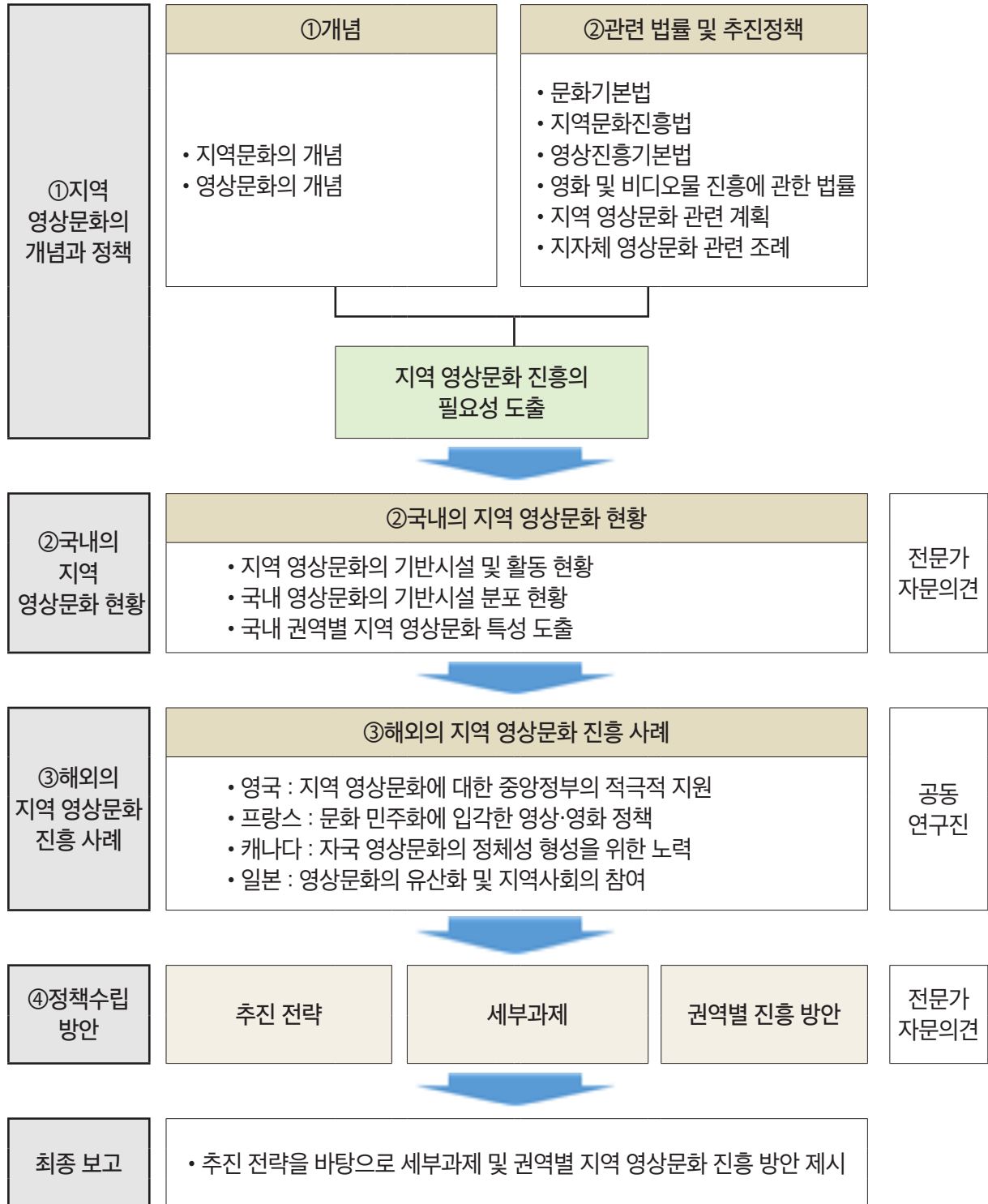
[표 1-1] 과업의 방법 및 내용

과업 방법	내용
문헌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 현황 관련 통계자료 및 회계자료 분석 •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및 추진 정책 분석
현장조사 및 심층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출된 지역 영상문화의 권역별 현장 방문 • 권역별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및 현장 전문가 대상 1:1 심층인터뷰 실시 • 권역별 지역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환경 차이 도출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도출에 참조할 수 있는 해외 영상문화정책(영국/프랑스/호주/일본)의 여건 및 사례 조사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관계자 및 학자 대상 자문회의 실시 •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 설정, 대표 권역 분석, 전략 및 과제 도출 관련 자문회의 및 브레인스토밍 실시
GIS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파악을 위한 GIS 분석 • 지역 영상문화 권역별 환경 차이 도출을 위한 GIS 분석
연심회 및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 보고회 진행 • 보고회 전 내부 착수연심회, 최종연심회 진행을 통한 보고서 사전 검수 • 연심회, 보고회를 통해 연구 내용을 최종 보완하여 완성도를 높임



2) 과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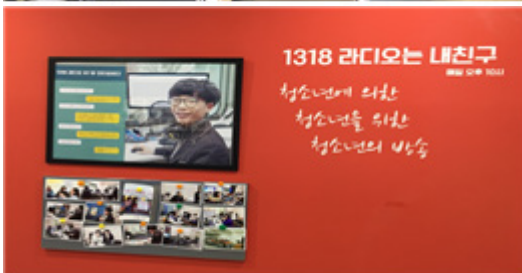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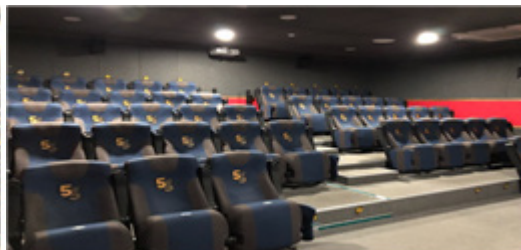
- 본 과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1-3] 과업의 추진체계

3) 과업의 추진경위

2017. 09. 18	과업 착수
2017. 10. 11	착수보고회
2017. 10. 24	연구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2017. 11. 16	대표 권역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2017. 11. 21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전북)
2017. 11. 28	대표 권역별 사례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2017. 12. 12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인천)
2017. 12. 13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대구)
2017. 12. 15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강원)
2018. 01. 17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2018. 02. 05	중간보고회
2018. 02. 07~09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제주)
2018. 02. 12~14	대표 권역별 사례 인터뷰조사(대전·충남)
2018. 03. 16	정책수립 방안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2018. 05. 28	최종 사업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
2018. 06. 19	최종보고회



제2장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과 정책

제1절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

제2절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제3절 지역 영상문화 관련 추진정책



제2장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과 정책

1. 지역 영상문화의 개념

1) 지역문화의 개념

- 지역이란 넓은 범위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대단위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지역은 한 나라 안의 소지역을 의미함
- 기술의 발전으로 지역과 국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는 지역을 기초로 하여 생활방식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지역 공동체로 변화하면서, 지역문화는 지역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의 근거법안이 되는 법률(2014.1.28. 법률 제 12354호)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2-1] 지역문화진흥법에서의 지역문화에 대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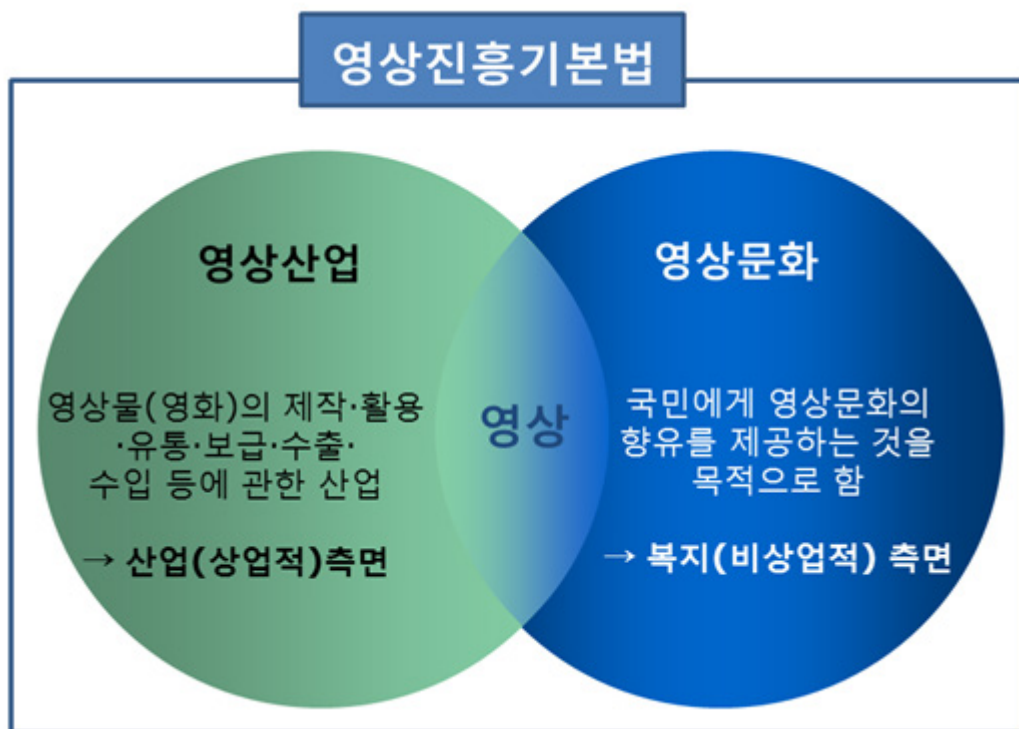
정의 (제2조)	①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

2) 영상문화의 개념²⁾

- 영상문화는 영상물을 매개로 하여 다양한 문화적 행위를 포함하는 사회적 행위의 총체적인 개념을 의미함. 정책에서의 영상문화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

2)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영상문화는 「영상진흥기본법」에서 법적 표현으로 처음 등장하였고,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영상산업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의미하며, 영상문화는 국민에게 영상문화의 향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그러나 「영상진흥기본법」에서는 영상문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화의 본질적 속성이 사회적 영향에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법률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그림 2-1]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 영상문화의 범위는 공공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정책 및 공공문화 사업의 영상(영화포함)과 관련 되어 있거나 또는 영상을 매개로 한 모든 행위를 포함함. 따라서 영상문화는 본질적 속성과 총체적 특징에 맞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영상 플랫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
-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내며, 영상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다변화된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영상산업과 영상문화는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영상(영화)은 초창기부터 산업적 영향력과 문화적 역할이 혼합되어 발전해옴. 따라서

두 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특히 영상문화 활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향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창작과 상영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함

- 문화콘텐츠산업의 가치사슬은 영상산업에 가까우며, 영상 관련 행위에 따라 '제작 형태', '배급 및 상영형태', '교육', '축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제작형태'는 극장상영, 텔레비전 방영 등을 목적으로 이미지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영상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제작되는 형태에 따라 극영화,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드라마, 보도영상, 뮤직비디오, 홍보영상물(CF), 비디오아트, 교육용영상,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 여기서 영상문화는 영상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비상업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포괄함



자료 : 고정민(2008),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주 : SO(System Operator)는 유선방송 사업자, PP(Program Provider)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의미함

[그림 2-2] 문화콘텐츠산업(영상산업)의 가치사슬



- ‘배급 및 상영형태’는 상업적 배급망을 통한 상업극장에서의 상영행위 및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비디오, DVD, IPTV를 통한 서비스 형태의 영상 산업을 의미함. 그러나 영상문화는 비영리적 상영행위 및 방영형태로 볼 수 있으며, ‘교육’은 영화 문해력 교육, 시민미디어 교육, 비영리적 전문영화 교육 등을 포함함. 마지막으로 ‘축제’는 지자체 주도의 영화제, 민간 주도의 작은 영화제를 포괄함
-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영상문화 범주는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상업적 영역의 ‘제작 형태’, ‘배급 및 상영형태’, ‘교육’, ‘축제’로 나눌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영상위원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지역 영상문화의 다양성 활동(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독립영화협회), 지역 영상문화 관련 영화제(국제영화제, 작은영화제)의 주요 현황 및 지역별 환경 차이를 도출하여, 향후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표 2-2] 정책 과정에서의 영상 정책 구획

구분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법 제도적 측면	영화 관련 법령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
행정조직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광역 시·도	시, 군, 구(광역시)
지원기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위원회/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재단 등	
실행주체 (행위자)	관련 협회, 단체	미디어센터/작은영화관/각종 영화제 조직/ 시네마테크/영상(영화)동호회/지역 독립영화단체 등	
예산	국고, 영화발전기금	지방비	
사업	영상 향유권 사업, 다양성 영화 지원 사업, 영상(영화)교육 사업 등	지역 영화(영상) 관련 사업	

자료 :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 지역 영상문화 관련 법률

1) 문화기본법

-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를 통한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문화의 법적 표현은 「문화기본법」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제3조(정의)에서 문화를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 또는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정의함
- 「문화기본법」은 총 1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또한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문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법으로는 「문화기본법」외에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법에서는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표 2-3] 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

구분	• 문화	• 문화적 표현	• 문화다양성
근거법	• 문화기본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정의	•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해지는 다양한 방식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
키워드 분석	• 문화예술 • 생활양식 • 가치체계, 전통, 신념 • 총체적 개념	•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 •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 •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방식의 다양성 • 집단과 사회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표현 •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의 다양성

자료 :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 지역문화진흥법

-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의 문화예술계는 지역문화 발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중앙정부 역시 지역문화의 자립적인 발전 및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근거로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
- 「지역문화진흥법」은 제7장과 제2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조에서는 ‘지역문화’를 법률로 정의함.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포괄함
-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제3조)에 근거한 책무(제4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해야 하고(제6조), 생활문화지원 및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제7조, 제8조)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해야 함. 또한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제3장)을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제10조), 지역문화실태조사(제11조)를 실시해야 하며,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 및 지원(제4장)과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제5장)이 가능하게 됨
-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영상문화를 포함하는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이 주목받기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함.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

[표 2-4]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p>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2조)</p>	<p>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②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비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단체 및 마을회관 ④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p>
---------------------------------	---

- 생활권에 근거한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이 문화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최근 일이 아니며, 1950년대부터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향토문화 및 문화교육 사업이 있어왔고,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6년에는 창의적인 시민 문화 활동을 강조하면서 ‘문화의 집’을 전국적으로 조성함

- 그러나 상대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이 엘리트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에 문화정책에서 생활권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단순한 습득 위주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룸. ‘문화의집’도입 이후 시민들의 적극성에 기반한 문화 참여를 주요한 가치로 삼는 새로운 방향이 시도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중앙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함
- 이후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권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제정되면서 생활문화가 문화정책의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름.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활문화시설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함

[표 2-5] 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38호, 2014.10.27, 제정)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봄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지역문화예술 창작공간	•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지역미디어시설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 및 신문, 잡지 등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3) 영상진흥기본법

-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 등을 규정한 법률로, 영상문화 창달 및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됨



- 「영상진흥기본법」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영상문화 창달에 관련하여 예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다른 하나는 영상산업진흥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해 다룸. 영상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제4조에서는 “국가는 영상물에 관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영상물 창작의 자유를 보장함
- 정부가 영상산업의 현대화와 안정적인 제작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함
-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부는 영상물 창작(제작)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문화의 주체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면서, 영상문화에 관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영상문화 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 영상물 창작과 제작진흥, 영상물제작기술 개발, 영상 전문 인력 양성, 국제교류 협력 증진의 확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함

[표 2-6] 영상진흥기본법에서의 정의 규정

정의 (제2조)	<p>①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p> <p>②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p>
-------------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³⁾

- 1962년 1월에 제정된 「영화법」은 영화를 독자적으로 첫 규정한 법률이었음. 약 35년간 시행되면서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1995년 「영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됨. 「영화진흥법」은 영화산업 중흥기로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영상문화가 중심이기보다 영화의 사업적 성장에 초점을 둔 제도적 장치마련이 중심이었음. 1995년 12월에 제정되어 2006년 4월에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국 영화 정책의 주요 변화를 규정함

3)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영비법」은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서 각각 구분하던 영화와 비디오의 관련 법제를 통합하고 뉴미디어 콘텐츠의 개념을 담고 있음
- 「영비법」은 영화와 비디오물이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규율 대상이 동일한 콘텐츠이지만, 「영화진흥법」과 「음비게법」에서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됨.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상물 이용이 디지털과 온라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비디오물의 개념을 확대하여 포함함
 - 제1차 개정 영비법(2007년) : 영화발전기금의 설치를 주 개정사유로 하고 있으며,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 영화와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해 ‘영화진흥금고’를 ‘영화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하고 운용하도록 함. 한미 FTA의 선결 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화발전기금을 확대하여 개정함(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 “스크린쿼터제”를 기존의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40%) 이상에서 5분의 1(20%) 이상으로 축소)
 - 제5차 개정 영비법(2008년) : 영화가 디지털 매체로 제작, 상영되는 현실을 규율하기 위하여 개정됨. ‘디지털 시네마’를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 영상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제8차 개정 영비법(2010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업자의 저작권재산권 및 「저작권법」의 제28조에서는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 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의무를 부과함. 또한 제39조에서는 “영화관 경영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 상영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 가입규정을 만들
- 2016년 8월 개정시행(유은혜 의원 대표발의)
 - 취지: 영화는 산업적 측면과 함께 국민들의 창의적 생각을 북돋우고, 공감을 통해 건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상문화적 측면도 매우 중요하므로, 그동안 영상산업 지원에 집중되었던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지역 영상문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한국 영상문화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기 위함



- 현행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지속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음
-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한편, 지역 주민·단체의 영상문화 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둬으로써 한국 영상문화 전반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 함

[표 2-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2016.8) 내용

제1조,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의 목적에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3조)
제14조, 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제14조) •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제25조)
제38조의2 제2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영비법」의 제28조의3에서는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28조의4에는 영상위원회가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지역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비법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정책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지역 영상문화 관련 추진정책

1) 지역 영상문화 관련 계획⁴⁾

- 영화(영상)정책은 현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기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진행하였고, 국내외 영화산업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 영화산업은 지속적 투자 환경 조성, 우수 영상인력 양성을 위한 치우개선,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디지털시네마 기술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2006년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을 수립함
- 이후 새로 제정된 「문화기본법(角.03.31)」, 「지역문화진흥법(角.07.2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1.19)」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창작자 중심의 기존 문화정책(문화예술, 문화산업)에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와 향유)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을 수립함
 -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은 ‘융성하는 영화산업, 세계로 향하는 한국영화’라는 비전 아래, ‘창작 역량 강화,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내수 한계 극복’의 3대 추진과제와 10대 핵심과제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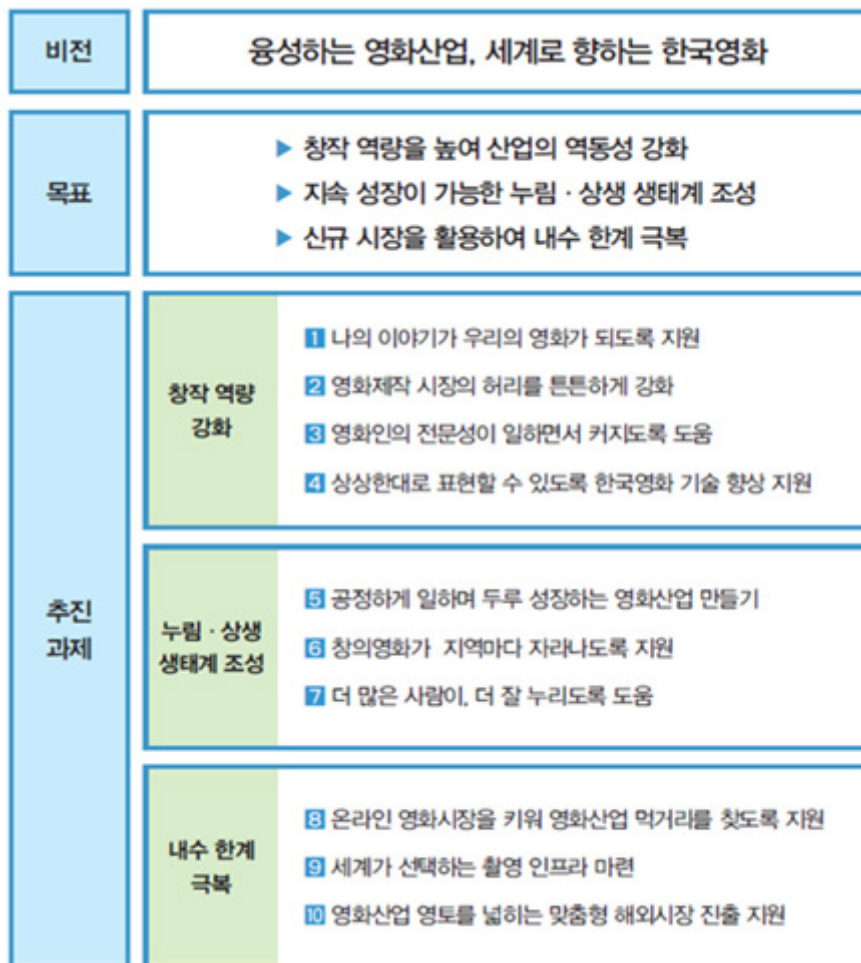
[표 2-8] 영화(영상) 정책의 주요 이슈

구 분	정책사업 분석 연구	
국민의정부 (1998-2003년)	핵심문화기조	• 창의적 문화 복지 국가
	주요이슈	•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00): 정책연구 기능 강화 및 영화아카데미 운영 개선, 한국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 등
참여정부 (2003-2008년)	핵심문화기조	• 자율, 참여, 분권의 문화 향유권 확대
	주요이슈	• 참여정부 한국영화진흥 기본계획(2003): 다양성을 중심에 둔 한국영화 제작·배급 활성화, 미래지향적인 영상인력 양성과 정책연구 기능강화, 영상 기술의 공공성 강화와 국제경쟁력확보 등 •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2007~2011):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한국 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지역 영상산업 균형발전 등

4)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이명박정부 (2008-2013년)	핵심문화기조	•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주요이슈	• 영화진흥사업 중장기계획(2011): 해외진출 및 부가시장 新르네상스 구현, 영화산업 생태계 혁신, 미래지향 인프라 구축, 책임경영 기반 구축
박근혜정부 (2014-2017년)	핵심문화기조	• 문화융성, 행복한 대한민국
	주요이슈	•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창작 역량을 높여 산업의 역동성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누림·상생 생태계 조성, 신규 시장을 활용하여 내수 한계 극복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6),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그림 2-3]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년)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2) 지자체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 지역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 및 지역문화를 발굴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됨
-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은 자치 법령(조례)에 의해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관련 조례들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추세임. 지자체의 조례 현황 분류 및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영상문화정책에 대한 의지와 척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문화 관련 각 조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1)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

-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영상 및 영화 관련 별도의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은 광역 지자체 10곳, 기초 지자체 7곳이며, 17곳에서는 영상산업 육성을 조례명에 표기하면서 「영상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영상문화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전라북도에서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가장 먼저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에도 광역 지자체 3곳, 기초 지자체 2곳에서 조례가 제정됨. 대체적으로 지자체 장의 영상진흥시책 수립 의무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으나, 구체적으로 영상산업 진흥 외에 영상문화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으로 다루고 있음

[표 2-9] 영상 및 영상산업 관련 진흥조례(2018.2 기준)

분 류	자치법규(제정일)
광역(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2007.02.02.) •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2008.01.09.) • 부산광역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2008.11.5.) •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2011.04.01.) •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2011.12.30.) •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2012.07.19.) •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16.05.26.) •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2017.03.13.) • 울산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2017.06.29.) • 대전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2017.12.29.)
기초(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2009.04.17.) • 고양시 방송영상통신산업 진흥 조례(2012.05.29.) • 정읍시 문화사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2013.09.25.) •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2014.04.29.) • 전주시 영상진흥 조례(2015.10.08.) •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2017.04.07.) • 영광군 영상산업 진흥 조례(2017.08.14.)



(2)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

- 영상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기초 지자체 3곳에서 이루어졌으며, 고훈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었으나, 2013년 7월 31일에 폐지됨

[표 2-10] 영상위원회 관련 조례(2018.2 기준)

분 류	자치법규(제정일)
기초(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안군 영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5.02.05.) •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1.05.06.)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6.03.09.)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

- 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한 기초 지자체에서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충청남도가 유일하게 미디어센터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이는 지역민에게 영상문화 상영 등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충남의 지역 홍보를 수행하는 미디어센터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음
- 재단법인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2015.08.0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7.09.27.)는 폐지됨

[표 2-1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2018.2 기준)

분 류	자치법규(제정일)
광역(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0.12.30.)
기초(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2.07.15.)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8.03.14.) •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8.11.07.) •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9.03.20.)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및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2009.05.27.) •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09.11.25.) •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1.09.30.) • 화천군 생태영상센터 및 물 주제공원 설치·운영조례(2011.11.25.) • 옥천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2.12.20.)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3.03.28.)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5.01.12.) •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2016.09.28.)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2016.11.02.) •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07.11.)

(4)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

-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는 2013년부터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초 지자체 20곳에서 제정되었으며, 작은영화관과 공공상영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음

[표 2-12]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2018.2 기준)

분 류	자치법규(제정일)
기초(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제시 지평선 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3.07.25.) • 부안군 마실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4.04.16.) • 장흥군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운영 관리 조례(2015.05.15.) •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2015.06.19.) •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08.17.) • 고흥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2015.09.30.) • 화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0.06.) •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30.) • 영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2016.01.08.) •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6.11.10.) •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2016.12.23.) • 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2017.04.13.) • 곡성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2017.07.17.) •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2017.09.08.) • 화순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2017.10.10.) • 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2017.10.17.) • 양구문예회관 및 작은 영화관 설치 운영 조례(2017.12.05.) • 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2017.12.15.) •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2017.12.20.) • 횡성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12.27.)

(5) 종합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영상(영화)을 문화콘텐츠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화(영상)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7년도에만 경기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 영상산업에 관한 육성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영상(영화)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많아지는 추세임
- 현재 10곳의 광역 지자체의 영상(영화) 관련 조례가 존재하며, 7곳의 광역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 영상문화의 주요한 기반시설인 영상위원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과 관련된 조례들이 주를 이루며, 특히 작은영화관 관련 조례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활성화되면서 현재 20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제정됨
- 대체로 지자체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는 시설 및 기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과 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적 조례는 지자체의 상황과 제도화로 인해 체계적이거나 일관된 추진 체계를 갖춘 경우가 드물고 지역적 편차가 존재함
- 따라서 향후 상위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영상문화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지자체의 조례 개선이 필요함

■ 시사점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큰 그림 안에서 영상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일성과 결부된 영상문화 환경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영상문화 정책 및 사업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도가 필요함
- 향후 지역 영상문화 관련 조례는 문화시설 중심의 획일적 내용을 탈피하고, 지역의 영상문화자원(인적자원 등)과 환경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지역 영상문화 조례의 수립이 필요함
- 시민의 문화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규정하는 「문화기본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역의 영상문화 조례 역시 영상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민 주체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어야 함
- 또한 획일화된 상업 영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아가, 지역의 콘텐츠를 담은 다양성 영상문화 활동 증진의 내용을 담아야 하며,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3장

국내의 지역 영상문화 현황

제1절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및 활동 현황

제2절 국내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제3절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제3장 국내의 지역 영상문화 현황

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및 활동 현황

1)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1) 영상위원회⁵⁾

■ 영상위원회의 운영 현황

- 영상위원회(Film Commission)는 “국내외 영화·영상물 제작·유통관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영화·영상산업, 문화 육성과 한국 영화산업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단체”를 의미함
 - 현재 영상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설립하여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정책 수립 및 영상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영화 및 드라마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지원 업무를 진행함. 또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고, 영상 관광을 도모함
 - 각 지자체 영상위원회의 사업 방향이 다르며, 영화제의 개최 및 영화문화예술 관련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지역민에게 영상문화산업의 향유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가짐
- 2010년도에는 광주영상위원회와 경북영상위원회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한국영상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영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
 - 지자체 영상위원회의 예산지원 형태는 출연금(경기영상위원회, 대전영상위원회, 충남영상위원회), 도비보조금(강원영상위원회), 위탁/민간경상보조(부산영상위원회, 청풍영상위원회, 서울영상위원회), 민간위탁(인천영상위원회), 민간단체법정운영비/민간경상사업보조금(전남영상위원회), 민간경상보조/민간위탁/민간자본보조금(전주영상위원회), 시보조금/민간위탁(청주영상위원회)으로 나뉨

5) 정진욱·외(2015), 『2014 영상위원회 사업 백서』, 한국영상위원회.



[표 3-1] 영상위원회의 설립 현황(2018.2 기준)

명칭	설립년도	주소
부산영상위원회	1999.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52지번
전주영상위원회	2001.0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원상림길 125-14
서울영상위원회	2001.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C동 114호
전남영상위원회	2003.04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번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층
제주영상위원회	2003.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대전영상위원회	2003.1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
청풍영상위원회	2005.04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영상미디어센터 2층
경기영상위원회	2005.1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번지 춘의테크노파크 II동 202동 9층
인천영상위원회	2006.04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68 필프라자 8층 영상미디어복합센터
한국영상위원회	2011.08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충남영상위원회	2015.0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1418) 5층
강원영상위원회	2017.03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1, KT빌딩 4층
청주영상위원회	2017.05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 영상위원회의 주요사업

- 영상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 ‘영상물 촬영 유치’, ‘지역 영상산업 육성’, ‘지역 영상문화 저변 확대’, ‘영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함
 - 경기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영화(영상물) 유치지원’, ‘경기도 31개 시·군 협조기관 로케이션 협력강화 워크숍’ 등을 진행함. ‘G-씨네 인센티브 지원’은 경기도 소재 영상제작서비스 업체 활용성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으로 도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 확보 및 도내 영상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운영되었고, 총 11개 작품, 9개 제작사, 45개 제작서비스 인센티브 지원이 이루어짐
 -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천영화 제작지원’, ‘인천 영상인력 지원’,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등을 진행함. ‘인천영화 제작지원’은 인천이 주요 소재이거나 인천에서 50%이상 촬영하는 순제작비 5억 원 미만의 장편영화에 최대 5천 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사업 결과 ‘견기왕(인디스토리 제작)’, ‘따뜻한 손길(푸른영상제작)’ 등이 제작됨

- 전주영상위원회에서는 ‘지역 영상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찾아가는 필름투어(씨네토크 콘서트)’, ‘전주 씨네 골든 마우스’, ‘촬영소 시민투어 사업’, ‘체험마을 사업’, ‘청소년 연기캠프’등을 진행함. ‘찾아가는 필름투어(씨네토크 콘서트)’는 전주와 완도 소재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화상영 등 문화 활동과 GV진행 및 영화관계자(감독, 배우)를 초청하여 시민들과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진행함
- 부산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부산국제필름커미션·영화산업박람회(BIFCOM)개최’, ‘아시안영상정책포럼’, ‘AFCNet(아시아 영상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 ‘한·아세안 협력사업단(FLY프로젝트)’등이 진행됨. ‘AFCNet(아시아 영상위원회 네트워크) 운영 지원’의 내용은 19개국 54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AFCNet 운영 지원 및 회원 간 정보교류 및 사업개발을 지원하고 연간 정기총회를 개최함



자료 : NAVER 영화 홈페이지, movie.naver.com.

[그림 3-1] 영화 건기왕 포스터



[그림 3-2] 영화 아이들 장면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현황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민들이 직접 영상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지역민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어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면서, 중앙정부 주도하에 2002년 처음으로 지역민의 미디어 접근권 및 창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였으며, 미디어센터의 사업 효과가 확인되면서 그 수요는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⁶⁾
- 2018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43개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운영되며 주체와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교육, 창작지원, 장비 및 공간대여, 영화·영상 상영, 방송참여 및 공동체 미디어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음

[표 3-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현황(2018.2 기준)

권역	명칭	주소
서울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2층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팩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9길 52 동북이세빌딩 3층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청소년미디어센터
	은평 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2로 111-51
	서울영상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길 2 본관 2층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 82 아리랑시네센터 4F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1 노블레스클래스 2F/3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충무로역 지하 1층 개찰구안쪽
인천	강화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비고개로 19번길 12 2,3층
	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 68 주안필프라자 7층
경기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부천시민미디어센터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6층
	성남미디어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수원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109번길 47
대전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6) 허경 외(2013),『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충남	서산영상미디어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공원2로 1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충북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4길 10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경남	경남MBC 시청자미디어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9길 11-11 창원MBC 7층
	김해영상미디어센터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
	양산영상미디어센터	경상남도 양산시 모래들길 57-57
	진주시민미디어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6-1 3층
경북	안동영상미디어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07 영상미디어센터
대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신천동102) 대구콘텐츠센터 12층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0 대구MBC 7층
울산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한사랑길 79 울산문화방송 별관 2층
부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광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46
전남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34 목포MBC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5
전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424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고사동 155-1)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전주문화방송 지하1층
강원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923-12 행복한 모루 4층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화천생태영상센터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로 1037
제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번지

자료 : 허경 외(2013),『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주체로 되어 있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총 19개소이며, 방송 문화진흥회에서 설립한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7개소임.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7개소이며, 영화진흥위원회가 설립한 곳 2개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가 설립한 곳 5개소, 민간이 2개소를 설립함
 - 방송문화진흥회가 운영하는 MBC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춘천, 대구, 경남, 울산, 전주, 목포, 서울에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발전 기금으로 건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부산, 광주, 대전, 인천, 춘천, 성북, 울산에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05년부터 설립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김해, 제주,



대구, 주안, 천안, 제천, 안동, 원주, 익산, 강릉, 부천, 고양 순천, 성남, 수원, 서천, 강화 광주동구, 합천이 있음(김미경, 2015)

[표 3-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현황(2018.2 기준)

설립주체	운영주체		센터명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19개소)	영상위원회 계열	(사)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
		(사)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사)청풍영상위원회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진흥원 계열	(재)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
		(재)충남문화산업진흥원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문화재단 계열	(재)강릉문화재단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김해문화재단	김해영상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성남미디어센터
	민간단체	(사)관악FM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사)삼동청소년회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사)원주민예총/원주시민영상협의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재)수원청소년육성재단	수원영상미디어센터
		남구학산문화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신흥학원 산학협력단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	강화미디어센터
	미정		서산영상미디어센터
농림부/지자체(1개소)	옥천군		옥천군영상미디어센터
환경부/지자체(1개소)	(사)관악FM		화천생태영상센터
방송통신위원회 (6개소)	(재)시청자미디어재단		춘천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방송문화진흥회 (5개소)	경남독립영화협회		경남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대구MBC		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목포대학교		목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울산MBC		울산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북대학교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영화진흥위원회 (2개소)	영화진흥위원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퍼블릭액세스실현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지자체 (7개소)	서울시	(사)서울영상위원회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강서구	강서구청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성북구	(재)성북문화재단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은평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은평 뉴타운 미디어라이브러리센터
	광주동구	(사)꿈과도전	동구영상미디어센터
	양산시	양산시	양산영상미디어센터
민간 (2개소)	(사)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어엑트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자료: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영상문화향유를 목표로, 미디어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영상정보시대의 새로운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 지역민에게 개인·공동체의 미디어 접근, 문화향유 및 창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영상기자재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며, 전문가에서 일반인까지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⁷⁾
- 지역의 미디어 문화 교육 및 제작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 도서관으로서 공공영상아카이브 운영과 전용상영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영상문화를 감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네마 테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지역 내 학교와 문화기반 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중심역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

-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미디어교육’, ‘장비·공간대여’, ‘상영회’, ‘시민의 자발적인 미디어참여활동 확대’, ‘지역 내 영상기반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을 꼽을 수 있음. 이 외에도 지역에서는 소외계층(노인·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영상, 라디오, 사진, 인터넷, 신문, 소셜 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주요하게 자리 잡은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다양한 미디어 활동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 교육 과정은 연령별, 미디어종류별, 장르별, 주제별, 수준별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특히 교육 후속 활동으로 이어지는 시청자방송참여(퍼블릭엑세스)

7) 위와 같음.



와 공동체라디오방송, 마을신문 등 시민의 자발적인 미디어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 미디어 콘텐츠의 생산 주체로 육성하고자 함

-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수도권 시민의 영상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시민 영상미디어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기술기반지원 사업’으로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공유 지원을 위해 공유형 표준웹을 개발함. 또한 ‘영상문화나눔버스 시네놀이’사업을 통해 전국 소외지역주민, 청소년 대상 영상문화 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⁸⁾
- 전주시민미디어센터는 생활밀착형 미디어교육을 목표로 공동체 라디오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안미디어로, 시민들이 직접 방송을 제작 및 진행하는 미니FM을 운영하여, 배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 외에도 독립영화 상영회를 개최해 지역민이 더 많이 다양성 영화를 보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⁹⁾
-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교육과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국내 미디어 교육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미디어로 소통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3-3] 서울영상미디어센터의 영상나눔버스



[그림 3-4] 전주시민미디어센터의 홈페이지

8)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seoul/main.do.

9)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0simi.org/Main.do.

(3) 작은영화관

■ 작은영화관의 운영 현황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연구’를 진행하였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특별교부세로 작은영화관 설립을 지원함¹⁰⁾. 작은영화관은 상업영화관과 차별화되는 공공상영관으로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건립 및 운영되고 있음
- 작은영화관은 전체 100석 내외의 총 2개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의미하며, 극장이 없는 지역의 인구 10만 명 이하 중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간 영화향유권 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 작은영화관은 공공 문화시설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람료, 매점, 광고 수익 등 자체 수익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음
- 2011년 개관한 전북 장수군의 ‘한누리시네마’개관이 성공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극장이 없는 곳에 작은영화관의 건립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¹¹⁾. 최근 작은영화관은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중 가장 활발히 건립되고 있으며, 2018년을 2월을 기준으로 건립 예정인 곳을 포함하여 약 59개의 작은영화관이 존재함

■ 작은영화관의 운영 주체

- 작은영화관의 운영주체는 민간 위탁운영(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단체 위탁운영, 지자체 직영 등의 형태로 구분됨
 -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 위탁운영은 인천 1곳, 강원 8곳, 경남 3곳, 경북 3곳, 전남 4곳, 전북 6곳, 충남 1곳, 충북 2곳 등이 있음
 - 고창 동리시네마, 완주 휴 시네마, 진도 아리랑시네마 등이 지역단체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자체 직영은 울주 알프스 시네마, 김제 지평선시네마, 고흥 작은영화관 등이 있음

10)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11)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표 3-4] 작은영화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권역(개소)	지역(명칭)	개관년도	주소
경기(4)	가평	2018 예정	미정
	여주	2018 예정	미정
	연천	2018 예정	미정
	포천	2018 예정	미정
인천(1)	강화 작은영화관	201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 19번길 12, 강화문예회관 2층
충남(5)	서천 기벌포영화관	201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45번길 30
	예산시네마	20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 160 예산시네마
	태안 작은영화관	2017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2
	금산시네마	2018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단로 91
	청양시네마	2018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1 문화체육센터 3층
충북(3)	영동레인보우 영화관	2017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2길 24
	옥천 향수시네마	201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08-15
	보은 작은영화관	2019 예정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75
경남(6)	남해 보물섬시네마	201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12
	합천시네마	201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남정길 76
	함안	2018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58-132
	고성	2019 예정	미정
	산청	2019 예정	미정
	하동	2019 예정	미정
경북(7)	고령 대가야시네마	2015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
	영양 작은영화관	2016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
	봉화	2018 예정	미정
	별빛영화관	2018	경상북도 영천시 시장2길 10 2층 202호
	울진	2018	울진읍 울진중앙로 울진군청 별관청사 1층
	의성	2018 예정	미정
	칠곡	2018 예정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울산(1)	울주 알프스시네마	201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알프스온천5길 103-8
전남(7)	장흥 정남진시네마	2015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3
	고흥 작은영화관	2016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
	곡성 작은영화관	201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1층
	완도 빙그레시네마	201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59번길 55,2층
	진도 아리랑시네마	201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 1길 6-11
	강진	2018 예정	미정
	화순시네마	2018 예정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중앙길 37-1

권역(개소)	지역(명칭)	개관년도	주소
전북(9)	장수 한누리시네마	2010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한누리전당 내 가람관 1층
	울망줄망 지평선시네마	2013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224-32
	임실 작은별영화관	2013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703 임실군민회관 지하1층
	고창 동리시네마	2014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판소리길20
	무주산골영화관	20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당산리, 무주예체문화관)
	부안 마실영화관	2014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예술회관길 11 1층
	완주휴시네마	2014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2015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83 (남계리, 작은영화관)
	진안 마이골 작은영화관	2015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대성길 3
강원(15)	화천 산천어시네마	2014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2길 25-10 서화산 다목적광장 2층
	홍천시네마	2014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중앙로 11-8
	영월시네마	201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관풍헌길 66
	화천 토마토 시네마	2015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수피령로 73 사내면 영화관
	HAPPY700 평창시네마	2015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 용평복지회관 2층 Happy700 평창시네마
	삼척 가람영화관	2016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 가람영화관
	철원 작은영화관 두루	2016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988-2
	화천 DMZ시네마	2016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영서로 7739 2층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2017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6길 10
	고한읍 작은영화관	2018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3-55
	양구 정중앙시네마	2018	강원 양구군 양구읍 비봉로73번길 52 -1 양구문예회관 2층
	고성	2019 예정	미정
	양양	2018 예정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인제하늘내린센터CGV	201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0
	횡성시네마	2018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3로 6
제주(1)	한수폴 작은 영화관	2018 예정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자료: 채지영(2017),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기본구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보완함



(4)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 지역문화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은 1999년 진행된 ‘클러스터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또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의 지역행복생활권 추진과제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권에 대한 정책수립이 요구됨
-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은 시민의 콘텐츠 향유권 제고 및 콘텐츠 산업의 저변 확장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함. 또한 시민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문화주체가 되어 다양한 콘텐츠 향유활동을 하도록 촉진시키는 역할을 함¹²⁾

[표 3-5] 지역콘텐츠 산업진흥 관련 기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권역	명칭	주소	영상문화 관련 사업 내용
인천	인천 정보산업진흥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	창의인재 양성 및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확산 및 시민 참여 사업
경기	경기 콘텐츠진흥원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18 춘의테크노파크	부천국제애니페스티벌 지원, G-씨네 인센티브 지원 사업
대전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광역시 유성구대덕대로 512번길 20	토요문화학교
충남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492-3	도시거점 문화 플랫폼 구축, 충남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충북	충북 지식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	디지털 콘텐츠분야 창의인재 양성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스토리텔러 양성, 초중고교문화 콘텐츠특성화 학교육성 지원 사업(2008~2009)
경남	경남 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	문화대장간 풀무운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경북	경북 문화콘텐츠진흥원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대구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04 아이씨티파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울산	울산 문화산업개발원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29	입체영상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스토리 창작 지원센터 사업
부산	부산 정보산업진흥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건전문화 조성 (정보문화센터, 게임과 몰입상담 치료센터 등)
광주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전남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지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학연관 협업체계 구축
전북	전북 디지털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2길 13	인터넷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 33	스마트콘텐츠전문가 양성
강원	강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326번길 4	도민 문화 향유 활성화 정책
제주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방송통신융합센터 활용사업

12)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 지역 영상문화의 다양성 활동

(1)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의 운영 현황

- 다양성 영화를 중심으로 상영하는 극장을 예술영화전용관이라고 하며, 이는 1995년 제정된 「영화진흥법」에서 예술영화관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¹³⁾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를 예술 및 산업으로 인식하여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예술영화관에 대한 지원정책¹⁴⁾을 수행하면서, 4차례의 걸친 수정으로 2002년부터 예술영화관의 지원제도 기반을 마련함. 제2기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기반 조성사업 중에서 아트플러스네트워크 사업으로 예술영화전용관을 지원하였음¹⁵⁾
 - 또한 영화진흥위원에서 예술영화 유통·배급 활성화와 관객의 다양한 문화향유 및 문화접근성 증진을 통한 저변 확대를 목표로, 예술영화유통배급지원,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및 설립지원, 시네마테크전용관 운영지원,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은 영화문화의 발전과 관객 육성 및 다양성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다양성영화 상영을 통해 다양한 작품에 대한 관객의 취향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하고, 다양한 영화제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은 서울이 19곳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4곳, 인천 3곳이 존재하면서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임. 대구와 부산 3곳, 대전과 경상북도 2곳, 경상남도, 강원도, 광주,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모두 각 1곳이 있음

13) 김미현 외(2004),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영화진흥위원회.

14) 「영화진흥법」에는 전용상영관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전용상영관은 특정한 분야의 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영화관을 말하며, 특정영화는 한국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소형·단편영화, 예술영화, 청소년 영화 등의 분야가 포함됨

15) 정인선 외(2007), 『다양성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표 3-6]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설립 현황(2018.2 기준)

권역(개소)	명칭	주소
서울 (19)	대안영상문화발전소 아이공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48-5 2층
	대한극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2
	더숲 아트시네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80 조광빌딩 B1
	문화학교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가길 59
	서울아트시네마&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내
	서울LGBT아카이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39-1 묘동빌딩 3층
	씨네코드 선재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길 87
	씨네큐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아트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89
	아트하우스 모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압구정 이봄씨어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0길 9
	종로 에무시네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1가길 7
	필름포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
	허리우드클래식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CGV 구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9길 124
	CGV 대학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명길 28
	CGV 상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CGV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0길 45
	KU 시네마테크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예술문화관
인천(3)	부평 대한극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영화공간 주안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1
	추억극장 미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382
경기(4)	성남 아트센터 미디어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안산 명화극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1
	파주 명필름 아트센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530-20
	파주 헤이리시네마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93-119
대전(2)	대전 아트시네마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92,
	시네마테크 대전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92
충남(1)	인디플러스 천안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충북(1)	청주씨네오딧세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96
강원(1)	강릉시네마테크(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2 4층
경남(1)	창원 씨네아트 리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 14길 24
경북(2)	안동 중앙시네마	경상북도 안동시 문화광장길 45
	포항 인디플러스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83
대구(3)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69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37(수동 1-6번지)
	동성아트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69
부산(3)	국도 예술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26
	영화의 전당 인디플러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아트씨어터 C+C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 71
광주(1)	광주시네마테크(광주극장)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62번지
전북(1)	시네필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4길 46
제주(1)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4길 3

자료 : 김영기·김선영(2013), 『지역극장 현황과 지원방안』, 영화진흥위원회.

■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의 주요 활동

- 시네마테크는 공공적 상영 기관으로, 예술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예술영화의 아카이브(archive) 구축과 영화교육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시네마테크의 활동 지역으로 서울·부산·대전·청주·광주·전주·대구·제주·강릉 등에서 고전영화나 감독기획전 형식으로 순회 상영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해외 예술영화들로 구성됨. 또한 대부분 필름 상영으로 이루어져 영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간에서 상영이 가능함
- 서울아트시네마에서는 7월에 ‘시네바캉스’ 서울을 개최하여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영화축제 활동을 하였고, 특별 기획전(예: 거장들의 회고전, 기획프로그램, 국가별영화제프로그램 등)과 정기상영회(예: 일본영화걸작 정기 무료 상영회, 수요단편극장 프로그램 등)가 진행되고 있음. 이 외에도 영화교육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토론하는 영화관 속 작은 학교, 영화사강좌, 영화 분석수업, 포럼 등이 개최됨¹⁶⁾
- 독립영화 상영관은 2007년 인디스페이스가 독립영화전용극장으로 개관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제작된 독립영화가 개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CGV의 인디영화관(2007년 10월 무비콜라주 브랜드 명칭변경)사업과 2007년 9월 KT&G의 상상마당 시네마가 개관하면서 독립영화의 안정적인 상영공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음.¹⁷⁾ 또한 배급, 제작, 유통의 환경 또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함



[그림 3-5] 서울아트시네마 수요단편극장



[그림 3-6]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

16)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서울아트시네마 홈페이지. www.cinematheque.seoul.kr.

17) 원승환 외(2012), 『독립영화 정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 독립영화협회

■ 독립영화협회의 운영현황

- 독립영화협회는 독립영화의 제작 및 상영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영상문화의 기틀을 세우고자 설립된 단체로, 타 지역 독립영화협회와 영화제의 지속적인 교류와 다양한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 현재 10개의 독립영화협회가 9개의 지역을 기반으로 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공동체상영, 시네마테크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독립·단편·예술영화 제작자들로 인원이 구성되어 있어 지역 내 영상 제작을 위한 네트워킹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표 3-7] 독립영화협회 설립 현황(2018.2 기준)

권역(개소)	명칭	설립년도
서울(2)	독립영화협의회	1990
	한국독립영화협회	1998
경남(1)	부산독립영화협회	1999
대구(1)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2000
전북(1)	전북독립영화협회	2000
대전(1)	대전독립영화협회	2001
강원(1)	춘천독립영화협회	2005
제주(1)	제주독립영화협회	2006
전남(1)	광주독립영화협회	2009
인천(1)	인천독립영화협회	2013

자료 :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독립영화협회의 주요활동

- 지역에서 제작된 독립영화를 상영하거나 타 지역 독립영화협회와 연대 네트워크를 통해 매년 각 지역의 독립영화제에서 상영프로그램을 공유하거나, 지역 내 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함
- 지역독립영화협회 네트워크포럼 : 지역 독립 영화협회 및 독립영화제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 사업 개발, 영화인교류, 지역 상영 교류 등이 이루어짐¹⁸⁾

18)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전북독립영화협회에서는 2000년 한국독립영화협회에 가입하였으며, 전북독립영화협회 영상사업단(JIFA CINEMA)에서는 전북단편영화제작스쿨, 옹기종기마실극장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며, 전북독립영화제와 시네마테크 시네필 전주도 운영하고 있음¹⁹⁾
- 부산독립영화협회는 1999년 부산 지역에서 독립영화의 제작, 배급 및 학술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모여 설립되었음. 대표적으로 ‘부산독립영화작가론’, ‘부산옵니버스 영화제작사업’, ‘부산독립영화제’사업을 운영하면서, 영화이론부터 실기까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²⁰⁾



자료 : 모퉁이극장 홈페이지. blog.naver.com/cornertheate.

[그림 3-7] 부산독립영화협회의 활동



자료 :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www.jifa.or.kr.

[그림 3-8] 전북독립영화협회의 활동

19)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www.jifa.or.kr.

20)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indipusan.or.kr.



3) 지역 영상문화 관련 영화제

(1) 국제영화제

■ 국제영화제의 운영 현황

- 국제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된 영화가 상영되면서 관객들에게 소개되고, 영화제 기간 동안 감독, 배우 등 영화관계자들이 초청된 가운데 영화인들의 교류 장이자, 영화 축제로서 역할하고 있음. 또한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양질의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영화 산업 발전을 통해 개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표 3-8] 국제영화제 개최 현황(2018.2 기준)

권역(개소)	명칭	개최년도	주소
서울 (14)	서울국제여성영화제	1997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35 3층 301호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1999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72
	인디다큐페스티벌	2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6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2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1번지 2층
	미장센단편영화제	2002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53
	아시아나 국제단편영화제	20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세종로대우빌딩 804호
	서울국제사랑영화제	2003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200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05-32 청파B/D 3층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2004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74 원천빌딩 6층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200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
	서울국제건축영화제	2009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200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38길 18
	마리끌레르영화제	20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6
	서울국제음식영화제	20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67
인천(1)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20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06번길 17
경기(5)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1997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1999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
	EBS국제다큐영화제	200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한국교육방송공사
	상록수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	2007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817
	DMZ국제다큐영화제	200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4층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
충북(1)	제천국제영화제	2005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1층
부산(3)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980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607호
	부산국제영화제	1996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비프힐 3층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2006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센텀벤처타운 606호
전북(1)	전주국제영화제	200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4길 46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bis.or.kr.

■ 국제영화제의 주요 활동

-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처음 개최된 이후 서울, 부천, 전주 등 각 지역에서 국제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를 꼽을 수 있음
 -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 개최되었고, 2018년에 23회를 맞이함. 대표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영화의 창’, ‘뉴 커런츠’, ‘한국영화파노라마’, ‘한국영화 회고전’, ‘월드시네마’, ‘와이드 앵글’ 등 약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비경쟁 영화제를 추구함²¹⁾
 - 1997년 처음 개최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여 매년 7월에 개최되며 2018년에 22회를 맞이함. 또한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EFFFF),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세계 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 판타스틱영화제로 인정받고 있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멤버 후원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에게 개·폐막식 리셉션 초대, 개막식, 폐막식 초대, 프리미엄 초대권 증정 등을 제공함²²⁾
 - 2000년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하면서, 2018년에 19회를 맞이함. 주류영화와는 다르게 동시대 영화예술의 대안적 흐름, 독립·예술영화 작품들을 소개하는 영화제로 비경쟁 형식으로 취하고 있음. 영화제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디지털 삼인삼색’, ‘쑈!쑈!쑈!’ 등 단편영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고, 국내 우수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개발, 지원을 위한 전주프로젝트마켓, 독립영화 판권 배급 사업을 통한 콘텐츠 유통, 전주 디지털독립영화관 등을 운영함²³⁾



[그림 3-9] 부산국제영화제의 ACF 2018



[그림 3-10] 2018 전주국제영화제

21)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

2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 www.bifan.kr.

23)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jiff.or.kr.



(2) 작은영화제

■ 작은영화제의 운영 현황

- 작은영화제는 시민들의 영화·영상과 관련한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화제를 의미하며, 지역민의 시민 영화·영상제작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킴. 하지만 주류 영화제보다 예산 및 공간·시설이 부족하고, 상영 영화 수급이 원활 하지 않아 영화제를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의 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작은영화제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 사업 예산 및 전문 인력, 공간 및 시설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작은영화제가 지역 사회 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함

[표 3-9] 작은영화제 개최 현황(2018.2 기준)

권역 (개소)	명칭	개최년도	주소
서울 (17)	서울독립영화제	19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옛길 65-6
	인디포럼	199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5길 11-3, 2층 인디포럼 사무국
	서울인권영화제	199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8안길 5-5
	서울퀴어영화제	19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안길 22
	청소년영상페스티벌	19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35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2001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한강대로 255
	서울환경영화제	200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3층 환경재단
	여성인권영화제	2006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6길 8-4 1층
	이주민영화제	20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35
	서울노인영화제	200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20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315-C
	서울프라이드영화제(SPFF)	2011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ART 1~2관
	99초힐링영화제	20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9-24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공감영화제	20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75 미디어카페 후 (동교마젤린21빌딩)
	메이킹필름영화제	2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41, 공유공간 나눔 4층
	한강이불영화제	20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한강공원
	서울무용영화제	2017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167, 아라빌딩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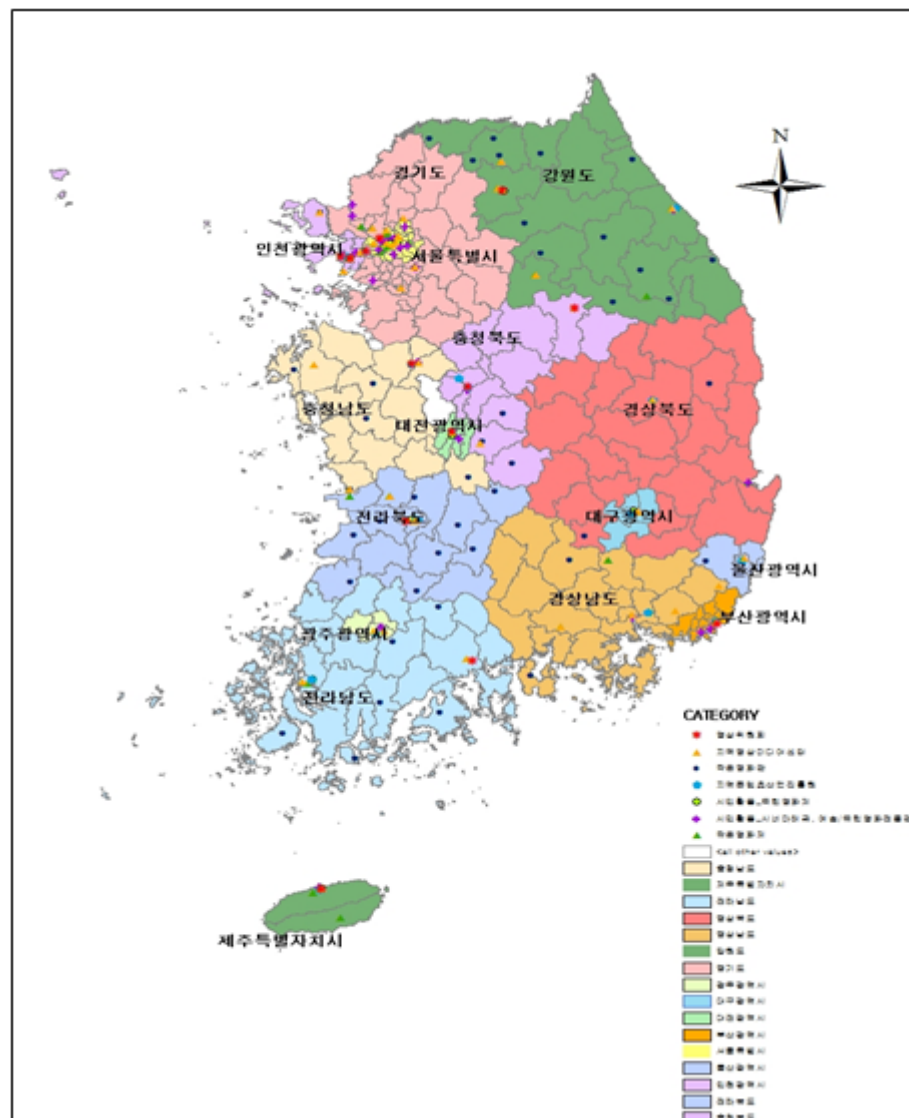
권역 (개소)	명칭	개최년도	주소
인천 (6)	인천인권영화제	1996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 영화공간주안
	인천여성영화제	2005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 영화공간주안
	주안유스필름페스티벌	2009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 메인프라자 영화공간 주안
	수봉도서관 장릉영화제	2013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18 하늘누리 (옥상)
	인천독립영화제	201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 영화공간주안
	인천청소년영화제	2013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716 영화공간주안
경기 (3)	고양여성영화제	2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고양GYMC 어울림영화관
	고양스마트영화제	20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14층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부천곰사리영화제	201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수도로 66번길 14
대전(1)	대전독립영화제	200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2번지 송림빌딩 201호
충남(1)	천안영화제	200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11
경남 (2)	진주갈은영화제	2005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6-1
	우포늪방방곡곡 마을영화제	2014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
경북(1)	포항맑은단편영화제	201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83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대구(1)	대구단편영화제	2000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으로 537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전남 (3)	광주여성영화제	2010	전라남도 광주 동구 제봉로 96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2013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5(행동), 2층
	목포인권영화제	2012	전라남도 목포시 용해동 산 86-24
전북 (11)	전주인권영화제	199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카톨릭센터 2층 인권상담실
	전북여성영화제	1999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군산정신건강영화제	20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308
	전북독립영화제	20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 4길 46
	전북청소년영화제	200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3길 22
	익산여성영화제	2009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424
	익산장애인영화제	2009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424
	무주산골영화제	201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1길 50 전주MBC 2F
	숨리아이쿵 작은영화제	2014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424
	익산다큐영화제	2014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424
	너멍굴영화제	201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1길 50
강원 (5)	원주인권영화제	1996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강릉장애인 인권영화제	2007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923-12
	원주다큐페스티벌	2011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원주여성영화제	2012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139
	추억영화제	2015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제주 (5)	제주여성영화제	19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8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19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화제	20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 4길 11, 용문빌딩 403호
	제주프랑스영화제	2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8
	보물섬모닥불영화제	201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 중앙로 108-17

자료 : 홍교훈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 국내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분포 현황

1)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전국을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과 지방 대도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지방 중소도시(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도)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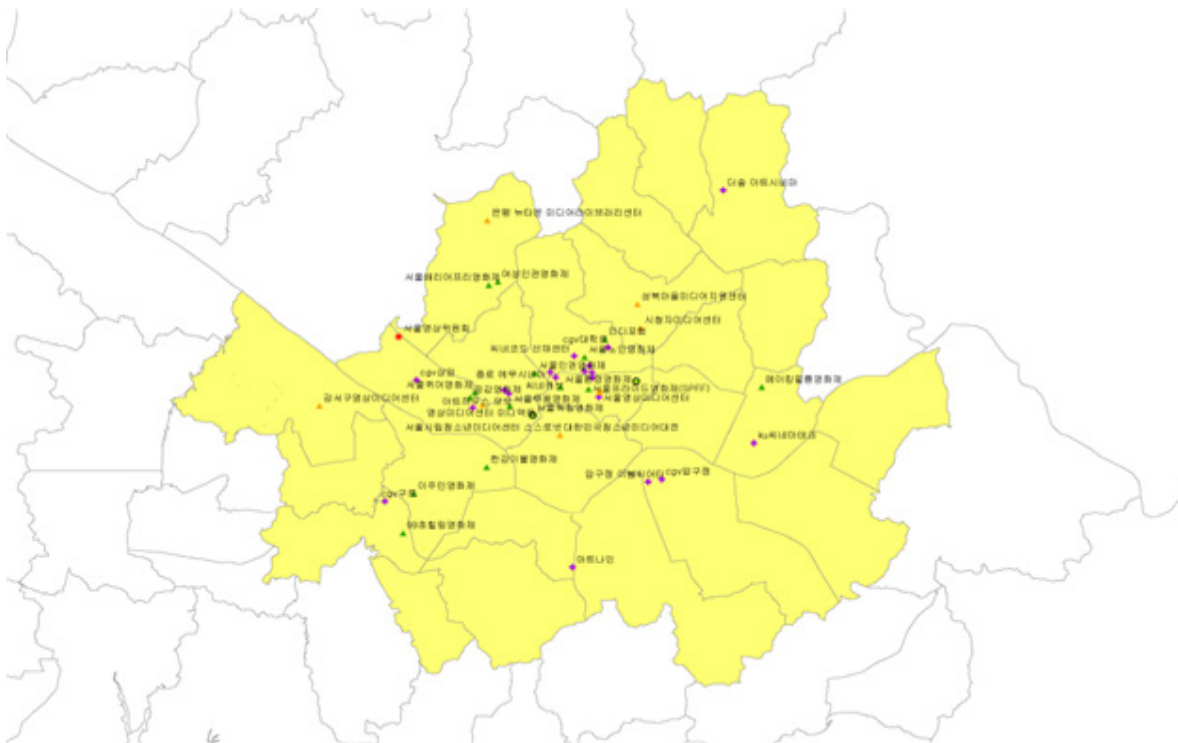


[그림 3-11]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2017.2 기준)

2) 수도권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1) 서울특별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서울시에에는 대부분의 방송사와 영상제작사들이 위치하고 있어, 영상물제작 기획과 편성, 소비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콘텐츠 창작역량 제고, 문화산업 지원 확대, 해외작품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서울 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서울시에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7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독립영화협회 2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9곳, 국제영화제 14곳, 작은영화제 17곳이 존재함
- 영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서울영상위원회’와 ‘충무로영상센터 오! 재미동’의 운영과 해외영상물 서울 로케이션 유치, 영화감독 창작 공간 지원, 프로듀서 창작 공간 지원, 독립영화 제작 지원, 서울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좋은 영화감상회 및 청계천 관수교 영화광장 등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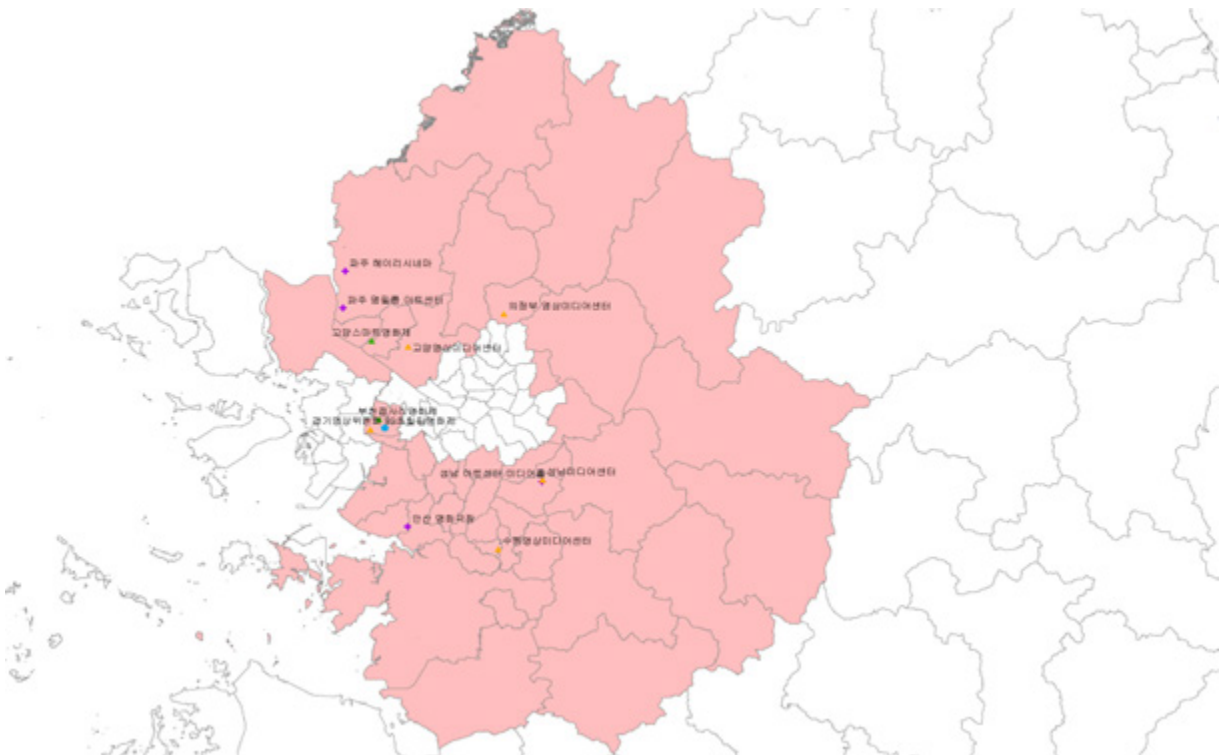


[그림 3-12] 서울특별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 경기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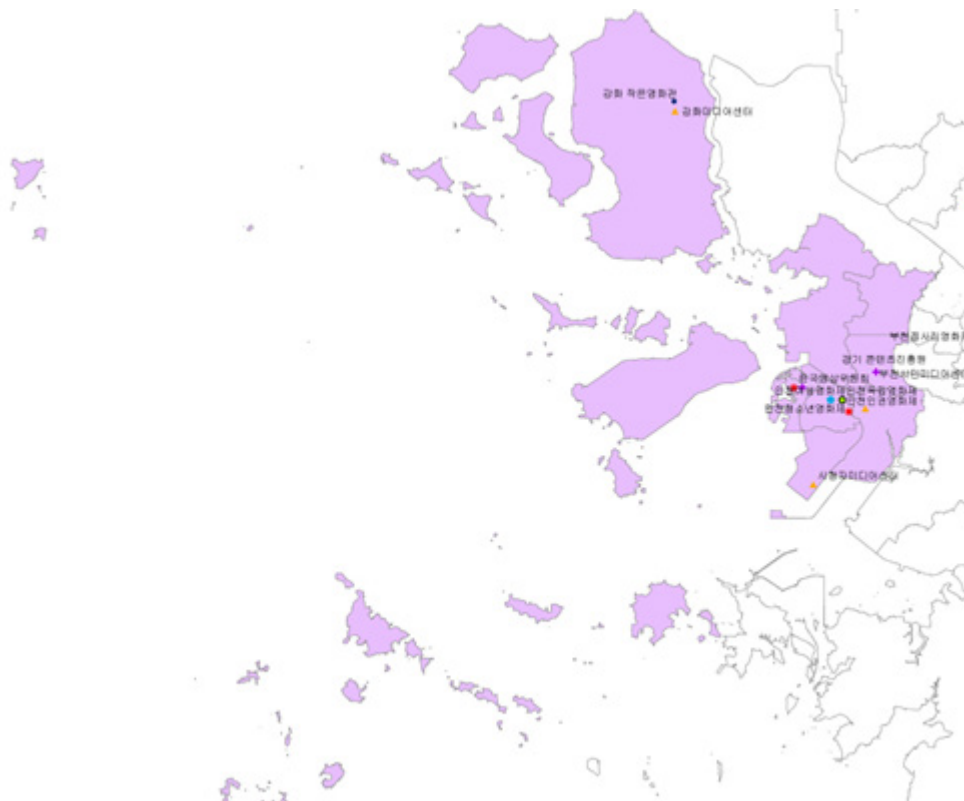
- 경기도는 2009년에 콘텐츠진흥과를 설치하여 문화콘텐츠 산업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문화산업 지역을 조성하고, 집중적인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경기도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5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4곳(건립예정),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4곳, 국제영화제 5곳, 작은영화제 3곳이 존재함
- 경기도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마케팅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집적지로 부천의 첨단문화산업단지, 광명의 첨단 음악 산업단지, 파주와 수원의 게임 산업단지, 파주의 출판문화단지, 성남의 디자인 거점도시 및 광주의 곤지암 문화시설 단지 등이 있음



[그림 3-13] 경기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인천시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 최신식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섬, 염전 등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을 가짐. 또한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어 일제 시대 풍의 건물과 아직 개발되지 않은 판자촌, 차이나타운 등의 다양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인천시에는 영상위원회 2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3곳, 국제영화제 1곳, 작은영화제 6곳이 존재함
 - 인천시의 영상문화 향유 및 제작 기반시설에 대한 지역민의 이용은 열악한 상황으로, 인천에서 서울이 멀지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민이 서울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시에 있는 영화 및 영상 관련 대학교는 인하대학교의 연극영화학과, 시립인천전문대의 연기예술과, 인천재능대의 사진영상학과로, 3개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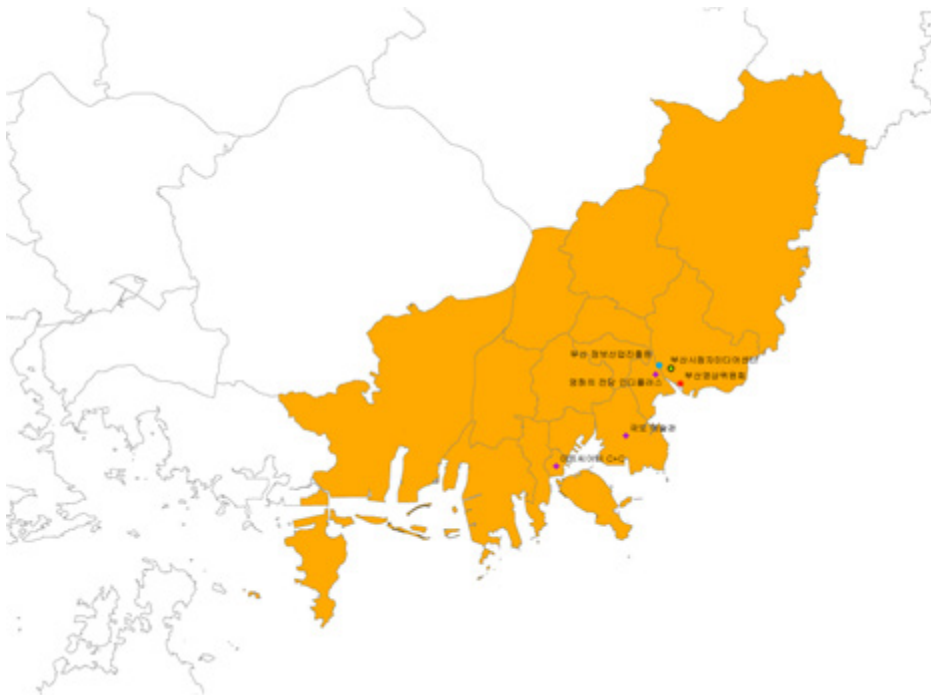
[그림 3-14] 인천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 지방 대도시의 영상문화 주요 시설 분포 현황

(1) 부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부산시는 영상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아시아 영화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부산영상위원회의 촬영로케이션, 영화후반작업, 필름마켓, 영화기획, 투자 등 영상관련 산업이 부산의 성장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²⁴⁾
- 부산시에는 영상위원회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3곳, 국제영화제 3곳이 존재함
- 부산시는 수도권 다음으로 영화·영상관련 기관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부산국제영화제(1996년 개최), 부산영화영상산업협회(2008년 설립), 부산독립영화협회(1990년 설립), 부산영상애니메이션포럼(2005년), 부산정보산업 진흥원(1997년 설립), 영화진흥위원회가 2013년 부산으로 이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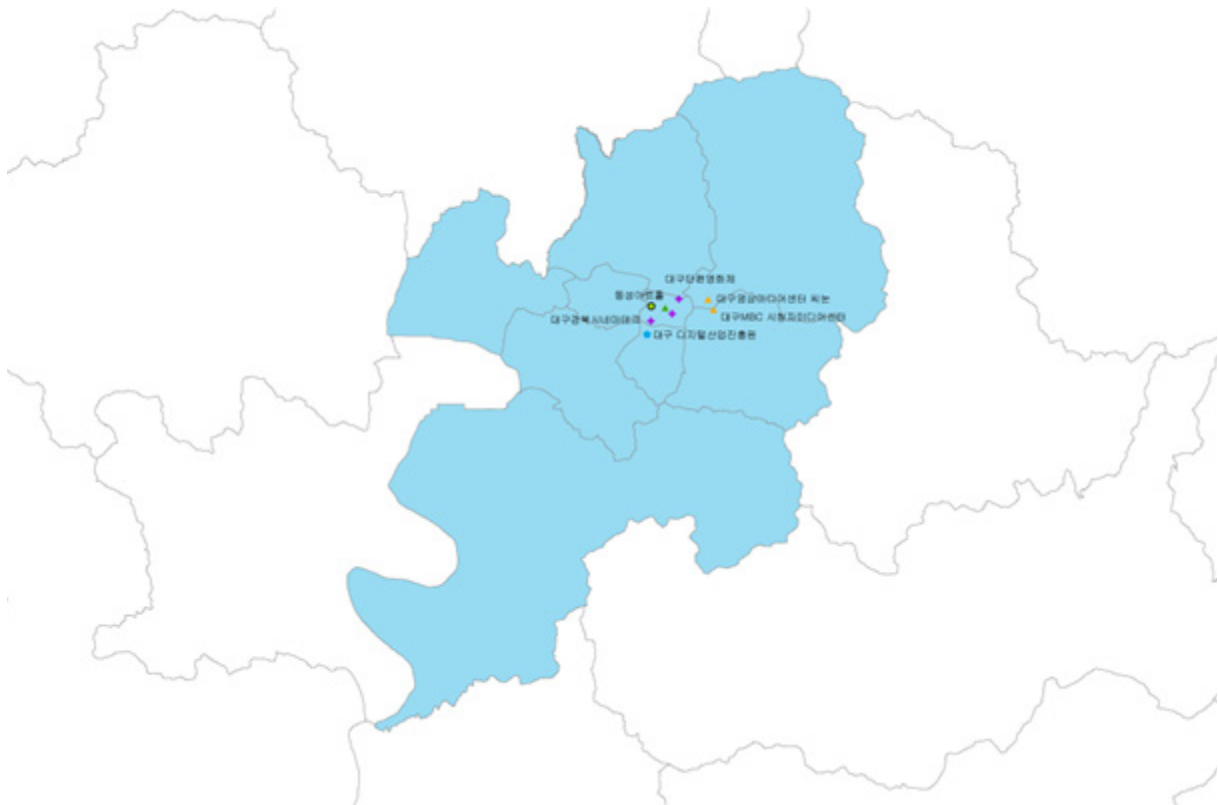


[그림 3-15] 부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4) 우석봉·박상필(2012), 『영상클러스터 조성 및 융·복합화 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2) 대구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대구시는 게임 및 모바일 콘텐츠를 중심으로 융합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증진하고 있음. 특히 IT 및 모바일 산업 등 연관 산업과 인력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문화산업클러스터를 계명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일원에 조성하고 방송, IPTV, 모바일 등 융합미디어 산업 입주 공간을 마련함²⁵⁾
- 대구시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3곳, 작은영화제 1곳이 존재함
- 동성아트홀은 2014년도 재정적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폐관하였다가, 2017년도 재개관하여 약 25년 동안 운영되면서, 대구의 유일한 예술영화관으로 역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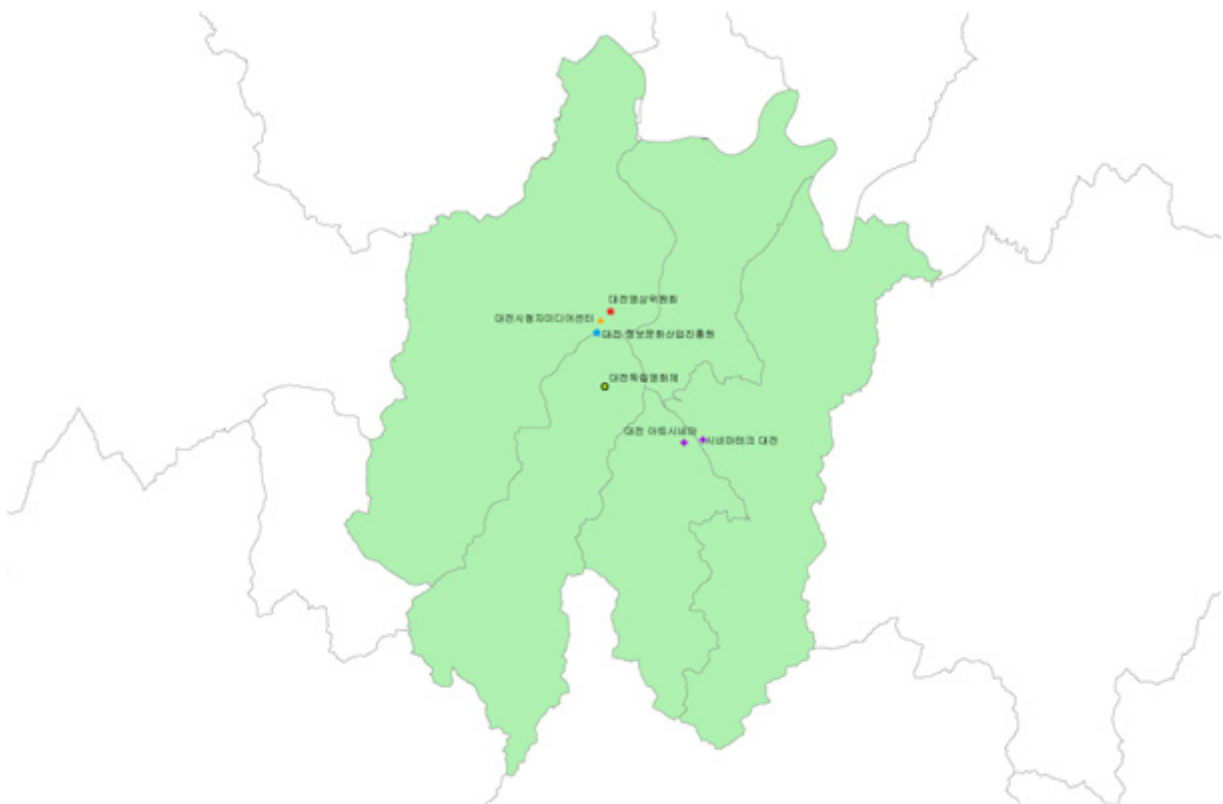
[그림 3-16] 대구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5) 금성근·오재환(2011),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연구』, 부산발전연구원.



(3) 대전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대전시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사업팀과 대전영상위원에서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의 여러 방향을 지원 및 운영하고 있음. 또한 대덕연구단지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산업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특수효과 타운을 운영함. 이는 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대전시에는 영상위원회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2곳, 작은영화제 1곳이 존재함
- 2018년 20회를 맞이한 대전독립영화제는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유일한 독립영화제로, 주최 및 주관은 대전독립영화협회가 하고 있음. 1999년 ‘참교육영상집단’ 주최와 대전독립영화협회 준비 모임인들의 참여로 시작한 ‘대전청소년영화제’가 시발점이 됨²⁶⁾



[그림 3-17] 대전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6) 대전독립영화제 홈페이지. www.difv.co.kr.

(4) 광주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광주시는 기존 광산업 외에 대표산업의 부재로 문화콘텐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성장하는데 필요한 연관사업 분야가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지역의 문화적 잠재력과 광주 문화수도 조성을 활용하여 영상,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모바일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음²⁷⁾
- 광주시에는 영상미디어센터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이 존재하며, 광주영상위원회가 2003년 10월 설립되었지만, 2010년에 폐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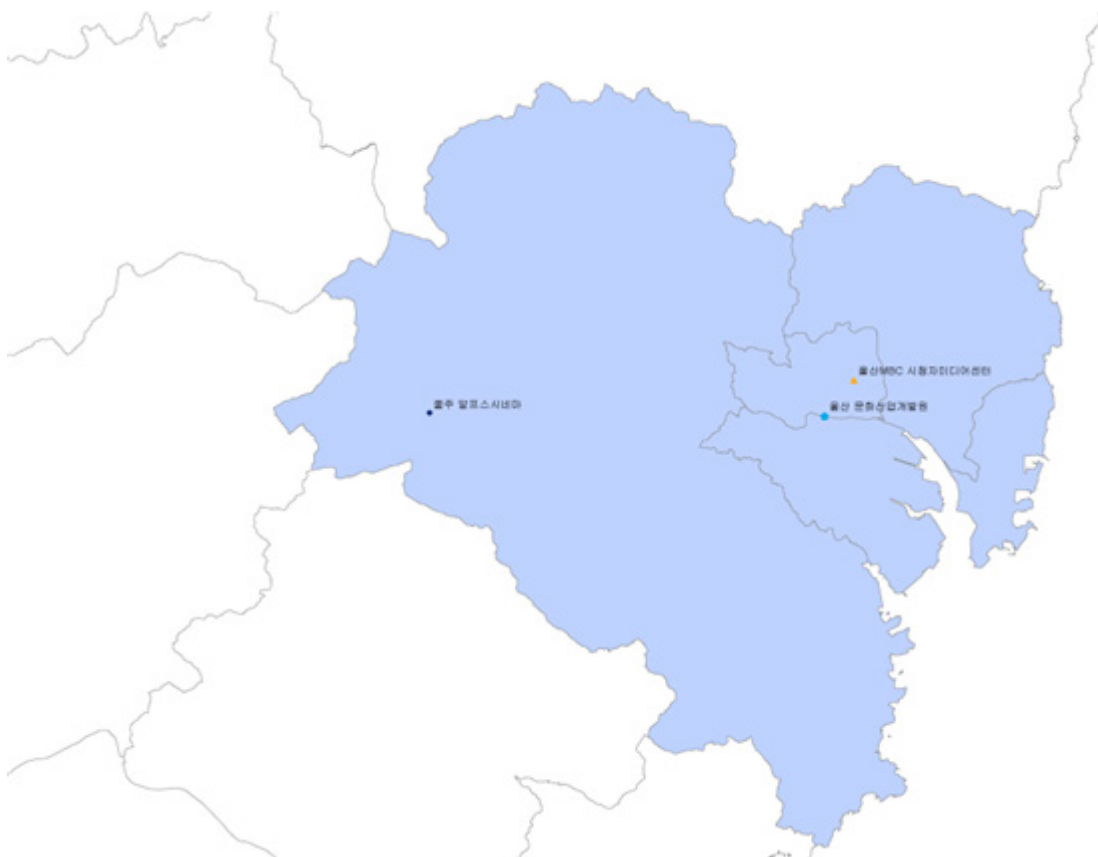
[그림 3-18] 광주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7) 금성근·오재환(2011),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연구』, 부산발전연구원.



(5) 울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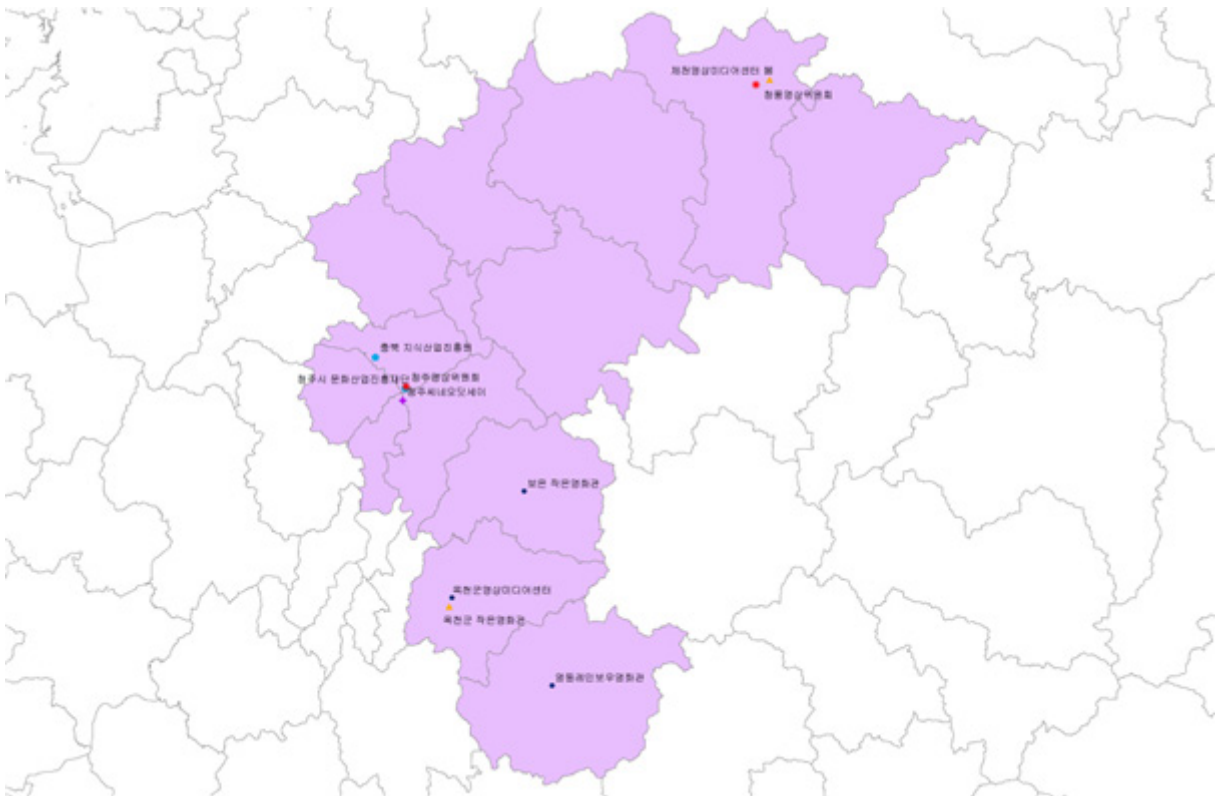
- 울산시는 공업도시로서 주요 역할을 해왔으며, 지리적으로 영남알프스와 동해, 그리고 태화강을 품고 있음. 아직 활용되지 않은 문화콘텐츠의 원형들이 산재해 있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 있음
 - 울산시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1곳이 존재하면서,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울주 알프스시네마 내에서 개최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2018년에 3회를 맞이한 영화제로, 20여 개국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며, 야외인 산에서 열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영화제임



[그림 3-19] 울산광역시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 충청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충북의 제천시는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며, 월악산 국립공원과 청풍호가 어우러져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하여 세트장 시설이 발달함²⁸⁾. 청풍영상위원회에서 2008년 제천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충북에는 영상위원회 2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2곳, 작은영화관 3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국제영화제 1곳이 존재함
 - 2005년 처음 개최된 제천국제영화제는 현재 국내외 다양한 음악영화를 국내 관객에게 가장 먼저 소개하는 창구가 되며, 전 상영작이 음악영화로 구성되어 있고, 청풍호를 배경으로 음악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그림 3-21] 충청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8) 곽태형(2006), 『한국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위원회의 역할연구 : 청풍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충남은 행정도시의 이전으로 교통 및 교류 중심지로서 입지적 위치가 유리하여, 주요도시와 접근성을 활용한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함. 특히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문화산업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음
- 충남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5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작은영화제 1곳이 존재함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의 문화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남문화산업발전위원회, 충남영상위원회,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보유한 문화콘텐츠의 특성을 살려 권역별로 특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 충남에는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은 14곳이며, 특히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²⁹⁾



[그림 3-22]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29)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4)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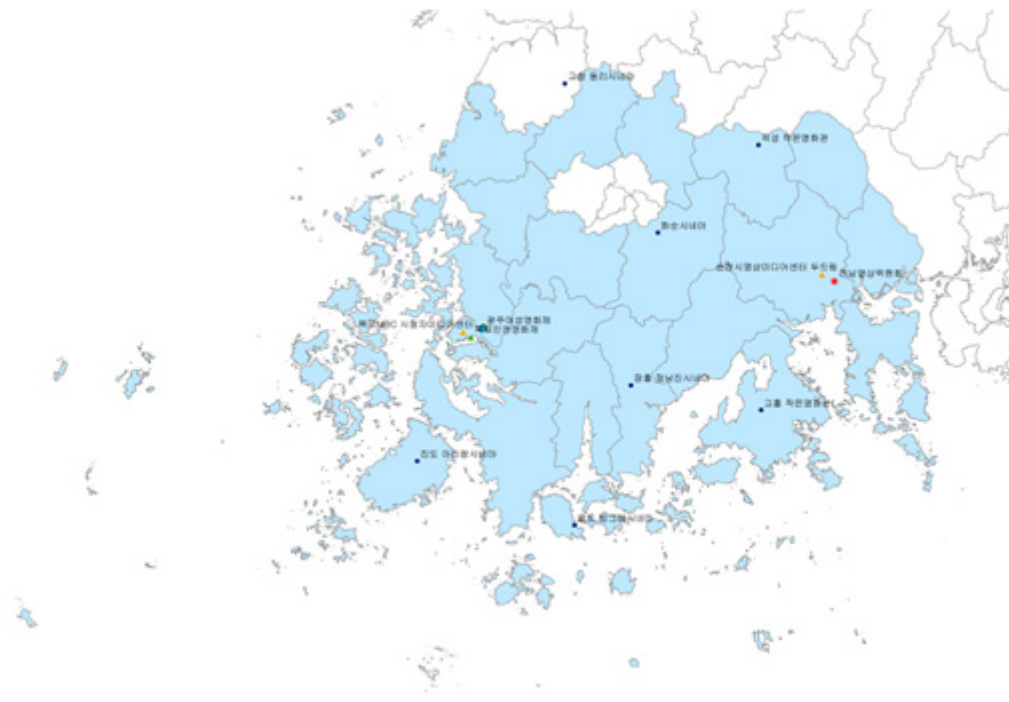
- 전북은 전주국제영화제 개최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영화제작 중심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실행 중임.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 체계적인 인력양성과 공공기관 시설 및 기자재 공유화, 제작과 교육의 인프라 통합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의 발전을 이루고자 함
- 전북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2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 콘텐츠산업진흥원 2곳, 작은영화관 9곳, 독립영화협회 1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국제영화제 1곳, 작은영화제 11곳이 있으며, 비교적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이 존재함
- 전북의 장수군에 처음 ‘한누리시네마’라는 이름으로 기존 문화시설인 한누리전당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2010년 11월 첫 작은영화관이 탄생함. 첫 해는 적자였지만, 그 다음해부터 흑자로 전환하면서 2012년에는 극장을 찾은 관객이 3만 2천명이 되었고, 이는 장수군 전체 인구 2만 3천명 보다 많은 관람객이 방문한 수치임. 이후 작은영화관의 확산에 기여함



[그림 3-23]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5) 전라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호남지역 미디어센터 직원 및 강사의 실무능력 향상과 센터 간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해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 동구영상미디어센터, 목포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전주 MBC시청자미디어센터,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익산 공공 영상미디어센터의 7개 미디어센터 기관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함³⁰⁾
- 전남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 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7곳, 독립영화협회 1곳, 작은영화제 2곳이 존재함
- 전남영상위원회는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동부 3개시가 협의하여 2003년에 설립됨³¹⁾.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영화보기 프로젝트, 스쿨영화제, 인도영화축제 등 영상 관련 사업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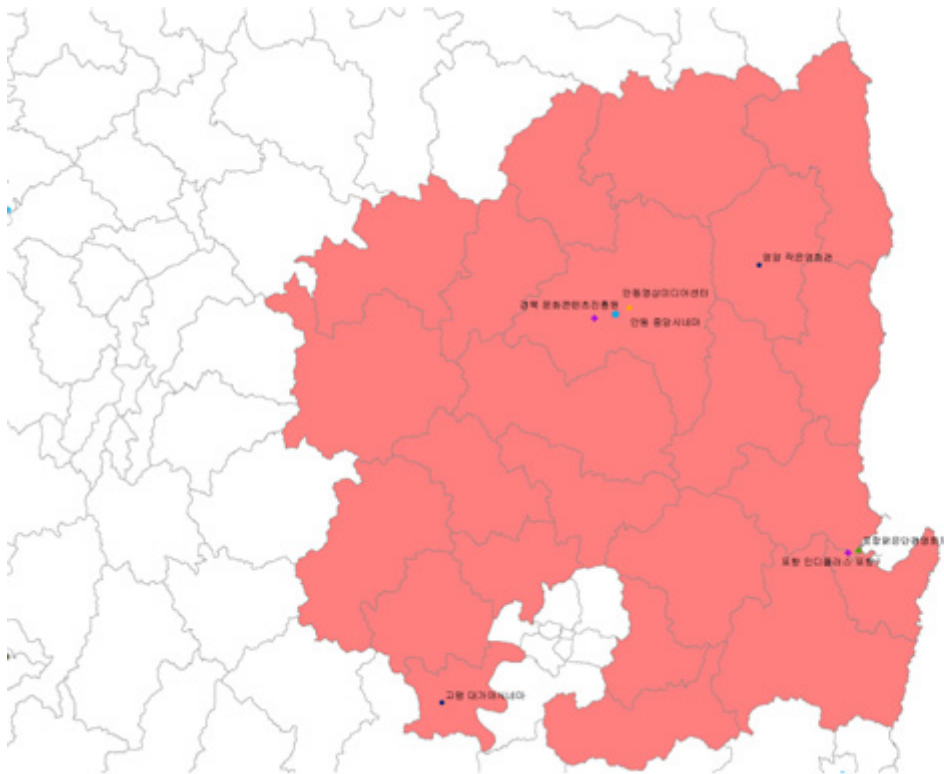
[그림 3-24] 전라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0) 광주드림 (2017.11.08).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주간행사 '미디어별곡'.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code_M=2&mode=view&uid=483722에서 2018.06.08. 인출

31) 곽태형(2006), 『한국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위원회의 역할연구 : 청풍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경상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경북은 대규모 산업도시로서 젊은 층과 경제참여인구가 많고,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은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적은 편임
 - 경북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7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2곳, 작은영화제 1곳이 존재함
 - 2006년 경북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면서, 영화, 드라마, CF,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로케이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함. 그러나 2010년 지자체 예산이 중단되면서, 경북영상위원회의 기능이 중단된 상태임
- 2017년 설립된 독립영화관 인디플러스 포항은 포항시립중앙아트홀에 위치하고, 포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독립영화와 인디영화를 오후 2편, 저녁 1편, 총 3회 상영하고 있음³²⁾



[그림 3-25] 경상북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2) 포항문화재단(독립영화전용관) 홈페이지, www.phcf.or.kr/kr/sub.do?MENU_SEQ=10253&PAGE_SEQ=10273&LANG=ko_KR.

(7) 경상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경남은 가야문화권 대표도시로, 가야사복원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경남에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곳, 시청자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2곳, 작은영화관 6곳,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작은영화제 2곳이 존재함
- 진주시민미디어센터는 다양성 영화를 안정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2008년 진주독립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주시민미디어센터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현재 100석 규모의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씨네를 운영하고 있음
- 김해문화의 전당 내 김해영상미디어센터의 시청각실에서는 해설이 있는 수요영화의 밤, 토요가족시네마 등을 진행함³³⁾



[그림 3-26] 경상남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3) 김해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media.gasc.or.kr.



(8) 제주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 제주도는 풍부한 자연조건과 지리적 특성을 가져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 손꼽히며, 관광산업, 영상산업 등 국제 자유도시로 거듭나고 있음. 또한 관광시설 및 자연환경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지자체의 지원으로 2003년 12월 제주영상위원회를 설립함
 - 제주도에는 영상위원회 1곳, 지역영상미디어센터 1곳, 지역콘텐츠산업진흥원 1곳, 작은영화관 1곳(건립예정),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 전용관 1곳, 작은영화제 5곳이 존재함
 -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제주영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상제작교육, 마을미디어 스토리텔링 교육사업, 영상미디어캠프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함. 현재 제주영상위원회와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에 통합됨



[그림 3-27] 제주도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3.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1)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분석 방법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별 영상문화의 현황은 각각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국내의 대표 권역을 도출하여 각 권역별 영상문화의 여건 및 현황을 분석하여 환경차이를 도출하고자 함
- 전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 분포 현황, 선행 자료 분석 등 1차 문헌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 영상문화의 특징적인 권역 도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최종 6곳(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제주도)을 도출하였고, 이와 관련된 접근 틀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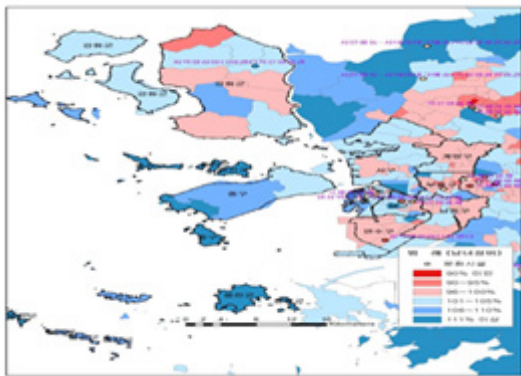
[그림 3-28] 국내 권역별 영상문화 특성 도출을 위한 접근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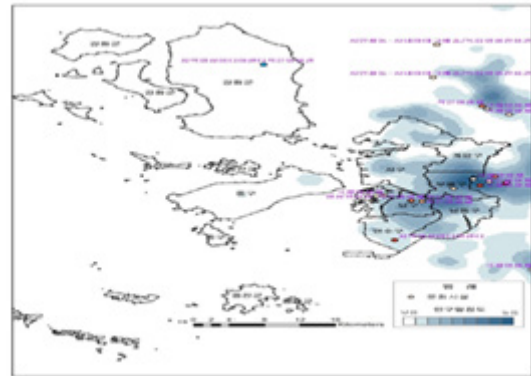
2) 인천광역시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다양성 활동의 협업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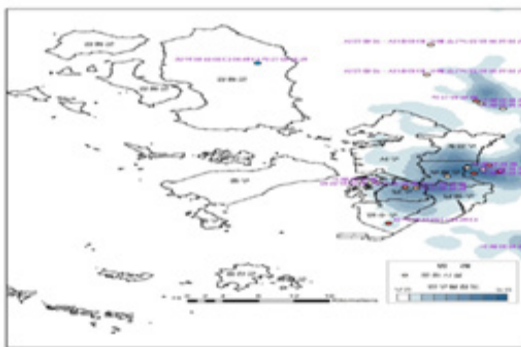
- 인천시는 전체적으로 남녀 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며, 계양구·부평구(부평 대한극장)³⁴⁾·연수구는 여초 현상을 보이며, 강화군(강화미디어센터, 강화 작은영화관), 옹진군·중구(인천영상위원회,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등 섬지역을 중심으로 남초 현상을 보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인천시의 부평구(부평 대한극장)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밀집함.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인천시의 부평구(부평 대한극장, 인천인권영화제)와 남구(인천영상위원회, 인천 정보산업진흥원, 인천독립영화협회, 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 인천여성영화제, 인천독립영화제, 인천청소년영화제)를 중심으로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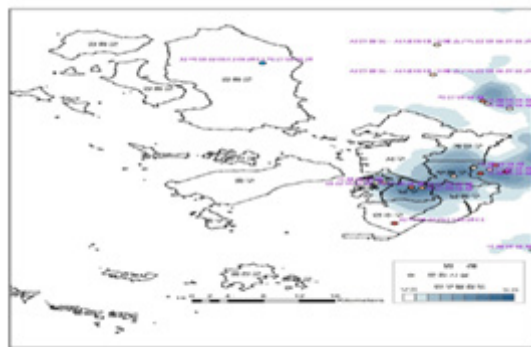
[그림 3-29] 인천광역시의 남녀비율



[그림 3-30] 인천광역시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31]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32] 인천광역시의 노년 인구 현황

34) 지역 내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현황을 명칭으로 표시하였고, 타 권역들도 이와 같이 정리함

(2) 여건 및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영상문화의 여건

- 현재 인천시 영상문화의 현황은, 지역사회와 지역영화인을 연결하는 인천영상위원회와 지역영화인들의 중심 커뮤니티인 인천독립영화협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를 주축으로 영상문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 특히 인천영상위원회는 전국 12개 영상위원회 중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하였고, 2007년 인천문화재단 내 사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2013년 사단법인으로 독립한 뒤, 영상위원회의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였으며, 현재 지역영화단체들과 협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음
- 인천시 영상문화의 성장배경은, 2007년 인천영상위원회·주안영상미디어센터 CAMF·영화공간 주안(인천 유일 예술영화전용관)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범하였으며, 향후 2013년 출범한 인천독립영화협회까지 기관들이 한 건물에 모여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 이전에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 및 다양성 활동의 주체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나, 중심역할을 하던 인천영상위원회가 2017년 서구에서 중구로 이전하면서 이전의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운 여건임
 -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는 2005년 인천여성영화제를 통해 활동을 시작함. 영화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단기간 사업을 넘어 일상적으로 여성적 이슈를 가지고 지역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시작함. 동일한 시기에 인천지역 영화인들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 인천독립영화협회를 결성함
 - 2012년 인천여성영화제는 사회적기업으로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한 활동들을 시작함. 그러나 사회적기업 형태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을 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로 전환함.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는 교육사업, 홍보동영상 제작사업, 디자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영상위원회와 함께 공공상영사업을 진행하면서, 참여 지역관객들의 영화 및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일조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현재까지 인천영상위원회와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인천 독립영화협회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지역영화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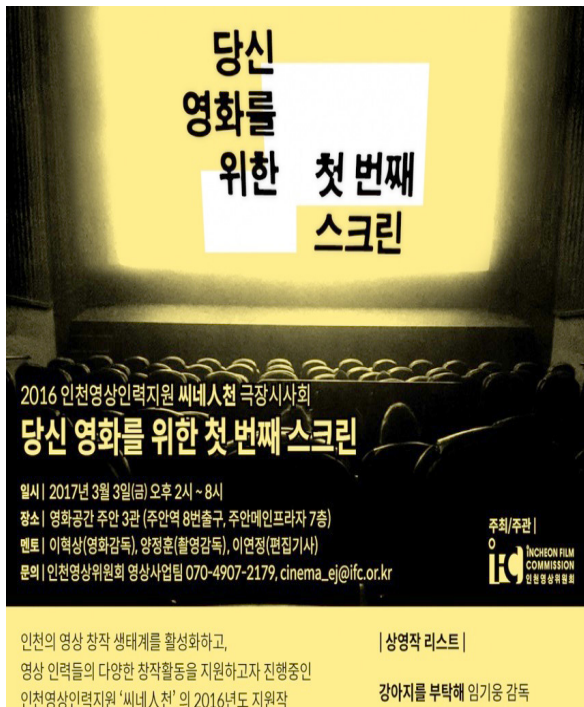


연결하는 인천영상위원회의 여러 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됨

■ 인천영상위원회의 지역영상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 현황

- 지역 콘텐츠 창작지원 : 지역 창작자 스토리텔링 개발 및 제작지원으로, 2017년 한국영상위원회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 사업 예산과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함
- 지역 인력 및 단체 지원 : 인천 영상인력 지원 및 영화단체 강화
 - ① 인천 영상인력 및 단체 지원 ‘씨네人천’: 2011년 시작된 사업으로, 인천 연고자의 영상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10편 내외의 작품의 제작비를 지원하고 관련 멘토링, 특강, 기술 시사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2017년도부터는 지역의 영상 인력과 관련 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영상 관련 단체가 기획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단체 지원 사업을 진행함. 이후 완성된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원활한 배급 및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가 진행됨

- 영상인력지원 : 인천 연고자 제작 영상물 제작비 지원 및 멘토링, 특강, 제공
 - 지 원 금 : 작품당 최대 7,000천원/ 총 50,000천원
 - 멘 토 링 : 제작단계(연출, 촬영/조명, 편집)별 전문가의 멘토링 제공
 - 특 강 : 기획/ 프로듀싱, 사운드, 색보정 등 기획/ 후반작업 관련 특강 및 기술 시사회 개최
 - 아카이브 : 역대 제작 지원작의 아카이브 조성
- 영상단체지원 : 인천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영상 관련 단체 지원
 - 지원내용 : 영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단체에서 기획하는 사업비 일부 지원
 - 지 원 금 : 단체 당 최대 10,000천원/ 총 20,000천원
 - 지원항목 : 관련 단체의 실행능력 여부 및 기획내용, 지원목적과의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심의 후 지원



자료 :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ifc.or.kr.

[그림 3-33] 씨네인천 2016년 지원작 상영회(2017.03 영화공간 주안)

- 지역민 영상문화의 향유 기회 확대 :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씨네) 운영, 찾아가는 영화관 및 미디어 교육(디아스포라영화제 영화 소란) 개최
- ② 다양성영화 공공상영관(별씨네): ‘다양한 영화를 일상의 공간에서 향유하자’는 취지에서 2013년 시작된 사업으로, 인천시 소재의 도서관 및 다양성영화 배급사 8곳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인천시의 연수·계양·화도진·부개·석남도서관 및 인천영상위원회의 건물에서 프로그램이 운영 중임. 다양성 영화의 정기적인 상영과 전문 큐레이터 영화 해설을 통해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를 높여, 다양성영화의 저변 확대와 관객 개발에 앞장서고 있음
- ③ 찾아가는 영화관 및 미디어 교육(디아스포라영화제 영화 소란) : 2015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으로 시작하여, 2017년에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선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 발전하면서, 지역민·지역영화인·지역영화관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 잡음



[표 3-10] 인천지역의 공공상영관 현황(2017.12 기준)

상영관	상영 횟수
인천광역시 연수도서관	16
인천광역시 계양도서관	16
인천광역시 청라국제도서관	16
인천광역시 서창도서관	32
추억극장 미림(특별 기획 상영)	2

주 : 인천영상위원회 2017년 기준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됨



자료 : 추억극장 미림 홈페이지, www.milimcine.com.

[그림 3-34] 별씨네와 영화 소란 상영회

참고 : 생활밀착형 비상설 독립예술영화 상영관(공공상영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사례

- 위 3개 지역은 2014년도부터 도서관, 미디어센터, 문화센터 등에서 비상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운영해 오고 있음

[표 3-11] 생활밀착형 비상설 독립예술영화 상영관(공공상영관)(2017. 12 기준)

지역	서울	경기	인천
영화관수	59개소	22개소	5개소
상영 작품 회수	695회	280회	82회
관람객 수	1만1천명	2만5천명*	1천2백명
연간 사업비	2억7천만원	7억원**	3천만원
관람료	무료	무료	무료
운영주체	서울영상위원회	경기영상위원회	인천영상위원회
주요 공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	도서관, 미디어센터, 아트센터 등	도서관

주1 : 경기도는 롯데시네마와 진행한 협약사업 및 야외상영 등을 합산한 수치

주2 : 상영지원(배급지원) 예산 포함

■ 지역 영화인과 단체 지원 및 협업 중심의 사업 추구

- 인천영상위원회 사업 기획 및 진행에 있어 지역영화인과의 협업 필요
 - 지역민 영상문화 향유 기회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인 별씨네 및 디아스포라영화제 영화 소란은 인천독립영화협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모씨네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에서 상영할 경우 전문 큐레이터 역할로 참여함. 디아스포라영화제와 함께 하는 영화 소란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씨네가 기획단계서부터 참여하면서, 교육 전체를 주관하고 있음.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지역도서관 및 지역기관, 학교, 상영관과의 소통을 역할을 함
 - 디아스포라영화제 및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영화제에서 지역영화인들이 진행자로 참여하거나, 인천독립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같은 지역영화인들의 사업에도 인천영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
- 미래 지역영화인 역량 강화
 - 제작지원 사업은 제작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작품의 제작 과정에 멘토링 과정을 필수적으로 추가하여, 시나리오 다듬기·촬영·편집·현장·녹음에 단계별로 필요한 전문 멘토를 연결해주고 있으며, 향후 기술시사회를 개최하여 결과물을 공유함. 이 작업이 끝나면 작품 관계자들이 인천독립영화협회의 회원으로 가입 될 수 있도록 연계함

(3) 한계점

■ 지자체의 협력 필요

- 지역영상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임. 강원도 강릉은 정동진영화제를 중심으로 독립영화도시를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 전주는 전주 국제영화제가 독립영화의 전당 설립을 추진 중임
- 현재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 미비로 인해 안정적인 커뮤니티 및 창작 공간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인천시의 영상문화 관련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지역 영화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창작지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현재 인천영상위원회와 사회적 협동조합 모씨네의 협업관계 및 지역영상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들(영화제, 영화교육, 영화인력 지원 등)이 지속되기 위한 방안들이 구축되어야 함



■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 필요

- 현재 인천시에는 영상문화 관련 학과로 인하대학교(연극영화학과), 인천가톨릭대(문화예술콘텐츠학과), 인천대학교(공연예술학과) 등이 있으나, 대학생들이 지역 독립영화협회와 지역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임
 - 오히려 서울시, 경기도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인력들이 대학 졸업 후 고향인 인천시로 돌아와 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인천지역에는 영화감독들이 있으나, 기술 스태프 부족하여, 서울시의 영화 및 영상 인력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음. 이는 영상문화 관련 지역 대학교의 인력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계점을 보임
 - 따라서 지역 대학교의 영상문화 관련 인력들이 졸업하기 전에 인천지역 영상문화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인천시의 영상문화 생태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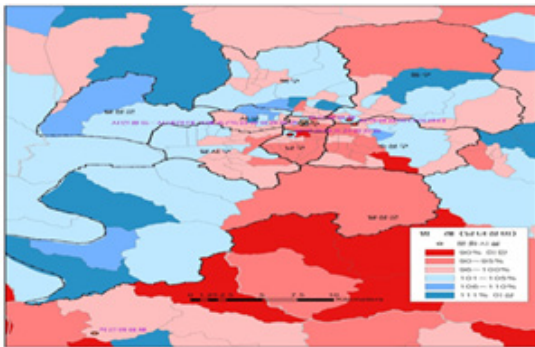
■ 지역 영상 관련 문화거버넌스 구축 미흡

- 송도에 위치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송위원회 소속으로 기존 인천지역 영상문화 커뮤니티와 연계가 없는 상황이며,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CAMF는 초기 설계와 형태가 변경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
- 지역의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전용관도 영상문화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해야 하는데, 영화 공간 주안은 인천독립영화제 위주로 협력하며, 지역영화인들의 영화(독립영화)는 배급하지 않고 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만으로 극장을 운영하기 힘든 현실적 여건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음
- 인천시 내에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상영관이 부족한 부분도 한계점으로 꼽히지만, 지역영상생태계의 가장 주요한 주체인 향유자(관객)의 참여가 부족하여, 이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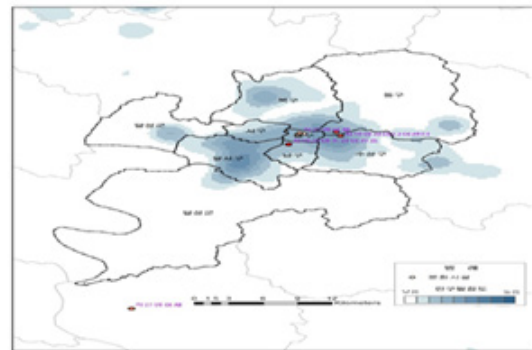
3) 대구광역시 :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영상문화의 다양성 활동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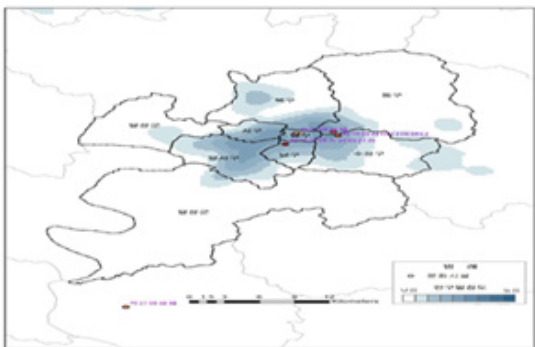
- 대구시는 과거 섬유산업을 중심지였던 지역으로, 여초 현상을 보이며, 특히 중구(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동성아트홀, 대구단편영화제), 남구(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 수성구(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서측의 여성비율이 높음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대구시의 달성구, 수성구(대구MBC 시청자미디어센터), 중구(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 시네마테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동성아트홀, 대구단편영화제), 북구를 중심으로 밀집함.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대구시의 서구, 중구(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경북시네마테크,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동성아트홀, 대구단편영화제)를 중심으로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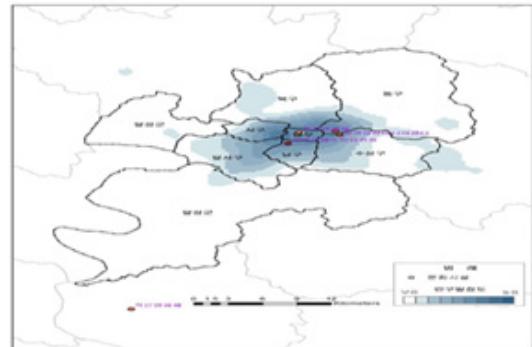
[그림 3-35] 대구광역시의 남녀비율



[그림 3-36] 대구광역시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37] 대구광역시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38] 대구광역시의 노년 인구 현황



(2) 여건 및 현황 분석

■ 대구광역시 영상문화의 여건

- 대구지역의 영상문화 현황은,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다양성 활동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영리추구보다는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공공의 역할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대구시에는 CGV 아트하우스나 롯데 아르떼와 같은 멀티플렉스 체인의 예술영화관도 존재하지만, 2004년 이후 줄곧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어 온 단관극장인 동성아트홀 또한 존재함³⁵⁾. 동성아트홀은 예술영화전용관으로서 짧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영화전용관 정책의 변화 와 함께 일시 폐관하였다 재개관함
- 동성아트홀과 약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는 2015년 대구지역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 개관한 오오극장은 독립 영화에 초점을 맞춘 민간영화관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함. 오오극장은 설립 초기에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민예총, 미디어판다 3개 단체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의 안정적인 상영 공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독창적인 영상창작 활동을 제고하고, 지역 영상콘텐츠의 미디어 인프라 확대 및 퍼블릭액세스권 향상을 목적으로 영상물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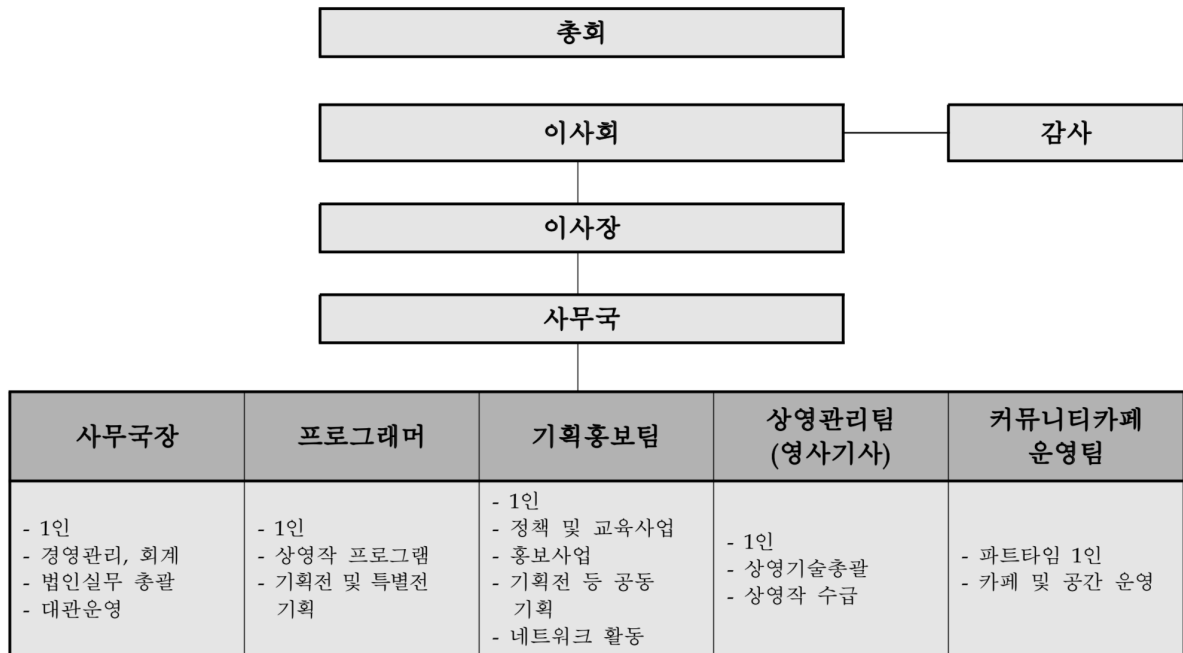
■ 지역 영상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도모하는 오오극장³⁶⁾

- 1999년 대구독립영화협회가 창립되고, 2000년 대표 사업으로 대구단편영화제가 개최되면서 안정적 상영공간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고, 이후 2012년 민예총 주최의 ‘대구의 결핍’ 토론회에서 독립영화전용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후 2014년 9월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지역사회.영화인 50인)되어, 설립 예산 약 1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의 모금으로 설립재원이 마련되었고, 2015년 2 월 12 일 서울 외 지역 최초의 민간 독립영화전용관인 오오극장이 개관함

35)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36)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내부자료.

- 오오극장의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며,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이 운영 주체임. 이후 2018년 초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 환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은 제작자, 활동가, 관객, 시민사회 등 약 25명임



자료 :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내부자료.

[그림 3-39] 오오극장의 운영 주체

- 오오극장의 설립의도에 있어, 주목을 끄는 부분은 독립 영화의 지역 상영을 넘어 지역에서의 영화 제작.배급.상영의 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 것임
-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장편 영화들이 상영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영화의 제작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며, 지역 내에 영화를 상 영할 공간이 생긴다면, 영화의 제작 및 배급도 활성화되어 영상생태계 구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목표를 가진 것임. 이러한 내용은 다음 오오극장의 운영 기조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오오극장 운영 기조와 방향

- ①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대구지역 유일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써 국내외 독립영화들을 상영하는 정식 개봉관이다.
- ②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지역영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영해, 지역영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고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지역 중심의 영화관이다.
- ③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커뮤니티시네마’로써 지역의 관객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들과 함께 영화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소통되는 공동체적 영화공간이다.
- ④ 대구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은 그 운영 주체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 영리 추구가 아닌 지역영화 및 독립영화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의 영화관이다.

- 설립 당초 지역 독립영화 상영 비율을 연중 30%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현재 독립영화 프로그래밍 원칙은 한국독립영화 60%, 대구·경북 지역 독립영화 10%, 예술영화 10%, 기획전, (비)정기상영회 10%, 대관 10%로 구성됨
 - 2016년에는 약 1만 1천명, 2017년에는 약 1만 3천명의 관객이 방문하였으며, 주 연령층은 젊은 대학생임. 입장료는 7,000원이나 부익율이 50:50이며, 배급사에서 3,500원을 가져가는 수익 구조라 순이익이 3,000원 정도여서, 티켓 수익 외 카페 운영 및 대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자임
 - 또한 관객 개발을 위한 ‘관객모임 오오극장과 비밀의 방’, ‘관객 프로그래머’를 진행하고, 멤버십과 프렌드십³⁷⁾ 제도를 운영함
- 오오극장은 지역에 설립된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으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지역의 커뮤니티 시네마³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짐
 - 삼삼오오 모여앉아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오오극장은, 좌석 수 55개를 가진 오오극장과 삼삼다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관 내에 카페를 두어 영화 시작 전후에 모여앉아 영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공간을 지향함- 커뮤니티 시네마로,

37) 멤버십은 월 회비 1만원으로, 월 1회 무료관람, 음료할인, 아카이브 자료 및 비디오룸 이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2017년 기준 86명이 가입되어 있고, 프렌드십은 연회비 3만원으로, 관람료 1,000원 할인, 음료 할인, 아카이브 자료 및 비디오룸 이용 등의 혜택이 있으며 2017년 기준 88명이 가입함

38) ‘커뮤니티시네마(Community Cinema)’는 영화를 매개로 다양한 공동체와 소통하고, 관객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오오극장의 상영 및 관람 정책으로, 커뮤니티시네마는 일방적서비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대형멀티플렉스와는 달리 관객들의 다양한 영화취향과 관람형태를 존중하고, 관객이 직접 참여하며, 늘 상상하고 변화하는 영화 관을 지향함(출처: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내부자료)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공동체와 함께 상영회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영화를 통해 공동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지역 사회에서 소통되고 확장될 수 있는 역할로 기여하기 위해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국내 독립영화, 해외 예술영화들을 공동체 상영하면서 의지를 실천하고 있음



자료 : 경남신문 (2015.11.23). [해외기획취재] 경남에 독립·예술영화를! (4) 지역의 독립영화관- 대구 오오극장.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4656>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40] 오오극장 내부와 삼삼다방

■ 다양성 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는 2000년 3월 지역 영상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하여, 대구단편영화제와 대구영화 포럼, 독립영화 정기상영회, 독립영화축제 등 대구의 다양성 활동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함
 - 대구지역의 영화·영상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역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가 전주국제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인력, 장비, 편집실, 독립영화 전문 배급사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이어서 서울의 영상문화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음
 -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는 지역 기반 활동가 발굴을 위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제작 워크샵을 다루는 초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여 그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고, 교육 관련 사업은 개별적으로 재단을 통해 선발되어 운영하는 구조라 지속성을 갖기 어려움
- 2018년을 기준으로 19회를 맞이하는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인 대구단편영화제는 다양한 장르의 장이 펼쳐지고 있으며,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만들



어진 작품을 출품하는 애플시네마, 국내 경쟁부문, 초청작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2017년에는 대구단편영화제 경쟁부문(국내 경쟁, 애플시네마)은 총 840편이 출품되었으며, 이중 28편의 작품만이 예심을 통과하여 상영됨

- 수상작은 영화를 연출한 감독 본인들의 직접 심사를 통해 결정되면서, 특정 심사위원의 취향을 반영하지 않는 전통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음. 2017년 대 구단편영화제는 22편의 국내 경쟁작과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6편 의 애플시네마 경쟁작, 15편의 초청작을 상영하며, 주상영관을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 진행하면서 영상문화 다양성 활동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자료 : 무비톡 (2017.07.12).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오는 8월 9일 개최!.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604076&memberNo=18873078&vType=VERTICAL> 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41] 2017 대구단편영화제의 전경

(3) 한계점

■ 지자체 예산의 지원 필요

- 지자체에서는 대구지역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뮤지컬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 중이며, 대구의 문화체육관광과 예산 약 2,500억 중 영화.영상 관련 예산은 약 4억 2천만 원 편성되어 있음³⁹⁾
- 지자체에서는 2017년 영화영상 관련 예산 4억 2천만 원 중, 3억 원을 대구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비로 지원, 7천만 원은 대구단편영화제, 5천만 원(장편 1편, 단편 1편)은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지원함. 따라서 향후 대구지역의 영상문화

39) 대구 오오극장 관계자 심층면담, 2017.12.13.

증진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성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지역영상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성 활동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함. 하지만 지역 내 영화·영상 관련 제도(조례 등) 및 정책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향후 영상·영화 관련 교육과 제작 인력 양성에 대한 다양한 공공적 관심을 확대해야 함

■ 영상문화 인프라의 부족

- 대구지역은 영상문화 관련 인력(촬영 감독 등), 장비, 편집실, 사운드 녹음실, 독립 영화 전문 배급사 등의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서울의 영상문화 관련 인프라를 활용 중인데, 지역영상생태계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대구지역 내에는 영화·영상 관련 대학교와 연계가 부족하고, 서울에서 전공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활동하는 인력들이 있는데, 이들이 향후 지역 기반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재교육 과정 등이 개설되어야 함
-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에서는 관객 및 향유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홍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

■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기관 연계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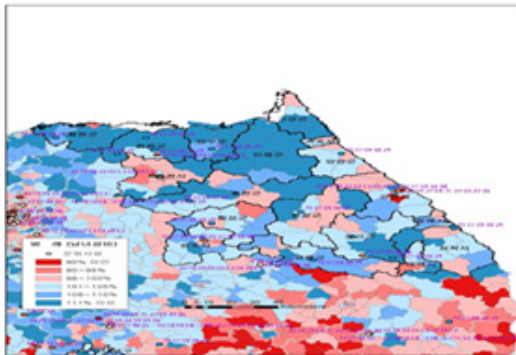
- 대구지역의 영상문화 활동의 연계는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및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등의 다양성 활동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 하지만 지역영상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씨눈과의 연계가 필요한데, 미디어센터 내 운영 조직 인원이 3명 정도로 부족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한 여건임. 향후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 영상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개조직의 역할로서, 관객 개발을 위한 영화·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이 필요함



4) 강원도 : 영상문화 소외지역의 자생적 시민 활동과 공공 활동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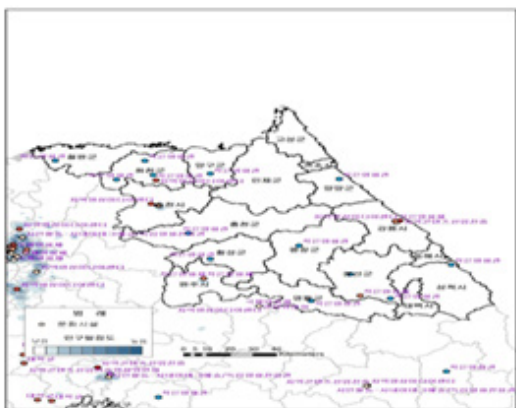
- 군부대가 밀집한 강원도의 북부지역은 남초 현상이 심하고, 기타지역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강원도의 춘천시(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춘천독립영화협회, 강원영상위원회)와 원주시(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원주인권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벌, 원주여성영화제), 동해시에 낮은 수준으로 밀집함.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는 강원도의 춘천시(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춘천독립영화협회, 강원영상위원회)와 원주시(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 원주인권영화제, 원주다큐페스티벌, 원주여성영화제)에 낮은 수준으로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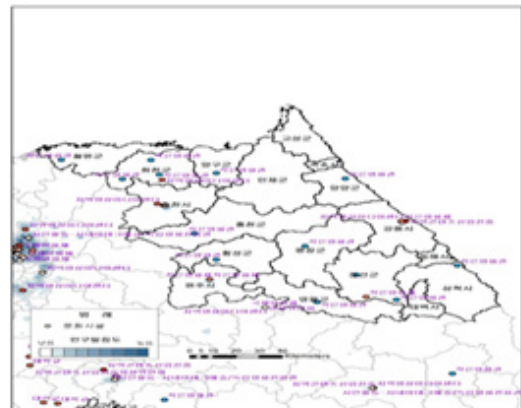
[그림 3-42] 강원도의 남녀비율



[그림 3-43] 강원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44] 강원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45] 강원도의 노년 인구 현황

(2) 여건 및 현황 분석

■ 강원도 영상문화의 여건

- 현재 강원도 영상문화의 현황은,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향유를 목표로 운영되는 공공 영역의 강원영상위원회와 자생적 소규모 시민 활동을 통해 독립영화의 공동체 상영을 목표로 운영되는 신영극장이 주축이 되고 있음
-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지리적으로 넓어 시·군과의 거리가 있고, 지리적 특성상 지역적 격차가 큰 지역으로, 비교적 수도권에 인접한 원주시와 춘천시를 중심으로 기반시설(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영상미디어센터 등)이 구축되어 있음
 -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2009년 설립되었음. 2007년 춘천시는 춘천문화산업진흥재단을 인수하여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설립하여,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등에 관한 지식산업기반과 영화상영업 관리 등을 포함한 문화산업과 문화향유를 목표로 운영됨
 - 그럼에도 강원도는 지역문화예술창작을 위한 인적·제도적 지원시스템과 창작거점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체 시·군의 문화향유 측면에서도 불균형과 편차를 보임⁴⁰⁾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강원문화재단의 역할을 확대함. 향후 강원문화재단 내 영상지원팀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2011년 「강원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를 개정하여 영상지원팀을 설립함
 - 2012년에는 위원회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2017년 개정을 통해 팀 운영체제에서 강원영상위원회를 설립함. 강원영상위원회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로케이션 유치 등 영상물 촬영유치, 강원 영상산업 활성화와 도내 영상문화 촉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40) 김석중 외(2017),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 강원발전연구원.



- 강원도의 강릉시에는 강릉시네마테크, 강원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시영상미디어 센터가 위치해 있음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는 2010년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강릉시네마테크와 강원독립예술극장 신영은 민간운영기관으로 운영됨
- 강원도의 춘천시는 ‘영화도시만들기’와 강릉시는 ‘독립영화도시’ 조성 등을 계획하며, 지자체에서 안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강원영상위원회의 영상산업 및 영화문화 향유 구축 사업 현황

- 강원도는 지역의 문화예술 및 영상관련 산업, 영상문화에 있어 강원문화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해옴. 2017년 3월에 출범한 강원영상위원회는 이전에 강원문화재단 내 영상지원팀으로 포함되어 영화를 중심으로 한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에 독립하여 현재 도비 보조금(8억 5천만 원)으로 운영됨
- 강원도의 영상산업 활성화 및 교류 사업 진행
 - ① 강원도 내 영상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 영상물 촬영 유치사업, 강원 로케이션 스카우팅 및 촬영지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위해 도내에서 영상물 촬영을 준비 중인 국내·외 제작진을 대상으로, 촬영 후보지를 제안하기 위해 체계적인 소개 및 유치 맞춤형 촬영·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도내 촬영 중 우수 영상물에 대해 선별적 인센티브 지원, 주요 촬영지 인근 극장에서 개봉 전 시사회를 개최함
 - ② 해외협력 사업 : 강원도는 2004년 ‘겨울연가’로 인해 일본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였고, 이후 일본의 고베영상위원회와 협력하여 일본 영상물 제작진의 강원도 유치와 더불어 한국 영상물 제작진의 일본 고베 지역 유치 등 상호 협력 및 영상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강원도의 영화문화 향유를 위한 활성화 사업 진행 : 도내 영상문화 촉진사업을 통해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③ 강원 영상문화 아카데미 사업 : 강원도민의 영상문화 관련 지식 함양 및 제작 경험과 육성을 위해 단편영화제작 워크숍 교육을 진행함. 또한 비정기 특강으로 ‘감자시네마토크’ 및 전문 영화인 초청 강연 ‘필름메이커스 100분 특강’ 등 다양한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④ 찾아가는 영화관 : 강원도 내 극장시설 및 영상시설이 미비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 한국영상자료원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시·군 축제, 군부대, 복지시설, 학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상영서비스를 제공함. 2015년을 기준으로 강원도 내 65회 상영, 216년에는 60회 상영, 1만 2천명 이상 관객이 참석함

⑤ 기획 상영회 : 이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인기 영화나 변사 공연, 무성영화‘검사와 여선생’을 상영하여 장년층의 향수를 자극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함. 기획 상영회 개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영상문화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⑥ 2017년도 신규 사업 : 도내에서 활동 중인 역량 있는 영상인 발굴 및 육성, 지역의 영상문화 체험 기회 확산 지원을 중점으로 진행하는 영화기획 및 개발·지원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배경 작품의 제작을 추진하고자 함. 이는 시나리오 개발부터 극장 개봉을 목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편 극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기획에서 촬영까지 이어지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개발비 일부를 지원함. 단, 촬영 시 도내에서 전체 촬영 분량의 1/3이상 촬영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이외에도 2017년도부터 예산안도 확대되면서 강원영상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민 외에도 강원도 지역 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표 3-12]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역영상문화 관련 사업 개요

사업명	유형	세부사항
영화기획 개발 지원	제작활동 지원, 지역콘텐츠 개발	<p>▷ 사업취지 : 도내 촬영을 계획하는 국내 법인 소재 제작사, 시나리오 개발 등 기획 단계 중인 극장 개봉 목표의 장편 극영화</p> <p>▷ 지원대상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영화와 지상파, CATV등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드라마의 도내 촬영 계획이 있거나 촬영 중인 국내·외 제작사(법인 또는 개인)</p> <p>▷ 지원금액 : 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p>
영상문화 강원영상인발굴·지원사업	상영활동 인력양성 및 발굴	<p>▷ 사업취지 : 도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중인 영상인을 발굴 및 지원하고, 강원도 출신인 역량 있는 영상인을 육성하고자 함</p> <p>▷ 지원대상 : 단편(도내 주민등록자,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생이 감독으로 참여하는 작품), 장편(도내 주민등록자가 감독 또는 프로듀서로 참여하는 작품으로 도내 주민등록자 기준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지원금액 : 단편영화(30분미만) 최대 5백만 원, 장편영화(80분 이상 다큐멘터리 포함) 5천만 원 지원</p>



찾아가는 영화토크,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활동 지원, 문화복지 증진	<p>▷ 사업취지 : 고전영화부터 최신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강원도민의 영상문화 향유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영상문화 교육프로그램 및 영화감상 진행</p> <p>▷ 사업 프로그램: '감자시네마토크' 및 전문 영화인 초청 강연인 '필름메이커스 100분 특강'</p> <p>▷ 사업대상 : 영화를 보고 싶으나 극장시설이 없는 지역, 영화를 상영하고 싶은 지역축제, 노인 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군부대 등 지원</p>
---------------------------	------------------------	--

자료 :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gwfilm.kr.

■ 강원영상위원회와 영상문화 관련 민간 주체 간 연계

- **멀티플렉스와의 연계** :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강릉, 원주, 춘천, 동해, 속초 5개시에만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음. 춘천 CGV와 2015년도에 업무협약을 맺어 10편을 개봉지원⁴¹⁾하였음
- **지역대학과의 연계** :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인근 대학(동아리 포함)과 연계하여 학교에서 만든 단편영화를 극장에 대관하여 보여주는 시사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상작을 선발하여, 창작지원금인 단편제작지원을 함. 제작지원비는 한 편 당 400만 원~500만 원 정도 지원하며, 2017년도부터는 장편영화 제작지원도 진행하면서, 한 편당 5천만 원 지원으로 확대함.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강원방송과의 연계** : 강원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어 강원영상위원회에서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장편영화를 방송편성을 통해 지역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정동진영화제와의 연계** : 강원도를 대표하는 독립영화제로, 주최 조직위원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음
- **작은영화관과의 연계** : 작은영화관의 경우, 협동조합 형태로 위탁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횡성의 경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어 향후 적극적인 연계를 추진하려 함⁴²⁾

41) 개봉 지원 작품은 1년에 30편~40편으로 인센티브 제작지원 작품 중에서 선별하여 선정함

42) 강원영상위원회 관계자 심충면담, 2017.12.15.

■ 지역 사회의 자생적 운영 : 강릉 시네마테크,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 강원지역의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는 강릉 시네마테크, 정동진 독립영화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 최초의 비영리 민간 극장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강릉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으로, 1960년대부터 운영되었고, 지리적으로도 시내 중심가에 있어 강릉을 대표하는 극장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멀티플렉스가 생기고 극장 관람 문화가 바뀌면서 2009년 폐관함⁴³⁾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을 통해 자원 지금을 마련하였고, 이후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나는 주인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1석당 30만 원으로 후원금을 정해, 후원한 회원의 이름을 극장 좌석에 새겨줌. 강릉뿐 아니라 전국의 영화인들이 후원에 동참하였고, 이후 2012년 5월 지역 최초의 비영리 민간 극장 신영이 개관하게 됨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개인이 아닌, 강릉 시네마테크가 운영 주체로 되어 있으며, 다양한 독립영화와 국내외 고전영화, 예술영화 등을 상영함. 신영 극장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운영 악화로 2016년 2월, 임시 휴관하였지만, 강릉시의 보조금 지원(연간 5천만 원, 단 인건비 책정이 불가함)⁴⁴⁾으로 2017년 3월 13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게 됨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단관극장으로 200석을 가지고 있으며, 주 관객층은 30대, 40대가 많음. 홍보는 운영하는 블로거를 이용하여, 영화관의 소식을 전달하며, 후원제도 씨네필에 가입한 관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상영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상영은 평일 5회, 주말 6회로, 티켓가격은 일반 8천 원, 청소년 및 후원 회원은 7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현재 고정 관객 개발을 위해 강연, 특별전을 확대하려고 함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은 다양하고 많은 영화들을 상영하는 목적을 가지고, 국내외 독립영화들을 상영함

43) 영화진흥위원회(2018), 『예술영화관 산책』.

44) 강릉시는 올림픽 이후의 강릉 비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독립영화를 키워드로 꼽았으며, 강릉 시네마테크가 꾸준히 진행해온 정동진독립영화제, 강릉인권영화제,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등 독립영화 관련 다양한 콘텐츠가 주요 하게 인정받음. ‘독립영화 도시 강릉’을 선포한 강릉시는 기초 지자체로는 국내 최초로 예술영화관 전용관 지원 을 결정함



자료 : 강원도민일보 (2017.03.27). 독립예술극장 ‘신영’ 재개관.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5674>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46]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전경

- 정동진영화제 : 강릉 시네마테크 주최로 강릉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초의 야외독립 영화제이자 강원도의 대표 여름영화축제인 정동진 영화제는, 2018년에 20회를 맞이함.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운영 대표를 포함하여 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의 보조금(프로그래밍 비용 내 인건비로 책정이 가능), 도비, 시비를 지원받아 운영됨



자료 : SBS fun E (2015.07.10). “밤바다, 영화, 낭만” 제1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초청작 24편 발표.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155515>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47] 정동진영화제의 프로그램

- 강릉시에서는 독립영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을 주제로 한 독립영화 제작지원을 진행하였으며, 2017년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 협동조합인 인디하우스는 강릉 시네마테크, 미디어협동조합인 이와, 신영극장 등과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함

(3) 한계점

■ 예산 확보 및 관객 개발의 어려움

- 수익구조를 내는 것이 어려운 비영리 민간 극장의 구조에 따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자생적 다양성 활동 주체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또한 운영 예산에 대한 어려움과 시설 노후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함. 따라서 독립예술극장의 운영을 위한 장비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 또한 비영리 민간 극장의 특성상 관객 증가 숫자가 느려 장기간 계획이 필요하며, 젊은 관객층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대학교와 연계 부족

- 강원영상위원회에서는 영상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일환으로 강원대 연극영화과, 한림 성심대학 영상콘텐츠과, 관동대학교의 영화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단편영화제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장기적인 대표 사업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음
- 고정 관객이 필요한 독립영화전용관과 대학 연계는 거의 없으며, 서울에서 전공 후 지역에 돌아와서 활동하는 경우만 종종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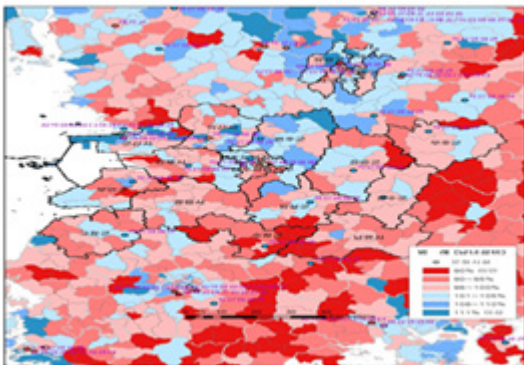
■ 지역 내 유사기관 사업 간 중복 우려

- 강원도 내 18개의 시·군에 비해 작은 규모이지만 영상문화 관련된 기관들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작은영화관을 가장 많이 보유함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설이 좋으나 지역적으로 외진데 있어 이용이 적고, 강원영상위원회에서는 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강원도 내 영상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의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음. 향후 인근 지역 내 존재하는 영상문화 유사기관과의 연계 사업 발굴이 필요함
- 지자체는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기관(미디어센터, 영상위원회, 작은영화관, 다양성 활동)이 함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모임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전라북도 : 영상문화 유관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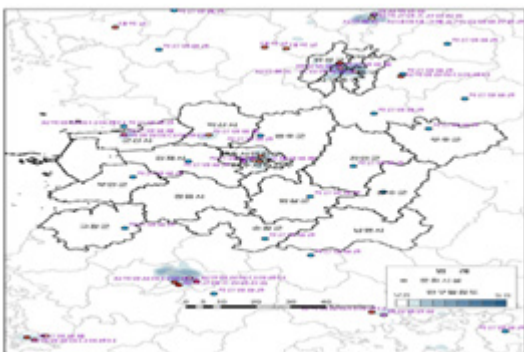
- 충청남도와 인접한 전라북도의 북부지역은 남녀 비율이 유사하나, 정읍시, 순창군(순천 천재의 공간 영화 산책), 남원시 등 남부 지역은 여초 현상을 나타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15~64세의 경제활동 인구, 65세 이상 노년 인구 모두 전라북도의 전주시(전주 디지털산업진흥원,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네필 전주, 전주 인권영화제, 전북여성영화제, 전북독립영화제, 전북청소년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너멍굴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영시미, 전주MBC 시청자미디어센터)와 군산시(군산정신건강영화제), 익산시(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익산여성영화제, 익산장애인영화제, 솜리아이쿵 작은영화제, 익산다큐영화제)를 중심으로 밀집함



[그림 3-48] 전라북도의 남녀비율



[그림 3-49] 전라북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50] 전라북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51] 전라북도의 노년 인구 현황

(2) 여건 및 현황 분석

■ 전라북도 영상문화의 여건

- 현재 전라북도는 지역 내 영상문화 유관기관들의 협업 관계 구축 및 지자체의 영화·영상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 내 영상산업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향을 살펴보면, 도·시·군, 영상문화 유관기관, 지역 내 영상관계자의 상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지자체 및 영상문화 유관기관들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영상문화의 성장 배경으로 2000년에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가 촉진 계기가 되었으며, 전북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협회, 영상위원회, 작은영화관 등이 큰 영역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
 - 전라북도에는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다양성 활동, 영화제가 모두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기반시설들이 한 공간 내에 위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 2010년 개관된 제1호 작은영화관인 장수 한누리시네마는 장수에서 지역민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시설 1위로 꼽히고 있으며, 이후 장수군의 자체 추진사업이었던 한누리시네마의 성공을 기반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게 됨
 - 찾아가는 영화관 ‘웅기종기 마실극장’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총 240여회, 약 1만 1,000여명 도민이 참여하였으며, 상영작은 상업영화 뿐만 아니라, 독립영화, 예술영화, 한국 고전영화 등 구체적인 영화 관람객 특성과 요구를 반영함. 특히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화면 해설 및 자막을 제공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와 영문자막을 제공한 한국영화, 한국어로 더빙된 외국영화를 선별 상영해 장애인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 관객을 위한 관람의 편의성을 제공함⁴⁵⁾
 -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부터 개최되어 주류영화와는 다르게 도전적이고 독창적인 영화를 발굴하여 적극 소개하면서, 차별화된 전 세계 대안 독립영화의 중심 영화제로 역할하고 있음

45) 무비톡 (2017.07.12).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오는 8월 9일 개최!.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73>에서 2018.06.08. 인출



영상문화 유관 단체간 협력 관계



전북의 경우 각 단체간 자율적 파트너십에 의한 일상적 연대가 이뤄지고 있음

미디어 센터간 협력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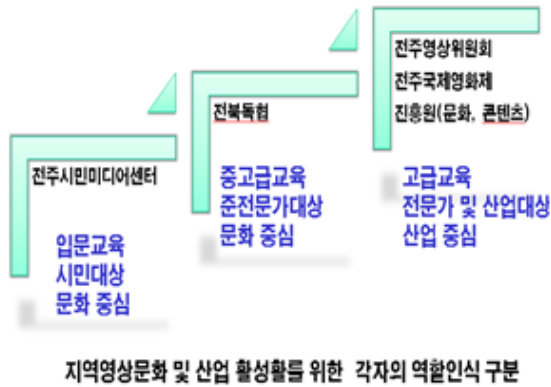
전북 지역 미디어센터간에는 호남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라는 협력체계 하에서 교육, 제작지원, 장비협력, 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등에서 협력

자료 : 충남연구원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그림 3-52] 전북지역의 영상문화 거버넌스 체계

■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역할 구분

- 지역민들을 위한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역할 인식이 구분되어 있으며, 입문교육의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준전문가 대상의 전북독립영화협회, 전문가·산업 대상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영상위원회, 진흥원 등이 영상문화의 단계별 역할을 하고 있음
 - 영상문화관련 프로그램으로 전주 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입문 단계의 시민대상·교육·문화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시민영화제작워크숍’에서는 시나리오·촬영·편집 등 영화·영상 제작 전반에 걸쳐 기초 입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준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문화 관련 중·고급교육은 전북독립영화협회에서 ‘단편영화제작스쿨’ 프로그램으로 진행함
 - 전문가 및 산업대상으로 하는 영상문화 관련 고급교육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진흥원,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시나리오스쿨’, ‘고급편집과정’ 등을 담당함
- 전북지역은 각 단체 간 자율적 파트너십에 의한 영상문화 관련 기관들의 일상적 연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시로 전북지역 미디어센터간 호남지역미디어센터 네트워크라는 협력체계 하에 교육·제작지원·장비협력·퍼블릭액세스 활성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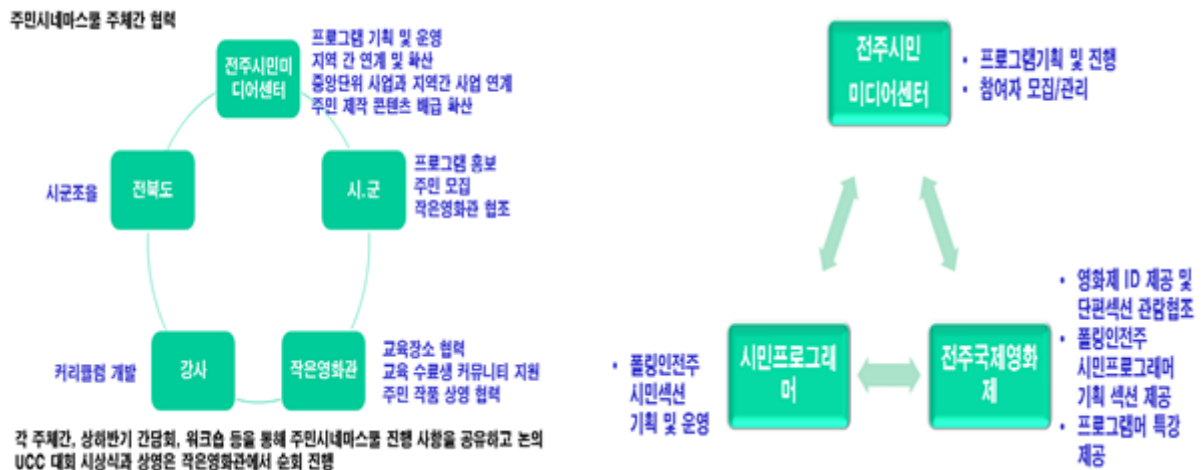
자료 :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0simi.org/Main.do.

[그림 3-53] 전북지역의 영상문화 주요기관의 역할 구분

■ 전라북도의 영상문화 관련 공동사업 및 협력 사례

- 2013년 작은영화관 활성화와 공공성 보장을 위한 지역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영상위원회, 전북독립영화협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함께 논의하여 영화영상제작교육, 단편영화제작, 작은영화제 등 방향 설정을 함
 - 전북지역 내 작은영화관을 이용하여, 지역민들의 영화·영상문화 향유권 향상 프로그램으로 '주민시네마 스쿨'을 진행하면서, 작은영화관이 단순한 상업영화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이 아닌,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공간화를 지향함
 - 주민시네마스쿨 주체 간 협력 관계로,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중앙단위 사업과 지역 간 사업 연계, 주민 제작 콘텐츠 배급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작은영화관은 교육장소 협력, 교육 수료생 커뮤니티 지원, 주민 작품 상영 협력 등의 역할을 함
 - 각 주체 간 상하반기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주민시네마스쿨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UCC 대회 시상식과 상영은 작은영화관에서 순회 진행함

- 단순히 영화를 보는 시민에서 영화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을 운영함
 - 시민영화프로그래머란 관객으로서 주어진 대로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의 방향을 정하고, 개성과 색깔을 담아내고 상영장소 섭외, 영사와 관객대응, 관객과의 대화와 이벤트 등 영화제 전반을 운영함. 2017년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총 15주에 걸쳐 영화와 영화제 프로그래밍 그리고 영화제 전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시민영화프로그래머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험함. 영화제를 기획·운영하며 배우는 입문과정과 전주국제영화제와 협업을 통해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를 관람하고, 자신만의 영화제를 기획해 보는 실습과정이 연계됨⁴⁶⁾
 - 특히 전주국제영화제와 공동기획으로 열린 2017 폴링인 전주(FALLing in JEONJU)⁴⁷⁾에 시민참여섹션을 운영함. 또한 전주의 다양한 관객모임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시민영화프로그래머 모임과 영화상영, 잡지, 관객동아리 등이 모여 서로의 정보 공유와 활동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결성에 대한 의논을 실시함. 총 6개월간의 과정에 속에서, 18명의 시민영화프로그래머가 배출됨



자료 : 충남연구원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그림 3-54] 주민시네마 스쿨 및 시민영화프로그래머 양성 과정

46) 전북일보 (2017.11.16). [시민영화프로그래머를 만나다] "다양한 취향 가진 관객들 최대한 만족시켜야죠".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477>에서 2018.06.08. 인출

47) 폴링인 전주는 올해 열린 전주국제영화제 수상작과 다시 보고 싶은 상영작품 중 일부를 가을에 재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함

- 이처럼 전북지역의 경우 영화·영상 관련 단체 간 수평적, 자율적, 일상적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지역영상문화 진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각 단체의 강점을 기반으로 상호협력 교류와 공동사업 등을 진행함
 - 최근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문화 관련 시설에서는 지역영상문화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일상적 연대를 넘어선 공공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함
 - 특히 전주를 영상문화의 거점 권역으로 성장시키고자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두드러지며, 최근 주민시네마스쿨 연계 세미나'의 일환으로 '지역문화분권 시대 작은영화관의 역할과 지역영상문화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전라북도와 전주시민미디어센터가 주최함

(3) 한계점

■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

- 지역민의 영상문화 향유 보장을 위한 정책 사업을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영상산업발전의 일부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음. 향후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을 통해 영상문화의 장기적 사업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영상문화를 대표하는 거점 권역으로 성장이 가능함
- 또한 영상문화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전라북도의 근방인 광주광역시도 영상문화의 기반시설 부족 및 열악한 여건을 보이는데, 인근 권역을 포함하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대학교와 연계 및 배급 창구 필요

-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지만, 잠재 인력인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가 부족함
 - 예를 들어, 인근 지역 내 전주대학교 영화영상전공의 학생들의 졸업 작품 때 미디어센터의 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나아가 이들이 지역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돌아가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전북지역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 네이버, 올레에서 부가 판권으로 몇 작품을 가져가는 것 외에는 배급 창구가 없으며, 단편영화는 유통이 부족한 한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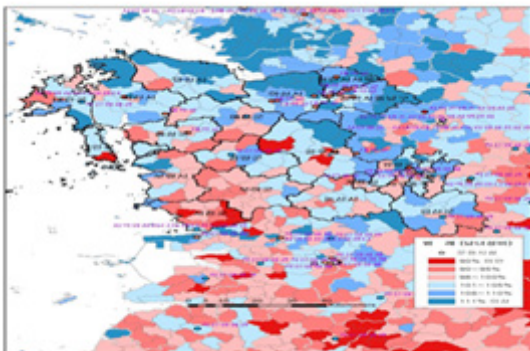
■ 지역 영화·영상 창작품에 대한 영화제의 역할 필요

- 전북지역은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국제적인 영화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내 영화제 간 연계 협력 사업을 전주시민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전북여성영화제(공동 주최, 여성영화제 제작 워크숍 진행, 워크숍작품 개·폐막식 상영), 무주산골영화제(야외 상영프로그램 운영, 주민시네마작품 상영 섹션 진행), 전북청소년영화제(수상 작품에 대한 차기 작품 제작 지원, 센터 연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 공모)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권역 내 국제영화제와 지역영화제의 연계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면, 전북지역 내 견고한 영상문화의 거버넌스 구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대규모 영화제들 또한 지역영상문화진흥의 기폭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지역 영상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 이름으로 개최되는 영화제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영화제 내 행사 진행 및 프로그램에 지역민과 지역영화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지역민과 영화인 참여를 위한 작품 제작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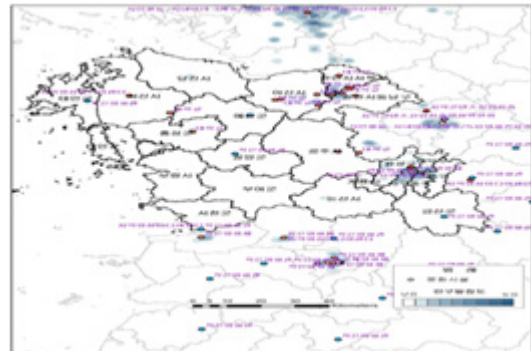
6) 대전광역시·충청남도 : 충남 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 발족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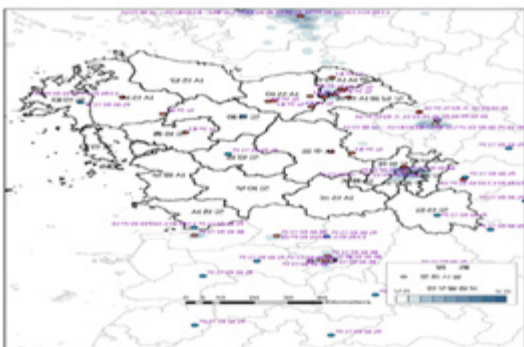
- 국가기간산업 및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있는 충남의 북부지역은 남초 현상을 보이며, 부여군, 서천군(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서천 기벌포 영화관) 등 서남부 지역은 여초 현상을 보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대전시(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대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독립영화협회, 대전아트시네마, 시네마테크대전, 대전독립영화제, 대전영상위원회)와 충남의 천안시(충남영상위원회, 천안영상미디어센터 비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인디플러스 천안, 천안영화제)을 중심으로 밀집함
- 15~64세 경제활동인구는 대전시를 중심으로 밀집하고 있으며,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예산시네마)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으로 밀집함.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대전시에 높은 수준으로 밀집하고 있으며, 천안시청을 중심으로 낮게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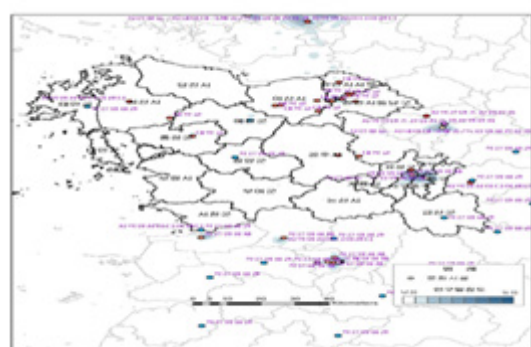
[그림 3-55]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남녀비율



[그림 3-56]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57]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58] 대전광역시·충청남도의 노년 인구 현황



(2) 여건 및 현황 분석

■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대전아트시네마

- 대전시는 공공영역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영상사업팀과 대전영상위원회에서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함. 또한 대덕연구단지 기술력을 활용하여 영상산업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특수효과 타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대전영상위원회는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서, 진흥원 내 영상사업팀에서 대전영상위원회를 운영하게 됨. 특히 대전 영상위원회는 드라마·영화 제작 지원, 대전영화촬영 스튜디오 운영, 대전시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영상물 촬영 유치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지역영상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HD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함
- 대전아트시네마는 비주류 영화들을 상영하는 대전지역의 유일한 예술영화상영관으로 2006년 4월, 둔산동 옛 선사시네마 자리에 대전아트시네마를 열었고, 2007년 10월 옛 동보극장으로 이전해 상영을 이어가고 있음⁴⁸⁾
- 대전아트시네마에서는 상영 외에도 영화강좌 프로그램과 소모임 등을 운영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영상문화 다양성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자료 : 중도일보 (2018.06.12). 대전아트시네마, 독립영화관 넘어 영화공간 꿈꾼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612010004425>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59] 대전아트시네마 전경

48) 영화진흥위원회(2018), 『예술영화관 산책』.

- 대전아트시네마는 시네마테크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대전에서 고전 영화와 작가 영화, 독립 영화 상영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영화의 유산적 가치를 중요하게 인지하고, 고전영화를 발굴하여 소개하는데 주력함
 - 특히 2018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전아트시네마에서 문화예술기획단체 '시도'에서 주도한 철도영화제가 열림. 국내 최초로 상영되는 작품이나 저작권이 만료되어 관람이 힘들었던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틀간 4편씩 총 8편을 상영할 계획임
 - 영화관 독자 프로그램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계획된 '현대 영화의 모범전'과 '오즈 야스지로 감독전'이 있으며, 8월에 열리는 현대 영화의 모범전은 세계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영화 거장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기획전임
- 대전아트시네마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영화 관련 강좌를 비롯해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 및 제작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함
 - 이전에 시네클럽으로 시작해 현재 시네마테크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평 강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함. 향후 교육과 제작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시네클럽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임
 - 이에 대한 일환으로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실무 강연을 2018년 8월 중 개최할 예정이며, 2017년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수상한 김대환 감독이 '디지털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10회에 걸쳐 강연을 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영화감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촬영 노하우에 대해 소개함
- 대전아트시네마는 영화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영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하며,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차별화를 유지하면서 지역 영상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



■ 충청남도 영상문화의 여건

- 충청남도 영상문화 관련 기관은 2017년을 기준으로 총 43개가 분포되어 있고, 천안시에 17개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천안 내 영상문화 관련 대학교와 인력이 풍부함. 또한 충청남도는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잠재적 자원을 활용하고, 영상문화 관련 유관기관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충청남도의 서천군과 천안시는 같은 공간 내에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서천군 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인디플러스 천안,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 비채’가 있음. 특히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영화감상 동아리가 운영 중임
-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충남의 문화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충남문화산업 발전위원회·충남영상위원회·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남영상 위원회는 로케이션 지원, 인센티브, 팸투어를 운영하면서, 충남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에 대한 창작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중임
- 충청남도는 지자체의 영상문화 관련 사업들을 협업하기 위한 노력들로 충남도청, 기초 지자체(천안시, 서천군, 예산군, 서산시, 태안군, 청양군, 금산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위탁 운영 기관 및 단체 등)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17년 시·군 협의체가 발족되어 운영 중임



자료 : 천안시 공식블로그, blog.naver.com/fastcheonan/221009565401. 중도일보 (2018.02.20). 서천기벌포영화관 개관 2년만에 관객 8만명 돌파.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220010007884>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3-60]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와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 소풍+ 전경

- 충청남도 내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이 2014년부터 운영되었고, 이후 금산군시네마, 예산시네마, 태안 작은영화관, 청양시네마 등이 건립되고 있음
- 충청남도는 작은영화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기초 지자체 중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용은 관람료·위수탁·관람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관람료·운영·위수탁·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와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관람료·위수탁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 있음⁴⁹⁾

[표 3-13] 충청남도의 영상문화 관련 조례

분류	자치 법규
작은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기벌포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산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태안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충청남도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도정의 홍보업무를 목적으로 함
영상문화(영상산업)	▷ 충청남도 영상산업 진흥 조례 입법 준비 중

자료 :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은 상영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지역영상문화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음
- 서천군 기벌포 영화관은 개관 2년 만에 관객 수 8만 명을 돌파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2017년 말 누적 관람객 수가 8만 3,724명을 기록하면서 영화관이 문을 연 2016년 보다 1만 9,030명, 30%가 증가한 수치로, 2018년에는 9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영화 상영 외에도, 영화감독과 GV(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 및 영화읽기, 쓰기 교육 등의 영화감상동아리 운영과 영상제작 동아리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교육 및 정기적 영상 제작 활동을 도모하면서 지역 내 미디어리터러시의 기능을 확보하고 있음

49)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충남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

- 충남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지속적 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7개 지자체와 9개 지역영상문화시설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임
- 충남의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 발족식에 맞춰 관련 기관들의 문화거버넌스 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세미나(2017.06.23.)를 개최함. 영상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지방 소도시에서의 영상문화 활성화 사례, 충남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 및 협력 방안 구축에 대한 발제가 이루어짐
- 충남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는 충남지역 영상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구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충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남도(시·군),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및 관련 중앙공공기관(영화진흥위원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정책 건의 제안을 하고자 준비 중임. 이를 통해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하향식 정책 방향이 아닌, 수평적 구조의 정책 방향을 지향함



자료 :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www.cni.re.kr/community/researcher-events/?mod=document&uid=5508.

[그림 3-61] 충청남도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3) 한계점

■ 지자체 예산의 확보 필요

- 광역 차원에서 영상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예산지원은 존재하나, 이후 운영비용은 대부분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어, 재정부문에서 광역차원의 지속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함

-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영상문화시설 운영 협의체가 발족되어, 충남지역 영상문화정책 수립 및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시·군에서도 발굴된 지역영상문화 진흥과제들이 예산에 반영되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 확장

- 충청남도에는 타 지자체보다 영상문화 관련 대학 현황이 많은 편으로, 2017년 기준 약 14개 학과⁵⁰⁾가 있으며, 이들은 향후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앞장서는 미래 전문 인력들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타 지자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영상문화 관련 잠재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졸업하고 이전하면서, 결국 현장에서는 전문·실무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느낌
 - 지역 내 영상문화 잠재 인력들이 졸업 후에도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재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의 장기성 확보

- 충청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영상문화 관련 시설들이 늦게 건립되었으며, 관련 협의체도 최근에 생겼지만, 빠른 성장세를 보임. 충청남도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의 장기적인 운영과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향후 지자체(기초 지자체 포함)에서 사업으로 반영되는 노력들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영상문화 관련 협의체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동 공간 내에 존재하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영화관들이 각자의 사업을 위주로 운영하면서, 아직 협업 사업들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지역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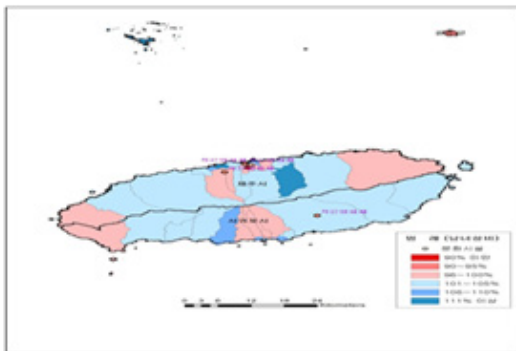
50) 충청남도 내 영상문화 관련 학과는 공주대학교 영상학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방송연예학과, 나사렛대학교 방송영상 콘텐츠학과, 남서울대학교 영상예술디자인학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멀티미디어공학과,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 학부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상명대학교 공연영상 문화예술학부 영화영상전공,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순천향대학교 영화애니메이션학과, 청운대학교 방송영화영상학과, 한국폴리텍 IV 대학 아산캠퍼스 방송영상과, 한서 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호서대학교 영상미디어전공, 한국영상대학교 영상연출과.영상촬영조명과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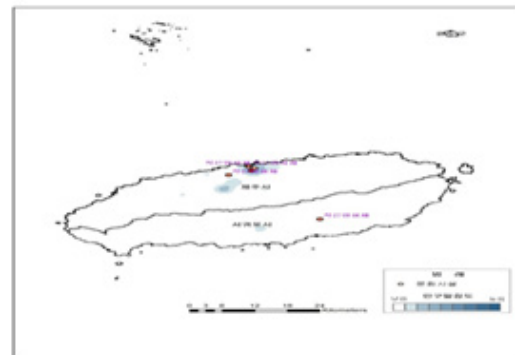
7) 제주도 : 지역 영상문화 주체와 새로운 시도

(1) 인구통계학적 분석(G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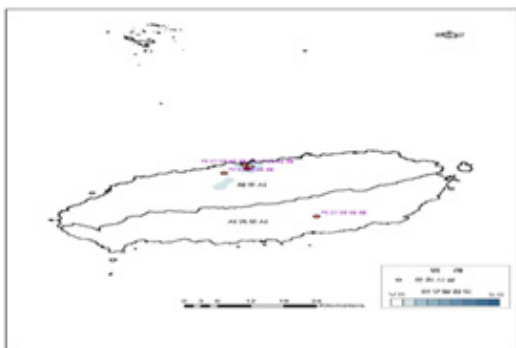
-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남녀비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임
-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제주도의 제주시청(제주 테크노파크,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주영화제,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과 도청, 서귀포시청(보물섬모닥불영화제)에 낮은 수준으로 밀집함
- 15세~64세 경제활동인구는 제주도의 제주시청(제주 테크노파크, 제주씨네아일랜드,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장애인 인권영화제, 제주영화제, 제주프랑스영화제, 제주영상위원회, 제주영상미디어센터)과 도청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으로 밀집하고,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제주항 인근 도심에 낮은 수준으로 밀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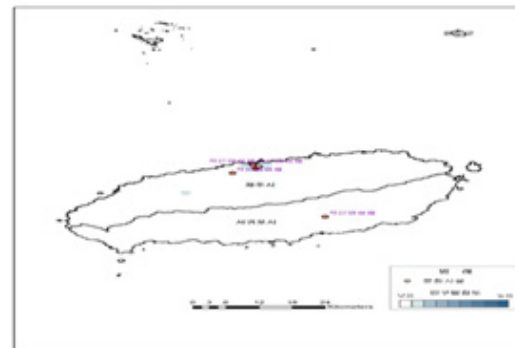
[그림 3-62] 제주도의 남녀비율



[그림 3-63] 제주도의 유소년 인구 현황



[그림 3-64] 제주도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



[그림 3-65] 제주도의 노년 인구 현황

(2) 여건 및 현황 분석

■ 제주도 영상문화의 여건

- 제주도의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으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가 만들어졌고, 201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
 - 영상미디어 센터의 운영 근거 영상산업육성 조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서귀포시에 미디어센터 교육장이 생기면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이후 2017년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계획에 따라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사업 속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포함하게 되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됨
 - 2018년 초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콘텐츠진흥원은 영상위원회, 아시아 CGI센터, 제주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분야를 합친 통합 재단으로 출범할 계획임. 이로써, 제주도의 영상산업과 영상문화 정책의 사업을 전개해온 제주영상위원회는 해산하고,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흡수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출범 이전에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주도 영상문화 정책의 중요한 운영 주체 역할을 해옴. 2003년 발족한 제주영상위원회는 로케이션 지원을 중점적인 업무로 두고 있지만, 지역 영상문화의 증진 및 영상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 10억 원, 제주도 10억 원 출자로 지어진 공공미디어센터의 운영 주체로, 영상위원회 내의 한 부서가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을 맡고 있음. 이전에는 미디어센터가 제주시에만 있었는데 2015년 서귀포시에 미디어센터 교육장이 생기면서 서귀포시 주민의 접근도가 높아짐
 - 제주영상위원회의 1년 예산은 30억 원으로 미디어센터 운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규모의 영상위원회에 비해 예산이 많은 편임
 -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역 영상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영상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이벤트에 대해 지원하는 영상문화



- 육성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등이 있으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연간 15~20편 정도의 장·단편 영화가 제주도에서 만들어지고 있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2017년부터 교육과정을 전문가·일반·마을미디어의 세 가지 분야로 운영하고 있음.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은 ‘미디어강사 양성 교육’,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 지금까지는 전문가 대상 프로그램이 없어 초보적인 수준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현재 일반 대상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영상 미디어를 활용하여 직업적 역량을 쌓고 싶은 이들을 위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게 됨. 이를 통해 미디어 강사를 육성시켜,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의 미디어 강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14]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역영상문화 관련 사업 개요

사업명	유형	총예산(2017)	세부사항
제주다양성영화 제작 지원	제작활동 지원, 지역콘텐츠 개발	1억 7천만원 (상/하반기 2회)	<p>▷ 사업취지 :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단체의 장편·단편영화, 기타 영상물 등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고자 함</p> <p>▷ 지원대상 :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하는 장·단편 제주다양성 영화에 대한 프로덕션 및 포스트 프로덕션 경비 일부 지원</p> <p>▷ 지원금액 : 장편 전체 8천만 원(편당 3천만 원 이하), 단편 전체 7천만 원(편당 1천만 원 이하), 신규참여(제주영상위로부터 3년 이상 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전체 2천만 원(편당 5백만 원 이하)</p>
영상문화 육성 지원	상영활동 지원, 공동체문화 증진	1억9천 5백만원	<p>▷ 사업취지 : 제주에서 주제가 있는 영상관련 이벤트 개최 및 상영, 행사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영상문화 확산은 물론 함께 사는 사회조성에 기여</p> <p>▷ 지원대상 : 영상을 주제로 하여 제주의 이미지 제고 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지원</p> <p>▷ 지원금액 : 3일 이상 20회 이상 건당 4천만 원 이하, 3일 이상 10회 미만 건당 3천만 원 이하, 2일 이상 5회 이상 건당 2천만 원, 2일 미만 2회 이상 건당 1천만 원</p>

찾아가는 밤마실 극장, 찾아가는 영화관	상영활동 지원, 문화복지 증진	-	<p>▷ 사업취지 : 상대적으로 공연문화에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 관람 향유권을 제공하며 흑백 무성영화 시대의 추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노스텔지어 문화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p> <p>▷ 사업대상 : 제주시, 서귀포시, 중산간 마을 및 해안마을 총 11개 지역(밤마실 극장);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군부대 등 영상문화 소외계층, 도서지역 초등학생 등 청소년, 읍·면 마을단위 고령층 밀집지역, 기타 관광객 및 제주도민을 위한 지역 내 프로그램(축제 등)연계 (찾아가는 영화관)</p>
--------------------------------	---------------------------	---	---

■ 제주영상위원회와 영상문화 관련 민간 주체의 연계

- 제주도는 영상 관련 단체 및 시민사회에 의한 영화 상영 활동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임
- 매년 개최되는 영화제로 사단법인 제주영화제가 개최하는 제주영화제, 제주여민회가 주관하는 제주여성영화제, 제주장애인인권연맹이 주관하는 제주장애인인권영화제, 제주국제문화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제주프랑스영화제 등이 있음. 이들 영화제 중 제주여성영화제, 제주프랑스영화제는 영상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제주 영화 문화예술센터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제주장애인영화제는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제주영화제는 상업 멀티플렉스에서 개최되고 있음
- 제주도의 예술영화전용관은 2003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사라지고, 2010년 무렵에 지자체 문화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장기 휴관중인 코리아 극장을 활용한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로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무산되었음. 대신 제주영상위원회의 기획전, 청소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구작 영화들을 상영하는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가 개관되어 영상위원회가 운영해오고 있음.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는 코리아극장에서 2017년 3월, 메가박스 제주점의 6, 7관으로 이전하였으며, 7관은 지난해 하반기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전용관 상영(유통·배급) 지원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예술영화전용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는 다수의 영화제의 상영에 있어 시설 후원을 하고 있으며, 영상위원회 자체 프로그램 혹은 대관 프로그램으로 무료상영회, 공동체상영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제주도 영상문화 주체와 새로운 시도들

- 제주도에에는 영상문화 활동을 하는 다양한 민간 주체들이 있음
 - 그 중에는 2006년 발족한 제주독립영화협회가 있으며, 제주 씨네아일랜드처럼 20년 이상 제주지역 내에서 시네마테크 영화의 보급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도 있음
 - 제주 씨네아일랜드는 한국시네마테크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시네마테크 단체이며, 2006년 사단법인화 하였음. 한국시네마테크협회의 순회 상영 영화를 받아서 제주도에서 상영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는 제주영화제의 주관 기관이었음. 제주영상위원회의 2017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받아, '제주 씨네아일랜드 친구들 영화제'도 개최하여 예술영화 향유자(관객)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제주도에 이주해온 문화예술인이 증가하면서 영상문화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는 제주지역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 향후 기존 활동 주체 및 주민과의 융합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활동이 영상문화의 저변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독립영화 상영의 새로운 비전, 독립영화정기상영회
 - 2017년 시작된 독립영화정기상영회는 제주영상위원회의 '2017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됨. 일회적인 영화제 형식이 아닌, 정기적인 상영회를 개최하여 제주도 내 독립영화 관객을 육성하고 제주도의 영상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개최되고 있음
 -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장·단편 독립영화 28편을 정기 상영회 형식으로 월별로 프로그래밍 하여 상영하였음. 이 중에는 제주 작품 섹션이 있어, 제주도 내에서 만들어진 독립 장·단편 영화들도 상당수 상영됨. 관객들이 더 친근하게 독립영화에 다가갈 수 있도록 매달 테마를 구성하며, 감독 등을 초청하여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 영화가 지역민들에게 소개될 수 있는 창구가 거의 없어 지역영상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정기적으로 상영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는 것은 창작자의 지속적인 작품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보조금을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받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상영회가 존속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음. 시작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유료상영을 지향하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건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대한 일환으로,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관객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는 대신 자발적인 후원금을 내는 형식으로 첫 해의 정기상영회를 운영하였음. 회원 제도를 통해 고정 관객이 늘어나면, 티켓 유료화 이후에도 관객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기상영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독립영화의 관객 저변도 넓어져 더 많은 관객들이 상영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21
☞ 오후 8시
제주단편영화초청전-루키
 제주영화의 미래를 주목하자!
도전과 시선 (GV)
 (신예)

해녀와 목수의 정성 Haenyeo and a carpenter's care (2017)
 제주도의 장 나가는 신명들! 장엄한 자연의 일부를 담당하는 4명의 제주산행들은 어느 날 인간의 집으로 발령이 나고, 주인이 사고로 죽음을 맞은 그 집에서 20년을 터주신으로 발목잡혀 살아가는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길주인의 딸이었던 "은하"가 새 주인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은하는 죽음을 준비한다...

 감독 남백령

별방설비 ByulBang facilities (2017)
 제주에서 태어나, 육지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는 21살 정민. 방학기간 동안, 서울에서 찍으려 계획했던 영화의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로 내려온다. 일하게 된 곳은 아버지의 생업집, 평안은 아버지와 일을 함께 다니며 보고 느낀 것을 통해 사후(死後)가 아닌 편지를 써나려 간다.

 감독 오대경

7/12
☞ 오후 8시
제주단편영화초청전
 제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감독들의 독특한 작품 (GV)
 (15세)

눈물이라때 Tears (2016)
 카메라를 든 남자 포도그래퍼 동석, 또 다른 주인공, 카메라를 내리는 여자 바리스타 일화. 아름다운 제주에서 이별을 아픔을 담담히 견뎌내야 하는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

 감독 서광석

천우군 신조씨 (2014)
 어른이 실은 어른아이 천우와 아이가 실은 아이어른 신조. 발육된 시간 속에 도라유리를 안고 살아가는 둘에 바보 천우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른들을 이해하면서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신조. 위기에 처한 천우를 구해주며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진다.

 감독 문숙희

파트너 Partner (2017)
 동네 미용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달고 주는 미용사와 사진사의 파충우를 "뽀" 스토리.

 감독 서태수

[그림 3-66]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의 프로그램

• 일상 속의 영상문화 활동, 목요 영화 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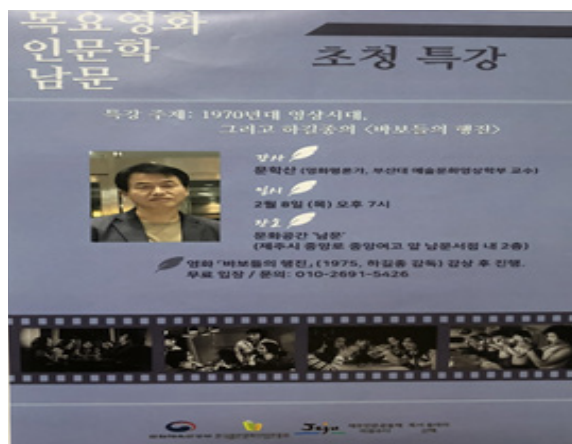
- 목요영화감상회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도 내 남문서점 2층, 문화공간 '남문'에서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2017년 2월 시작되어 매주 무료로 열리고 있음. DVD 상영이기 때문에 신작보다는 구작들이 중심이 되며, 기존 무료상영회 프로그램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 지역민들에게 영화를 보고, 인문학적 해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음. 따라서 상영 프로그램은 숨겨진 명작, 토론거리가 많은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주도 출신의 영화평론가가 상영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 선정 면에서, 또 이후의 해설 및 토론 면에서 참가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고 있음



- 본 감상회는 2018년 2년차를 접어들면서 줄곧 20~30명의 관객이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관객이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극장이 아닌 지역의 서점에서 감상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상과 더욱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영상문화가 자리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감상회가 열리는 남문서점은 약 5년 전부터 문학 강좌, 미술 강좌 등 다양한 인문학 무료강좌를 개최해왔음. 목요 영화 감상회의 경우에도 서점은 공간 대여뿐만 아니라, 홍보물 제작, 강사 섭외 시 초청 비용 등을 제공하면서, 소소하게 일상적인 영역에서 문화와 예술, 인문학이 관객, 혹은 독자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음
- 프로그램은 주로 월별로 구성되는데, 4월 프로그램의 경우 ‘영화로 보는 제노사이드’로 정하고 매주 「호텔 르완다(감독 테리 조지)」, 「라운드 업(감독 로젤린 보쉬)」, 「레드툼(감독 구자환)」, 「감춰진 손톱자국(감독 오충공)」을 보는 형식임. 이 경우, 「레드툼」과 「감춰진 손톱자국」은 각 영화의 감독을 초청하여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함
- 공적 지원 없이 남문서점의 후원과 감상회 기획자들의 자발적인 비용과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3-67] 「감춰진 손톱자국」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그림 3-68] 「바보들의 행진」 상영 및 문학산 교수의 해설 관련 포스터

(3) 한계점

■ 조직 개편과 영상 관련 전담 기구의 폐지

- 제주도는 제주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영상위원회 폐지를 둘러싸고, 지역 영화계 인사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 제주영상위원회의 폐지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내용으로 ‘영상위원회의 전문성 등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진흥원의 명칭 변경’, ‘진흥원 임원 선임 시 영상 전문 관계자 포함’, ‘지역영화인들과의 정기적 간담회 통한 소통강화’, ‘진흥원 보유시설 사용 및 개방시간 확대 등 탄력적 이용 방안 마련’, ‘진흥원 내 영상미디어센터 예술극장의 리모델링’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기로 함⁵¹⁾
- 그러나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부터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10명의 선임직 이사 중 3명의 이사가 방송계 출신 인사로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기관 창립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우려⁵²⁾들이 제기됨
- 제주도의 영상 관련 업무는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진흥원 내의 영상 산업팀으로 이관하게 되는데, 문화콘텐츠가 주로 지역 사회의 경제적 이윤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산업 장르들의 육성과 진흥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상문화의 증진과 관련된 사업들이 위축될 우려 또한 있음

■ 외부 이주민의 증가와 지역 사회의 융합

- 제주도는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로 이주해오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져 매년 1만 명 이상의 인구 증가 통계를 보이는 지역임. 특히, ‘문화이주’⁵³⁾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창작 활동에 있어 지역의 구속을 받지 않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의 제주 이주가 눈에 띈⁵⁴⁾

51) 제주투데이 (2017.12.31). [포커스] 제주영상위원회 해산과 새로운 진흥원 설립, 남은 과제는?.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4>에서 2018.06.08. 인출

52) 제주일보 (2018.02.25). 영상위 통폐합 논란 콘진원, 드디어 첫 발.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038>에서 2018.06.08. 인출

53) 2015년을 기준으로,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의 23.4%가 제주로 이주해 온 케이스라고 밝힘. 즉, 4명 중 1명은 외지에서 제주로 이주해 온 예술가로 볼 수 있음

54) 경향신문 (2015.12.13). 문화이주 ‘붐’ 제주에서 예술인으로 얼마나 벌까...월평균 125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1603111&code=620117에서 2018.06.08. 인출



- 제주도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들 이주민들이 토착민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 지자체 문화예술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제주영상미디어센터는 수강생의 60~70%가 이주민들이며, 주로 미디어센터 교육 수료 후에 영상 미디어와 관련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길 바라며, 이후 전문가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제주도로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제주 내에서 주민으로 인정받으며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지자체의 역할로 제주도로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과 토착주민들이 융합될 수 있는 네트워킹 모임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예술극장의 활용 문제

-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예술극장은 개관 시부터 상설극장으로서 운영 전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대여 중심의 비상설 극장으로 운영됨. 높은 대관료 등으로 지역의 영상·시민 단체들이 예술극장 대관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제주영상위원회는 시설의 상설적 활용을 위해 2008년부터 예술 극장을 ‘난타 상설 공연장’으로 전환하여 운영하였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예술 극장을 난타 공연 회사에 임대 계약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내의 코리아 극장의 2개관을 임대하여 제주 영화문화예술센터로 운영하였음. 내부 시설을 외부에 임대해주고 외부 시설을 미디어센터가 임대하여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시민 모두의 시설이어야 할 예술극장의 활용이 제한되었음. 현재는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내 예술극장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공 상영관으로 건립하였으나 상업 공연장으로 사용됨. 또한 상영 시설이 현재 노화된 상태여서 예술극장 리모델링 공사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중임

제4장

해외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사례

제1절 영국

제2절 프랑스

제3절 캐나다

제4절 일본



제4장 해외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사례

1. 영국 : 지역 영상문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

■ 영국 영화진흥 정책 및 재원구성⁵⁵⁾

- 영화산업 진흥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영국 정책의 중심에는 영국영화협회(British Film Institute, 이하 BFI⁵⁶⁾)가 있으며, 2011년 영국영화진흥위원회(UK Film Council, 2000년 설립)가 없어지면서 관련 해당 업무들이 BFI로 이관됨
- BFI로 이관된 가장 주된 업무는 복권기금(로터리 자금)의 영화관련 예산을 배분하는 역할로, BFI는 영국 전역에 걸쳐 영화와 관련된 가장 큰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 및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중앙 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2011년부터 BFI는 정부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의 지원을 받는 비정부 공적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y, NDPB⁵⁷⁾)으로 운영되기 시작함
- BFI는 영화 및 예술 분야에서 복권기금을 매개로 수도 런던과 영국연합의 구성 국가별 영화 및 예술담당 대표조직인 Creative England(잉글랜드), Creative Scotland(스코틀랜드), Film Agency for Wales(웨일스), Northern Ireland Screen(북아일랜드), Film London(런던), 그리고 영국의 창조산업인력위원회인 Creative Skillset과 협력관계에 있음

55) 홍교훈·염신규·배용찬·원환섭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2014), 『Triennial Review of the British Film Institute』, BFI(2016), 『BFI Group and Lottery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5-2016』, BFI(2017), 『BFI Group and Lottery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6-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용·정리함

56) BFI는 1933년에 설립된 협회로, 1960년대까지 다양한 문화부서들로부터 공적 자금을 받기도 했지만 개인회사였음. 1948년 영화 제작과 교육 등에 대한 지원보다는 영화연구 분야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 래드클리프 보고서에 따라 관련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겼으며, 1952년부터 2000년까지 BFI는 새롭게 실험적인 작품을 만드는 영화인들을 지원했음. 이후 1983년에 왕실 칙허(Royal Charter)를 받았고, 2000년에 BFI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책임기관으로 영국영화진흥위원회 UK Film Council이 문을 열었으나 2011년 폐지됨

57) NDPB란 '영국 정부의 정책 운영에 역할을 하지만 정부의 부서나 기관이 아니므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상호 대등한 관계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 정의할 수 있음. BFI는 정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비정부 공적기관으로서 예산 사용, 거버넌스 구조, 공적 역할 수행 여부 등에 대해 해당 부처로부터 최소 3년에 한 번 감사를 받아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BFI 역시 해당 부처인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감사를 처음으로 받았으며, 관련 내용이 2014년 9월 보고서로 발표되었음



- BFI는 왕실 칙허를 받은 자선 조직이자 동시에 비정부 공적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목표에 기반하여,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첫째, 영국 전역에 걸쳐 영화, 텔레비전, 영상 기반 예술을 발전시킴
 - 둘째, 당대의 삶과 생활양식의 기록으로서 영상물을 이용하도록 장려함
 - 셋째, 텔레비전, 영화, 동영상에 대한, 영상 기반 예술이 사회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교육을 장려함
 - 넷째, 영국 영화와 월드 시네마에 대한 감상 및 접근성 증대를 위해 활동함
 - 다섯째, 영국의 문화유산 및 영상 기반 예술의 역사를 반영하는 작품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나감
- 위 다섯 가지 목표 하에 BFI는 2012년 네-2017 지원 정책: 필름 포에버(Film Forever: Supporting UK film)'를 발표해 영국 전역의 영상 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진행함. 필름 포에버의 성공을 발판으로 2017년에 BFI2022: Supporting UK film 플랜을 발표함
- BFI의 주요 재원은 복권기금이며, 그 외에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Grant-in-Aid, GIA)과 BFI의 수익사업(BFI 사우스뱅크 운영, 아이맥스 영화관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 후원 및 기부금 등이 있음

[표 4-1] BFI의 자원 구성⁵⁸⁾

(단위: 백만 파운드)

년도/단위	국고보조금	복권기금	자체수익금	총 수입	총 지출
2012~2013	27.9	52	20.6	100.5	81.5
2013~2014	23.3	47	20.6	90.9	97.4
2014~2015	15.5	53.9	17.4	99.4 ²⁾	86.1
2015~2016	22.2	52.8	19.8	100.1 ³⁾	95.2
2016~2017	23.9	45.0	19.7	95.7 ⁴⁾	98.4

주1 : 2012-2014년 자료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2014년 발간한 'Triennial Review of the British Film Institute'를 참고했으며, 자체수익금에 기타 수익도 포함됨. 그 이후 자료는 BFI 연간보고서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고, 2014-2017년 자체수익금에는 기타 수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주2 : 국고보조금·복권기금·자체수익금 이외에 기타 보조금, 유산 및 기부, 기부 서비스 및 시설, 투자수익 등 기타 수익 1,260만 파운드가 더해짐

주3 : 기타 수익 520만 파운드가 더해짐

주4 : 기타 수익 710만 파운드가 더해짐

58) BFI 홈페이지, www.bfi.org.uk.

- 문화미디어스포츠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BFI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 기관으로 보내는 할당금과 아카이브, 영화제, 기타 핵심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 전략 영화 인증 등에 사용됨
- 정부의 공공예산 긴축 정책에 따라, BFI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 또한 줄어드는 추세임. BFI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자체 수익 증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BFI의 자체 수입원은 대표적으로 4가지 부분에서 발생하는데, 먼저 BFI 사우스뱅크 극장, DVD 판매 혹은 교육용 교재개발, 아이맥스 극장 수입, 다양한 재단, 기업, 개인들로부터 받는 기부금⁵⁹⁾ 수입 등을 통해 자체 수입원을 확보하고 있음. 2011년부터 자체 운영 극장 사업을 확장하면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음
- 자체수입원 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기부금 수익이 적지 않은데, 2018년 2월에 발표한 BFI 필름 포에버(Film Forever) 5개년 성과 보고서⁶⁰⁾에 따르면, 기부금의 수익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 BFI의 2012~2017년 기부금 변동 추이

(단위: 만 파운드)

년도	현금	총 금액
2012~2013	250	360
2013~2014	220	360
2014~2015	260	370
2015~2016	380	530
2016~2017	460 ¹⁾	610

주1: 460만 현금 중 110만은 일회성 기부금임

- BFI 2012-2017 필름 포에버 전략 주요 성과
- 필름 포에버의 4가지 주요 전략과제는, 첫째,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확장하고, 둘째 영국 전역에 걸쳐 관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셋째, 영국 영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지원하고, 넷째,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국의 영화 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유산을 공개함⁶¹⁾. 이러한 전략 과제를 바탕으로 BFI는 주요하게 Film Audience

59) BFI에 1파운드를 기부할 경우 국가로부터 25펜스를 돌려받는 기부금 제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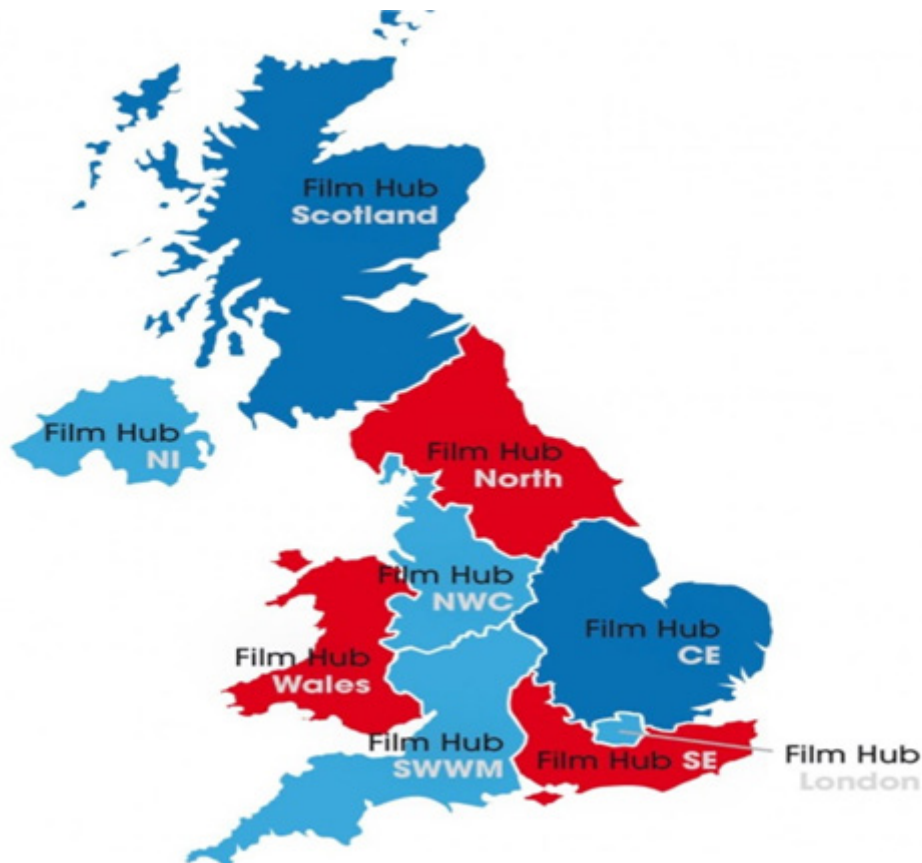
60) BFI 홈페이지. www.bfi.org.uk.

61) 홍교훈·염신규·배용찬·원환섭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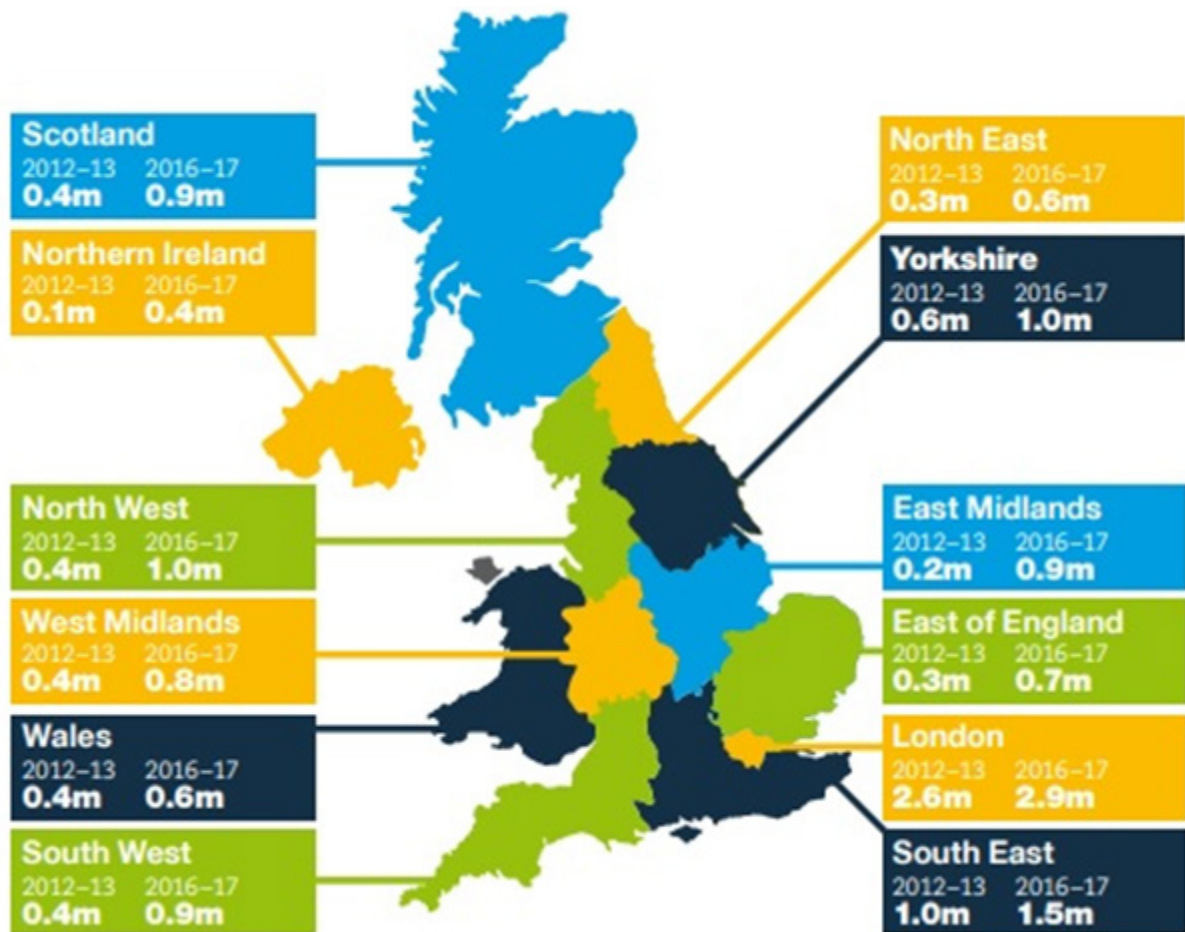
Network(이하 FAN)의 구축 계획 수립, 인투 필름(Into Film)⁶²⁾ 교육 계획 수립, 영국 영화 유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배급을 시도함

- 필름 포에버의 주요 성과로는 영국 전역에 걸쳐 9개 FAN 필름 허브가 구축되어, 이들 허브를 주축으로 상영회 및 이벤트가 진행됨. 이를 통해 영국 독립영화 및 특별한 영화(BFI가 선정함)에 대한 감상 기회가 지역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2012~2013년과 대비하였을 때, 2016~2017년에 이들 영화의 관객 수가 730만 명에서 1,220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역 비중에 있어서도 런던 및 사우스 이스트 이외 지역 관객 비중이 51.2%에서 63.7%로 상승함



[그림 4-1] 2017년까지 구축된 9개 FAN 필름 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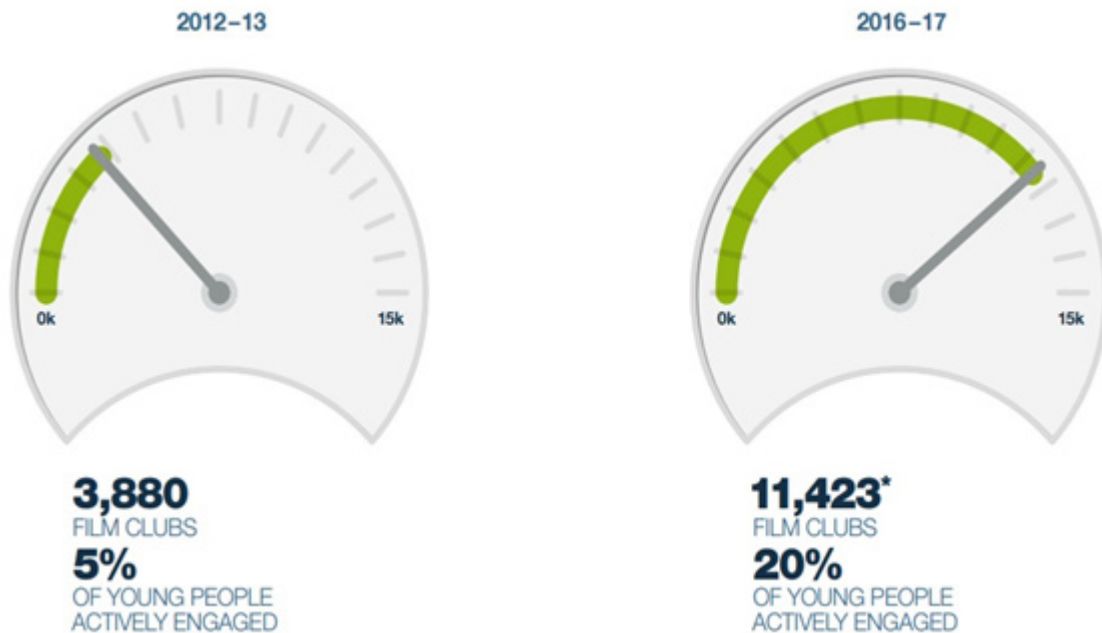
62) 인투 필름은 BFI를 비롯하여, 기타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교육 분야에서의 영화 교육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단체로, 2013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영화 교육과 영화제작 경험을 제공하던 필름클럽(FILMCLUB)과 퍼스트 라이트(First Light)가 5세부터 19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서 영화 제작에 초점을 맞춘 인투 필름으로 통합됨(최상희, 2017)



[그림 4-2] 2012~2017년 권역별 관객 수 증감 현황

- BFI는 인투 필름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필요에 따른 협력 업무를 진행하고, 인투 필름의 목표를 “영화 교육을 학교 주변에서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잡으며, 인투 필름이 지원하는 필름 클럽이 학교 안에서만 아니라 청소년 클럽이나 영화관, 도서관과 같은 학교 밖 환경에서도 운영됨
- 인투 필름(Into Film) 교육 계획을 통해, 2013년에 약 3,880개 존재하던 필름 클럽 수가, 2017년에 총 11,423개⁶³⁾로 늘어남. 참여 학생 수 또한 해당 연령의 학생 중 참여율이 5%에서 20%로 증가하였고, 학생들이 필름클럽에서 영화 창작, 감상, 비평 등의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함. 또한 영화를 이용한 광범위한 교육적 효과를 성취하기 위해 BFI 교육팀 소속의 1인이 인투 필름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63) 일반적으로 1개 학교당 1개의 필름클럽이 만들어지나 1개 이상의 필름클럽이 만들어진 경우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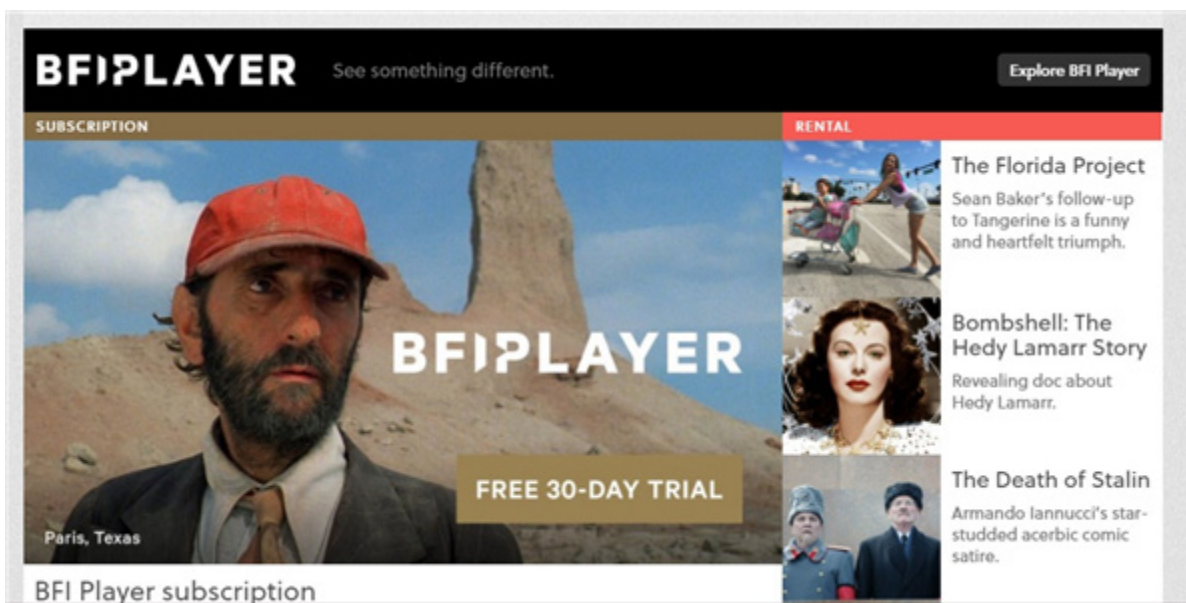


[그림 4-3] 필름 클럽 수 및 참여 학생 증가율

- 필름 포에버의 성과는 영화 제작 측면에서도 BFI 제작 펀드를 받은 작품들이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표적 작품으로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있음
- 디지털화된 BFI 콘텐츠의 대중 접근 및 방문객 수에 대한 목표를 25% 증가로 잡았으나, 최종적으로 방문(페이지뷰 집계) 9백만(2012~2013년)에서 2,010만 (2012~2017년)으로 123% 증가했으며, 접근(순방문자수 집계)은 520만 명에서 1,150만 명으로 121% 증가함
- 영국 영화 수출의 경우 13억 파운드에서 19억 파운드로 증가함
- 영국 콘텐츠의 디지털화 작업은, 총 10,506개의 타이틀이 디지털화됨
- 영국 BFI2022 플랜 개요⁶⁴⁾
 - 2017~2022년에는 총 5억 파운드(한화 약 7,343억)를 투자하였고, 기존 관객개발 및 영상문화 진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며, 동시에 영화 교육 및 영화 인력의 교육을 지원하여 새로운 영화인을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둠

64) BFI 홈페이지, www.bfi.org.uk.

- BFI2022는 미래 관객, 미래 학습과 기술, 그리고 미래 인력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전략적 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예산 또한 이 세 카테고리에 따라 배정됨. 영국 영화에 국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의 영화와 동영상을 보호하기 위해 인하우스 전문가를 증가시키고자 함
- BFI2022는 BFI 2012-2017년 계획이었던 필름 포에버(Film Forever)의 성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임. 필름 포에버는 현재 거의 만 여개 학교에 활동 중인 필름 클럽을 가진 인투 필름의 정착을 이끌어냈음. 또한 BFI Film Audience Network(FAN), BFI Film Academy 및 VOD 플랫폼인 BFI Player의 성공 또한 이끌어냄. BFI Player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 여 개의 타이틀을 배포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높였음



[그림 4-4] BFI Player

- 영국 BFI2022 플랜의 주요 방향 및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극장 상영을 위한 영화만이 아닌 모든 형태의 영화를 지원: BFI는 1933년 이래 기술 분야 및 동영상 형태에 있어서 기술적 진보를 수용하면서 영상예술 분야를 보호해옴. 대형 스크린을 위한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BFI는 모든 형태의 상영 플랫폼을 아우르며 미래 지향적 동영상을 지원함



- 복권기금을 혁신적이며 새로운 창작 작업 지원에 사용하면서, BFI 제작 펀딩의 중심에 둬. 인터랙티브한 작업(예: VR 콘텐츠), 플랫폼에서의 서사적 필름 메이킹, 폭넓은 애니메이션과 디지털 작업, 길이와 상관없는 에피소드식 작업 등을 포괄하는 형태에 대한 지원 및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동영상 작품 제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새롭고 유연한 접근 방식을 시도함
- 저예산 및 데뷔작 지원을 위한 패스트 펀딩 모델 구축하였으며, 영화 창작 작업의 위험부담을 줄여 초보 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제작비 전액을 신속하게 펀딩하는 방식을 도입함. 또한 이러한 저예산·데뷔작들이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배급업자들을 지원함
- 오래된 영국 TV 프로그램의 디지털화를 시도하였으며, 영국의 TV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가 이러한 작품과 만날 수 있도록 십만 개의 영국 TV 프로그램을 디지털화함

② 다양성 및 기술 지향 정책 : 다양성 정책은 BFI의 2012-2017 Film Forever 때 시작된 것으로, BFI는 ‘BFI 다양성 기준’을 만들어 복권 기금이 투여된 BFI의 모든 프로젝트 및 공공 프로그램에 이를 도입하도록 함

- 크리에이티브 스킬셋(Creative Skillset)⁶⁵⁾과 함께 10개년 기술 전략을 전개함. BFI는 영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줄 미래 인력 양성을 위해 영국 전역의 다양한 이력을 지닌 수많은 이들에게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산업적, 재정적 배경이 탄탄한 전문 기술 체제를 바탕으로 기술 교육을 제공함
- BFI 다양성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영국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상 제작 현장에서 BFI 다양성 기준을 자발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영국에서 활동하는 제작자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함
- BFI 문화 프로그램⁶⁶⁾을 이용하여 다양성 아젠다를 설정하였으며, 영국적 다양성을 탐구하고 영국 여성감독 및 작가들, 그리고 여성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작업에 지원함

65) 크리에이티브 스킬셋은 영국 정부가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해 창조산업 영역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기구로, 필름 스킬셋 펀드를 투자해 영화산업 인력 및 기술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66) BFI 문화 프로그램은 BFI 내셔널 아카이브를 운영하며, 지식과 접근을 증대시키고 BFI의 문화 교차 플랫폼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산은 1억 7,950만 파운드(약 2,636억 원)임

- 교실 영화 선언(Manifesto for Film in the Classroom, MFC)을 작성하였는데,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영화의 중요성 및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로서의 영화의 중요성을 보여준 인투 필름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기 위해 선언내용을 작성함

③ 런던 이외 지역으로의 의사 결정 및 펀딩 권한 이전 : 영국 영화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 분야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6년 3분기 0.5% 성장세를 보인 다른 산업 분야와는 달리 영화 및 TV 제작은 16%이상의 성장세를 보임. BFI2022에서는 영화 산업 잠재력을 지닌 지역을 조사(런던 이외의 지역, 특히 잉글랜드의 다른 도시들)하였으며, 이들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고 영국 영화 산업을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함

- BFI 제작 펀딩의 25%를 2022년까지 런던 이외의 지역에 기반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BFI NETWORK Talent Executives’를 구성하여, 지역의 잠재력 있는 영화인들을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FAN의 주요 문화 지구인 잉글랜드 지역 필름 허브들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책임자를 선정함. 또한 이들에게 BFI의 전략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함

• 영국 BFI2022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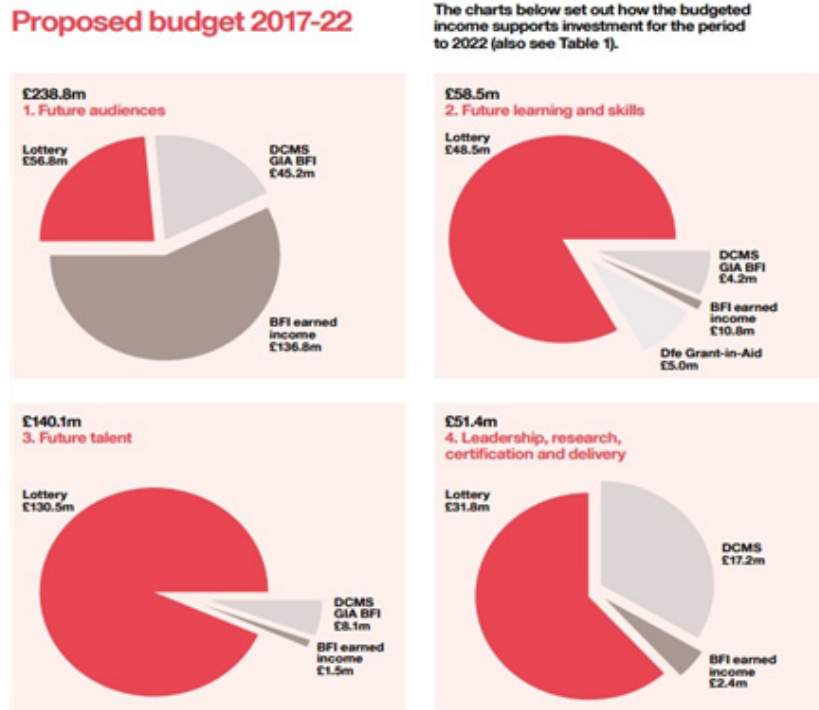
- BFI는 세 가지 우선 전략과제 실행을 위해 5년간 488.8백만 파운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예산 구성은 복권기금 267.7백만 파운드, 비복권기금 221.2백만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음. 비복권기금은 문화미디어부(DCMS) 및 교육부(DfE)로부터의 국고보조금(Grant-in-Aid)과 BFI 자체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복권 기금 중 약 50%가 자체 수익금임



[표 4-3] BFI 2022 예산구성안

(단위: 백만 파운드)

	복권기금	비복권기금	합계
1. 미래 관객(Future audiences)			
FAN 펀드	15.0	0.0	15.0
관객 개발 펀드	28.3	2.5	30.8
영화 유산	13.5	0.0	13.5
BFI 문화 프로그램	0.0	179.5	179.5
총합	56.8	182	238.8
2. 미래 학습 및 기술(Future learning and skills)			
2-1. 학습			
인투 필름(Into Film)	24.0	0.0	24.0
FAN 펀드	1.0	0.0	1.0
BFI교육-학습 기반 장소	0.0	5.0	5.0
2-1 합계	56.8	5.0	59.3
2-2. 기술			
기술	17.5	0.0	17.5
BFI 영화 아카데미	2.5	5.0	7.5
전국 거점 성장 펀드	3.5	0.0	3.5
2-2 합계	25	5.0	28.5
총합	48.5	10.0	58.5
3. 미래 재능(Future talent)			
3-1. 영화인 지원			
BFI 제작 펀드	79.5	0.0	79.5
개발 펀드	12.5	0.0	12.5
재능개발 및 아이피처스	12.5	0.0	12.5
3-1 합계	41.8	0.0	104.5
3-2. 기업 지원			
비전 어워드	4.0	0.0	4.0
인터내셔널 펀드	10.0	0.6	10.6
기업 펀드	10.0	0.0	10.0
전국 거점 성장 펀드	2.0	0.0	2.0
영국 인증 및 세금 감면	0.0	2.5	2.5
로케이션 서비스	0.0	4.0	4.0
크리에이티브 유럽데스크	0.0	2.5	2.5
3-2 합계	99.3	9.6	35.6
총합	130.5	9.6	140.1
4. 리더십, 연구조사, 인증 및 딜리버리			
연구조사	3.0	0.0	3.0
리더십 및 딜리버리	28.8	19.6	48.4
총합	31.8	19.6	51.4



[그림 4-5] BFI2022 자원 출처별 예산안 구성

■ 권역별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영국 BFI 정책 : Film Audience Network⁶⁷⁾

- BFI는 BFI2022 전략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영국민이 풍부하고 다양한 영국영화 및 해외영화(과거, 현재, 미래)를 접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BFI FAN 2017~2022를 발표함
- BFI Film Audience Network(이하 FAN) 및 BFI Audience Fund(예산안 중 미래 관객 부분에 배정되는 예산, 이하 관객 펀드)는 BFI FAN 2022 목표의 중심임. FAN 및 관객 펀드는 영국 전역에 걸쳐 영화 분야에서 관객과 인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BFI의 목표를 뒷받침하고 있음
- BFI 관객 펀드는 모두가 지원 신청 가능한 펀드이며, BFI2022의 전략 과제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복권기금의 재원을 BFI가 운영함. BFI 관객 펀드는 기존에 분리되어있던 배급, 영화제, 프로그램 개발, 네이버후드 시네마 펀드를 대체함(이들 펀드는 2017년 3월로 종료됨)

67) BFI(2016), 『BFI Film Audience Network 2017-2022 An Overview』.



- FAN은 2012년 설립되었으며,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함. FAN의 목표는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영국 및 해외영화를 관람하며 비평할 수 있는 관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것임⁶⁸⁾. 2012~2017년 FAN의 성공을 발판으로 향후 5년간 BFI는 영국에서 영화 관객을 더욱 확대하는 데 있으며,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BFI2022의 주요 과제들과 함께 관객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FAN의 목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개별 관람이 아닌 집단적 관람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관객층 형성을 도모함.
 - 둘째, 다양한 영국 및 해외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확실한 배급사 및 기관 단체의 상영 및 배급 라인 구축을 목표로 함



[그림 4-6] 2014년 8월 BFI FAN 상영회(장소: 맨체스터 대학 내 조드렐뱅크 천문대)

68) FAN은 1,500 여 개 이상의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과 국가 사이의 협업에 중점을 둠. 인투 필름(Into Film)과 영국 전역의 만 개 이상의 필름 클럽, BFI 관객 펀드, BFI 영화 아카데미와 함께 지역 전문가들을 모여 거주지에 상관 없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 및 해외의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짐

- BFI2022 중 FAN과 관련된 전략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센트럴 런던 바깥 지역에서 관객들에 대한 영국 및 해외의 독립 영화 접근성을 높임
 - 둘째, 영국 전역에서 BFI 지원 활동의 참여율을 높이고, 문화적 깊이가 있는 경험을 관객에게 할 수 있도록 고양시킴
 - 셋째, BFI의 필름 및 TV아카이브, 각 지역의 아카이브를 통해 영국의 영화적 유산에의 접근성을 높임
 - 마지막으로, FAN 활동이 관객들의 영화 감상 및 비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FAN 활동에 참가하는 16세~30세의 향유자 확대 및 관객 다양성 증진에 목표를 두고 있음
- BFI FAN 2017~2022를 통해 FAN에 유용한 의사결정 능력 및 종합적 자원을 육성하여, FAN의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영국 전체를 포괄하는 필름 허브 8개를 만들어 이들 필름 허브가 FAN의 목표 및 BFI2022의 전략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 영국 전역에 8개의 필름 허브가 구축되어 있으며, 필름 허브는 허브의 지역적 경계 제고와 함께 회원제도, 허브 자원 관리 및 허브 회원 활동의 평가 등을 실시함. 또한 필름 허브 리드 조직(Film Hub Lead Organisation, FHLO)의 백오피스로 기능하고 있음. 필름 허브는 2017년에 9개 지역 허브가 구축되었으나, 2018년 최종적으로 8개 허브로 재정비함

[표 4-4] 2018년 현재 필름 허브 및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이하 FHLO) 현황(2018년 기준)

지역	국가차원(BFI를 통한 지원)		지역정부 차원
	필름 허브	필름 허브 리드 조직	필름 허브 지역 지원 기관 ⁶⁹⁾
북부 아일랜드	Film Hub Northern Ireland	Queens Film Theatre (queensfilmtheatre.com)	Northern Ireland Screen
스코틀랜드	Film Hub Scotland	Glasgow Film Theatre (glasgowfilm.org)	Creative Scotland
웨일스	Film Hub Wales	Chapter Art Centre (www.chapter.org)	Ffilm Cymru Wales (Film Agency for Wales)



잉글랜드	Film Hub South East	Independent Cinema Office	Creative England
	Film Hub Midlands	Broadway Media Centre (www.broadway.org.uk)	
	Film Hub South West	Watershed	
	Film Hub North	Showroom Workstation, HOME, Tyneside Cinema	
런던	Film Hub London	Film London	Film London(촬영지원 서비스)

- 잉글랜드 지역 내 4개의 필름 허브에 대한 경계는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구획과 일치함. BFI는 이를 계기로 영국예술위원회와 문화적 협업을 위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잉글랜드 지역 필름 허브 내 BFI 네트워크에 재능 있는 작가, 감독, 프로듀서를 발굴, 지원하는 책임 역할을 수행할 이사 6명(BFI Network Talent Executives)을 공개 모집하여 지명할 예정임
- FHLO(필름 허브 리드 조직) : 각 허브는 FHLO의 주도로 운영되며, FHLO는 영화 상영에 있어 조직적 파워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실행 조직으로, 영국 및 해외 독립영화 관객을 개발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거둔 조직이 주로 맡음
 - 2018년 1월 발표된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은 대부분 지역에서 독립 예술영화를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영화제 상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해 온 곳들임
 - 각각의 지역에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온 기관이거나 조직들로 구성됨
 - 따라서 FHLO는 BFI2022의 전략 과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제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여,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달함. 또한 FHLO는 다양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은 각각의 허브 내에서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한 책임이 있음

69) 여기에 명시된 지역지원기관들은 영국의 각 지역정부(런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부 아일랜드, 웨일즈)의 비영리 영상진흥기구들임

- **FAN 회원** : FAN의 회원은 독립영화관, 영화 프로그램을 갖춘 아트센터, 필름 소사이어티(영화 모임), 영화제,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아카이브 등과 같은 광범위한 기관들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교육 공급자, 갤러리, 박물관, 온라인 프로바이더, 방송국, 지역 방송국, 도서관, 제작사 등도 이에 해당되며, FA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절차와 심의를 거쳐야 함
- **허브 자문 그룹** : FHLO는 허브 내의 전략적 의사 결정을 위해 허브 자문 그룹 (Hub Advisory Group)의 지원을 받음. 자문 그룹은 전략 계획, 의사 결정 및 특정 분야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며, 자문 그룹은 허브 회원들의 선택으로 대부분 구성되지만, BFI2022 FAN 전략 과제 달성에 도달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회원도 자문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음
- **전략적 파트너** : FAN의 체계에는 속하지 않지만,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를 보완할 조직들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인투 필름(Into Film), UK 영화 조직(UK Cinema Association), 영화배급업자 협회, Independent Cinema Office(ICO), Cinema for All, Creative Scotland, NI Screen, Ffilm Cymru Wales(Film Agency for Wales), BFI Film Academy, Creative Skillset, 국가 및 지역, 그리고 BFI 필름 아카이브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FAN 활동영역은, 허브 베이스 활동 및 크로스 팬 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허브 기반 활동의 일환으로 관객 개발, 영화제, 순회 커뮤니티 시네마 계획 수립, 회원 지원, 인재 개발 등이 이루어짐**
 - 크로스 팬 활동의 일환으로는,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의 주요 활동이 허브 지역에 맞춰지지만, 동시에 BFI는 FAN이 좀 더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국 지역에서 운영함. 이를 위해서 BFI는 선정된 크로스 팬 활동 영역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러한 크로스 팬 활동은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게 함. 따라서 BFI의 지원 외에 리드 조직을 통한 펀딩 활동으로 크로스 팬 프로젝트의 다양한 기금 모금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BFI는 복권 기금 중 약 3백만 파운드(약 45억 원)를 FAN에 배정하였고, 인재 개발 지원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로 배정함. 총 FAN에게 할당된 자금 중 약 65% 정도가 허브 기반 활동에 사용되고, 약 35% 정도가 크로스 팬 활동에 사용됨
- 영국은 지역정부마다 지역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기관을 두고 있음 (Creative Scotland, Creative England, Northern Ireland Screen, Film Agency for Wales, Film London). Creative Scotland와 Creative England의 경우 영상문화 뿐만 아니라 기타 창조산업 진흥을 함께 담당하고 있음
 - 이들 공공기관은 대부분 지역정부의 보조금(Grant in Aid) 및 중앙정부의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복권기금의 경우 BFI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우선 과제들에 사용함. 또한 지역정부 보조금은 복권기금과 결합해 지역 영화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함. 예를 들어, Creative Scotland의 경우 스코틀랜드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영화 제작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정부 보조금 50만 파운드와 복권기금 50만 파운드를 배정함⁷⁰⁾. 또한 BFI의 각종 펀드는 이들 지역기관과 관련된 사업들에 지원됨
 - BFI의 FAN 필름 허브 리드 조직들과의 연계를 살펴보면 Creative Scotland, Creative England, Northern Ireland Screen, Film Agency for Wales, Film London 기관들과의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런던 지역의 경우는 필름 런던(런던영상위원회)이 필름 허브 리드 조직이며, 웨일스의 경우 Film Agency for Wales가 Chapter Arts Centre와 MOU를 체결함⁷¹⁾

70) Creative Scotland, 『Creative Scotland Annual Plan 2017-2022』.

71) Film CYMRUWALES, 『Ffilm CYMRUWALES Business Plan April 2015-March 2018』.

2. 프랑스 : 문화 민주화에 입각한 영상·영화 정책

■ 프랑스 영화 정책의 특징 및 예산 구성

- 문화민주화(démocratisation de la culture) 개념에 입각한 영화 정책
 - 문화민주화 정책은 1960년대 앙드레 말로 문화부 장관 시절에 도입한 개념으로, 프랑스 시민 모두가 문화 창작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1969년부터 각 지역에 문화부지역사무소(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이하 DRAC)를 설치함
 - 프랑스인의 시민적 자질 양성을 위한 매개체로서 문화의 중심에 영화가 위치함. 이를 위해 프랑스는 국립영화센터인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이하 CNC)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영화산업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전개함
- 전방위적 문화예술교육에 기초한 영상문화 활성화 정책
 - 정규교육과정에 영화이미지 교육이 도입됨.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1981~1995) 시절 문화민주화정책 실현을 위해 편성됨. 기존에 제작된 영상을 통한 문화유산 학습과 일상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예술 능력함양을 목적으로, 공교육 내 영상교육을 도입함. 영상의 수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능동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함
 - 1994년 유아, 초등 과정의 ‘학교와 영화관(École et cinéma)’, 1989년 중학 과정의 ‘영화중학교(Collège au cinéma)’, 1998년 고등학교 과정의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을 정규과정으로 영화교육에 도입됨
 - 정규교육 과정 외에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영화이미지 교육을 실시함. 시민적 자질 양성을 위해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계층(시골, 병원, 교정시설 내 청소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이러한 영화이미지 교육을 통해, 미래의 영화인력 양성 및 관객 개발에 힘쓰면서, 각 지역의 예술영화관 확장 및 예술영화, 작가영화, 독립영화 등 다양성 있는 영화 보급에 기여함



-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3년 단위로 다부처간 협약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 모두 프랑스의 다양한 영화를 즐기기 위해, CNC와 중앙정부(문화부)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참여 협약의 틀을 마련함. 각각의 역할 및 예산 분담을 협약내용에 포함하고 있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문화부지역사무소인 DRAC과 CNC, 그리고 지자체(레지옹, 데파르트망, 빌 등)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영화이미지교육은 문화부 지역사무소인 DRAC, 교육부 지역사무소, DAAC(Les délégués académiques à l'éducation artistique et à l'action culturelle, 문화적 조치 및 예술교육 담당 아카데미 대표부, 이하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무소DAAC)⁷²⁾, CNC, 지자체가 함께 지역 영화이미지교육 실현을 위해 협조함
 - 문화부 및 CNC 예산구성은 다음과 같음. 2018년 문화부 예산은 약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백억 원)로 프랑스 국가 전체 지출(7,110억 유로)의 1%를 넘음. 문화부 예산 중 공공기관(공영방송, CNC 등)에 할당되는 예산 47억 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36억 유로 중 문화 미션(Mission Culture⁷³⁾)에 사용될 예산이 29억 유로로 80%를 차지함. 문화 미션 예산은 점진적 증액(2017년 2,900만 유로, 2018년 2,942만 유로, 2019년 2,955만 유로, 2020년 3,002만 유로)이 예상됨
 - 문화 미션 배정 예산 29억 4천 2백 유로 중 지방으로 교부될, 지방분산 예산은 8억 6천유로(한화 약 1조 1,240억 원)⁷⁴⁾로 약 29%를 차지함
 - 2018년 문화 미션 예산 중 지식 전달 및 문화 민주화 예산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우선 정책인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로 전년대비 5.2% 증가함. 지식 전달 및 문화민주화 예산 5억 5,500만 유로(한화 약 7,188억 원) 중 문화예술 교육 지원 예산은 총 1억 1,400만유로(한화 약 1,490억 원)를 확보함. 이 중 이미지교육 부분에 1,250만 유로(한화 약 163억 원)가 책정됨

72) Les délégués académiques à l'éducation artistique et à l'action culturelle (DAAC) : 문화 활동 및 예술교육 아카데미 지역대표부로,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역 실현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무소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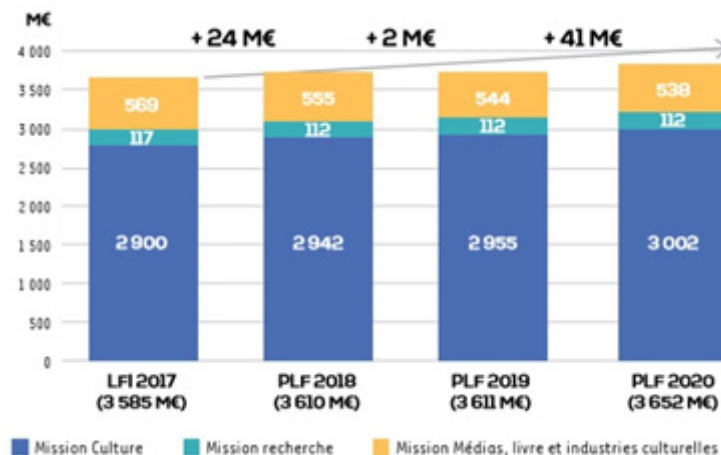
73) 프랑스 정부 예산은 각종 Mission으로 구분되며, 2018년 예산은 30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문화 미션에 29억 유로가 책정됨

74) AL (2017.04.12). Nyssen défend le budget de la Culture pour 2018 devant le Sénat. <https://www.actualitte.com/article/monde-edition/nyssen-defend-le-budget-de-la-culture-pour-2018-devant-le-senat/86158>에서 2018.06.08. 인출

[표 4-5] 2018년 프랑스 문화부 예산⁷⁵⁾

(단위: 백만 유로)

	LFI2017	PLF2018	증감(%)
미션			
1-1. 문화 미션(Mission Culture)			
P175 문화유산	899	897	-0.1
P131 창작	777	779	0.3
P224 지식전달 및 문화 민주화	528	555	5.2
P224 인건비	697	711	2.0
합계	2,904	2,231	1.5
1-2. 연구 미션(Mission Recherche)			
P186 학문적 문화연구	117	112	-3.9
합계	117	112	-3.9
1-3. 미디어, 책, 문화산업 미션(Mission Media, Livre et Industries culturelles)			
P180 언론과 미디어	292	285	-2.5
P334 책과 문화산업	276	271	-2.1
합계	2,204	597	-2.3
총합	3,585	3,610	0.7
2. 세제기금 예산			
라디오프랑스 프랑스 TV, 아르떼 등등	3,931	3,895	-0.9
국립영화센터(CNC)	707	724	2.4
CNL, CNV, ASTP	93	93	0.0
총합	4,731	4,708	
총계	8,316	8,321	0.1
회계비용	1,549	1,585	2.3
전체합계	9,864	9,905	0.4
타 부처 비용	4,260	4,283	0.6



[그림 4-7] 2017~2020년 프랑스 문화부 예산(산하기관 예산 제외)

75)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www.culture.gouv.fr.



- 문화부 예산 중 CNC 예산은 7억 2,400유로(한화 9,462억 규모)로 문화부 예산의 약 7%를 차지함

[표 4-6] CNC 예산 추이⁷⁶⁾(2016~2018년)

(단위: 천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Action No. 1. 영화제작 및 창작 지원	129,660	130,397	130,530
Action No. 2. 시청각작품 제작 및 창작 지원	262,026	271,740	277,958
Action No. 3. 기술 분야 혁신 지원	14,125	17,225	20,341
Action No. 4. 영화 및 시청각작품의 배급, 확산, 홍보 지원	196,643	213,559	216,133
Action No. 4. bis. 디지털 플랜 (영화유산 디지털화 예산)	2,576	2,566	4,452
Action No. 5. 기타 영화 및 시청각 분야 지원	30,791	33,231	35,723
Action No. 6. 운영비	37,200	37,857	38,823
합계	673,021	706,575	723,960

- 문화부 예산 중 CNC 예산은 7억 2,400유로(한화 9,462억 규모) 규모로 문화부 예산의 약 7%를 차지하며,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은 685백만 유로임. 이 중 문화민주화 및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지자체 관련 예산은 Action No. 4. 와 Action No. 5.에 해당함
- Action No. 4.는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배급, 확산, 홍보 지원 예산 중 2,400만 유로(한화 약 313억 원)를 ‘예술과 실험’영화로 분류된 작품의 확산지원(50만 유로)을 포함하여 ‘예술과 실험’영화관으로 지정된 극장들을 지원에 사용됨
- 문화부의 이미지교육 예산과는 별도의 선택적 지원 예산으로 영화 확산을 위한 2750만 유로(한화 약 359억 원) 중 이미지교육 정책 관련으로 27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책정함. 이 예산 중, 중고등학교 내 영화감상 및 토론하는 시네클럽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CNC는 220만 유로(한화 약 29억 원)를 중고등학생들에게 토론을 동반한 영화상영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활동에 투여함. 본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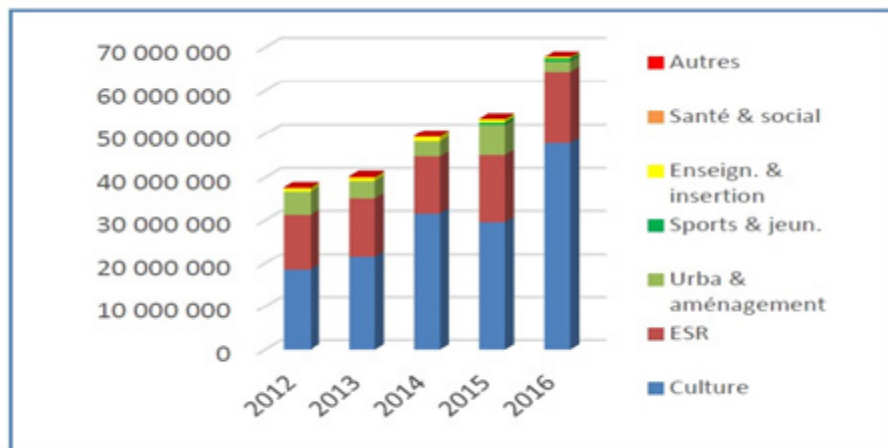
76)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www.senat.fr.

- 사회봉사활동 참여유도를 통해 시민의식을 도모하는 유니씨테(Unis-Cité)와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월 58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함
- 지역에 양질의 다양한 영화상영 극장을 보존하기 위해 ADRC(Agence pour le développement régional du cinéma, 지역영화관개발사무소)를 통한 220만 유로(한화 약 29억 원)를 배정함
 - 프랑스 영화유산 보관, 복원, 보급기구인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와 지역의 영화유산 보급기구들(시네마테크 툴루즈, 리옹의 뤼미에르 연구소 등)에 2,040만 유로(한화 약 266억 원)를 배정함
 - 유니 프랑스 등의 관련 단체 및 각종 영화제 지원과 같은 영화 및 시청각 프로그램 홍보 지원에 3,320만 유로(한화 약 434억 원)를 배정함
 - Action No. 5. 기타 영화 및 시청각 분야 지원 예산 중 국가·CNC·지자체 삼자간의 협약에 기초한 예산으로 지자체 제작지원 기금으로 1,870만 유로(한화 약 244억 원)를 배정함. CNC는 중앙정부 비중으로 지역문화사업국 DRAC에 배정된 관련 예산 250만 유로(한화 약 33억 원)도 함께 관리함. 관련 예산은 지역영화제, 예술과 실험 영화관 또는 지역영화관의 네트워크, 영화작품 상영구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협회 등을 지원함
- 공적 예산 이외 프랑스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메세나
 - 프랑스는 2003년부터 기업의 예술지원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도입 및 운영함.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2003.8.1)’을 통해 강력한 메세나 장려정책을 운영하여 기업이 예술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02년 3.4억 유로였던 기부금이 2015년 16억 유로로 증가함. 2015년 프랑스 기업들의 기부금 총액⁷⁷⁾은 16억 유로(2조 909억 원)로, 세액공제액은 9억 5,200만유로(한화 약 1조 2,441억 원)였음
 - 기업메세나는 총 61,000개 기업이 기부활동을 하고 있고, 100인 이하 사업장의 참여증가로 인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100인 이하 사업장의 기부금 총액은 두 배로 증가함

77) Fondation de France(2018). 『PANORAMA NATIONAL DES GENEROSITES - SYNTHÈSE』.



- 기업의 메세나 활동 기부금 총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13억 유로와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총 29억 유로(한화 약 3조 7,915억 원)로 집계됨. 개인 및 기업 기부금 중 공공적 성격의 조직(정부기구, 지자체, 정부 서비스)에 투여된 금액은 약 1억 3,500만 유로(한화 약 1,765억 원)로 아래와 같음
 - ▷ 제1 수혜자 : 5,500만 유로(한화 약 720억 원)가 공공기관(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는 기관, 그 기관의 법적 지위는 공·사 구분 없음. 예를 들면 CNC, 국립대학 등)에 지원됨. 프랑스 학사원에는 따로 3,300만 유로(한화 약 431억 원)가 투여됨
 - ▷ 제2 수혜자 : 4,100만유로(한화 약 536억 원)가 지자체(주요하게 코뮌)로 투여됨
 - ▷ 제3 수혜자 : 600만유로(한화 약 78억 원)가 정부 서비스에 투여됨
- 제1 수혜자인 공공기관 중 아래 그림의 파란색 영역인 문화 관련 공공기구에 가장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며, 이는 대규모 문화유산 조직과 관련되어 있음

[그림 4-8] 영역별 공공기관 투여 기부 변화(2012~2016년)⁷⁸⁾

- 기업의 문화 메세나로서의 기부행위는 정부와 정부 공적 조직들, 지자체, 공적 효용을 목표로 하는 협회 및 재단, 공공 비영리단체, 공연예술 보급 활동을 하는 조직(단, 회사형태는 제외), 특정 공교육기관 및 공인된 사립 교육기관 같은 영역에 가능함
- 지역문화부사무소인 DRAC에는 프랑스 전역 19개 DRAC 중 15개 DRAC에 지역메세나 개발 관련 담당자⁷⁹⁾가 있음

78) Comptabilite publique(DGCL et DGFIP)

79)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www.culture.gouv.fr.

■ 지역 차원의 영화진흥을 위한 CNC 협약정책 및 중점 추진 사업

- 3년 단위 협약 정책 : 국가·CNC·지자체(레지옹, 데파르트망, 빌) 간 협약
 - CNC의 협약 정책(La politique conventionnelle)은 1989년에 시작되었으며, 3년 단위로 갱신됨.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협조를 통해 영화시청각 분야를 지역 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며, 창작·제작·촬영 지원 분야, 영상 교육 정책, 문화 확산 정책, 영화 및 시청각 문화유산의 재평가 분야를 포함함
 - 2014~2016 협약 주기 안⁸⁰⁾에서 CNC는 정책강화를 유지해왔으며, 시청각 작품 및 장·단편영화 제작 지원 관련하여, CNC 1유로 투여 시 지자체 2유로 투여 조치 유지, 뉴미디어 작품 창작 지원 조치 강화, 지원작들이 관객들과 만날 수 있도록 배급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2014~2016 주기에는 40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음. 협약 지자체는 25개 레지옹(프랑스 전체), 13개 데파르트망(Aude, Alpes-Maritimes, Charente, Charente-Maritime, Côtes d'Armor, Dordogne, Finistère, Haute-Savoie, Landes, Lot-et-Garonne, Pyrénées-Atlantiques, Seine-Saint-Denis, Vienne)과 파리시, 스트라스부르그 유로 메트로폴을 포함함
 - 2016년 행정구역 개편과 지자체 선거를 거치며, 통합된 레지옹(프랑스 본토 22개 레지옹에서 2016년 13개 레지옹으로 바뀜)에서 새로운 실행주체와 조직이 구성됨
 - 201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2014년 협약을 맺은 구 행정 구역에 기초하여 전개된 조치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레지옹들이 많아서, 지자체의 투자가 다소 감소함. 2016년의 경우 26개 협약으로 약속된 총 예산은 1억 990만 유로로 2015년 대비 3.6% 감소함
 - CNC가 2016년 재정에 투여한 비용은 22.4백만 유로 중 15.3백만 유로가 창작 및 제작 지원 기금이며, 7.1백만 유로가 지원받은 작품들의 배급지원을 포함하는 문화 확산과 레지옹의 시네마테크에 대한 지원임. 지자체는 7,900만 유로, DRAC의 투여 비용은 850만 유로를 투입함
 -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차원(CNC+DRAC)의 예산 투여 변화는 1,010만 유로에서 3,090만 유로로 206%의 상승하였고, 지자체의 예산은 3,550만 유로에서

80) Ministère de la Culture(2017),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www.senat.fr.



7,900만 유로로 상승했으며, 상승 비율은 122%임. 기타 파트너들의 투여 비용을 포함하면, 2004년에서 2016년 변화는 4,560만 유로에서 1억 990만 유로로 증가함

[표 4-7] 국가·CNC·레지옹 3년간 협약 참여

(단위: 백만 유로)

지원 분야		지자체	CNC	DRAC(국가)	2016년 합계
창작 (시나리오 작성 및 개발)	영화 및 시청각	3.2	0.1	0	3.3
	뉴미디어	0.6	0.2	0	0.8
제작	뉴미디어 프로젝트	0.2	0.02	0	0.22
	단편	4.1	2	0	6.1
	장편	19.5	6.2	0	25.7
	시청각 프로그램	14	6.7	0	20.7
촬영지원		5.8	0.01	0	5.81
예술교육 및 문화 확산		24.9	5	8.4	38.3
지자체의 영화관 지원		4.8	0	0	4.8
문화유산 보존		1.9	2.1	0.1	4.1
합계		79	22.4	8.5	109.9

• 2017~2019 협약 중점 추진 사업⁸¹⁾

- 2016년 CNC는 2017-2019 협약 틀을 준비하였으며, 새로운 협약 틀 준비를 위해 지자체의 모든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협의과정을 거침.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선정한 중심축과 실행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협의 내용은 각 주제별로 300개가 넘는 자료를 수집함. 주제는 창작의 다양성 부상, 광범위한 확산(상영·문화 확산·유산), 이미지 교육과 시민성 육성, 영화전문 인력 공동체 및 관련 분야의 발전, 협조의 방식(협약 및 지역 간 협조 틀)으로 나뉨. CNC는 이들 자료를 취합해 2016년 7월 회합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발전 축을 제시함

81) CNC 2016년 결산 리포트 62-63 페이지 참조

① **영화 및 시청각 분야의 미래인력 발굴** : 이를 위해 CNC는 레지옹들이 자신들의 지역 네트워크와 떨어져 있는 인력들을 찾을 수 있게 ‘Talents en court’방안을 모색함. 지역에서 작가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NC는 레지옹들이 이들 작가들을 지원하도록 제안함. 지원금은 레지옹에서 이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에 CNC 1유로 지급시 레지옹은 2유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Talents en court (단편영화 창작자 지원)

- 이 지원제도는 사회적 혹은 지리적 이유로 전문 영화 네트워크(대학 영화학과, 영화기관, 영화산업계 등)들과는 접촉이 없지만, 예술적 재능을 지닌 유망한 청년들을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2012년 일드 프랑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함. 연중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이미지 교육 조치들, 아마추어 창작자, 직업세계 이 셋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목표로 함. 또한 다양한 연합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이미지 교육 기관, 사회문화협회, 영화제, 영화 전문 인력-작가, 테크니션, 제작자, 배급업자, 그리고 공적 기구 및 사적 조직들)과 다방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려고 함
 - CNC는 유망 인력들을 이끌고 보호하는 작업을 확장하기 위해 단편영화 창작자 지원 사업에 프랑스 전역의 레지옹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함
 -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창작자의 영화 프로젝트 : 영상 창작과 관련된 유의미한 교육 혹은 경험이 없는 자, 이미지교육 혹은 관련 직업교육 기관에 속하지 않은 자, 18세~40세 사이, 사회적 지리적 이유로 기관의 지원 및 전문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된 자, 전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영화 프로젝트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
 - 지원방안 : 위의 지원 대상에 속하는 청년 창작자들의 전문 네트워크로의 연결, 지도, 자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조치는 창작자의 영화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 촉진 역할을 하는 공동작업 플랫폼으로서 기능함. 이 역할은 아래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복수의 창구들 덕분에 가능함
- ① 케이스 스터디 및 피드백을 통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 ② 전문영화인인 작가들을 만날 수 있는 포럼, 영화제, 이벤트 등의 행사에서 개최되는 미팅
 - ③ CNC의 영화제 장학금(영화제 수상자의 차기작 시나리오 개발 지원)을 통한 재정적 지원 : 장편영화 프로듀서가 영화제에서 선정한 단편영화 프로젝트의 제작에 자신에게 부여되는 자동재정지원(CNC가 100% 부담)금을 투여 그리고 단편영화 창작자의 후원자가 됨
 - ④ 단편영화 촬영이라는 경험과 함께 그 작업의 메이킹을 만들면서 아마추어가 아닌 전문 영화인 세계로 진입

② CNC는 지역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레지옹이 지역 방송국과 협력하도록 촉구 : CNC는 레지옹들이 지역방송국과 COM 계약(Contrat d'objectifs et de



moyens, 지자체는 이 계약을 체결한 기관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이 계약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함. 지역방송국은 지역의 창작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젊은 창작자들이 만든 다큐멘터리나 연극을 각색한 시청각작품 등을 방영함. CNC는 지역TV방송국과 COM계약을 맺은 레지옹을 지원함

‘예술과 실험 영화관’지원 제도 개혁 : un nouvel élan(2017년 4월)⁸²⁾

- CNC는 1962년 예술과 실험 영화관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은 CNC의 오래된 역사적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중소 도시 및 농촌지역의 영화관들이 작가영화, 배급이 힘든 예술 독립영화들을 프로그램에 넣고 또 그와 관련한 행사들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음. 지원 제도 실시 55주년을 맞아 CNC는 이 제도의 새로운 비약을 도모함. 이 지원 제도의 개혁은 이들 영화관 지원 과정을 대폭 단순화, 현대화,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함. CNC의 행정자문위가 2017년 4월 6일 채택한 <로드 보고서>는 영화관협회(FNCF, AFCAE, SCARE) 및 관련 영화관 경영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음

- 개혁안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 ① 영화관 경영자들이 예술과 실험 영화로 분류된 영화를 더 많이 상영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도록 조치함
- ② 예술과 실험 영화관 분류 라벨인 청소년 관객(Jeune Public, JP), 유산과 레퍼토리(Patrimoine et répertoire, PR), 연구와 발견(Recherche et découverte, RD) 이 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영화관 경영주들을 지원하고, 또 단편영화 및 재발견영화(films de découverte)을 상영하는 영화관들을 지원함
- ③ 예술과 실험 영화관 분류를 1년 단위가 아닌 2년 단위로 바꾸고 라벨링 과정의 단순화를 요구함
- ④ 예술과 실험 영화의 추천에 있어 영화 개봉 전에 영화관 경영주에게 보여줌으로써 상영 프로그램 구성에 더 많은 가시성을 부여함
- ⑤ 프랑스 전역에 예술과 실험 영화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형 상영관(1~3개 스크린 보유 극장) 지원을 강화함

- 이 개혁은 CNC의 강력한 재정확보와 함께 이루어짐. 2018년 CNC 예산에 따르면 예술과 실험영화관 지원 예산은 2400만 유로임

- 개혁안은 또 다른 근본적 토대 구축을 포함하고 있는데 CNC는 CNC-국가-레지옹 협약 틀 내에서 재정 마련을 통해 ‘예술과 실험’영화관에서의 문화적 기획자들(행사를 기획하고 참여를 조직하는 책임자들)을 채용하도록 지원(레지옹 50%, CNC 25%, 극장주 25% 부담 원칙)함

82)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홈페이지, www.cnc.fr.

③ **영화관 지원** : 어떤 지역에서는 영화관이 유일한 문화기반시설일 수 있으며, ‘예술 및 실험 영화관’은 프랑스 전체 영화관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이들 지역영화관이 지역민과 창작자, 작품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CNC는 1대2 원칙하에 지역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역 영화관 지원 강화 및 확대라는 측면에서 CNC는 2017년 ‘예술과 실험 영화관’ 지원 제도를 개혁함

④ **중고등학교 시네클럽 육성 지원** : CNC는 중고등학교 내 시네클럽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함

⑤ **지자체 지원기금 확대** : CNC는 프랑스 모든 레지옹(프랑스 본토 13개, 레지옹·해외 5개 레지옹)의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제작을 지원함. 지자체가 제작에 2유로 지원 시 CNC 1유로 추가하며, 모든 레지옹으로 확대함⁸³⁾



[그림 4-9] CNC 위원장(좌)과 프로방스-알프스-코트다쥐르 의회 위원장(우)의 협약 체결식 (2017년 칸영화제)⁸³⁾

83)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홈페이지, www.cnc.fr.



• 국가(문화부) 지역사무소인 DRAC의 역할

- CNC와 문화부지역사무소 DRAC의 협조 : 문화부지역사무소에는 영화정책을 담당으로 하는 CNC 카운슬러⁸⁴⁾를 기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그렇지 않은 곳에는 문화예술의 분야를 공동으로 담당하는 카운슬러가 영화 정책을 담당함. 이들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상영 관련 영역에서 멀티플렉스 상영관 지침을 제공하며, 프랑스 영화 및 시청각물의 지원 제도인 자동·선택 지원 관련 자문 및 정보(상영관의 변화 기록, 선택 지원에 관한 의견, ‘예술과 실험’영화관 전국 모임의 조직, 보조금 제도 안내 등)를 제공함

▷ 창작지역공공부(Direction de la création, des territoires et des publics, DCTP)와 관련된 문화정책의 추진 및 실시를 담당함. 축제, 학기 중 청소년 관련 정책(영화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 학교 밖 관련 정책은 예술 교육, 영화 및 시청각 교육의 지역 담당이자, 예술 및 문화 부처간 협약의 지역적 실현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담당함

▷ 지자체와의 협력 계약 틀 안에서 창작지원, 제작지원, 촬영안내 관련 지역 정책의 조사를 담당하며, 그들은 지역전문가위원회 내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출석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시청각, 교육 및 직업교육 조치들, 유산 정책 등의 자문 및 모니터링을 담당함

■ CNC의 영화교육 정책을 통한 미래 관객 개발

• 정규 교육 과정 속 영화 교육⁸⁵⁾을 통한 관객 개발

- 1994년부터 시작한 유아, 초등 과정의 ‘학교와 영화관(École et cinéma)’, 1989년부터 시작한 중학 과정의 ‘영화중학교(Collège au cinéma)’, 1998년부터 시작한 고등학교의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Lycéens et apprentis au cinéma)’을 실시하고 있음. CNC는 각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함. 이는 정규 교육 과정상에서 행해지는 재량 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임

84) CNC는 1999년부터 문화부 지역사무소 DRAC(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에 영화 및 시청각 전문 카운슬러 네트워크를 점차적으로 구성하며, 2009년 10월 1일 26개 DRAC 중 16곳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전문 카운슬러 임명함. 그 외 10 곳 DRAC에서는 학제적 카운슬러들이 그 역할을 맡음

85)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www.education.gouv.fr.

- 영화 수업 전에 CNC가 영화별로 제작해 놓은 교육용 교재(CNC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각 프로그램별로 CNC의 전문가들이 선정한 작품 리스트가 있음)를 이용한 사전 교육이 진행됨
-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영화관에서 영화 작품을 재발견하게 하고, 수업시간 교육지침서(매해 문화부와 교육부가 영화 관련 협회와 함께 영화를 선정해 영화별 교육지침서를 마련함)를 통해 그 작품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함
- 2015년~2016년 학기 동안 전체 프랑스 학생들의 12.4%(160만 명)가 이 정책과 관련된 수업에 참여하고, 377만회의 영화 관람을 기록함

[표 4-8] 2014~2015년 학기 참여 현황

사업명	학생 수	참여 지역 수	입장객 수 (백만 명)
학교와 영화관	836,699	95개 데파르트망	2.0
영화 중학교	418,670	93개 데파르트망	1.1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	280,552	6개 레지옹	0.7
합계	1,535,921		3.8

- 2016년 관련 예산은 220만 유로(한화 약 29억 원) 배정됨
- 고등학교에서는 일주일 5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대학입학자격시험 관련 시험문제가 출제됨
- 지역 차원의 이미지 교육 지역 사무소(Pôles régionaux d'éducation aux images)
: CNC는 국가 차원의 영화 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이 정책들이 일관되게 실현될 수 있도록 1999년 레지옹들과 함께 새로운 기관 설립을 포함하는 협력 협약을 맺고, 레지옹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미지 교육 지역 사무소를 설립함
- 이미지 교육 지역 사무소는 정규교육 과정 기간 중 실시되는 영화교육 정책들과 교육과정 이외의 '이미지 운반자들(사법부와 같은 다른 중앙 부처들과 파트너십을 맺음)'과 같은 정책들을 정교화함. 이미지 교육 지역 사무소는 영화와 시청각물이 이러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고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새로운 이미지에 관심을 쏟고 회화, 비디오 아트, 사진 등을 병행하여 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 2014년 이들 지역사무소 네트워크는 CNC의 지원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함.



이 사이트는 감독자이자, 이미지 교육의 실험 및 논쟁, 시사점에 대해 고민하는 장으로 활용됨

• 정교 교육 과정 이외의 관객 개발 관련 정책⁸⁶⁾

-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les publics éloignés de la culture)을 진행하며, 정규 교육 과정 속 영화 이미지 교육 외에 CNC는 또 다른 관객을 만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함. 빈곤지역 청소년 및 가정, 농촌지역 주민, 사법부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 장애인, 환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화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이를 위해 CNC는 문화부 및 타 부처, 사법부, 보건부, 청소년부, 국토균형발전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CGET)와 함께와 긴밀한 협조 계약을 맺어 이미지 교육을 실시함

- 정규 교육 과정 외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

① 이미지 운반자들(Passeurs d'images) : 사회적, 지리적, 문화적인 이유로 영화를 가까이할 수 없는 대중, 특히 청소년들(교정시설, 청소년의 집, 저소득층에 속한 청소년들)에게 영화를 통한 이미지 교육을 제공함. 1991년 정부, CNC, 지역 정부의 협조로 시가 주도적으로 처음 시행함.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영화관, 문화시설, 문화모임, 영화 전문가들의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로 진행됨. 2015년에는 27개 레지옹에서 2,000파트너들(그 중 영화관이 280군데 참여, 그 외 사회단체, 영화인, 교육운동연대단체)과 함께 2,100여 이벤트가 전개돼 26만여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2016년에는 2천여 이벤트가 추진되었고, 이 활동에 참여한 이는 22만여 명임

이 프로그램은 관람과 창작이라는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연결됨. 영화관과 함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 및 청소년에게 특별 요금제운영, 감독 및 영화 스태프와 지역 조직 스태프가 함께 하는 영화 관람, 주로 'fete de cinema'기간 중 지정 구역에서 무료 야외 영화상영, 시청각 또는 영화 예술 작업 아틀리에 운영, 영화 전문가들과의 만남, 영화 작업장 방문 및 상영, 시청각 혹은 영화 관련 행사 참여 등을 진행함

② 영화는 인생(Des cinés, la vie !) : 이 프로그램은, 2006년에 시작되었으며 청소년사법보호(Protection judiciaire de la jeunesse, 이하 PJJ) 아래있는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과정으로 진행됨. 프로그램 운영은 키르네아 인터내셔널 협회가 조직하고, 이미지 운반자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함

86)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홈페이지, www.cnc.fr.

- 매년 12개 영화를 선정(특히 단편영화)하여 DVD 상영이 이루어지며, 상영 때 청소년들의 지도교사 및 영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영화는 인생’상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토론과 투표를 실시함. ‘영화는 인생’상은 시네마테크 프랑세즈 주최로 특정한 날에, 프랑스 전역의 참여 지도교사 및 청소년들 영화 전문가 및 수상작 감독이 함께 참여하여 수여함. 2015~2016년 233개 사무소의 1,355명의 청소년이 본 활동에 참여함

CNC의 단체 및 협회 지원

대중들에게 작품 및 영화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전국의 단체 및 협회를 지원 :

① 시네마 디퍼런스(CinéMa Différence)

이 협회는 정신적 장애인들의 영화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문화 행위자들의 인식 개선과 장애인들과 거리를 두는 많은 대중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협회들을 도움

② 키르네아 인터내셔널

키르네아 인터내셔널 협회 : 정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이미지 운반자’와 ‘영화는 인생’프로그램을 총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과 미팅을 조직함. 이 프로그램들은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층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③ 이미지로의 복귀(Retour d'image)

이 협회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영화의 자막 및 오디오 더빙 작업을 함. 협회는 2년 마다 열리는 페스티벌에서 자막 및 오디오 작업을 한 작품들을 상영, 미팅을 조직함

④ 매혹된 영화(Toiles enchantées)

매혹된 영화는 매년 아틀리에에서 약 300여 회의 영화 상영회를 조직함. 주로 프랑스 전역의 어린 환자들 혹은 장애인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함

⑤ La ligue de l'enseignement(교사동맹)

교사 동맹은 영화 및 시청각 분야에서 교육적인 협력과 문화예술 매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든 우수한 영화 작품의 분석을 통해 청소년 관객을 향후 문화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진행함

⑥ Résonance culture

감옥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시민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하는 단체로, 시청각 교재를 연결하는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노력함



■ 지역 차원의 영상문화진흥 정책 - 파리시 미션 시네마⁸⁷⁾를 중심으로

- 프랑스 파리는 문화의 도시답게 문화정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음. 그 중 영화와 관련된 정책은, 2002년 1월, 파리 시장 ‘베르트랑 들라노에’에 의해 구상된 ‘미션 시네마’를 꼽을 수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파리시는 6개 분야에 천만유로(약 131억 원)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

① 창작 관련 지원

- 단편영화 제작지원 : 파리시는 2006년 CNC와 일드프랑스 DRAC와 협약을 맺고 단편 영화 지원 기금을 창설함. CNC는 1:2 매칭 정책(CNC 1유로 지원할 경우 지자체 2유로 지원 정책)에 따라 파리시의 정책과 연결됨. 파리시는 프로젝트 당 2만 유로를 지원하며 매년 심사위원회가 15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하고, 일 년에 세 번 공모를 실시함. 제작지원한 작품은 포럼 데 이마주에 컬렉션으로 등재됨. 향후 유니프랑스(UniFrance)와 함께 제작 지원한 작품을 해외영화제에 진출하고자 지원하며, 이러한 과정의 1년 예산은 28만 유로임

- 트랜스미디어(융합미디어) 지원 : 2015년 파리시는 디지털 영상 창작을 중심으로 파리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고 보완하기 위해 트랜스미디어 프로젝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 지원 사업은 파리시와 CNC 그리고 일드프랑스 DRAC 간 영화발전 협약 내용에 포함됨. 파리의 신진작가 및 문화기업을 육성하고 영화 및 이미지 분야의 행위자들과 디지털 및 신기술 영역의 행위자들의 만남을 도모하고자 함.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웹 영화, 웹 다큐 등 장르에 상관없이 다양한 미디어 결합이라는 특징을 지닌 새로운 서사형태를 구현하는 트랜스미디어 작품과 트랜스미디어 작품들의 확산과 상영을 위해 노력하는 플랫폼 조직(극장, 인터넷, TV, 앱, 모바일 스크린 등)을 지원함. 지원 금액은 프로젝트 당 최대 2만 유로임

- 촬영 지원 : 파리에서는 1년에 약 950회 정도의 촬영이 진행되며, 프랑스 영화 중 50%가 파리에서 촬영함. 약 하루에 평균 10회 촬영이 이루어지며, 관광객

87) 파리시 홈페이지. www.paris.fr.

10명 중 6명이 영화 때문에 파리를 방문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음. 필름 프랑스 (프랑스 전역 41개 영상위원회 연합체) 회원인 필름 프랑스는 2017년 예산 약 928,000유로 정도를 CNC에서 지원받음

② 독립영화관(예술 및 실험 영화관) 지원

- 독립영화관은 동네의 활력과 동네 주민들을 모으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영화 수급의 어려움, 임대료 부담, 관객들의 멀티플렉스로의 집중, 극장 이외의 영화 감상 플랫폼 및 윈도우가 등장하면서 어려움이 생김
- 이에 파리시는 중요한 문화·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독립영화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영화관을 살리기 위한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이외에도 파리시는 도시재생이라는 틀 안에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영화관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음. 파리 20개구 모두에 한 개 이상의 독립영화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CNC의 예술 및 실험 영화관으로 지정된 지역영화관은 해외영화, 예술영화, 고전영화 등 문화다양성에 기여하는 영화들을 상영하고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등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영화를 상영함. 이들 영화관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여 운영함
- 파리시는 2002년부터 이들 영화관의 프로그램 및 영화관 시설을 지원해옴. 2010~2013년에는 40개 영화관을 디지털 영사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약 2,000만 유로를 지원함(CNC·일드 프랑스의 영화관 지원 조치와 병행함). 또한 모든 장애인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영화관 공사에 예산을 지원함
- 극장 시설 개보수 및 현대화 보조금을 지원함. 미션 시네마는 CNC, 프랑스영화관연맹 (Fédération Nationale des Cinémas Français, FNCF), 프랑스예술과실험영화관연합 (Association Française des Cinémas Art et Essai, AFCAE), 프랑스배급업자연맹 (Fédération Nationale des Distributeurs Français, FNDF)과 함께 영화관 정비 지원 기준을 정함
- 영화관 지원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구역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예술과 실험’ 영화관이면서 동시에 주당 관객이 7,500명 미만인 극장



▷ 경쟁이 덜 치열한 구역에서는 일주일 관객이 3,000명 미만인 극장

- 두 기준을 충족한 극장에게 운영 보조금이 지원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시설 보조금 기준과 동일하며 파리시와 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하여 할당함.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함. 보조금 제도가 생긴 이후로 le Studio des Ursulines, le Saint Germain des Près, le Studio 28과 1개 스크린만을 보유한 영화관들 Le Balzac, L'Arlequin, l'Archipel, le Brady, les Trois Luxembourg 등 약 40개 영화관이 혜택을 받음
- 영화관 접근성 확대에 노력하며, 미션 시네마는 파리 영화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실시함. 2005년 2월 11일 '권리와 기회의 평등, 장애인 시민권 및 참여 관련 법'의 시행령에 발맞춰 파리의 영화관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마스터플랜을 실시함. 이 마스터플랜은 파리 각 지구의 영화관들이 장애를 지닌 모든 사람들(거동이 불편한 사람,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영화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함. 일드 프랑스 레지옹과 함께 예술과 실험 독립영화관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파리시는 독립영화관 지원 정책 틀 안에서 영화관의 디지털 전환에 2백만 유로를 책정하여, 파리의 독립영화관들을 디지털 상영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함. 필름을 파일로 대체한 이 기술적 전환은 모든 파리 독립영화관들에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가 되고 있음
- 파리시 도시계획에 영화관 유치계획을 포함함. 2005년 1월에 채택된 PLU(Plan Local d'Urbanisme)에 따라 파리시는 각 구 안에 위치한 지역 극장을 보호하고, 시 전체에 골고루 극장이 위치하도록 노력하며,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극장 없는 지역에 극장을 유인하고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건물들을 리모델링함. 이와 관련하여 MK2 Quai de Seine, MK2 Villette(파리 19구), Cinema Etoile Lilas(20구)를 유치하였으며, 이는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BNF) 주변 지역을 영화 지구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됨. 2017년에는 19구 ZAC(zones d'aménagement concerté, 프랑스 도시계획 및 재정비 사업 중 협의정비지구를 말함) 끌로드 베르나드와 17구 ZAC 바티놀이 UCG 영화관을 유치함. 파리시는 파리시의 영화적 유산인 룩소르-팔레 드 시네마 극장(1921년 개관, 1983년 폐관)의 재개관을 위해 2003년 공사비용을 2,500만 유로(한화 약 327억

원) 들임. 향후 2013년에 재개관하였으며, 현재 ‘예술 및 실험’지정 영화관으로, 민간회사인 CineLuxor에서 운영하고 있음

③ 문화 확산을 위한 영화제 및 포럼 데 이마주 지원

- ‘나의 첫 번째 영화제⁸⁸⁾’는 파리시가 2005년부터 시작한 어린이영화제로, Enfances au Cinéma 협회에서 2세에서 12세까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획함. 방학 기간(10월 말) 중 개최되며, 입장료는 4유로로 심사위원도 어린이로 구성됨
나의 첫 번째 영화제’는 10월 25일에서 31일까지 1주일간 개최함
- 2017년 영화제의 참석 대상은 감독, 미술감독, 배우, 영화평론가, 음악감독, 편집기사, 만화작가, 영화제홍보대사(배우) 등 초청된 영화인 24명으로 구성됨
- 개최장소는 포럼 데 이마주, L’Escurial, L’Entrepôt, Le Studio des Ursulines, Le Majestic Passy, La Gaîtélyrique, Le Luminor Hotel de Ville, Le Chaplin Denfert, Le Chaplin Saint-Lambert, MK2 Quai de Seine, L’Archipel, Le Cinema des cineastes, Le Majestic Bastille, LE LOUXOR – PALAIS DU CINÉMA(포럼 데 이마주 외 파리 각 구의 독립영화관)에서 진행됨
- 심사는 CINÉ+ FAMIZ 채널과 시네마테크 로베르 리넵과 협력해 8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10명) 심사위원회로 구성함. 로베르 리넵 시네마테크의 지도 하에 심사위원이 된 어린이들이 파리 곳곳 독립영화관의 어린이·단편영화협회를 대상으로 한 영화 시사회에 참여해, 영화를 보고 분석하여 심사위원상을 선정하며, 폐막식 때 이를 발표함. 이는 시네마테크 로베르 리넵이 주관함
- 부대행사는 35mm영화의 재발견, 영사실 방문, 상영작과 함께하는 창작교실, 디지털 아틀리에, 철학 아틀리에, 마임 마술 아틀리에, 영화와 이야기, 영화와 춤, 영화와 음악, 영화와 토론, 영화 그리고 재발견(영화 속 역사, 고전영화 감상), 영화와 공연, 영화와 식사, 영화와 게임, 영화와 페이스 페인팅 등 부대행사가 어린이들의 나이에 맞게 구성됨

88) 나의 첫 번째 영화제 홈페이지. quefaire.paris.fr/monpremierfestival.



[그림 4-10] 나의 첫 번째 영화제 2017년 심사위원



[그림 4-11] 부대행사 영화와 음악

- 기타 파리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를 지원함. 파리가 지원하는 포럼 데 이마주는 연중 다양한 영화제를 개최함. 2018년 4월 포럼 데 이마주는 디지털 및 VR 중심의 새로운 영화제인 'New Images Festival'을 개최함. 이 영화제는 기존 'Paris Virtual Film Festival'과 'I LOVE TRANSMEDIA'가 통합된 것으로, CNC의 뉴미디어 프로젝트 개발 지원 정책과 맞추어 VR 및 홀로그램, 쌍방향 영화, 디지털 시리즈 및 웹 비디오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영화제 기간 중 중·고등학생들의 이미지 교육을 실시함.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뉴미디어 및 VR의 영화 서사 변화과정을 습득하고, 이러한 형태의 영상물이 개인 혹은 공동체의 경험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토론으로 컨퍼런스 및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개최함



[그림 4-12] 'New Images Festival'폐막식



[그림 4-13] 'Tout-Petits Cinema 2018'포스터

④ 영화교육을 통한 관객개발

- 파리시는 정부의 영상교육 정책 안에서 영상교육을 담당하는 파리의 협회들을 지원함.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 영상교육 정책인 ‘학교와 영화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Enfance au Cinema’협회, ‘영화중학교’는 파리독립영화관협회 CIP(Cinéma Indépendants Parisiens) 협회가 이를 담당함. 예산은 파리시와 DRAC가 담당 협회에게 각각 지원함.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 운영은 일드 프랑스 레지옹과 DRAC이 담당함. CNC는 수업에 사용될 영화의 지침서 및 디지털 영화 파일에 대해 재정적으로 전담하며, 관련 당사자들과 전국 회합을 조직하는 역할을 함. 일드 프랑스 전체의 교육 코디네이션은 ACRIF(Association des cinémas de recherche d’île-de-france, 일드프랑스 영화관 협회)와 CIP가 맡으며, 각 지역의 담당 협회를 구성함. 예산은 각 지역의 담당협회로 내려보내짐
- ‘나의 첫 번째 영화(Mon 1er Cinéma)’는 파리시가 2008년 처음 도입하였으며, 만 2세에서 4세 사이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영화관의 관객으로서 경험을 하게 만드는 과정임. 예술문화아카데미대표부(délégation Académique aux Arts et à la Culture) 파리지부의 지원을 받는 ‘Enfances au cinéma’협회가 주관하며, 2015년부터 일드 프랑스 DRAC에서도 지원함. ‘나의 첫 번째 영화’프로젝트는 성장을 위한 예술(Art pour grandir)이라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어린이들에게 최신 애니메이션 혹은 영화유산 작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제7의 예술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동네영화관에서 처음으로 관객의 경험을 갖게 만드는 것임. 또한 영화 작업(아틀리에)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 유치원생들을 새로운 관객으로 형성하고자 함. 2017~2018 학기 프로그램 구성은 파리시 미션시네마, 일드 프랑스 DRAC, 그리고 DAAC⁸⁹⁾가 인준한 싱크탱크 그룹 교사들과 함께 구성함
- 파리시는 파리의 약 15개 예술 및 실험 영화관에서 ‘Enfance de l’art’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협회(예: CIP)를 지원하며, 영화관들이 수요일과 토요일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을 더 많이 구성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파리시는 파리 5구 예술 및 실험영화관인 Studio des Ursulines의 어린이를 위해 기획된

89) Les délégués académiques à l'éducation artistique et à l'action culturelle (DAAC) : 문화 활동 및 예술교육 아카데미 지역 대표부로, 교육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지역 실현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무소를 의미함



프로그램을 지원함.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영화 작업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학기와 방학 중에 아틀리에를 운영하는 포럼 데 이마주를 지원함

⑤ 영화유산 작품들의 디지털화 지원

- 파리시는 포럼 데 이마주 및 시네마테크 로베르 리넵이 보유한 작품들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있음. 포럼 데 이마주는 1988년 설립 이래 프랑스 수도의 시청각 기억에 생명을 불어넣고, 양성하기 위해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거나 주제로 쓰인 시청각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해옴. 이 파리 컬렉션(5,500여 편)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으며, 페미스(프랑스 국립영화학교)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그리고 Grec, 롱스터 필름, Films d'ici, 단편영화협회(Agence du court métrage), pointligneplan collectif로부터 수집한 작품들이 다양함. 이러한 작품들은 개인 비디오 룸과 작은 두 개의 상영관에서 볼 수 있음
- 시네마테크 로베르 리넵은 1925년 교육 수단의 일환으로, 영화관을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오픈함. 시네마테크에서는 영화의 유산적 가치가 있는 3,500편의 16/35mm 다큐멘터리 컬렉션이 존재하며, 1930-50년대 흑백 촬영현장 사진들도 가지고 있음. 파리시는 2013년부터 시네마테크 로베르 리넵의 영화 및 사진 자료들을 청소년 이미지 교육 프로그램에 이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디지털화 계획을 시작했음
- 이외에도 파리시는 파리시의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기업 및 제작자를 지원하고 있음
- 다음 [표 4-9]는 국가·CNC·지자체가 맺는 3년 협력협약서 관련 참여 예산의 내용을 담고 있음. 단, 각 지자체의 예산은 영화 분야에 지원하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협약서 내용과 관련한 예산을 의미함. 협약서는 국가(DRAC), CNC, 지자체인 레지옹 일드 프랑스, 파리시, 데파르트망 센느 생 드니가 함께 체결함

[표 4-9] 2017년 국가·CNC·레지옹·시·데파르트망 협력협약 분담 예산

(단위: 유로)

Actions	국가(DRAC)	CNC	레지옹 일드프랑스	파리시	데파르트망 센느 생 드니	합계
1. 창작 및 제작 지원 분야						
협약서 4항						
재능인력의 육성 및 출현 지원		106,000	400,000	4,000	36,000	546,000
단편창작자 지원 (Talents en court)				4,000		
시나리오 작성 선택지원		100,000	400,000			
시나리오 작성 개발 지원					30,000 ⁹⁰⁾	
아틀리에 프로젝트		6,000			6,000	
협약서 5항						
뉴미디어 프로젝트 개발 지원		40,000		100,000		140,000
협약서 6항						
단편영화 제작 지원		140,000		180,000	100,000	420,000
		90,000		180,000	100,000	
		50,000				
협약서 7항						
장편영화 제작 지원		1,000,000	10,500,000			11,500,000
협약서 8항						
시청각(방송물) 프로젝트 제작 지원		1,000,000	3,000,000			4,000,000
협약서 9항						
완료 후 지원		350,000	700,000			1,050,000
협약서 11항						
지역 유치 및 지역 산업 형성 강화			928,000			928,000
지역영상위원회 지원 및 촬영 지원			928,000			
영상산업 개발 지원						
협약서 12항						
창작, 제작, 촬영 지원 관련 직업교육	103,000			10,000		113,000
합계	103,000	2,636,000	15,528,000	294,000	136,000	18,697,000
2. 문화 확산, 예술교육, 관객개발						
협약서 13항						
문화 확산 조치들	402,000	155,000	1,350,000	546,500	701,000	3,154,500
영화제 지원	296,000	142,000	1,350,000	464,500	271,000	
문화 확산 기타 조치들 지원	106,000			77,000	411,000	



Actions	국가(DRAC)	CNC	레지옹 일드프랑스	파리시	데파르트망 센느 생 드니	합계
양질의 영화 및 지원작 확산 지원		13,000			19,000	
지역연계 문화 확산 국가조치				5,000		
협약서 14항						
영화관에서의 고등학생 지역 조치	258,211	260,820	825,000			1,083,211
협약서 15항						
영화중학생 조치	114,100	590,222		70,000	120,500	304,600
협약서 16항						
학교와 영화관 조치	117,000	748,550		142,000	20,000	279,000
협약서 17항						
학교 내 시네클럽 지원		100,000	200,000			300,000
협약서 18항						
정규교육과정 외 이미지교육 조치		293,000	80,000			
협약서 19항						
기타 관객개발 조치	130,500			121,000	271,200	522,700
합계	1,021,811	255,000	2,455,000	879,500	1,112,700	5,644,011
3. 영화관 지원						
협약서 20항						
영화관 현대화/ 밀집화/다양화 지원	132,000		1,000,000	1,075,000	329,500	2,556,500
영화관 지원	132,000	5,108,971	1,000,000	1,075,000		
영화관네트워크지원				20,000	329,500	
합계	132,000		1,000,000	1,095,000	329,500	2,556,500
4. 영화유산 조치들						
협약서 23항						
영화유산 디지털화				50,000	60,000	110,000
합계				50,000	60,000	110,000
총합	1,256,811	2,891,000	18,983,000	2,318,500	1,638,200	27,087,511

주1 : 2016년 CNC가 배정해놓은 예산 중 **파란 글씨**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체 합계 중 일부 수치가 다른 이유는 2016년 예산 및 2018년 예산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주2 : 파리시 예산액은 파리시 전체 영화 관련 예산이 아니라 협약 참여 예산만 적시해 둔 것으로, 실제 파리시 영화문화진흥관련 예산은 약 천만 유로임

90) 센 생 드니 데파르트망의 시나리오 작성 개발 지원은 생드니단편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자에게 차기작 시나리오 작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일드프랑스 센 생 드니 : 낙후지역 재생 위한 아틀리에 메디치 프로젝트

• 아틀리에 메디치⁹¹⁾

- 로마의 빌라 메디치를 모델로 해 생 드니 지역의 Clichy-Montfermeil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 및 거주공간으로 쓰일 메디치 타워 건립을 위한 기관으로 아틀리에 메디치가 탄생함
- 2014년 10월 16일 문화부 장관 주재로 클리쉬 수 부아·몽페르멜의 ‘우트릴로 타워’ 실행 위원회가 개최됨. 위원회는 일드 프랑스 레지옹, 센느 생 드니 데파르트망, 클리쉬 수부아 그리고 몽페르멜 시장, 도시, 청소년, 스포츠부의 정부도시 정책 담당 비서관, 그랑 파리 철도(SGP) 대표, 로마 아카데미 드 프랑스(빌라 메디치) 이사회로 구성됨. 본 프로젝트는 빌라 메디치 및 예술가들이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과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예술 창작활동에 생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징적 의미가 있음. 또한 실행위원회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 도시(클리쉬 수 부아 및 몽페르멜 지역)에 도시재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본프로젝트는ANRU(Agencenationalederénovationurbaine, 국가도시재생위원회)가 2004년부터 실행해온 도시재생프로그램 틀 안에서 청년 창작자들과 프랑스의 문화적 보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프로젝트는 표현의 다양성을 지향하면서,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함. 또한 공공 지출과 사적재정 지원(베탕쿠르 재단)을 받아 혁신적인 경제적 모델에 기초해 지역 주민들과 청년들의 의사과정을 담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4년 10월부터 기획 단계에서 실행 단계로 나아감
- 당시 문화부 장관이었던 Fleur Pellerin은 2015년 2월⁹²⁾ Ciclic(책, 이미지, 디지털 문화 센터의 지역사무소)의 위원장인 올리비에 므느를 구 우트릴로 타워(청년예술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담당자로 지명함. 문화부, 도시와청소년 및 스포츠부, 일드프랑스 레지옹, 그랑 파리 고속 철도(SGP, Societe du Grand Paris), 클리쉬 수 부아 및 몽페르멜시와 긴밀한 협조 하에 문화 시설 프로젝트(문화 및 학문적 프로젝트, 문화 프로그래밍, 지역 통합, 경제적 모델 등)를 정의하고, 본 프로젝트의

91) Ministère de la Culture (2014.10.16.), Tour Utrillo un projet réoriente en faveur des jeunes créateurs에서 2018.06.08. 인출

92) Ministère de la Culture (2015.02.11.), Fleur Pellerin nomme Olivier Meneux à la direction du projet de residence artistique à Clichy Montfermeil에서 2018.06.08. 인출



일차적 실현을 목적으로 아틀리에 메디치 건립에 착수함

- 본 프로젝트는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향후 들어서게 될 그랑 파리 역 주변 지역의 재정비 프로젝트 속에 청년예술가 지원 문화시설 건립을 포함시킴
- 현재 아틀리에 메디치는 예술가들의 거주 공간 프로젝트 외에 대학생원생들의 창작 및 논문 지원 프로젝트 ‘Creation en cours, 창작수업’을 2017년에 시작함
- 창작 수업(Creation en cours) : 청년 예술가들이 문화적 소외지역(낙후지역으로 도시정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지구, 농촌, 도시외곽지역, 프랑스 본토 외 프랑스령 섬 지역 등)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일정기간 머무르며 학생들과 함께 ‘창작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수업은 4학년, 5학년, 6학년(중1) 학생들의 예술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2016년 처음 시작됨. 또한 2017~2018년에는 전국의 모든 예술 관련 학과 대학생 190명의 창작, 연구, 작품 프로젝트를 지원함
- ‘창작 수업’지원 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문화예술을 뿌리내리게 하며, 청년예술가들의 사회진출 지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임. 본 프로젝트는 문화부 교육부와 협력하고, 아틀리에 메디치가 사업의 실행과 운영을 담당함
- 예술관련 대학교에서 학위를 딴 지 5년 이하(대학원생)인 청년 예술가들이 프랑스 전역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150개 학교)에 20일 이상 체류하며,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그들의 논문 혹은 작품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016~2017년 ‘창작수업’은 아틀리에 메디치를 매개로 약 130명의 청년예술가가 지원받음
- ‘창작수업’프로젝트는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대학의 예비 문화예술 인력들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영화, 회화, 공연, 뉴미디어 등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학생들과 초중학생들의 창작 수업과 연결함

3. 캐나다 : 자국 영상문화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노력

■ 캐나다 영화정책의 특징 및 개괄

-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가 많고, 언어 사용도 영어와 프랑스어로 이원화되어 있어 자국민정체성의 형성에 문화정책이 집중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 인구의 80%가 미국 국경과 인접해 있어 미국 방송의 시청권 하에 있기 때문에 자국 문화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문화예술계는 이웃한 미국의 강력한 상업적인 문화파위에 대치하며,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늘어나는 이민자들을 융합해서 캐나다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부담감,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수용해서 거대한 국토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국민들을 문화와 예술로 한데 연결하고자 하는 책임감 등을 안고 있음⁹³⁾
- 문화예산은 2016~2017년도 예산 기준⁹⁴⁾으로 전체 예산의 0.6%인 3,171억 캐불(US\$2,500억불 상당, 264조 원)이며, 캐나다 문화부(Canadian Heritage)가 주무부처임. 캐나다 연방정부 문화부는 산하에 11개에 문화관련 공사를 두고 있는데, 이 중 영화 및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텔레필름 캐나다(Telefilm Canada)가 있음
- 텔레필름 캐나다는 1967년 캐나다 영화 진흥 조합으로 시작되어, 설립 이후 캐나다 영화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왔음. 1983년 이후부터는 텔레비전 산업을, 1998년 이후부터는 뉴미디어 사업을 포괄하고 있음. 1967년 이후 현재까지 약 6,200여개 작품·극영화 2,247편, 텔레비전 시리즈 및 쇼 3,611편, 디지털 작품 315편에 약 33억 캐나다 달러를 지원했음. 2006년부터 캐나다 영상위원회는 캐나다 미디어 펀드 운용을 맡고 있음⁹⁵⁾

93)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2017), 『주재국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 조사』.

94) 위와 같음.

95) 텔레필름 캐나다 홈페이지. telefilm.ca/en.



- 텔레필름 캐나다는 산업화된 영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기획개발, 제작, 배급, 마케팅, 해외 판매, 해외 진출, 공동제작 등 부문별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캐나다의 또 하나 중요한 영상 관련 기구로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NFB,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를 들 수 있음. 1939년에 설립된 NFB는 산업보다는 공공적 자산으로서 영화 및 영상 미디어에 포커스를 둔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가주의 애니메이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독특한 캐나다만의 관점을 다룬 영화들을 세계에 배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공동체 영화 제작 프로젝트, 플랫폼 횡단 미디어, 신진 작가, 입체 애니메이션 등에 주목하면서 영화 언어의 확장을 꾀함. 설립 이후 현재까지 1만 3천여 작품을 제작했으며, 5천여 작품이 영화제 등에서 수상했음
- 연방 국가인 캐나다는 연방정부 산하에 10개 지방정부와 3개의 준주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주정부 산하에 문화부를 두고 각 주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문화정책을 펴 나가고 있음. 대부분의 주는 별도의 예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정부의 예술정책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문화 GDP가 가장 높은 곳은 온타리오주로 아래 설명할 토론토시가 위치하고 있음

■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NFB)의 활동

- NFB가 1967년 시작한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 for Change)’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 활용하는 퍼블릭 액세스 개념을 세계적으로 만들어냄.⁹⁶⁾ 이 프로젝트는 포고섬의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카메라를 제공하며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주민이 직접 만든 다큐멘터리 영상 27편을 캐나다 전역에 방송한 것으로 시작하여, 1980년까지 205편의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였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디어센터라는 개념이 캐나다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함⁹⁷⁾

96) 미디어트(2010),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이슈』, ACT 70호.

97) 김태훈(2017), 『지역공동체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NFB는 캐나다의 공공 제작자로서, 또 작품의 배급자로서 활동하며 캐나다 내 영상 문화의 증진, 그리고 영화를 통한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 캐나다적 관점의 세계적 발신 등을 꾀하고 있음. 2017~2018년도의 NFB 계획을 보면,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 첫 번째는 시청각 작품의 제작에 관한 것으로, 공공 부문 제작자인 NFB는 문화, 지역 및 원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캐나다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창작자 및 지역 커뮤니티들로부터 나오는 독창적인 시청각 작품을 제작함
 - 또한 이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이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 운영되므로 제작자는 형태와 내용면에서 예술적, 기술적 진보를 탐색하고, 영화 제작 및 기타 창조적인 공동체 내에서 재능과 창조 기술을 확인, 개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시청각 작품 제작 프로그램을 위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NFB는 소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랙티브 작품 및 몰입형 경험을 제작하는데, 이러한 제작을 통해 NFB는 캐나다의 다양한 문화, 지역 및 언어 공동체의 재능 있는 영화 제작자 및 기타 제작자와 파트너 관계를 맺음
 - 두 번째 사업 카테고리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관객 참여에 관한 것임. 즉, 첫 번째 사업에서 제작된 영화의 배급과 관련한 사업들로, 캐나다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캐나다 콘텐츠에 액세스하여 보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구성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공공 상영,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영, 영상 라이브러리의 구축 등을 포함하며, 영상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원주민 등 언어적으로, 지역적으로 소외된 소수 민족 커뮤니티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반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또한 목표로 하고 있음
- 예산은 다음과 같음. 2017~2018년의 지출계획은 총 6,498만 캐불(한화 약 562억 원)으로, 2014~2015년(5,368만 캐불, 한화 약 464억 원)에 비해 1,130만 캐불(한화 약 98억 원) 증가함

[표 4-10]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의 지출 개요⁹⁸⁾

(단위: 캐나다 달러)

프로그램	2014-15 지출	2015-16 지출	2016-17 예산지출	2017-18 지출계획
시청각 작품 제작	36,188,094	34,823,000	36,302,290	43,323,228
접근성 및 관객참여	17,493,394	16,702,002	17,804,118	21,657,098
합계	53,681,488	51,525,002	54,106,408	64,980,326

■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NFB)와 원주민의 영화 제작·상영

- NFB의 핵심 사업인 캐나다 원주민의 영화제작과 배급은 영화가 다양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영화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충실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원주민과 비원주민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시키고, 원주민의 목소리를 사회에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영상 프로젝트가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포용해가는 과정을 보여줌
- 이러한 정책은 이민자, 노인, 청소년, 여성 등 자신의 이야기를 공식적 채널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영상 매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미디어 교육과 연결되기에, 지역의 영상 문화 정책을 생각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됨
-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 for Change) 프로젝트
 - NFB는 1940년대 초반부터 원주민의 삶과 경험에 관한 작품을 제작해 왔지만 처음 30년 동안은 비 원주민 감독에 의해 원주민이 대상으로 다루지는 것에 그쳤음
 - 원주민을 대상으로 다룬 초기 민족지학적(ethnographic) 영화들은 문화적 가부장주의 속에서, 유로-캐나다 사회의 렌즈를 통해 원주민을 그려냄. 또한 1950년대의 원주민 대상 영화들은 원주민 문화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문화로 보고 이누이트족의 삶을 비역사적이고 거짓된 낭만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음

98) NFB(2017),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17-18 Departmental plan』.

- NFB는 연방 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영화 제작을 위탁받았는데, 1950년대 NFB의 정부 위탁작들은 정부의 공식적 메시지의 수단으로 기능하며 무역, 농업 등과 관련된 연방 정책을 홍보했으며, 어떤 영화는 적극적으로 동화정책의 바람직함과 필연성을 주장하고, 인디언을 격리하여 교육했던 기숙학교 시스템(IRS)⁹⁹⁾을 장려하기도 하였음
- 그러던 것이 1967년,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 for Change)’제작 프로젝트가 급진적인 새로운 참여적 접근법을 도입했고, 이를 통해 원주민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기 시작할 수 있었음
- 1971년 캐나다 정부는 다민족 정책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의 소수 민족을 인정하고 두 개의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와 원주민의 권리를 확인했음. 그 이후, 수년 동안 NFB의 프로그램은 영어와 프랑스어 두 트랙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다큐멘터리에서 뉴미디어 및 디지털 제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원주민 창작자의 목소리, 전망 및 재능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음
- NFB는 지금까지 캐나다 원주민 부족(First Nations, Métis, Inuit) 출신 감독들의 280여 작품을 제작하였음. 오늘날 캐나다 전역의 NFB 스튜디오에서 원주민 감독이 진행하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NFB의 전체 제작비 지출 중 원주민 제작이 9.5%를 차지함¹⁰⁰⁾. NFB는 2017년 「원주민 영화 3개년 액션 플랜」을 발표하여, 3년 내에 NFB 전체 제작비 지출 중 원주민 제작 비중을 1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음¹⁰¹⁾
- 다양한 배급 플랫폼의 개발
 - NFB는 이들 영화의 제작자로서 뿐만 아니라 배급자로서, 원주민들이 연출한 이들 영화가 캐나다 내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보여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배급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NFB와 파트너십의 관계에 있는 것은 1992년에 원주민 영화 제작자의 중요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생겨난 APTN(Aboriginal Peoples Television Network, 원주민 텔레비전 네트워크), 1998년 토론토에서 시작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99) 인디언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하여 기숙학교에 수용한 원주민 기숙학교 시스템은 1883년부터 1996년까지 존재하였음. 캐나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기숙학교의 신체적·성적 학대를 포함하는 폭력적 운영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2015년 발표하면서, 이 기숙학교 시스템이 캐나다 정부와 교회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말살 정책의 일환이었다고 결론내렸음. NFB의 원주민 제작자는 이 기숙학교 시스템을 꾸준히 기록영화로 다뤄왔음

100) NFB(2017), 『INDIGENOUS FILMMAKING AT THE NFB: AN OVERVIEW』.

101) 캐나다 영상위원회(NFB) 홈페이지. www.nfb.ca.



원주민 영화제라 할 수 있는 ‘imagineNATIVE Film + Media Arts Festival’등이 있음. 이들이 모두 원주민 영화의 중요한 플랫폼임

-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들 영화의 상영을 꾀하고 있음. NFB는 원주민 영화의 아카이빙 작업을 하고 있으며, 수집된 작품들에 대해 TV와 영화제, 공동체 상영, 공공 도서관, 캐나다 초중고, 대학 등에서 활발히 상영하는 한편, NFB.ca, 넷플릭스, 유튜브 및 아이튠스와 같은 기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공개하고 있음

• 원주민 영화 순회 상영전

- NFB는 2017년 250여 점의 원주민 제작 영화 컬렉션을 캐나다 전역의 일반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해 순회 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프로그램의 공식 명칭은 ‘Aabiziingwashi (#WideAwake): NFB Indigenous Cinema on Tour’로, Aabiziingwashi는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있는 인디언 원주민 부족 오지브와족의 언어로 ‘잠들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순회상영전은 원주민 텔레비전 네트워크(APTN), 토론토 국제 영화제 벨라이트 박스, 세계 최대 원주민 영화제 imagineNATIVE Film+Media Arts Festival 등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쿠버에서 열리는 DOXA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첫 스타트를 끊은 다음, 토론토, 할리팩스, 위니펙그, 오타와 등지에서 이루어졌음



[그림 4-14] 지역 도서관에서의 원주민 영화 순회상영전 안내 포스터



[그림 4-15] 원주민 영화 제작의 선구자로 불리는 Alanis Obomsawin가 인디언 기숙학교 문제를 다룬 영화 ‘We can’t make the same mistake twice(2016)의 포스터

• 원주민 영화 3개년 액션 플랜

- 2008년 설립되어 2015년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캐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최종보고서에서 국가의 집단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NFB와 같은 공공적 기억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화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문화가 가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2017년 NFB에 의해 발표된 원주민 영화 3개년 액션 플랜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작업과 권고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음
- 원주민 자문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된 이 계획에는 4가지 주요 영역으로 분류된 33가지 실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4가지 주요 영역은 제도적 변화, 업계 리더십, 제작, 유통·수집·관리 및 교육 영역임
- 실행 계획은 2025년까지 NFB 인력의 대의적 평등을 달성하겠다는 것, 원주민 프로젝트에 제작 지출의 15%를 보장하겠다는 것, 원주민 파트너와 협력하여 원주민 콘텐츠/테마에 대한 저작물의 제작 및 배포에 대한 프로토콜·지침 및 아카이브 접근 및 재사용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겠다는 것, NFB 원주민 컬렉션 (2018년에 발표 예정)에 있는 타이틀로 학습 자료를 개발하겠다는 것, 원주민 및 비원주민 관객에게 새로운 작품 및 수집된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지역 사회 기반의 관객 참여 전략 개발하겠다는 것, NFB.ca의 새로운 개발을 통해 NFB의 원주민 컬렉션에 대한 접근 이용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NFB)와 포고섬 프로젝트

• 더 포고 아일랜드 프로세스

- 1960년대 중반, 캐나다 정부는 뉴펀들랜드 인근의 작은 섬들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커뮤니티를 버리고 대도시 뉴펀들랜드로 강제 이주할 것을 명령하였음. 이에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의 사회 교육 부서(extension department)¹⁰²⁾가 NFB를 초청하여, 뉴펀들랜드 동북쪽 연안에 있는 작은 섬 포고를 방문하며 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함. 이 결정은 메모리얼 대학의 사회 교육부서장이었던

102) 오늘날의 아웃리치(outreach)와 유사한 개념임. 메모리얼 대학의 사회 교육 부서는 대학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 그리고 메모리얼 대학이 지역의 근대화를 도울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신념으로 1959년 설립되었음. 사회적 확장(extension)은 커뮤니티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접근을 하는 대학의 교외 활동을 의미함



도널드 스노우던(Donald Snowden)이 일찍이 지역 사회의 이슈를 영화로 기록하는 커뮤니티 미디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임

- 당시 포고섬은 10개 마을에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는 5천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음. NFB에 소속되어 있었던 영화 제작자 콜린 로(Colin Low)는 1967년 포고섬 주민에 대한 27편의 영화를 제작했음. 콜린 로는 뉴펀들랜드 인근의 많은 섬들 중 포고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음. 첫째, 많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둘째,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완성되어 가는 중이었고 그것이 미래에 끼칠 영향이 불확실함. 셋째, 포고섬은 커뮤니티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정도로 면적이 넓음¹⁰³⁾
- 영화는 어업 방법부터, 복지, 교육, 협동조합, 포고섬의 일상, 지역 인사들의 면면 등을 담았음. 촬영된 필름은 포고섬 여기저기를 돌며 약 35회 상영하여, 3천여 명의 주민이 영화를 관람하였음. 콜린은 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이슈에 대해 서로 토론하기를 주저했지만, 영화를 본 후에는 1시간에서 30분 정도 영화를 매개로 하여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음
- 영화 속에서 표현된 어업 방법, 새 어업 장치의 필요성, 주낙 어선의 효과, 복지, 교육, 포고섬의 미래, 이주 문제, 젊은이의 고향 이탈, 협업 및 협동조합, 개선 위원회의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한 모든 이슈들이 공식적인 자리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이 이루어졌음. 그리고 이내 영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온 내용들이 포고섬 주민들의 일상적 대화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음
- 또한 영화를 통해 포고섬 주민들은 의사소통의 필요성,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한 분노, 정부가 협의 없이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분노 등 몇 가지 주요 쟁점 사항을 확인하고, 섬 내의 다른 커뮤니티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 이러한 인식의 공유가 가져온 효과는 놀라운 것이었음. 1967년 12월 6일의 상영회에서 다음날인 12월 7일 섬 선박 제조자 협동조합 결성에 대한 미팅이 있을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당일 미팅 자리에는 150명의 사람이 참석하여 120명이 조합에 가입하였음. 영화를 통해 협동조합이 결성되고, 정부의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103) Bill Nemtin and Colin Low, 『Fogo Island Film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NFB.

시작하였음. 주민들은 뉴펀들랜드의 총리와 그 내각이 영화를 보아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후 각료들은 영화를 보고 포고섬의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 각료들은 주민들이 영화 속에서 쏟아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해명하면서, 사회구성원과 의사 결정권자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이 촉진되기도 하였음. 이 과정을 통해 뉴펀들랜드 인근 섬의 강제 이주 정책이 다시 재고되었음

- 포고 아일랜드 프로세스는 외부자에 의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기도 하지만 사회 참여적 미디어 제작의 초기 형태로, ‘변화를 위한 도전’프로젝트의 분수령으로 작용하였음. 이 포고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 영화와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한 참여형 미디어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도전’프로젝트는 영화와 영화 제작을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 활용하는 혁신적 프로그램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음
- 주민들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제작을 통해 전하고 해결 방법을 조사하고 전략을 짤 수 있었음. 상영과 토론 행위는 지역 사회의 발전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미래 플랜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주었음
- 이 프로그램은 그 이전까지의 NFB의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엘리트주의’에 맞서며, 커뮤니티 간 대화와 사회 변화를 촉진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음¹⁰⁴⁾

• 포고 아일랜드 프로젝트, 40년 후

- NFB의 ‘변화를 위한 도전’프로젝트의 첫 시작이었던 뉴펀들랜드의 포고섬에 대한 기록 영화 프로젝트 더 포고 프로세스(The Fogo Process) 이후, 40여 년이 지난 2010년 NFB는 쇼어패스트 재단(Shorefast Foundation), 포고섬 예술 위원회(Fogo Island Arts)와 함께, 포고섬에 e시네마를 개관했음. 인구 2,700명에 불과한 포고섬에 최초로 생긴 극장으로, NFB가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된 컬렉션을 극장에 전송하여 상영할 수 있는, 완전한 디지털 시네마라는 의미에서 e시네마라 이름 붙여졌음
- 37석 규모의 이 극장은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서 영화의 역할을 처음 일깨워준 포고 프로젝트의 발원지에 생겨난 극장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104) Carole Ray(2016), 『Documentary Film Festivals: Transformative Learning』, Community Building&Solidarity, Sense Publishers; Rotterdam.



지역 주민들에게 영화관 체험을 항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짐. 영화관은 NFB가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 컬렉션의 상영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블록버스터 영화, 컬트 클래식 등의 대중적 영화도 함께 상영함. 또한 특별 상영전, 강의 공간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 2016년 포고섬 예술위원회는 FIA 필름을 출범시켰음. FIA 필름은 사회가 구조화되는 방식에 도전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영화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역할을 탐구하는 연례 프로그램임. 1960년대의 변화를 위한 도전 프로그램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FIA 필름은 섬 주민들의 삶의 방식과 공유된 관심들, 자신의 미래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힘을 부여하는 영화를 기록해 남기는 참여 프로젝트임



[그림 4-16] 콜린 로의 '포고섬의 아이들(1967)'



[그림 4-17] 포고섬 최초의 극장이 자리한 포고 아일랜드 인(Fogo Island Inn) 전경

■ 토론토 국제 영화제와 지역 커뮤니티

- 매년 9월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북미 지역 대표적인 국제 영화제 중 하나인 토론토 국제 영화제(TIFF)는 영화제 기간 외에 토론토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상설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영화제 프로그램들을 상설관인 벨라이트 박스에서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시네마테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 캠프,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상 아카이브 보존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문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청소년 영화제 및 청소년 프로그래머 제도 운영 등을 통해 토론토 및 주변 인근 지역(GTA: Greater Toronto Area)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영상 문화 진흥 주체가 됨

- 이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 교육 및 상영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영화제도 차세대로 이어져 지속되려면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가 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들과 다양한 필드에서 일하는 교사들에게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음. 디지털 영화 제작 프로그램, 미디어 리터러시 워크샵, 토론거리를 제공하는 다양성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어린이 및 청소년 씬머 캠프

- 8세에서 17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 기간 (7월 3일-8월 10일) 동안 이루어지는 씬머 캠프는 연령과 테마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약 다섯 개의 캠프로 나뉘어져 있음
- 8세부터 10세의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캠프로 ‘필름 편 101’과 ‘익스플로링 필름 : 당신의 스타일을 찾아서’가 있음 (2018년 기준). ‘필름 편 101’의 경우 2018년도 테마를 ‘수퍼 히어로즈’로 정하고 있는데 이 캠프에 대한 소개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음
- “이번 여름의 필름 편 101의 테마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인 수퍼 히어로입니다. 영화, 만화, 역사 또는 실생활에서 자신만의 히어로를 정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이 캠프는 캠프 참가자들이 영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고 보고 공유하는 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참가자들은 영웅에 대한 개념에 도전하고, 그들 자신만의 영웅을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 워크샵에서 영화 제작의 전 영역을 살펴보게 되고, 자신만의 히어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또 스텐트 코디네이션 워크샵에서 어떻게 액션 신이 만들어지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그들 자신의 창의적 목소리를 표현할 것이고, 그룹으로 내러티브를 발전시키며, 콘셉트가 실제 작품이 되는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 캠프는 약 2주간 이루어지며, 참가비는 회원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됨



- ‘익스플로링 필름’ 캠프는 8세에서 10세 저학년 아동, 그리고 11세에서 13세 고학년 아동으로 대상을 나누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무성영화,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360도 가상현실 등 진화하는 영화 제작 기술을 다양하게 탐구하게 됨. 업계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이 2주간의 캠프에서 어린이들은 매일 매일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 제작을 발견하게 됨
- 14세에서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TIFF 유스 필름 인텐시브’(YFI)는 4주 동안 이루어지는 캠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이 영화를 통해 스토리텔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영화제작자들이 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캠프 참가자들은 단편 영화(기획개발, 제작, 후반 작업)를 제작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연출, 촬영, 프로덕션 디자인, 편집, 연기 등 영화 제작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됨. 캠프 마지막 날에는 가족 및 친구들을 초청한 상영회를 개최함



[그림 4-18] 14~17세 사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TIFF 유스 필름 인텐시브’ 캠프



[그림 4-19] 저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Film Fun 101’

• 청소년 프로그래머의 육성 : TIFF Next Wave Committee

- 2010년에 설립된 TIFF Next Wave 위원회는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12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청소년 영화 매니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토론토 전역의 전문 예술 기관, 공립학교, 대안 학교, 사립학교 등에서 온 만큼 위원회의 멤버들은 다양한 취향과 의견, 비판적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 제작자나 작가, 배우를 지망하는 청소년, 영화제나 영화 비즈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 문화 이벤트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청소년 등 여러 관심사를 가진 10대들로 구성되어 있음
-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영화제 섹션으로 ‘TIFF Kids and TIFF Next Wave’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3월에는 ‘TIFF 어린이 국제영화제’, 2월에는 ‘TIFF New Wave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 친화적인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상영하고 있음



[그림 4-20] ‘TIFF 어린이 국제 영화제’의 포스터



[그림 4-21] 청소년 영화제인 ‘TIFF New Wave 영화제’의 포스터

- 25살 이하의 젊은이는 무료로 입장 가능한 ‘TIFF Next Wave 영화제’또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젊은 창작자들과 영화 산업계의 관계자들이 만나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눌 기회를 제공하는 ‘Young Creators Co-Lab’, 청소년 영화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TIFF Next Wave 필름 클럽, 14세에서 18세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24개 팀이 24시간 동안 총 24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하는 ‘TIFF Next Wave 24-Hour Film Challenge’등이 있음
- 여기서 주목할 것은 ‘TIFF Next Wave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에 10대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임. TIFF Next Wave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12명의 청소년들은 페스티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상영 프로그램의 구성에 참여하게 됨. 또한, 위원회 멤버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에 대한 소개 및 Q&A



를 담당하게 됨.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다른 필름 애호가들과 서로 알게 되고 또 영화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됨

- 위원회 멤버들은 8월부터 6월까지 매주 화요일에 만나고 부정기적으로는 주말 상영에 모임을 진행하고, 7월에는 2주간 상영회 기간을 가짐
-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는 계속해서 위원회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데, 매년 약 75명 정도가 위원회 지원 서류를 제출하고, 매년 졸업하는 5-9명가량의 정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률은 꽤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원서는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적는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두 번째로 다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지막으로 필요한 서류는 추천서로, 이는 가족 이외의 인물 중 지역 사회, 학교 등에서 알게 된 사람, 혹은 멘토 등 누구든 가능함

▷카메라 인트로 (1-4분 길이의 비디오로 휴대폰 또는 간이 카메라 등 사용가능)

- 카메라에 대고 자기에 대한 소개, TIFF next wave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관심을 갖고 있는 기회와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담아 이야기할 것이 요구됨

▷1-3페이지 분량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에세이

- 카메라 소개의 종이 버전으로, 자기에 대한 소개, 좋아하는 영화의 소개, 위원회와 프로그램 전체를 발전시킬 개요를 가지고 TIFF Next Wave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을 것이 요구됨

▷1-3페이지분량의 영화 리뷰 혹은 비평

-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본 영화에 대해 강점과 단점의 분석을 포함한 리뷰나 비평,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이 영화는 어떤 관객에게 맞을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이 요구됨



[그림 4-22] 'TIFF Next Wave 24-Hour Film Challenge'에 참가한 도전자들



[그림 4-23] 2015~2016년에 활동한 TIFF Next Wave 위원회 멤버들

• 아웃리치 프로그램

-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있음. 물론 지역 의료 센터인 Four Corners,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교육 지원 단체인 Pathways to Education, 비영리 자선 단체인 West Neighbourhood House 등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이루어, 토론토 전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화 제작 워크샵과 상영 활동을 하였음. 2016년에는 약 1,9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 사회에서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했음
- 2012년 이후부터는 정신 건강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들과 정신 질환 환자 그룹들과 함께 다양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200명의 지역 주민들이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또한 Reel comfort 프로그램을 통해, 5천명 이상의 아이들, 가족, 정신 질환 고객들, 시니어들에게 매년 55,000달러 상당의 무료 티켓을 제공하고 있음. 2017년에는 Reel comfort 프로그램 10주년을 기념하여 정신 질환에 시달리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습 워크샵, 특별 게스트 초청, 영화 상영 등을 운영하기도 하였음. 이 과정에서 약 30명의 크리에이터가 초청 게스트로, 워크샵 진행자로 참여하였음
- 이 프로그램은 2017년 3월에 킹스턴에 소재한 H'art 센터가 주관한 Able Artists 시리즈에 참여하였는데, 이 시리즈는 지역 예술가, 지역 공동체 리더,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 예술가 및 여타 아트 영역에서 활동 중인 리더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았음. 이 모임은 영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녕과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고, 참석자들-예술위원회 구성원들, 정신 건강 및 중독 관련 종사자들, 영화과 학생들, 킹스턴 영화제 구성원들 각자의 영역에서 구현할 수 있는 상호교류 연습 등을 포함하였음
- 또한 이 Reel comfort 프로그램은 2017년 여름, 섭식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Sheena's Place에서 실습을 마친 두 명의 직업 치료 석사 과정생들이 임상 직원, 영화 제작자, TIFF 프로그램팀 구성원들과 함께 Sheena's Place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화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게 하였음. 이 프로그램이란, 넷플릭스 영화에 대한 평론 워크샵으로, 평론가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 다양화된 자원 조달과 영화제 역할의 확장

- 토론토 국제 영화제는 영화제가 개최되는 9월의 며칠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님. 영화제는 국제영화제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연중으로 무수한 문화 이벤트를 개최하여, 토론토 전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미디어센터이자 시네마테크, 아카이브, 문화 복지 기관으로서, 위에서 열거하지 않은 수많은 역할들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 이는 국내의 지역 기반 국제영화제들이 영화제와 필름마켓, 제작 펀드 등 외부의 영화 업계 전문가들만을 중점 소구 대상으로 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음. 전용관을 갖고 있는 일부 영화제들의 경우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상황임. 그러므로 사실 지역 주민들은 국내의 경우,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를 감상하는 것 외에 영화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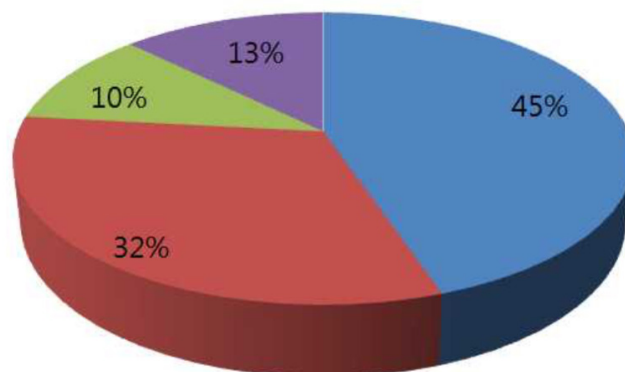
- 토론토 국제 영화제가 이렇듯 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아카이브 센터, 문화 복지 실천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 영상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산을 다양하게 조달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 있음
-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수익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1]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수익 구조(2015년)¹⁰⁵⁾

(단위: 캐나다 달러)

구분	세부구분	금액
벌어들인 수입	티켓 판매	13,945,384
	렌탈	2,010,490
	멤버십	1,482,899
	상점 및 카페	1,170,389
	서비스 요금 및 수수료	1,210,954
	투자	371,262
후원금		14,385,707
공공보조금	연방정부	1,242,299
	지방정부	2,266,792
	시정부	1,055,000
	기타	207,972
사회공헌 기부금		5,710,787
전체		45,059,935

■ 사업수입 ■ 스폰서 ■ 공공보조금 ■ 기부금



[그림 4-24]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자원 조달 구조

105) Community Knowledge Centre Toronto Foundation(2015), 『Financial Statements of TORONTO INTERNATIONALFILM FESTIVAL』, INC.



- 전체 수입에서 공공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함. 사업 수입, 스폰서 및 기부금 수입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여 공적 보조금의 삭감 등이 있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건전한 재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후원에 의한 수입은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7년에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비즈니스가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5점 만점 기준(1점은 '전혀', 5점은 '매우광범위하게' 기준)에 4.13점을 기록함
- 많은 캠프 및 미디어 워크숍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후원 기부수입으로 이루어짐
- 공공 보조금 역시 한 두 공공단체에 의해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 지자체 등에서 다양하게 조달받고 있어 지원을 통한 간섭이나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임. 또한 한 두 단체에서 예산이 삭감 혹은 중단되더라도 영화제의 운영에 거의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음

[표 4-12]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공공 보조금 조달 내역¹⁰⁶⁾

(단위: 캐나다 달러)

구분	공공기관명	2014년	2015년
연방정부	텔레필름 캐나다	932,402	979,710
	캐나다 위원회	417,353	233,471
	캐나다 유산부	100,000	3,150
	고용과 사회발전 캐나다	8,860	-
	남 온타리오 연방 경제 발전국	16,904	16,904
	문화인적자원 위원회	5,500	5,000
	캐나다 총영사관	-	4,064
	캐나다 아카이브 위원회	3,524	-
온타리오 주정부	온타리오 미디어 개발 공사	1,432,500	1,355,357
	온타리오 관광마케팅 파트너십	7,126	12,874
	문화관광스포츠부	469,636	479,782
	온타리오 문화관광 기금	35,625	128,966
	온타리오 예술위원회	279,813	289,813
시 정부	토론토시	1,059,500	1,055,000
기타		95,860	207,972
전체		4,864,603	4,772,063

106) Community Knowledge Centre Toronto Foundation(2015), 『Financial Statements of TORONTO INTERNATIONALFILM FESTIVAL』, INC.

-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멤버십 제도로, 일반 멤버십과 기부 성격의 멤버십이 있음. 가장 기본이 되는 ‘Members 365’는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상설관이라 할 수 있는 벨라이트 박스에서 이루어지는 상영 티켓을 최대 25%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며, TIFF 샵의 물건 구매에도 15% 할인을 받음. 또한 캠프, 워크샵 참가 할인, 라운지 이용 등의 혜택이 있음. 영화제 기간 중에는 회원 전용 티켓 판매, 회원가로 티켓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개인은 99달러, 가족 단위(어른 2, 청소년 4 명까지)는 175달러 등의 멤버십 가입비가 필요함
- 기부를 통해 멤버십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혜택은 더욱 많아지고, 기부에 따른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활용함
-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멤버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소속감을 높이고, 상설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화를 감상하거나 워크샵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음

[표 4-13]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멤버십 운영

멤버십 구분	회비	혜택
Members 365	개인 99달러 2인 160달러 가족(청소년 4인까지) 175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라이트박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멤버 한정 사전예매, TIFF 전시 무료 입장, 티켓 수수료 무료, 연중 상영료 25% 할인, 워크샵 및 캠프 참가비 할인, TIFF 샵 15% 할인, 멤버라운지 이용, 멤버 이벤트 및 감사일 초청 등 ▶토론토 국제 영화제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멤버 한정 사전예매, 멤버 한정 티켓 가격, 수수료 면제, 회원 전용 티켓 창구 운영 등
Contributors Circle	Contributor 45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Members 365 혜택과 동일 (단, 연중 상영료 최대 50프로 할인) • 성인 둘, 청소년 4인까지 혜택 가능 • 기부세 영수증 295달러 발행 등
	Ambassador 675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ibutor 혜택과 동일 • 기부세 영수증 455달러 발행 등
	Benefactor 1,2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tributor 혜택과 동일 • 기부세 영수증 800달러 발행 등



멤버십 구분	회비	혜택
Patrons Circle	Bronze 2,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제 기간 중 라운지 독점 이용 • TIFF 샵 등 15-30% 할인 • 연중 상영 50% 할인 • 워크샵, 캠프 등 할인 • 연중 사전 구매창 이용 가능 • 영화제 기간 중 티켓 최우선 구매 • 프리뷰 및 감사이벤트 • 인근 레스토랑 및 상점 할인 혜택 • 기부세 영수증 1,525달러 발행 • 회원 전용 리셉션, 프라이빗 상영 등 초청
	Silver 4,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론즈 멤버 혜택 전부 • 기부세 영수증 3,195달러 발행 • 내부자 리셉션 초청 • 영화제 프로그램북 무료 제공 • 영화제 기간 일부 극장에서의 우선 입장 등
	Gold 6,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버 멤버십 혜택 전부 • 기부금 영수증 5,025달러 발행 • 특별 리셉션 초청 • 영화제 기간 동안 프레스/업계 대상 상영에 액세스 가능 • 영화제 프로그램 북의 기부자 명단에 기재
	Platinum 8,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드 멤버십 혜택 전부 • 기부금 영수증 6,405달러 발행 •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영화제 내부 이벤트 초청 • 영화제 개막식 칵테일 리셉션 티켓 2매 • 영화제 개막식 갈라 프리젠테이션 및 파티 티켓 2매
	Leadership 12,000달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래티넘 멤버십 혜택 전부 • 기부금 영수증 9,635달러 발행 • 티켓 구매시 개인 전문가 서비스 • TIFF 프로그래머 및 임원진과 함께하는 점심 초대 • 영화제 폐막 갈라 프리젠테이션 티켓 2매

4. 일본 : 영상문화의 유산화 및 지역사회의 참여

■ 일본의 영화 정책의 특징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볼 때, 일본에서 문화예술행정은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청 소관이지만, 다른 많은 부(省)나 청(庁)도 정책에 따라 문화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경제산업성은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산업 진흥의 관점에서, 국토교통성, 총무성, 농림수산성은 ‘문화적인 마을 만들기’와 관련하여 건설관계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관여하고 있음. 외무성은 국제적인 문화교류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또한 문화적 경관의 보존 및 활용과 같이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문화청 등 관계성과 청이 연계하여 협력하는 사례도 있음
- 문화예술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처는 문화청이라 할 수 있음. 문화청은 현재는 독립적 부처로 존재하고 있지만, 1968년까지는 문부과학성 내의 한 부국으로 존재했음. 문부과학성은 교육과 과학기술, 스포츠, 문화 등의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1968년 행정기구의 간소화라고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 각부청의 내부 부국 중 1국을 정리하고 삭감하게 되자, 문부성은 문화행정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에 관한 행정과 일본어, 저작권 및 종교에 관한 행정을 관리하던 문화국과 외 부국이었던 문화재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새로운 문화청을 설립하게 되었음

■ 문화청의 영화 관련 정책 방향

- 현재 문화청 조직 내에 문화재를 담당하는 부서가 많은 것은 일본이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정책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조직의 구성 배경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문화청의 사업은 예술문화, 문화재, 저작권, 전통예술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상과 관련한 사업은 인재육성, 일본영화의 해외 소개, 미디어아트가 중심이 되고 있음
- 일본 문화청은 4~5년 주기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 방침’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발표된 이 기본 방침에 따르면, ‘미디어 예술 진흥’정책은 다음과 같음



(2) 미디어예술의 진흥¹⁰⁷⁾

일본의 미디어예술은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어 일본의 소프트파워로써 국내외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미디어예술의 진흥은 일본의 문화예술진흥은 콘텐츠산업이나 관광 진흥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시행한다.

- ▷ 문화청 미디어예술제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고, 관련 이벤트와의 연계를 촉진한다. 또, 일본의 우수한 미디어예술을 적극적으로 해외 국가들에 소개한다.
- ▷ 미디어예술과 관련한 소중한 작품이나 관련 자료 등은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작품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등을 지원하고, 문화시설이나 대학 등과 연계, 협력하는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 ▷ 대학이나 제작현장 등과 연계하면서 젊은 크리에이터들이 전문적 연수를 받거나 작품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육성한다.
- ▷ 일본영화, 영상작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평가를 향상시키고 제작환경의 정비, 국내외로의 소개, 인재육성, 국제공동제작에 관한 지원, 도쿄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에서의 영화, 영상작품의 수집 및 보관 등을 추진한다.

- 문화청, 제 4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방침’(2015년) 중 -

-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문화청은 문화예산을 계획 및 집행하고 있음. 2018년 문화청 예산은 1,077억 2천 9백만 엔(한화 약 1조 869억 원)임. 이 중 영화 및 미디어예술과 관련된 예산은 총 18억 2천 6백만 엔(한화 약 184억 원)으로 전체 문화청 예산의 1.7% 정도를 차지함
- 산업으로서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산업의 진흥과 해외 수출에 관해서는 경제산업성에서 주도하고 있음. 경제산업성 2018년도 예산 중에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전개·지역으로의 인바운드 확대’부문에 ‘인바운드형 쿨재팬 추진사업(보충)’에 58억 5천만 엔이 책정되어 있음. 다만, 경제산업성은 일반 산업 및 무역 전반을

107) 文化庁(2015), 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文化芸術資源で未来をつくる－(第4次基本方針)(平成27年5月22日閣議決定)。

아우르는 부처이기 때문에 영화 부문에 대한 집중 정도는 매우 낮고, 그마저도 해외 수출 부문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문화청의 영화 및 미디어예술 부문 2018년도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4-14] 2018년 일본 문화청의 영화 및 미디어 관련 예산¹⁰⁸⁾

(단위: 백만 엔)

중분류	예산	영화/미디어 관련(예산)	하위 분류	예산
문화예술 창조활동에 대한 효과적 지원	6,830	일본영화의 창조, 교류, 소개 (799)	일본영화제작지원	613
			로케이션 관련 데이터베이스 운영	16
			문화청 영화상	9
			해외 영화제 출품지원	64
			전국 영화 회의	14
			아시아에서의 일본영화특집 상영	77
		미디어예술의 창조, 소개 (863)	일본영화정보시스템 정비	6
			미디어예술의 글로벌 전개	375
			미디어예술 연계 촉진 사업	367
예술가 등 인재육성	8,630	젊은 영화작가 육성(164)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지원	122
			단편영화 작품 지원에 의한 젊은 영화 작가의 육성	123
			영화관련 단체의 인재육성사업 지원	41

- 그 외에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예술문화진흥기금’이 있으며 이 기금의 집행은 독립행정법인 일본예술문화진흥회가 담당하고 있음. 기금의 상당수는 무대예술, 지역 문화, 문화재 관계로 사용되고 있으며, 영화 부문의 경우 ‘국내외 영화제의 지원’만이 이 기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2017년 하반기의 경우, 26건의 응모가 있었으며, 이 중 국내영화제 12건, 일본영화 상영활동 3건이 전체 2억 5천 3백 7천 엔의 지원을 받게 되었음. 아래 소개할 유바리 국제영화제나 고베 발굴영화제 등이 기금의 지원을 받았음

108) 문화청 홈페이지, www.bunka.go.jp.



-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경우 영화, 혹은 문화콘텐츠를 전담하는 정부 부처는 존재하지 않아 통합적이고 강력한 영상 정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부처별로 관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상산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순수예술로서의 미디어아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제 지원 이외에 영상 문화와 관련한 종합적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움
- 지자체의 경우, 로케이션 지원 등의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광 활성화가 그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의 영상 문화에 집중된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 민간 영역이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를 주도하고,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수준으로 지역 영상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것은 지역 영상문화의 구성에 있어 위기 요인이지만, 그만큼 민간 영역이 주도적으로 활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함. 그런 점에서 일본의 사례에서는 지역의 영화제, 단관 극장 등이 주도하는 지역 영상 문화 활성화의 모범 예시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임

■ 영화제를 통한 지역 재생 및 지역 문화 활성화

-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 시민의 손에 의해 재탄생한 영화제
- 일본은 패전 후 연합국(GHQ)의 점령 하에 있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가적 개입을 최소화했음. 이는 문화예술의 전개를 민간에 위탁한 미국적 가치의 내면화이면서 전쟁 시 문화예술이 내셔널리즘의 고양과 국민 총동원에 적극적으로 이용된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음. 2000년대 들어 한류에 대한 경계와 함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일본 정부 지원이 증가일변도에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예술 정책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의 영역에 속해있다고 보는 것이 옳음. 그런 점에서 영상 문화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은 지자체의 영상 문화를 논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지역 영상 문화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몇몇 지역 영화제들임. 탄광 도시였던 홋카이도의 유바리시가 탄광 산업의 피폐로 인해 관광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1990년 처음 시작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국제적 명성을

얻었지만, 2006년 시 재정의 파탄에 의해 폐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 그러나 이를 안타까워한 영화인, 영화팬,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유바리시의 유지들이 힘을 모아 NPO 법인 유바리 판타를 설립해 2008년부터 시 대신 영화제를 주최하게 되었음. 매년 3월 개최되고 있으며, 재탄생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민간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인구 만 명이 되지 않는 소도시 유바리에는 영화관마저 한군데도 없어 영화제의 공간이 되는 곳은 지역의 시민회관, 호텔의 연회장, 장애인 취로 지원 시설, 리조트의 체육관 등임. 시민들이 전력을 다해 유지해나가는 영화제로 시민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를 즐길 수 있음
- 지역 사회와의 밀착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제이기 때문에, 국제 영화제를 지향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가족 단위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의 상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그림 4-25] 유바리 스토브 파티

- 유바리시의 주민자치회 유지 후원으로 영화제 기간 중 밤에 개최되는 스토브 파티는 지역 주민과 영화제 참가 게스트들이 한 자리에 어울려 지역의 상점가에서 음식을 먹으며 교류하는 파티임. 영하 20도의 날씨에 스토브를 여기저기 켜놓고 하는 파티라고 하여 스토브 파티라 불림

-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 필름 라이브러리와 향토 영상 발굴
 - 또 하나의 예로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들 수 있음. 1989년 야마가타시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첫 시작 이래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음
 - 일본 다큐멘터리의 거장이면서 야마가타 출신인 오가와 신스케(小川神介)가 주축이 되어 시작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하였음. 영화제가 시작되고 이듬해인 1990년,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실행위원회’가 설립되어 영화제를 이끌었으며, 2006년에는 야마가타시로부터 독립하여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법인화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는 영화제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이 항상 펼치고 있음
 -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화된 영화제 조직이 영화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으며, 그것이 영화제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의 구축이나 공공상영 지원 운동은 영상 문화 활동으로서 다큐멘터리 관객 개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음
 -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를 들 수 있음. 즉, 야마가타 영화제의 인터내셔널 경쟁에 응모된 작품을 비롯한 우수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수집, 보존하는 라이브러리는 상시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가볍게 감상할 수 있도록 비디오 부스 라이브러리로 운영되고 있음. 시사실은 40여석의 좌석과 16밀리와 35밀리 영사기를 갖추고 필름 라이브러리 작품들을 선정해 정기 상영회를 개최하고 있음



[그림 4-26] 야마가타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에서 이루어지는 금요상영회

- 이외에도 야마가타 현 내의 공동체 상영 지원도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의 감상기회가 작은 지역에서의 영화 상영 보급을 지지하여, 필름 대출, 36밀리, 16밀리 영사기, 프로젝터 등의 기재 대여, 오퍼레이터 파견 등을 실시하고 있음¹⁰⁹⁾. 즉,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짧은 기간에 끝나지만, 이 영화제의 성과가 상설로 지역민들의 영상 문화 향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야마가타 시를 포함하여 12개 시, 20개 군을 가지고 있는 야마가타 현은 인구 100만 정도에 농업이 기반이 되는 지자체로 지역 내에는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대부분임. 그런 점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한 상설 상영이 더욱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야마가타 영화제 역시 기존의 상업 극장보다는 지역 내의 미술관, 시민회관, 공민관 등을 주요 상영 장소로 활용하고 있음. 영화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마가타 포럼’의 경우에도 시민 출자로 생겨난 극장으로, 영화관 공백 지역에 영화관을 건설하기 위한 시민들의 취지에서 시작되었음
-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여러 프로그램들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 ‘그리운 야마가타’발굴 프로젝트가 있음. 영화제 측은 2007년과 2009년 ‘야마가타와 영화’특집을 영화제 섹션으로 구성해 야마가타현 주민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외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음.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그리운 야마가타’발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 이 프로젝트는 세계 제2차 대전 전부터 이후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기까지, 일반 시민부터 기업, 행정기관 등이 촬영한 오래된 영상을 찾는 작업으로, 오래된 다큐멘터리 필름을 수집 및 복원하고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로서, 중요한 민속자료나 사회교육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십 수 년 전에 촬영된 개인적인 기록이나 마을의 홍보영화, 또 기업 PR영상 등 생활이나 역사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필름들이 주요 대상이 되며 반드시 야마가타 현에 대한 기록일 필요는 없음
- ‘그리운 야마가타’ 발굴 프로젝트는 2007년 영화제에서 야마가타현 츠루오카시 향토자료관이 소장하고 있는, 1930년대-1940년대 제작된 영상 ‘이시와라 간지가 촬영한 만주’, ‘이시와라 간지 인터뷰’, ‘전쟁전-전쟁후의 카미노야마(上山)시’를 비롯하여 192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영상자료들이 선보였으며,

109) 영화진흥위원회(2011),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제 운영 실태』,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



2009년 영화제에서도 1930년대 자료를 시작으로 1950년대 자료들까지 24편이 상영되는 등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4회 영화제 동안 ‘야마가타와 영화’ 특집으로 발표되었음



[그림 4-27] ‘그리운 야마가타’발굴 프로젝트
お祖父様の朝 (할아버지의 아침) 스틸 이미지¹¹⁰⁾



[그림 4-28] われらかく闘う 激斗63日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 격투 63일) 스틸 이미지¹¹¹⁾

• 나라 국제 영화제

- 나라현의 현청 소재지인 나라시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관광 도시이지만 영화관이 한 곳도 없는 영화관 공백 지역임. 이런 곳에 국제 영화제가 시작된 것은 나라 출신의 영화 감독 가와세 나오미(河瀬直美)의 의지에 힘입은 바가 큼. 2007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기도 했던 가와세 나오미 감독은 나라에 국제영화제를 만들어 세계의 영화인들을 초청하고 싶다는 오랜 숙원을 2010년 나라현의 지원을 받아 실현하게 되었음
- 신생 영화제라 할 수 있는 나라국제영화제의 예산은 많지 않음. 2010년 1회 영화제가 약 2,000만 엔, 2회가 2,800만 엔(2012년), 3회가 3,500만 엔(2014년), 4회가 4,000만 엔(2016), 그리고 2018년에 개최될 5회가 5,000만 엔 정도로 매년 조금씩 규모는 늘고 있음. 애초에 지자체 혹은 중앙 정부가 주도한 영화제라기보다 가와세 감독의 의지에서 시작되었기에 영화제의 실행은 NPO법인 나라국제영화제 실행위원회에 맡기고 있음

110) 태평양전쟁 발발 전인 1940년, 외부에 부임해가는 동생을 위해 할아버지가 영상작가에 의뢰하여 찍은 영상인데, 이 작품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는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16mm 필름으로 이 영상을 전해 받았지만 볼 방법이 없기에 보지 못한 채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함. 증조부, 증조모, 조부와 조모가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음(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 www.yidff.jp.)

111) 1953년 일본탄광노동조합이 제작된 영상으로, 1952년 10월 17일에 시작된 일본탄광노동조합 주도의 63일간의 파업을 후쿠시마 조반 탄광과 규슈 카호탄광의 투쟁을 중심에 놓고 총괄한 작품으로 전체 90컷으로 이루어진 장대한 영상임(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 www.yidff.jp.)

- 나라현은 영화제가 처음 출범할 때, 사업비 및 인건비로 1,300만 엔을 지원했으나 이는 첫 해 뿐이었음. 2014년 2회 영화제가 시작될 때 나라시로부터 약 1,000만 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화장장의 유치와 관련하여 나라시 시장과 의회의 갈등이 있으면서, 시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과 겹쳐 2016년에는 의회가 영화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게 됨
- 그런 점에서 나라국제영화제는 그 시작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 예산을 의존하며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자생적 구조를 찾아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지자체의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 영화제는 재원 조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 납세자가 직접 지역의 문화사업을 기부 형식으로 응원할 수 있는 후루사토 납세가 연간 약 5,000만 원의 재원이 되고 있으며, 문화청으로부터 예술문화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업비로 획득하거나 일본국제교류기금, J-LOP(일본 콘텐츠의 해외 전개를 촉진하는 보조금), 기업 메세나 협회 등으로부터 사업비를 보조 받고 있음
- 나라국제영화제는 격년으로 열리기 때문에 영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업이 펼쳐짐. 사무국에는 직원 3명과 이사장 1명이 상주하는데, 영화제가 없는 해에 이들 인력들은 주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영상 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시네마테크 사업이며, 나라시 내에는 영화관이 없어, 인접한 다른 시까지 차로 20여분 정도를 달리면 멀티플렉스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영화를 보기는 쉽지 않음. 나라국제영화제 사무국은 이러한 인식 하에 2013년부터 시네마테크 상영회를 시작하였음. 시네마테크 상영회의 영화들은 대부분 해외 예술 영화들로, 인접 시에 멀티플렉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 영화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영회는 나라시와 나라시 인근의 시군 주민들을 모두 아우르는 이벤트라 할 수 있음. 영화는 월 1회 3일간(첫 주 금, 토, 일) 이동형 상영회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동형 상영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상설로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임
- 처음에는 카페 등을 빌려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라여자대학의 강당이나 나라마치센터라는 시 소유 공간, 이사 중 한 명이 운영하는 호텔의 일부 공간을 빌려 상영회를 하고 있음. 월 200~300명의 관객이 시네마테크 상영을 찾고 있으며, 교토, 오사카, 고베 등 미니 시어터 등에 홍보 유인물을 두어 홍보하고 있음



[그림 4-29] 시네마테크 상영회 모습



[그림 4-30] 상영 전단지

- 또 하나의 사업은 호시조라 상영회(星空上映会)라고 이름 붙여 있는 것으로, 이른바 야외 상영회라 할 수 있음. 이 야외 상영회는 영화제가 열리지 않는 해인 2015년에 프리 이벤트(pre-event)로 처음 시도되었음. 9월에 나라 공원이라는 야외 공간에서 상영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어, 2016년에는 영화제 상영 기간에도 열리게 되었음



[그림 4-31] 2015년 개최된 호시조라 상영회

- 상영회 외에 미디어센터가 할 만한 사업도 나라국제영화제는 진행하고 있음. 지역 어린이들과의 영상 제작 워크숍은 나라시의 교육위원회와 협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위원회의 협조 하에 나라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어린이 영상 워크숍 참가자를 모집하고, 초등학교의 강당 하나를 빌려서 사흘간 집중적으로 영상 제작 워크숍을 실시하게 됨.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워크숍은 애플로부터 아이패드를 협찬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장비료는 특별히 들지 않음. 아이들은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 작업을 배운 후 집에서 각자 편집을 해오게 됨.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상영회를 개최하는 식으로 만든 영상을 선보임. 강사는 가와세 나옴이 감독이 직접 하게 되는데, 즉, 나라시의 어린이들은 칸느도 인정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감독으로부터 영상 워크숍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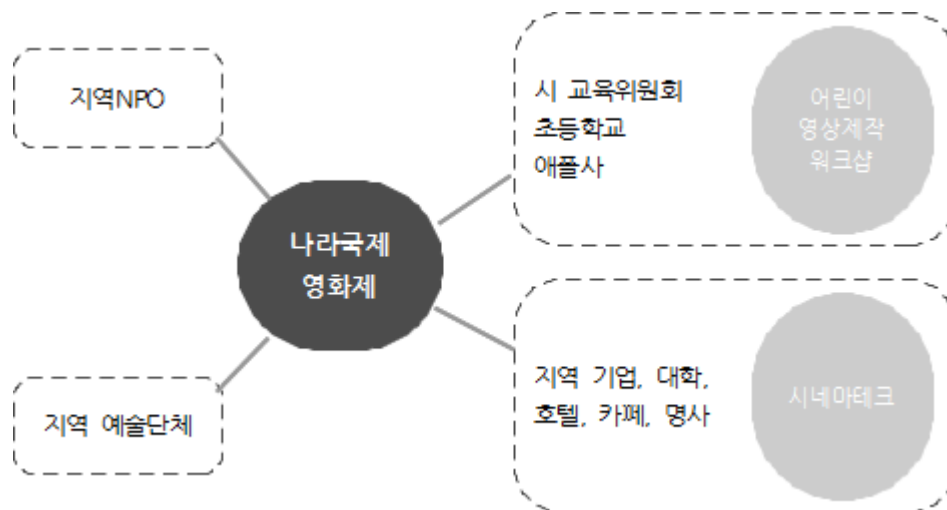


[그림 4-32] 어린이 영상 워크숍 모습

- 나라국제영화제는 나라 지역 로케이션 지원 등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예술영화로서는 흥행에 성공한 ‘한여름의 환타지아’가 바로 2014년 나라국제영화의 ‘NARative’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은 작품임. 이 프로그램은 나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기획 개발 및 제작을 지원하는 것으로, 2년에 한편씩 선정하고 있음. 또한 나라국제영화제는 이러한 로케이션 지원 프로그램에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데, 주민들은 ‘서포트 클럽’에 가입하여 영화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나라국제영화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착을 만들고 타 지역에서 온 이들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세계에 나라 지역의 매력을 알리게 된다”고 그 취지를 표현하고 있음
- 나라국제영화제의 사례는 지역의 결코 크지 않은 영화제가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의 영상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음.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국제영화제는 지역 NPO, 지역 예술단체, 학교, 기업 등과 여러 각도에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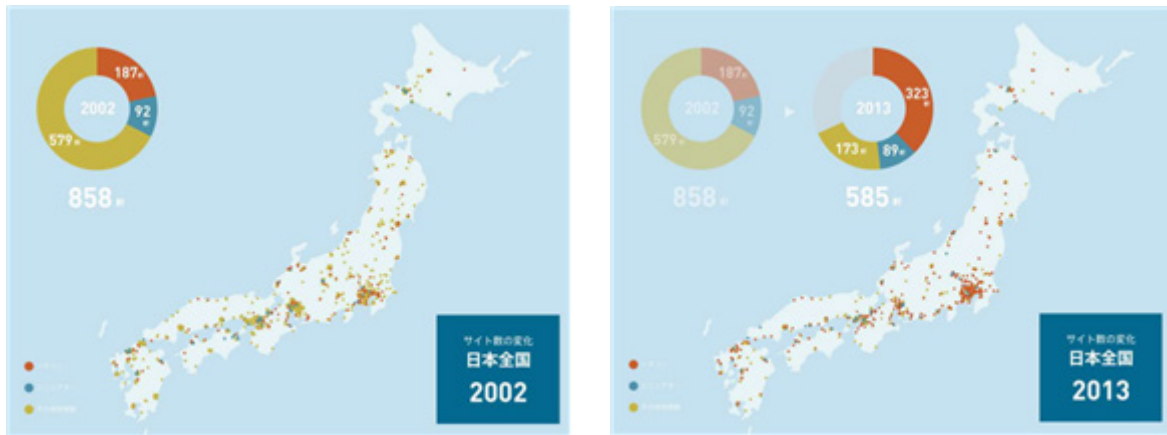


[그림 4-33] 나라국제영화제와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 지역의 단관 영화관 재생 프로그램

• 멀티플렉스의 증가와 지역 영화관

- 국내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2000년대 들어 멀티플렉스가 증가하고, 지역의 전통 영화관들이 상당수 폐관의 길을 걸었음. 일본의 커뮤니티시네마 센터는 2002년과 2013년, 약 10년의 기간 동안 전국의 영화관 분포를 조사하여 영화관의 도시 집중화 현상, 그리고 소도시의 영화관 공백지역 증가 현상을 입증하려 하였음. 아래 [그림 4-33]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에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영화관이 2013년에는 도시에 집중되고 영화관이 없는 지역이 대폭 늘어났음



[그림 4-34] 영화관 분포 비교(2002년과 2013년 기준)¹¹²⁾

- 이처럼 영화관이 대도시에서 집중되면서, 영화관이 없는 소도시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레 도시와 농촌(소도시)간의 문화향수 격차 문제를 제기시켰음. 다만, 일본의 경우 전통적 단관들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통계상 미니 시어터(일종의 예술영화관)의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이유는 폐관한 극장을 커뮤니티 스페이스로 재개관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마을만들기협의회나 NPO 등 시민, 공익법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 강화’등을 목표로 재개관하는 사례가 늘어나 2000년 이후 새롭게 문을 연 비 멀티플렉스 극장 26곳 중 10곳이 NPO법인에 의해 탄생한 시민 영화관, 혹은 사회적 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2014년 기준)
- 지역사회에 의한 극장 재생 : 도요오카 극장 (豊岡劇場)
 - 도요오카 극장은 이처럼 시민에 의해 극장이 재개관한 사례로 볼 수 있음. 효고현 북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는 인구 8만의 소도시로, 도요오카 극장은 1927년에 개관했음. 당시 도요오카시에는 4개 극장이 있었으나, 하나둘씩 폐관하고 2012년 도요오카 극장이 폐관하면서 도요오카시는 극장 공백 지역이 되었음. 폐관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은 디지털 시네마의 도입 비용과 관련됨

112) 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ー(2014), 『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会議 자료집』.



- 폐관 후 이시하라라는 영화 애호가에 의해 극장이 인수되었고 이내 ‘도요게키 신생 프로젝트팀’이 결성되게 되었음. 2013년 9월 ‘일본 커뮤니티시네마 회의’에서 극장 재생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은 후 효고현립대학 경영학부 교수 및 학생들이 모여 지역 내에서의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면서 프로젝트팀에 결합하게 되었음. 또한 지역의 예술가들, 시네마 클럽 등이 프로젝트팀에 합류하여 공간 설계를 함께 구상하는 등 지역 사회와 밀착한 재생 프로젝트가 진행됨 ¹¹³⁾
- 공간 수리비용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금하여 110명에 의해 271만 6000엔이 모금되었음. 기부자의 80%가 도요오카시 주민으로, 주민들이 시내 유일의 극장인 도요오카 극장의 재개관을 얼마나 바랐는지 알 수 있음
- 디지털 영사기 2대의 구입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1,200만 엔에 도입할 수 있었음. 이러한 지역 사회의 도움에 힘입어 도요오카 극장은 2014년 재개관하게 되었음



[그림 4-35] 도요오카 극장 재생 과정

• 니이가타 현의 시네원도 시민영화관

- 니이가타 현에 위치한 시네원도는 1980년대라는 아주 이른 시기에 시민출자에 의해 영화관이 재개관한 사례로 주목할 함. 시네원도는 1985년 니이가타 현의 명화좌(구작 상영관) 라이프가 폐관한 후 재개관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음. 시민참가와 시민출자 모금으로 시작된 이 재개관 운동은 1985년 4월 ‘니이가타 시민영화관 건설

113) 정인선(2014), 공공상영 운동, 여전한 화두, 한국영화, 56. 18-19.

- 준비회'가 발족하면서 본격화됨. 회원 수 5천 명 모집을 목표로 1인 1만 엔 회비 모금을 실시하여, 1985년 12월 '니이가타 시민영화관 시네윈드'를 개관하게 됨
- 시민영화관 시네윈드는 두 가지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하나는 영화관의 관리 및 대외적 운영 등 비영리 사업의 사무국을 담당하는 '(유)니이가타 시민영화관'이며, 다른 하나는 시네윈드의 운영에 있어 기획 및 실천을 담당하는 회원 조직 '니이가타 시민영화관 감상회'임. 공적 자금이나 특정 기업 및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니이가타시 시내의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 영화관이 운영되는 조직 구조¹¹⁴⁾임
 - 시민출자로 재개관하게 된 시네윈드는 입장료 수입과 연회비로 운영되며, 회원 제도는 극장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음. 디지털 시네마 설비 도입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필요할 때는 모금활동을 통해 충당하는데 2012년 디지털 시네마 도입과 관련하여 2천만 엔(한화 약 2억 179만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한 결과, 1,932만 엔(한화 약 2억 원)이라는 돈을 모금할 수 있었음



[그림 4-36] 니이가타현 시네윈드 입구

114) 奥田瑛二(2010), 『ミニシアター映画館のつくり方』, AC books.



■ 지역 도서관을 통한 영상 아카이빙과 영화 상영

-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시네라 (Ciné-là)와 미니시어터
 - 일본 내에 몇몇 필름 아카이브가 있지만 도서관 내에 아카이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이 유일함. 도서관 내에 필름 아카이브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흥미로운데, 1989년 시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 태평양 박람회’가 개최되게 됨. 이 박람회를 계기로 아시아와 후쿠오카현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 1991년 ‘아시아 포커스·후쿠오카 영화제’가 개최되게 됨. 이 영화제의 심포지엄 ‘영화가 말하는 아시아 문화’에서 인도의 사이 바란지베 감독이 후쿠오카에 아시아 필름 아카이브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하였고, 당시의 시장을 예방하였을 때에도 그 뜻을 전하게 됨. 같은 해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시 종합도서관 기본계획에 영상미디어센터가 포함되어 도서관 내에 영화 필름 전용의 아카이브가 생김
 - 이후 아시아의 필름아카이브를 목표로 삼고 아시아영화, 고전명작, 후쿠오카국제영화제상영작, 일본영화, 애니메이션, 기록영화, 실험영화, 후쿠오카시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여 귀중한 영상문화재로 장기간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수집된 영상 자료들은 도서관 내의 상영 시설인 영상홀(시네라)과 미니 시어터에서 상설 상영되고 있음. 영상홀인 시네라는 총 246석 규모의 영화관으로 16mm, 35mm, 비디오(DVD, 디지털비디오 등)의 상영이 가능함. 총 50석 규모의 미니시어터의 경우, 16mm 필름과 비디오(DVD, VHS)의 상영이 가능함
 - 상영되는 작품은 아시아영화, 그리고 명작 일본영화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작품들만을 선택하고 있음. 작품들은 시중 영화 관람료의 3분의 1 정도이지만 유료로 상영되고 있는데, 이는 후쿠오카시 내에 있는 영화사 조합, 그리고 영화관 조합과 유료 상영을 약속했기 때문임. 비록 일반 영화관에 상영되지 않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고 있지만, 유료 상영을 통해 지역 내 일반 영화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임. 영화는 연간 약 200편 정도 상영되며, 2만여 명의 관객이 매년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음

5. 사례 종합 검토

(1) 영국의 시사점

■ 지역 영상문화 및 영화산업 진흥을 위한 각별한 노력 : 필름 허브 구축

-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 거점 조직을 구축하고 있고, 2012년 부터 영국 전역에 FAN(Fan Audience Network)을 담당할 필름 허브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에는 8 개의 필름 허브가 구축되어 있음. 또한 각 허브에 리더 조직을 선발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됨
- BFI가 FAN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만, 이외에도 각 지역의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진흥 지원을 위한 기구가 BFI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필름허브를 지원함
- 런던 이외 지역의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까지 BFI 제작 펀딩 중 25%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우선 과제로 제시함

■ 미래 관객 개발 및 미래 인력 육성에 중점 : 교육 중심

- BFI의 필름 포에버 및 BFI2022 전략 우선 과제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한 영국 독립영화 및 해외영화를 관객들이 쉽게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영화 관객 개발에 주력함. 주요하게는 미래 관객 개발 및 미래 영국 영화 산업을 이끌어갈 인력 발굴과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를 중심에 두면서 인투 필름 계획 수립 및 FAN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영국 TV 및 영화적 유산들을 디지털화해 교육 자료원으로 보급함

■ BFI 재정의 다각화 노력

- BFI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재원 조성을 마련하고 있으며, BFI 예산 중 자체수익금(기부금 포함)의 비중은 약 20% 정도 됨
- 정부의 예산정책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변화에 영향을 덜 받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자체 수익 모델을 만들고자 함



(2) 프랑스의 시사점

■ CNC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지자체의 영상문화 진흥을 설계

- 프랑스 영상문화 진흥 정책의 특징은 영화진흥 중심 기구인 프랑스 국립 영화센터 CNC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자체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이 설계된다는 것임
 - 이는 국가·CNC·지자체 간의 3년 단위 협약 정책에 기초하는데, 이 협약 정책의 주요 방향은 CNC 및 문화부 관계자 그리고 지역의 주요 영상문화 진흥의 행위자들이 다함께 모여 그 방향을 설정함.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사업을 전개하진 않으며, CNC 정책 기조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지역 상황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
- 예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실현 정책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책을 통해 CNC 1유로 투여시, 지자체 2유로 투여 정책을 장려하고 있음. 2017년부터 CNC는 지역차원의 제작지원 활성화를 위해 모든 레지옹으로 이 1:2 정책을 확대하기로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매칭 예산 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수 있음. 실제로 2017년 한국영상위원회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영화 기획개발 및 제작지원(예산 4억)」 사업을 공모를 통해 위탁받아 실행함

■ 미래의 관객개발과 지역 영화관 활성화

- 프랑스 영상문화 진흥의 중심에는 미래 관객 개발이 있음. 미래 관객 개발이라는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영화교육을 공교육과정에 도입함. 공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CNC는 지역의 영화제, 영화관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할 경우 지원을 함
 - 영화 교육 과정과 결합하거나 창작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관객들에게 제공할 경우 지원함
- CNC와 지자체 그리고 DRAC이 지원하는 지역영화관(주로 예술·독립영화관) 및 지역영화제가 각종 단체 및 협회(지역영화관 네트워크 협회, 예술 및 실험 등 독립영화의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단편 작품 배급 협회 등), 지역 시네마테크

및 아카이브를 매개로 영화인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영화 관련 학생들)을 만나게 하고, 이를 통해 영화교육이 이루어짐.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럽게 영상·영화 관련 미래 관객 개발과 미래 창작 인력을 지역 차원에서 육성하게 됨. 또한 생활문화의 공간으로서 지역영화관을 활성화시킴

- CNC 예산의 약 30%를 영화 및 시청각 작품의 배급, 확산, 홍보 지원에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예술·독립영화관, 예술 및 실험영화 배급, 영화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예술·독립영화관(즉, 소규모 영화관)에 대한 지원은 독립영화관을 지역의 문화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독립영화관 지원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영화관 시설의 개보수 지원뿐만 아니라 영화관 프로그래밍까지도 지원해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음

(3) 캐나다의 시사점

■ 자국의 영상문화 정체성 구축을 위한 노력

- 자국 영상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NFB는 1968년부터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 for Change)’을 진행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가 직접 자신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퍼블릭 액세스의 성격을 가짐
- 특히 NFB는 캐나다 원주민의 영화제작과 배급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여, 영상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포용해 가는 과정을 보여줌. 이러한 정책은 이민자, 노인, 청소년 등의 사회적 약자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줌
- 또한 NFB는 영화의 제작자로서 뿐만 아니라 배급자로서, 원주민들이 연출한 영화가 세계 곳곳의 많은 이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배급 플랫폼 개발에 힘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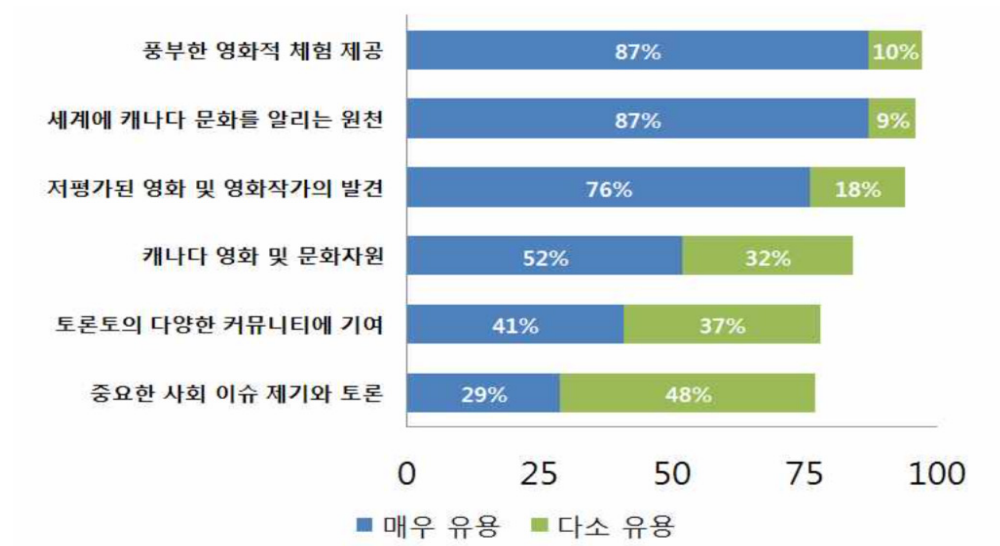
■ 영화제 역할의 확장

• 관객개발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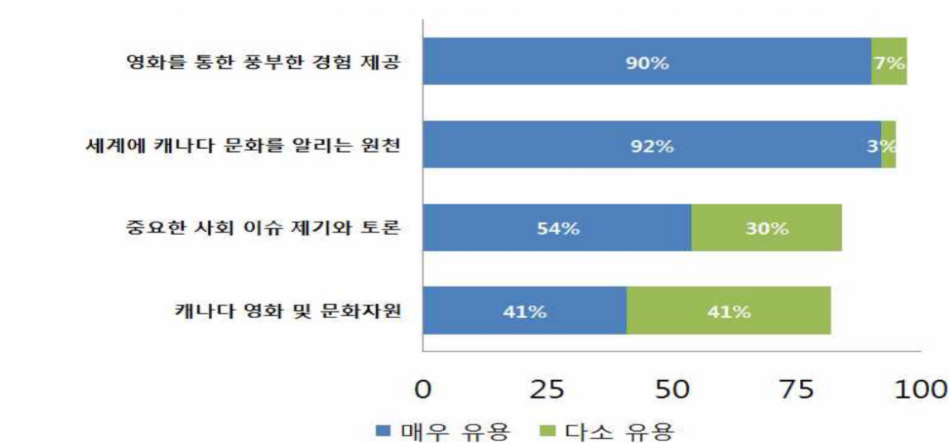
- 토론토 국제 영화제의 활동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들임. 청소년 및 어린이 관객 개발 프로그램은 제작, 상영, 비평, 교류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 관객의 육성과 개발은 극장에 새로운 관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영상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미디어 교육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음. 또한 어린이 영화제와 청소년 영화제를 통해 지역 사회가 청소년 및 어린이를 주제로 한 영화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진다는 점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새로운 창작 역량, 새로운 관객, 새로운 교류를 기르고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 관객 개발 프로그램은 국내에서도 시급히 고민해야 할 문제로 볼 수 있음

• 사회 문화적 효과에 대한 주목

- 지금까지 국내의 국제영화제들은 그 효용성에 있어 경제적 지표들만을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음. 공공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가시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대효과만이 중심적 평가 기준이 되어 왔음
- 그러나 토론토 국제 영화제가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네마테크나 청소년 미디어 교육 사업 등은 경제적 효과만으로 추산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지역 사회에 가져다주고 있음
- 시네마테크와 토론토 국제 어린이 영화제의 이용자 및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네마테크 이용자의 87%가 시네마테크를 통해 풍부한 영화적 체험을 하고 있다고 답함



[그림 4-37] 이용자들이 평가한 시네마테크의 사회문화적 효과¹¹⁵⁾



[그림 4-38] 참가자들이 평가한 토론토 국제 어린이 영화제의 사회문화적 효과¹¹⁶⁾

- 국내의 경우, 영화제 등의 문화 이벤트가 지역 사회에 가져오는 사회문화적 효과에 대해 영화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중앙 및 지자체 정부에서 평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115) TCI Management consultant(2010), 『Economic Activity Associated with the 2008-2009 Operations of TIFF』.

116) 위와 같음.



(4) 일본의 시사점

■ 지역 주민의 애착과 관심에 기반한 영상 문화 활동

-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다양한 지역 영상 문화 사례들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짐
 - 나라 국제 영화제,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은 국제 규모의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예산 및 규모에 있어 사이즈가 작고, 지역에 극장이 하나도 없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개최되고 있음
 - 이들 영화제가 의미는 영화제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방문하는 영화 산업 관계자나 관광객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이 영화제들을 어떻게 함께 즐기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만큼 우리 고장에 국제 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은 자긍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영화제 기간 동안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 이점을 주기 때문에 영화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애착이 고양됨
 -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자체의 재정 파탄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이듬해에 시민 중심의 NPO 법인이 결성되어 재탄생하게 된 경위는 지역 주민들이 영화제에 갖고 있는 관심과 애착의 정도로 보여주는 것임. 국내에도 지역 기반의 국제 영화제들이 ‘중앙정부-지자체’의 매칭 펀드로 생겨났다가 지자체 혹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재정 지원 중단 등으로 인해 단명한 우수한 사례들이 있음. 이들 사례들은 많은 영화제들이 오로지 ‘중앙정부-지자체-영화 산업관계자’들만의 축제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영화제가 지속되고 지역 영상 문화 활동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영화 관람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영화제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대학 및 단체들과 협력하는 상설 이벤트의 개발 등이 필요함
 - 마찬가지로 도요오카 극장이나 시네윈드 영화관의 재개관 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영상 문화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은 ‘영화관 재개관 운동’으로 나타남. 영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영화관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지역 영상 문화에 대한 개념 확장

-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009년부터 수행한 ‘그리운 야마가타’ 발굴 프로젝트는 향토 영상에 대한 발굴이라는 학술적, 문화적 실천을 통해 지역의 영상 문화 개념을 더욱 확장시킴
- 집에 낡은 필름이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영화제 측에 전화로 이 사실을 알리면 영화제는 필름을 빌려 복원 및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됨. 디지털화한 영상은 원 소유자에게 필름, 디지털 영상, 원할 경우 DVD로 전달되게 됨. 이렇게 복원된 영상들은 지역 관광 시설의 영상 부스에서 상영하거나 ‘향토의 역사를 보다’라는 상영회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고 학습교재로서도 활용됨
- 또한 발굴된 영상들은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기간 중 ‘야마가타와 영화’라는 특집으로 상영되었는데 상영장이 만석을 이룰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음
- 음향 및 영상 자료는 시대상과 문화를 시각과 청각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문화공동체의 집단적 기억을 복원하고 그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훌륭한 자료로 볼 수 있음¹¹⁷⁾
- 그런 점에서 지역의 영상 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 영상들을 수집하는 것은 영상을 통해 일상의 기억과 지역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범위의 지역 영상 문화 개념 확장을 요청하게 됨

117) 노시훈(2007), 호남학 정립과 문화관광에의 활용을 위한 호남학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 시론, 인문콘텐츠, 10호, 305-321.

제5장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방안

제1절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

제2절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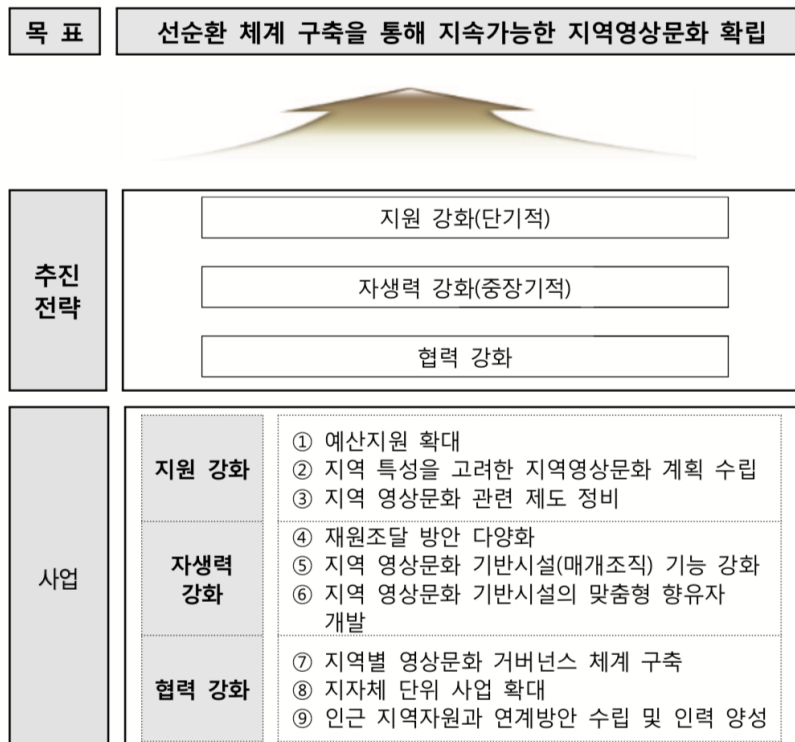
제5장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방안

1.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 전략

1) 지역 영상문화의 목표와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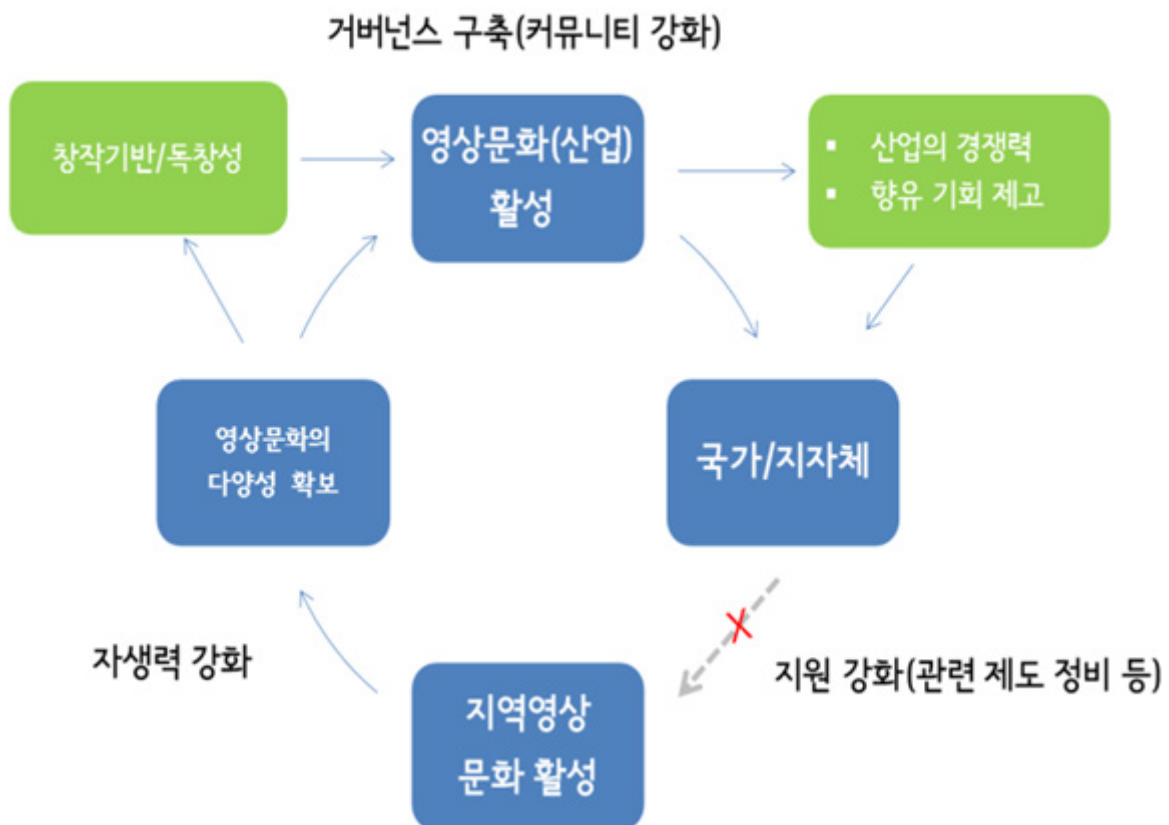
-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영상문화 확립’을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최종 목표로 설정함
- 추진 전략은 첫째, 단기적으로 예산지원 확대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계획 수립, 지역 영상문화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 재원조달의 다양화 및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기능 강화, 맞춤형 관객 개발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셋째, 지역별 영상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지자체 단위 사업 확대,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방안 수립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구축함

[그림 5-1] 문화콘텐츠산업(영상산업)의 가치사슬



2)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

-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관련 제도 정비 등의 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하나, 팔길이의 원칙¹¹⁸⁾이 적용되어야 함. 이를 통해 지역 영상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향후 자생력 강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다양성(창작기반, 독창성) 확보 및 영상문화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영상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 제고를 제공하며, 향후 국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영상문화 콘텐츠 발굴 및 진흥이 이루어지는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그림 5-2] 지역 영상문화의 선순환 체계 모형(안)

118) 문화예술정책을 수립 할 때 팔길이의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 중요한데, 이 정책은 예술행정가 존 피크(John Pick)가 예술행정론에서 역설한 팔길이의 원칙에서 기원함. 지원은 하되 (팔 길이만큼 거리 두고)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1945년 영국이 예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예술평의회를 창설할 때 정치권력과 관료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채택한 정책임(중도일보, 2017.04.10.)

2.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전략별 세부 과제

1) 주체별 역할

-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영상문화 확립’의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는, 지역 영상문화 관련 제도 정비, 예산 지원 확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의 역할이 필요함
-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제정, 지역 커뮤니티 강화 및 지역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등의 역할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역 단체(중간지원조직, 기반시설)은 재원조달 방안 다양화, 중간지원조직(기반시설) 기능 강화,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맞춤형 향유자(관객)개발, 지역 자원과 연계 방안 구축 및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운영해야 함



[그림 5-3] 주체별 역할



2) 지원 강화 방안

1) 예산 지원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관련 지원 사업이 창작지원에만 한정되어 있고, 문화향유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지역영상 관련 지원금 또한 적음
-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첫 걸음으로 관련 지원 사업의 분야 및 수적인 확대와 더불어 지원금 증액이 요구됨

■ 현황 및 사례

- [영국, BFI 2022 플랜] 영국은 2017~2022년에 총 5억 파운드(한화 약 7,373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기존 관객개발 및 영상문화 진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며, 동시에 영화 교육 및 영화 인력 교육을 지원하여 새로운 영화인을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둠
 - BFI는 세 가지 우선 전략과제 실행을 위해 5년간 488.8백만 파운드를 사용할 예정이며, 예산 구성은 복권기금 267.7백만 파운드, 비복권기금 221.2백만 파운드로 구성되어 있음

[표 5-1] BFI 2022 예산구성안

(단위: 백만 파운드)

	복권기금	비복권기금	합계
1. 미래 관객(Future audiences)			
FAN 펀드	15.0	0.0	15.0
관객 개발 펀드	28.3	2.5	30.8
영화 유산	13.5	0.0	13.5
BFI 문화 프로그램	0.0	179.5	179.5
총합	56.8	182	238.8
2. 미래 학습 및 기술(Future learning and skills)			
2-1. 학습			
인투 필름(Into Film)	24.0	0.0	24.0
FAN 펀드	1.0	0.0	1.0
BFI교육-학습 기반 장소	0.0	5.0	5.0
2-1 합계	56.8	5.0	59.3
2-2. 기술			

기술	17.5	0.0	17.5
BFI 영화 아카데미	2.5	5.0	7.5
전국 거점 성장 펀드	3.5	0.0	3.5
2-2 합계	25	5.0	28.5
총합	48.5	10.0	58.5
3. 미래 재능(Future talent)			
3-1. 영화인 지원			
BFI 제작 펀드	79.5	0.0	79.5
개발 펀드	12.5	0.0	12.5
재능개발 및 아이피처스	12.5	0.0	12.5
3-1 합계	41.8	0.0	104.5
3-2. 기업 지원			
비전 어워드	4.0	0.0	4.0
인터내셔널 펀드	10.0	0.6	10.6
기업 펀드	10.0	0.0	10.0
전국 거점 성장 펀드	2.0	0.0	2.0
영국 인증 및 세금 감면	0.0	2.5	2.5
로케이션 서비스	0.0	4.0	4.0
크리에이티브 유럽데스크	0.0	2.5	2.5
3-2 합계	99.3	9.6	35.6
총합	130.5	9.6	140.1
4. 리더쉽, 연구조사, 인증 및 딜리버리			
연구조사	3.0	0.0	3.0
리더쉽 및 딜리버리	28.8	19.6	48.4
총합	31.8	19.6	51.4

- [프랑스, CNC 예산] 문화부 예산 중 CNC 예산은 7억 2,400만 유로(한화 9,493억 원)로 문화부 예산의 약 7%를 차지함
 - 예산 중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 예산은 685백만(한화 약 90억 원) 유로임. 이 중 문화민주화 및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지자체 관련 예산은 Action No. 4. 와 Action No. 5.에 해당함
 - 프랑스는 2003년부터 기업의 예술지원비에 대해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제 지원책을 도입 및 운영함. ‘메세나·협회·재단에 관한 법률(2003.8.1)’을 통해 강력한 메세나 장려정책을 운영하여 기업이 예술지원 비용에 대해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60%를 세액공제(초과액 5년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음. 2015년 프랑스 기업들의 기부금 총액¹¹⁹⁾은 16억 유로(한화 약 2조 909억 원)로, 세액공제액은 9억 5,200만유로(한화 약 1조 2,441억 원)였음

119) Fondation de France(2018). 『PANORAMA NATIONAL DES GENEROSITES - SYNTHÈSE』.

[표 5-2] CNC 예산 추이¹²⁰⁾(2016~2018년)

(단위: 천 유로)

구분	2016	2017	2018
Action No. 1. 영화제작 및 창작 지원	129,660	130,397	130,530
Action No. 2. 시청각작품 제작 및 창작 지원	262,026	271,740	277,958
Action No. 3. 기술 분야 혁신 지원	14,125	17,225	20,341
Action No. 4. 영화 및 시청각작품의 배급, 확산, 홍보 지원	196,643	213,559	216,133
Action No. 4. bis. 디지털 플랜 (영화유산 디지털화 예산)	2,576	2,566	4,452
Action No. 5. 기타 영화 및 시청각 분야 지원	30,791	33,231	35,723
Action No. 6. 운영비	37,200	37,857	38,823
합계	673,021	706,575	723,960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 설치되었으며, 조성 재원¹²¹⁾은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5조 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구성됨
 - 기금의 용도¹²²⁾는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영화상영관 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 지원,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관련 사업 지원,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등으로 구성됨
 - 2018년 영화발전기금의 사업비 지출계획은 약 552억 8천만 원이며,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사업과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첨단영화 기술육성, 영화정책지원,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나누어짐. 이 중에서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지역영상 생태계기반마련)은 약 4억 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지출계획의 0.7%에 불과함
 -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영상문화 다양성·공공성 증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에, 향후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를 통해 국민의 영상문화 향유권 증진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영상문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120)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www.senat.fr.

121) 영화발전기금의 조성재원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근거로 함

122)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근거로 함

[표 5-3] 2018 영화발전기금 사업비

세부사업명 계	금 액	내 역
○영화제작지원	23,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개발지원 1,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마켓 운영(608), 기획개발지원(910) ○ 제작지원 6,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예술영화제작지원(5,460), 한국영화 적립식 지원(1,250) ○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2,038 ○ 디지털영화 허브 조성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화 개체 라이브러리 구축(200) ○ 영화현장응급의료지원 159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2,4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동제작기획개발지원(150), 중국필름비즈니스센터 운영(562), 국제공동제작영화 투자유치 행사(360), 국제공동제작영화 인센티브지원(810), 해외사무소 운영(537),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유치홍보(80) ○ 투자/출자사업 10,000
○영화유통지원	14,6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관 운영지원 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영화전용관(1,530), 독립영화전용관(1,100), 시네마테크전용관(420) ○ 저예산영화 개봉지원 680 ○ 디지털온라인시장 활성화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420), 영화 디지털온라인 시장 유통지원(1,560) ○ 해외진출지원 4,0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국제영화제 기반사업(410), 해외세일즈 지원사업(1,150), 해외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340), 온라인비즈니스센터(Kobiz) 운영(949))(2,849), 한국영화 해외상영 행사지원(1,000), 영화촬영지정보네트워크 구축(225) ○ 국내영화제 육성 630 ○ 독립영화제 개최지원 112 ○ 국제영화제 육성 4,080
○첨단영화 기술육성	4,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영상기술지원 1,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영화기술 발굴지원(349), 영화기술 표준화(474), 영상기사 자격검정 운영(100), 선진영상기술 도입확산(190), 영상제작시설 운영(425) ○ 첨단영화제작지원 1,8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영화기술 테스트베드 지원(510), 한국영화 특수장면 개발지원(600), 강소형기술기업프로젝트 육성지원(773) ○ 차세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835
○영화정책지원	9,5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정책개발 및 산업연구 6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연구(380), 기초조사(205), 출판 및 자료실 운영(108) ○ 공정경쟁환경조성사업 지원 571 ○ 부과금 미납 관리 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금 위탁수수료(698), 부과금 미납관리(140) ○ 유공영화인 지원 100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1,9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데미 운영(1,009), 교육과정 운영(936) ○ 현장영화인 전문성강화 교육 1,3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영화인 교육(1,297), 영화인 경력확인 사업(40) ○ 현장영화인 교육훈련 인센티브 737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1,091 ○ 문화소외계층 관람환경 개선 1,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관람환경 개선(857), 작은영화관 기획전 상영지원(488), 찾아가는영화관(360) ○ 우리이야기 영상제작 지원 1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나눔버스 운영(135) ○ 지역영상 생태계기반마련 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화 기획개발/제작지원(400)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2,344	○ 종합촬영소 관리운영 2,100 ○ 관람체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214 ○ 스튜디오 대여서비스 30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1,434	○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1,434 - 영화정보웹사이트 운영(386),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운영(1,048)

자료 : 영화진흥위원회(2018),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 사업 내용

- 지역영상문화는 단순히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영상문화 다양성의 밑거름이며, 이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확보 가능함.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와 관련한 지원 사업 및 지원금을 현행보다 확대 및 증액시킬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중 지원 카테고리별로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거나, 지역 영상문화 지원금의 증액이 필요함
 - 단, 예산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이 필요함
- 그리고 지원 받는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예시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예산의 운영비 지원과 인건비 책정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조례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기대효과

- 단계적인 예산 지원의 확대로 지역 내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음
- 대표 지역 영상문화 콘텐츠가 제작될 경우, 향후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또한 단계별 예산 지원을 통해 향후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영상문화의 다양성(창작기반, 독창성) 확보 및 영상문화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지역 영상문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음

(2)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진흥 계획 수립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의 확대 및 인력 확충 등의 사업은 단편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함
- 지속가능한 지역영상문화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현황 및 사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의 5개년 법정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서 각 지역별 계획수립 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체계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그림 5-4]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관련 내용



- [일본, 교육위원회 종합도서관 기본계획] 일본 교육위원회가 책정한 시 종합도서관 기본계획에 영상미디어센터가 포함되어, 도서관 내에 영화 필름 전용의 아카이브가 구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일본 내에 몇몇 필름 아카이브가 있지만, 도서관 내에 아카이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이 유일하며, 주요 역할로 도서관 내의 상영시설인 영상홀과 미니시어터에서 아시아영화, 고전명작, 후쿠오카국제영화제 상영작, 일본영화, 애니메이션, 기록영화, 실험영화, 후쿠오카시 관련 영상들을 수집하여 귀중한 영상문화재로 장기간 보존하여 후대에 계승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자료 : FUKUOKA CITY GUIDE 홈페이지. yokanavi.com/ko/feature/65542.

[그림 5-5] 후쿠오카 현립도서관 전경

■ 사업 내용

- 현시점에서 각 지자체별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은 지역의 여건상 어려운 상황이기예, 향후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중앙 정부단위의 계획 수립(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함
- 지역 내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계획수립 내용에서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되어야 함
-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배급 관련 인력 생산, 전문가 양성, 향유자(관객) 개발, 예산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장기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 기대효과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진흥 계획 수립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 영상문화 진흥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지역 내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수요들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영상생태계 조성 가능함

(3) 지역 영상문화 관련 제도 정비

■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12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영상문화 측면을 강화하여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의 진흥을 이루고자 함
- 그러나 지역별 영상문화 진흥 기반을 체계화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며,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기에, 기반시설의 현실과 요구를 고려한 현행 법제도의 정비 및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져야 함

■ 현황 및 사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상문화의 진흥을 포함하고 영화진흥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포함되도록 함(제1조 및 제3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추가(제14조)하고,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지원을 추가(제25조)’,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상문화 증진을 위하여 영화 제작을 직접 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38조 2제2항 신설)’의 내용이 개정됨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계획이 5년마다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향후 지역별



영상문화진흥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영상문화 진흥 방안 도출을 위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영상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등 단계적으로 5개년 법정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법률에서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향후 지역과 관련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의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증진의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5-4]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조 구성	내용
제1조(목적)	•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제2조(정의)	• 문화예술, 문화예술후원, 문화예술후원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본 법률의 근거 따름에 대한 내용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제6조(정관)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
제7조(인증의 취소)	•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과 관련 내용
제9조(조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 보고 및 서류제출 관련 내용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가능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인증)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관련 내용
제13조(인증의 취소)	•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취소 관련 내용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장,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위탁 내용
제15조(과태료)	• 과태료 관련 내용

■ 사업 내용

- 따라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지역별 영상문화 진흥을 체계화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영상문화 진흥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역 문화 증진과 관련된 문화예술 활동에 후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는 등 개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예술 관련 계획 수립 시 작성 지침에 지역영상문화 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지자체의 지원 조례 제정 등이 우선되어야 함
 - 예시로 각 지자체에서 「영상위원회 설치 및 근거 조례」 등 영상문화 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며, 현재 문제로 제기되는 사업비 항목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후 장비 개선 등의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기대효과

- 현재 상황에 맞는 지원책, 지침의 개정을 통해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문화생태계의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음



3) 자생력 강화 방안

(1) 재원 조달 방안 다양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주된 재원 조달이 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어서, 지속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이루어지기 힘들
-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운영의 안정과 지속성을 위해 재원 조달 방안을 민관이 함께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현황 및 사례

- [대구, 오오극장] 지역 영상문화 생태계의 자생력을 도모하는 오오극장의 운영은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를 취하며, 2014년 9월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설립예산 약 1억 2천만 원 중 5천만 원의 모금으로 설립 재원이 마련됨
 - 2015년 8월 대구경북영화영상협동조합이 그 운영 주체였고, 이후 2018년 초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예정이며, 현재 조합원은 제작자, 활동가, 관객, 시민사회 등 약 25명임
- [일본 니이카타현, 시네원도 시민영화관] 지역 단관 영화관의 재생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시네원도는 1985년 니이가타 현의 명화좌(구작 상영관) 라이프가 폐관한 후 재개관 운동이 일어나면서, 시민참가와 시민 출자 모금으로 만들어짐. 시민출자로 재개관하게 된 시네원도는 입장료 수입과 연회비로 운영되며, 회원 제도는 극장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음



[그림 5-6] 오오극장과 시네원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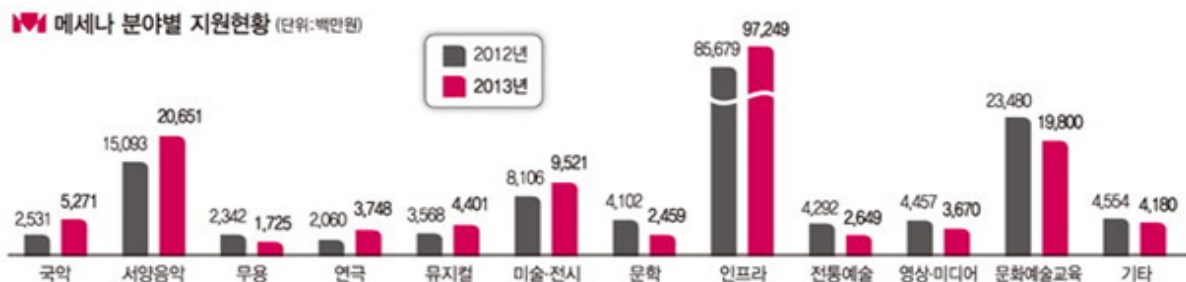
-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미디어센터, 시네마테크, 아카이브 센터, 문화 복지 실천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역 영상 문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의 다양한 재원 조달과 관련되어 있음
 - 전체 수입에서 공공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불과하며, 사업 수입, 스폰서 및 기부금 수입 등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여 공적 보조금의 삭감이 있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건전한 재원 구조를 형성함
 - 또한 일반 멤버십과 기부 성격의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기부에 따른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제공함

■ 사업 내용

- 다양한 재원 조달의 방안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뿐만 아니라 타부처 중앙정부 간 교류 및 지자체·기초지자체·민간·진흥원·교육청 등의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출자금 마련 및 사회적 기업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속적인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 및 기부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 멤버십 운영 등의 자금이 확보되어야 함



- 영상·미디어 분야에서도 기업의 메세나¹²³⁾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2013년을 기준으로 기업의 메세나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인프라(약 972억 원), 서양음악(약 206억 원), 문화예술교육(약 198억 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타 분야에 비해 영상·미디어(약 36억 원)에 대한 지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 영남일보 (2015.09.25). [문화로 행복한 대구·2부 문화와 산업의 융합] (4) 기업과 예술의 동행 ‘메세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925.010040723130001>에서 2018.06.08. 인출

[그림 5-7] 메세나 분야별 지원현황

- 실제 프랑스의 경우, 메세나법(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기업의 예술지원에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도입한 결과, 2002년 2억 유로(한화 약 2,622억 원)이던 예술기부금이 2008년 6억 2천만 유로(한화 약 8,127억 원)로 늘어난 바가 있음
-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 관련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위해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 중간 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 기대효과

- 재정적 안정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 관계자들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로 조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향후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자생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123) 메세나는 고대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문예보호에 크게 공헌한 마에케나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활동이나 지원자’란 의미의 프랑스어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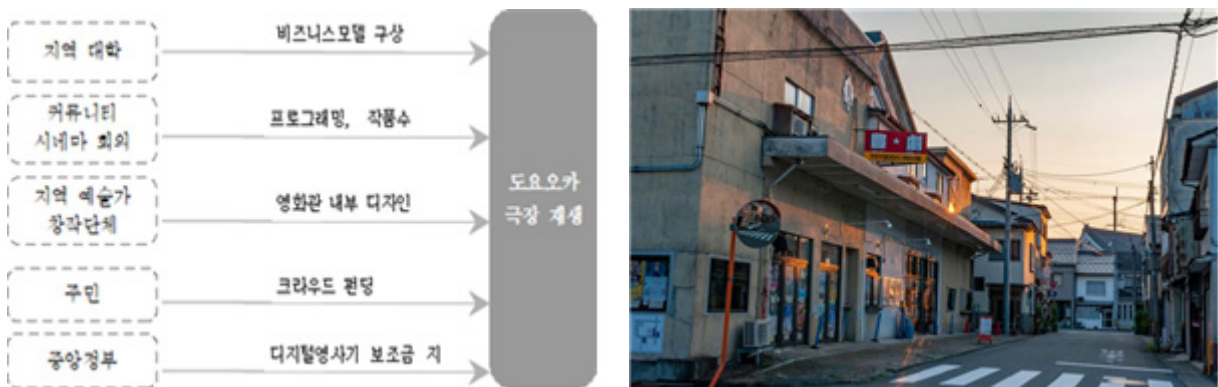
(2)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 기능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지자체별로 주민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기반시설(매개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요구되는 역할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각 지자체에 존재하는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의 수요에 맞추어 기능의 역할을 분배하거나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현황 및 사례

- [일본, 지역사회에 의한 극장 재생 도요오카 극장] 2012년 효고현 북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 내에 있는 도요오카 극장이 폐관하면서, 도요오카시는 극장 공백지역이 됨. 폐관 후 이시하라라는 영화 애호가에 의해 극장이 인수되었고, ‘도요게키 신생 프로젝트팀’이 결성됨
 - 이후 2013년 9월 ‘일본 커뮤니티시네마 회의’에서 극장 재생 프로젝트의 기획서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은 후 효고현립대학 경영학부 교수 및 학생들이 모여 지역 내에서의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고민하면서 프로젝트팀에 합류하여, 공간 설계를 함께 구상하는 지역사회 밀착형 재생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2014년에 도요오카 극장이 재개관하게 됨



자료 : 도요오카 극장 페이스북. www.facebook.com/toyogeki.

[그림 5-8] 지역사회에 의한 극장 재생 도요오카 극장



- [프랑스, CNC 2017~2019 협약] 2016년 CNC는 2017~2019 협약 틀을 준비하면서,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선정한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 특히 영화관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프랑스 전체 영화관의 50%를 차지하는 예술·독립영화관을 통해 지역민과 창작자, 작품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예술·독립영화관에서 문화 기획자들(행사를 기획하는 조직원)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데, 재원 조성의 CNC 25%, 지자체 50%, 극장주 25% 부담 원칙을 가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새 문화정책준비단, 지역문화분권 현장토론회 - 100인 집담회]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에 따른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위해 ‘지역문화분권 현장토론회’가 개최됨.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에 반영함
 - 현장토론회의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이며, 주관은 새 문화정책 준비단 다양성분과 및 원주문화재단으로, ‘사람이 있는 문화, 지역이 시작이다 - 100인 집담회’가 개최됨
 - 현장토론회의 참석 대상은 지역문화지역문화재단(광역, 기초), 한국 문화원연합회, (사)한국문화의집 협회, (재)지역문화진흥원, 한국예총, 민예총 및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관광, 체육인, 언론사 등이 100여명 참석하였으며, 10개의 라운드 테이블마다 개인별 정책 제안 및 라운드 토론 통해 각 5개 제안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 및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됨



자료 : 동해시 SNS 서포터즈, blog.naver.com/tbntv/221219017781.

[그림 5-9] 새 문화정책준비단, 지역문화분권 현장토론회

■ 사업 내용

- 중앙 정부에서 먼저 현재 운영하는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에 대한 조사로, 수요 파악(니즈 조사)이 필요함
 - 또한 중앙 정부에서는 전국 지역 영상문화의 기반시설(매개조직) 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 조직 및 운영이 필요함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의 진단을 통해 기능과 역할이 현재 존재하는 기반시설의 수요와 부합하는지 점검한 후, 중간지원조직의 중복 기능을 최대한 배제하고 기능과 역할을 분배, 재편, 신설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대한 예시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이 없는 경우 관련법(예: 영비법 28조4 제 3항)에 근거하여 영상위원회 등 조직 신설 조례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 특히 해외에서는 지역의 거점공간인 영화관을 활용해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의 영상문화 관련 예술·독립영화관, 시네마테크, 작은영화관 등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 또한 지역 내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예: 도서관)을 활용한 영상 및 영화 아카이빙 구축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주민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목표로 운영되는 다양한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영상문화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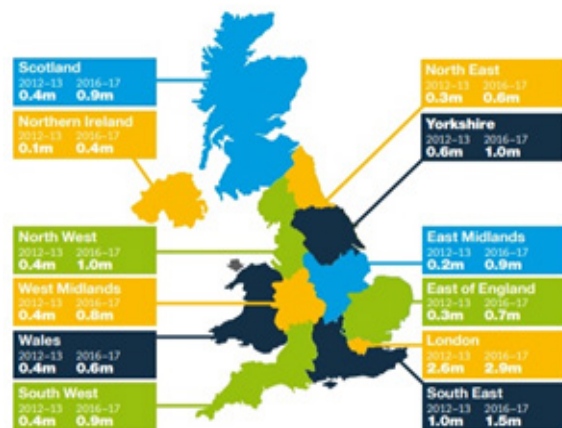
(3)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맞춤형 향유자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향유자는 지역영상문화 생산의 원동력이며, 핵심 기반이기에 해외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정책은 향유자(관객)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지역영상문화 향유층이 매우 얇은 관계로, 영상문화를 지탱하기 위한 향유자의 개발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며, 따라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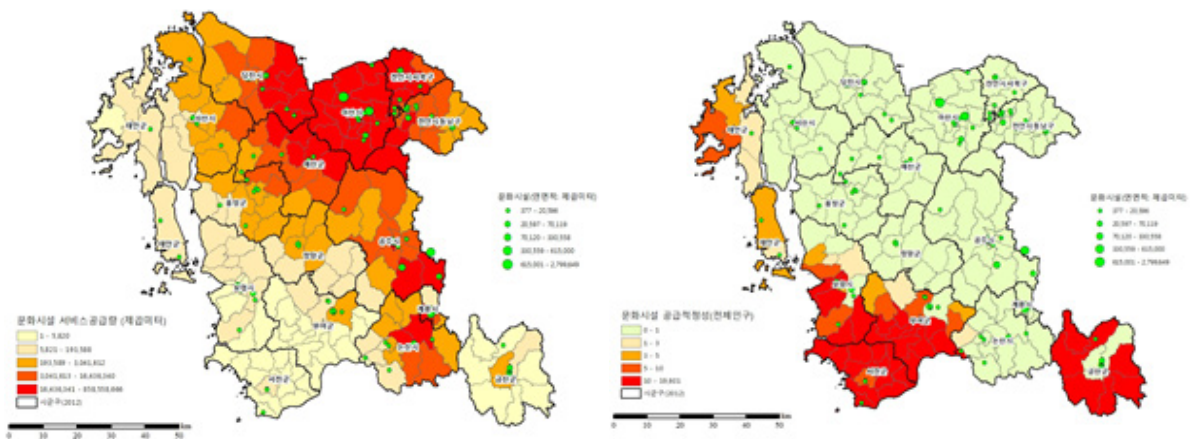
■ 현황 및 사례

- [영국, 인투 필름 & Film Audience Network] 영국 BFI 2022는 BFI 2012~2017년 계획이었던 ‘Film Forever(이하 필름 포에버)’의 성공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모색되었으며, 필름 포에버는 현재 거의 만 여개 학교에 활동 중인 필름 클럽을 가진 인투 필름의 정착을 이끌어냄
 - 2012년 시작된 Film Audience Network(이하 FAN)는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며,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영국 및 해외영화를 관람하고 비평할 수 있는 관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됨. BFI는 BFI FAN 2017~2022를 통해 FAN에 유용한 의사결정 능력 및 종합적 자원을 육성하여, FAN의 리더십을 강화할 목적으로, 영국 전체를 포괄하는 필름 허브 8개를 만들어 이들 필름 허브가 FAN의 목표 및 BFI2022 전략과제를 수행하게 함



[그림 5-10] BFI FAN 상영회와 필름클럽 수 및 학생 증가율(2012~2017년)

- [생활인프라 GIS 공간분석 및 향유자 인식조사 연구]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지침」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시설과 관련된 정책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GIS 공간분석을 활용함. 또한 이와 함께 도민 설문조사를 통해 생활 인프라(문화시설 포함)별 접근시간, 접근방법, 이용 빈도 등을 조사하고, 생활 인프라 이용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향후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조사함
- 향후 지자체별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접근시간, 접근방법, 이용 빈도 조사 및 GIS 공간분석과 향유자 인식 조사 등의 연구를 실시한다면, 지자체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지역민들의 영상문화 향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자료 : 오용준 외(2016),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그림 5-11] 충남문화시설의 입지분포, 서비스 공급량 추정결과, 공급적정성지수 평균값 분포

■ 사업 내용

- 우리나라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향유자(관객) 개발은 단계적, 장기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또한 다양한 향유자 개발의 대상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향유자(관객)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지역 영상문화기반시설 내 수행중인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공통 창구를 마련할 수 있음
- 예들 들어, 지역 예술·독립영화관 및 시네마테크의 재원 문제로 자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어려운 여건일 경우,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지역민들의 참여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

-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향유자(관객) 개발을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함. 이에 대한 예시로 지속적인 영상문화의 향유자가 구축되기 위해서 학교교육과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에서 진행되는 생애주기별 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¹²⁴⁾)을 활용하여, 지역 내 맞춤형 영상문화 향유자의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향후 지속적인 향유자(매니아층)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인구통계학적 분석, GIS 분석 등을 통한 지역의 향유층 분석, 만족도 조사,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본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 영상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지속적인 향유층이 확보 가능할 것임
- 또한 향유자의 니즈를 바탕으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화·영상 관련 제작 및 워크숍 과정을 다양하게 기획해야 함

■ 기대효과

- 주민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목표로 운영되는 다양한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매개조직)의 기능 강화를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영상문화 생태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124)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학교문화예술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점차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됨(정지은, 2016).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지역 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4) 협력 강화 방안

(1) 지역별 영상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해외에서는 지역문화 증진을 위한 중앙정부 부처 간 협약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 모델 개발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짐
- 따라서 지역 영상문화 증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영상문화 기반시설 등의 다양한 문화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현재 영상문화 관련 거버넌스 체계는 미흡하며, 각 주체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 현황 및 사례

- [프랑스, CNC 및 지자체간 협업 모델] 프랑스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의 영화진흥기구인 프랑스국립영화센터(이하 CNC)와 문화커뮤니케이션부의 지역분원인 DRAC, 그리고 지자체 등 3개의 행정 체계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이루고 있음
 - 1989년 시작된 CNC와 지자체간 협약 정책은 3년 단위로 갱신되며,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협조를 통해 영화 시청각 분야를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함. 2014~2016년 협약주기에는 40개 지자체와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차원(CNC+DRAC)의 예산 지원 변화는 1,010만 유로에서 3,090만 유로로 206% 상승함
- [일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1990년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실행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06년에는 야마가타시로부터 독립하여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법인화된 영화제 조직이 영화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으며, 다큐멘터리 필름 라이브러리의 구축이나 공공상영 지원 운동은 영상문화 활동으로서 다큐멘터리 관객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제를 활용하여, 지역 내 필름 라이브러리와 향토 영상 발굴 등의 영상문화 자원 보존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캐나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 북미 지역 대표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 상영 이외에도 시네마테크 프로그램, 청소년·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캠프,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상 아카이브 보존 프로그램, 지역 사회의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프로그램, 청소년 영화제 및 청소년 프로그래머 제도 운영 등 토론토 및 주변 인근 지역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영상 문화 진흥의 주체가 되고 있음



[그림 5-12] 토론토 국제영화제의 프로그램

■ 사업 내용

-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부처 간 협업 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향유자 개발의 가장 주요한 분야로 꼽힌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두터운 협업 관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역문화 증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Top-Down 방식의 체계에서 탈피하여, 수평적 방식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지자체 차원에서 권역별 지역 영상문화 유관 단체 간 협력 관계 구축, 미디어센터 혹은 영화관(작은영화관, 시네마테크 및 예술·독립영화관) 등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한 공간 내 영상문화 유관 기관들이 존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이들이 스스로 협력하여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함
- 나아가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 인근 대학, 타 기반시설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 지역 영화제의 행사 진행 및 프로그램 내 지역 주민과 지역단체 참여의 장과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영화제 출품을 위한 지역 단체의 영상제작비 지원과 교육과정이 병행된다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으며, ‘지역 영화’의 발굴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역 내 필름 라이브러리와 향토 영상 발굴 등 지역의 영상문화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영화제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 기대효과

- 공통 공간 내 영상문화 유관 단체가 있을 경우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협업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음
- 이를 통한 지역 맞춤형 영상문화 증진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음
- 지역의 다양한 영화제의 확산을 통해 지역 내 영상문화 작품 활동 촉진 및 주민들의 관심과 인식 제고가 가능함



(2) 지자체 단위 사업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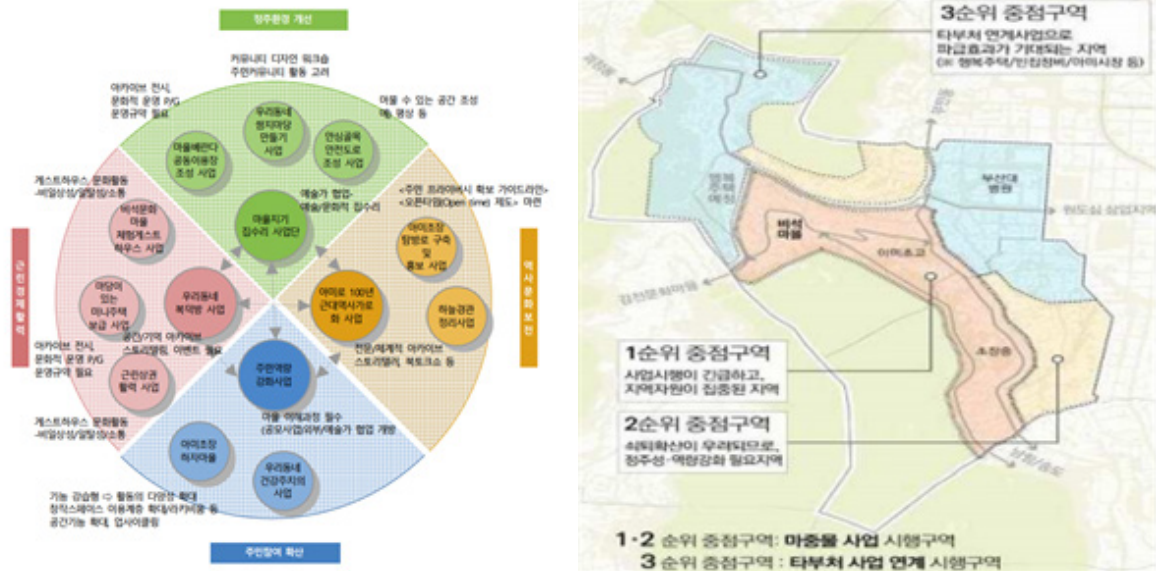
- 현재의 지역영상문화 지원 사업 및 지원금으로 영상문화 진흥을 꾀하기에는 한계점들이 존재함
- 중앙부처의 경우 각각의 지원 사업 및 예산의 칸막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경우 타 부처 사업의 예산과 계획을 활용하여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

■ 현황 및 사례

- [프랑스, CNC와 지자체 1:2 매칭 사업] 프랑스는 예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영상문화 실현 정책이 지자체에서 강력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협약 정책을 통해 CNC 1유로 투여시, 지자체 2유로 연계 정책을 장려하고 있음
 - 파리시는 2006년 CNC와 일드 프랑스 DRAC와의 협약 내에서 단편 영화 지원 기금을 창설하였고, 1:2 매칭 정책을 따름. 파리시는 매년 심사위원회가 15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 당 2만 유로(한화 약 2,624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니프랑스(UniFrance)와 함께 제작지원작의 해외영화제 진출을 지원함. 1년 총 예산으로 28만 유로(한화 약 3억 6,736만 원)를 지원함
- [2018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내 문화영향평가]¹²⁵⁾ 2018년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2017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개 중 중심시가지형 18개 사업을 선정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함
 -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이 물리적 개발 방식에서 나아가, 주민 공동체 형성 및 문화유산의 연계, 수요자 중심 공간 계획 등 문화적 관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됨

125) 2018년 3차년도로 진행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 해당되는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영향평가의 컨설팅 내용 속에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공간 임대, 영화관 정비 등과 연계하는 사업들을 포함할 수 있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코뮤니타스(2017),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그림 5-13]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 사업 내용

- 중앙정부의 지역 영상문화 관련 기금과 지자체의 예산을 매칭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영상문화 관련 사업들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현 지자체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예산 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거나, 지자체와 작은영화관 협약 계약 시 작은영화관의 수익금을 다시 지자체에 환원하지 않고, 운영에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향후 각 지역의 영상문화 기반시설이 지속가능한 재원 조성 구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현 정부의 도시계획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유휴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 영상문화 기반시설의 공간 임대, 영화관 정비, 구도심을 활용한 영상제작 공간 확충의 사업 등을 연계하여 도모할 수 있음
-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타 부처 사업을 활용하여 인적, 공간적 영상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지역 영상문화 관련 자원 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집행 예산에 대한 업무적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음
- 또한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주체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

(3) 인근 지역자원과 연계방안 수립 및 인력 양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영상문화 진흥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인적 포함)과 연계, 협력의 틀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음. 대부분 지역영상문화 관련 기반시설의 경우 지역 내 잠재된 인적자원과 지역 자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난과 더불어 대표 콘텐츠 발굴의 한계를 겪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자원과 연계 및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현황 및 사례

- [캐나다, NFB의 원주민 영화제작 및 상영] 캐나다 국립영상위원회(이하 NFB)에서 1967년부터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 for Change)’프로젝트를 실시함. 이 프로젝트는 오늘날 캐나다 전역의 NFB 스튜디오에서 원주민 감독이 진행하는 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4년 동안 NFB 전체 제작비 지출 중 원주민 제작에 대해 9.5% 책정함
 - 2017년 ‘원주민 영화 3개년 액션 플랜’을 발표하였고, 3년 내에 NFB 전체 제작비 지출 중 원주민 제작 비중을 15%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캐나다, 포고섬 프로젝트] 1960년대 중반, 캐나다 정부는 뉴펀들랜드 인근의 작은 섬들의 주민에게 자신의 커뮤니티를 버리고 뉴펀들랜드로 강제 이주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뉴펀들랜드 메모리얼 대학의 사회교육 부서가 NFB를 초청하여

뉴펀들랜드 동북쪽 연안에 있는 작은 섬 포고를 방문하여 섬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영화를 찍기로 결정함

- NFB에 소속된 영화 제작자 콜린 로는 1967년 포고 섬 주민에 대한 27편의 영화를 제작했고, 영화는 어업부터 복지, 협동조합 등의 면을 담아 약 35회 상영하여, 주민들이 영화를 관람하며 향후 이슈화가 됨. 이후 2010년, NFB는 쇼어패스트 재단, 포고섬 예술위원회와 함께 포고섬에 e-시네마를 개관하는 성과를 거둠



[그림 5-14] NFB의 원주민 영화제작 사례 및 포고섬 e시네마 전경

■ 사업 내용

- 해외에서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지역 내 스토리를 발굴하고, 대표문화콘텐츠로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의 영상문화 관련 스토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의 타 예술 장르·역사·문화·어업·농업·유산 등의 스토리를 발굴하여 문화유산화 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주변 권역과 연계하여 부족한 지역 내 영상문화 기반시설 및 타 자원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지역의 문화재단, 진흥원, 문화원(영상 관련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등 다양한 문화기반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함



- 지역 내 영화 및 영상 관련 대학 및 학과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인근 지역 내 영상문화 기반시설과 대학교 간 학점제 교류, 봉사활동점수 등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지역 내 인력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한 재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가 가능할 것임

■ 기대효과

- 지역의 잠재된 인적자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통해 인력난 해결 및 시장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주변 권역과 연계되어 부족한 지역 영상문화의 자원이 해결될 수 있으며, 지역 영상문화 진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고정민(2008),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전략』, 삼성경제연구소.
- 곽태형(2006), 『한국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위원회의 역할연구 : 청풍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성근·오재환(2011),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김영기·김선영(2013), 『지역극장 현황과 지원방안』, 영화진흥위원회.
- 김미경(2015), 융합미디어 시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MBC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평가를 중심으로,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10(1), 164-186.
- 김미현·김난숙·송규봉·김현수·류형진(2004),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영화진흥위원회.
- 김석중·김경남 외(2017),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 강원발전연구원.
- 김태훈(2017), 『지역공동체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 노시훈(2007), 호남학 정립과 문화관광에의 활용을 위한 호남학 시청각 아카이브 구축 시론, 인문콘텐츠, 10호, 305-321.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 미디어트(2010), 『캐나다 공동체 미디어의 현황과 이슈』, ACT 70호.
- 영화진흥위원회(2011), 『일본의 대표적인 영화제 운영 실태』, 영화진흥위원회 해외통신원 리포트.
- 영화진흥위원회(2016), 『한국영화 진흥 종합계획(2016~2018)』.
- 영화진흥위원회(2018),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운용계획』.
- 영화진흥위원회(2018), 『예술영화관 산책』.
- 오용준·임준홍·임형빈·김형철(2016), 『충청남도 생활인프라 구축실태 및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 우석봉·박상필(2012), 『영상클러스터 조성 및 융·복합화 방안 연구』, 부산발전연구원.
- 원승환 외(2012), 『독립영화 정책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정인선(2014), 공공상영 운동, 여전한 화두, 한국영화, 56, 18-19.
- 정인선·박혜영·송수연·강민구(2007), 『다양성영화의 지역 상영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영상산업정책연구소.
- 정지은·이인배·서재승(2016), 『충남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 문화시반시설과 문화재단의 활용을 중심으로』, 충남연구원.
- 정지은·정인선(2017), 『충남 영상문화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
- 정진욱·김영현·안충범·배소현·이재승(2015), 『2014 영상위원회 사업 백서』, 한국영상위원회.



-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2017), 『주재국 문화행정 조직 및 정책현황 조사』.
- 채지영(2017), 『작은영화관 성과평가 기본구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상희(2017), 『BFI의 영화교육 프로그램 - BFI 사우스뱅크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영상자료원.
- 충남연구원 (2017), 『충남의 영상 문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세미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코뮤니타스(2017), 『2017년 내일을 꿈꾸는 비석문화마을-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문화영향평가 연구』.
- 허경·윤혜숙·박민욱·오혜리(2013), 『지역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은영화관 및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홍교훈·염신규·배용찬·원환섭 외(2016), 『지자체별 영상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국외 문헌

- BFI(2012), 『BFI Film Forever:Supporting UK Film』.
- BFI(2016), 『BFI 2022 Supporting UK Film(BFI Plan 2017-2022)』.
- BFI(2016), 『BFI Film Audience Network 2017-2022 An Overview』.
- BFI(2016), 『BFI Group and Lottery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5-2016』.
- BFI(2017), 『BFI Group and Lottery Annual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6-2017』.
- BFI(2018), 『BFI MEASURES OF SUCCESS :How well did we do?』.
- Bill Nemtin and Colin Low, 『Fogo Island Film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NFB.
- Carole Ray(2016), 『Documentary Film Festivals: Transformative Learning』, Community Building &Solidarity, Sense Publishers; Rotterdam.
- Community Knowledge Centre Toronto Foundation(2015),『Financial Statements of TORONTO INTERNATIONALFILM FESTIVAL』, INC.
- Creative Scotland, 『Creative Scotland Annual Plan 2017-2022』.
-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2014), 『Triennial Review of the Bristish Film Institute』.
- Film CYMRUWALES, 『Ffilm CYMRUWALES Business Plan April 2015-March 2018』.
- Fondation de France(2018). 『PANORAMA NATIONAL DES GENEROSITES - SYNTHESE』.
- Ministère de la Culture(2017), 『Projet de loi de finances 2018』.
- NFB(2017), 『INDIGENOUS FILMMAKING AT THE NFB: AN OVERVIEW』.
- NFB(2017),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2017-18 Departmental plan』.
- NFB(2017), 『NFB announces three-year plan to redefine its relationship with Indigenous peoples』.
- TCI Management consultant(2010),『Economic Activity Associated with the 2008-2009 Operations of TIFF』.

奥田瑛二(2010), 『ミニシアター映画館のつくり方』, AC books.

文化庁(2015), 文化芸術の振興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文化芸術資源で未来をつくる－(第4次基本方針)(平成27年5月22日閣議決定).

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センター(2014), 『日本コミュニティシネマ会議 자료집』.

■ 보도 자료

강원도민일보 (2017.03.27). 독립예술극장 '신영' 재개관.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5674>에서 2018.06.08. 인출

경남신문 (2015.11.23). [해외기획취재] 경남에 독립·예술영화를! (4) 지역의 독립영화관- 대구 오오극장.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4656>에서 2018.06.08. 인출

경향신문 (2015.12.13). 문화이주 '봄'제주에서 예술인으로 얼마나 벌까...월평균 125만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31603111&code=620117에서 2018.06.08. 인출

광주드림 (2017.11.08).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시청자주간행사 '미디어별곡'.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7&code_M=2&mode=view&uid=483722에서 2018.06.08. 인출

무비톡 (2017.07.12). 제18회 대구단편영화제 오는 8월 9일 개최!.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73>에서 2018.06.08. 인출

영남일보 (2015.09.25). [문화로 행복한 대구-2부 문화와 산업의 융합] (4) 기업과 예술의 동행 '메세나'.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50925.010040723130001>에서 2018.06.08. 인출

전민일보 (2015.06.12). 찾아가는 영화관, 2015 '웅기종기 마실극장'상영처 모집.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845674>에서 2018.06.08. 인출

전북일보 (2017.11.16). [시민영화프로그램을 만나다] "다양한 취향 가진 관객들 최대한 만족시켜야죠".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2477>에서 2018.06.08. 인출

제주일보 (2018.02.25). 영상위 통폐합 논란 콘진원, 드디어 첫 발.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78038>에서 2018.06.08. 인출

제주투데이 (2017.12.31). [포커스] 제주영상위원회 해산과 새로운 진흥원 설립, 남은 과제는?.

<http://www.ijeju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84>에서 2018.06.08. 인출

중도일보 (2017.04.10). [편집국에서] 대전 문화계의 '팔길이 원칙'은 존재하는가.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04102970>에서 2018.06.08. 인출

중도일보 (2018.06.12). 대전아트시네마, 독립영화관 넘어 영화공간 꿈꾼다.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612010004425>에서 2018.06.08. 인출

중도일보 (2018.02.20). 서천기벌포영화관 개관 2년만에 관객 8만명 돌파.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0220010007884>에서 2018.06.08. 인출



AL (2017.04.12). Nyssen défend le budget de la Culture pour 2018 devant le Sénat.

<https://www.actualitte.com/article/monde-edition/nyssen-defend-le-budget-de-la-culture-pour-2018-devant-le-senat/86158>에서 2018.06.08. 인출

SBS fun E (2015.07.10). “밤바다, 영화, 낭만” 제1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초청작 24편 발표.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155515>에서 2018.06.08. 인출

Ministère de la Culture (2014.10.16.), Tour Utrillo un projet réoriente en faveur des jeunes créateurs에서 2018.06.08. 인출

Ministère de la Culture (2015.02.11.), Fleur Pellerin nomme Olivier Meneux à la direction du projet de résidence artistique à Clichy Montfermeil에서 2018.06.08. 인출

■ 인터넷 사이트

강원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gwfilm.kr.

김해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media.gasc.or.kr.

나라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 nara-iff.jp.

나의 첫 번째 영화제 홈페이지. quefaire.paris.fr/monpremierfestival.

니이가타 시민영화관 시네윈드 홈페이지. www.cinewind.com.

대전독립영화제 홈페이지. www.difv.co.kr.

도요오카 극장 페이스북. www.facebook.com/toyogeki.

도요오카 극장 홈페이지. toyogeki.jp.

동해시 SNS 서포터즈. blog.naver.com/tbntv/221219017781.

모퉁이극장 홈페이지. blog.naver.com/cornertheate.

문화청 홈페이지. www.bunka.go.jp.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

부산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indipusan.or.kr.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홈페이지. www.bifan.kr.

서울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media-center.or.kr/seoul/main.do.

시네라 홈페이지. www.cinela.com.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홈페이지. www.yidff.jp.

영국영화협회(BFI) 홈페이지. www.bfi.org.uk.

영국정부 홈페이지. www.gov.uk.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bis.or.kr.

웨일스 필름 에이전시 홈페이지. www.ffilmcymruwales.com.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홈페이지. yubarifanta.com.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www.ifc.or.kr.

인투필름 홈페이지 www.intofilm.org
 전북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 www.jifa.or.kr.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jiff.or.kr.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www.0simi.org/Main.do.
 천안시 공식블로그. blog.naver.com/fastcheonan/221009565401.
 추억극장 미림 홈페이지. www.milimcine.com.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www.cni.re.kr/community/researcher-events/?mod=document&uid=5508.
 캐나다 영상위원회(NFB) 홈페이지. www.nfb.ca.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 홈페이지. www.creativescotland.com.
 파리지 홈페이지. www.paris.fr.
 포럼 데 이마주 홈페이지. www.forumdesimages.fr.
 포항문화재단(독립영화전용관) 홈페이지. www.phcf.or.kr/kr/sub.do?MENU_SEQ=10253&PAGE_SEQ=10273&LANG=ko_KR.
 프랑스 교육부 홈페이지. www.education.gouv.fr.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홈페이지. www.cnc.fr.
 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www.culture.gouv.fr.
 프랑스 상원 홈페이지. www.senat.fr.
 텔레필름 캐나다 홈페이지. telefilm.ca/en.
 토론토 국제 영화제 홈페이지. www.tiff.net.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서울아트시네마 홈페이지. www.cinematheque.seoul.kr.
 후쿠오카 현립 도서관 홈페이지. toshokan.city.fukuoka.lg.jp.
 BFI 홈페이지. www.bfi.org.uk.
 FUKUOKA CITY GUIDE 홈페이지. yokanavi.com/ko/feature/65542.
 NAVER 영화 홈페이지. movie.naver.com.

참여 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충남연구원

연구책임

정 지 은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진

박 철 희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 운 성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오 용 준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제 이 충남연구원 연구원

최 돈 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최 웅 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서 수 민 한국영상위원회 팀장

정 인 선 동경대학교 박사

자문위원

전임자문위원

변 재 란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 현 수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김 혜 준 무한상상플러스 대표

김 성 욱 서울아트시네마 수석 프로그래머

원 승 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부관장

윤 소 민 성균관대학교 예술학협동과정

최 성 은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장

허 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

연구지원

임 성 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최 성 훈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최 정 은 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주무관

지역 영상문화 진흥 방안 연구

2018년 6월

ISBN 979-11-6357-029-5 93300

가 격 비매품/무료

인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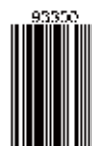
디자인화랑 (T. 042-625-5310)

이 책에 실린 내용의 저작권은 해당 기관 및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 복제 및 사용을 엄격히 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비매품/무료



9 791163 570295
ISBN 979-11-6357-029-5